



2000年 第15輯

麟蹄文化



2000年 第15輯

麟蹄文化



麟蹄文化院

❖ 지역문화선언 ❖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의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향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 전문가 일동

發刊辭

향토문화지 15집을 펴내면서...



인제문화원
원장 방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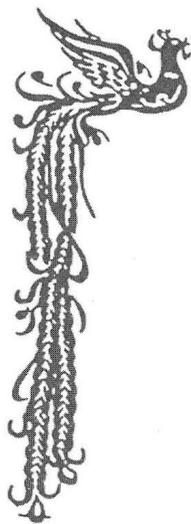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병신(丙申)년과 함께 새천년이었던 200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지역의 문화인들이 정성을 모아 인제문화제15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인제문화는 고귀한 우리문화의 전승계도를 통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다듬게 하였고 군민들에게 용기와 꿈을 불러 일으켰던 향토지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역사의 위대함은 그 문화에 바탕이 되었고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문화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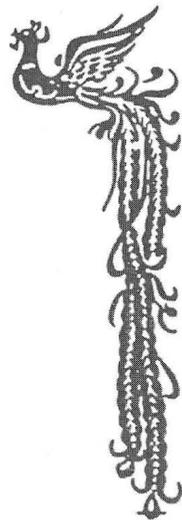
문화는 공기나 물처럼 우리들 삶의 기본요소이며 정신의 삶을 선택하게 합니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며 다양화된 사회의 모든 분야를 발전할 수 있으며 건강한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제문화지는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는 구심적인 자료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채워주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옥고를 보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祝



續 刊

내린문학동인회장

내설악사진동우회장

인제미술인회장

내설악수석회장

향토민속보존회장

인제서예인회장

인제꽃꽂이회장

인제무늬사랑회장

인제컬트인회장

손 흥 기

민 종 식

최 용 건

김 명 수

박 해 순

서 성 호

최 은 희

김 종 희

이 명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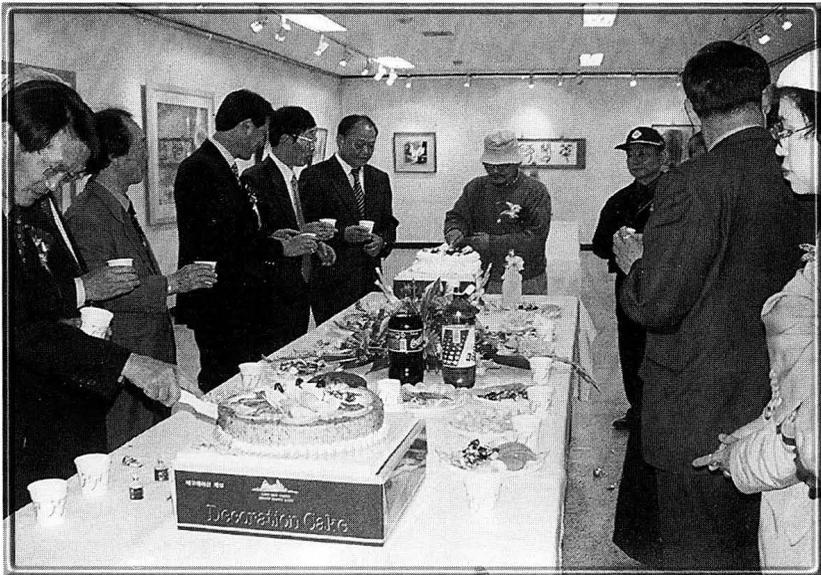
2000

문화사업화보





제 5, 6대 문화원장 이·취임식(2000. 5. 6)



제10회 인제 미술인 회원전(2000. 5. 5~5. 7)



인제 주부서예 임서전 (2000. 6. 30~7. 2)



전통 종합 예술단 초청 공연 (2000. 7. 1)



문화 유적지 순례(2000. 7. 26~7. 28)



찾아가는 미술관전과 인제 미술인 회원전(2000. 9. 16~9. 22)



벤처 국악인 김준호, 손심심 부부 초청 공연(2000. 10. 14)



설악 엔젤스 초청 연주회(2000.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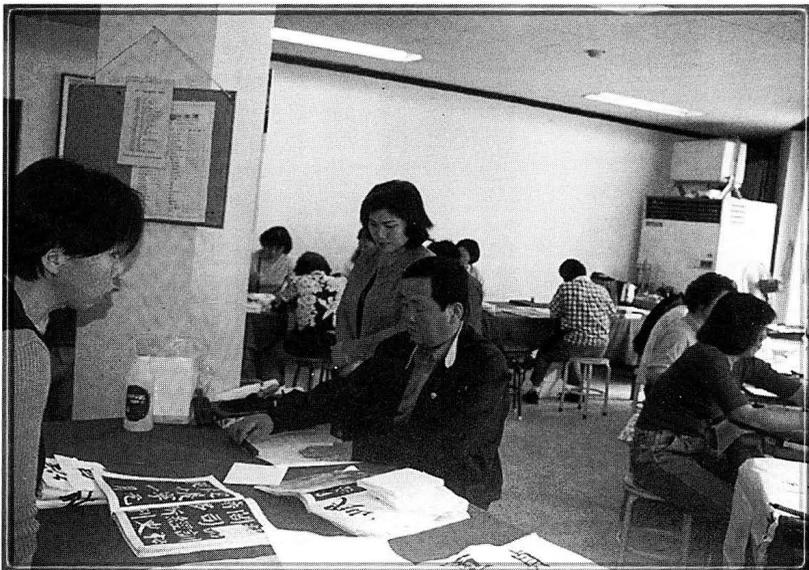
작가 고상순 시인과의 독서 생활화 만남(2000.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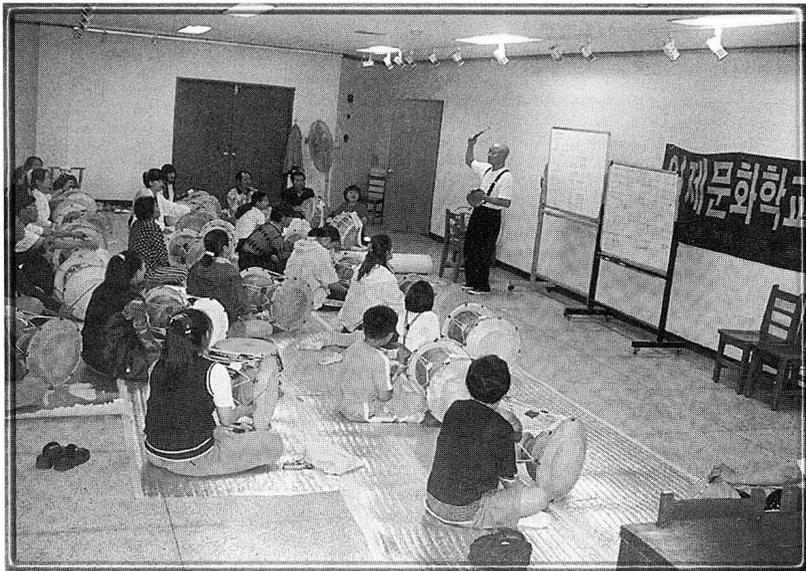
크리스마스 특강(2000.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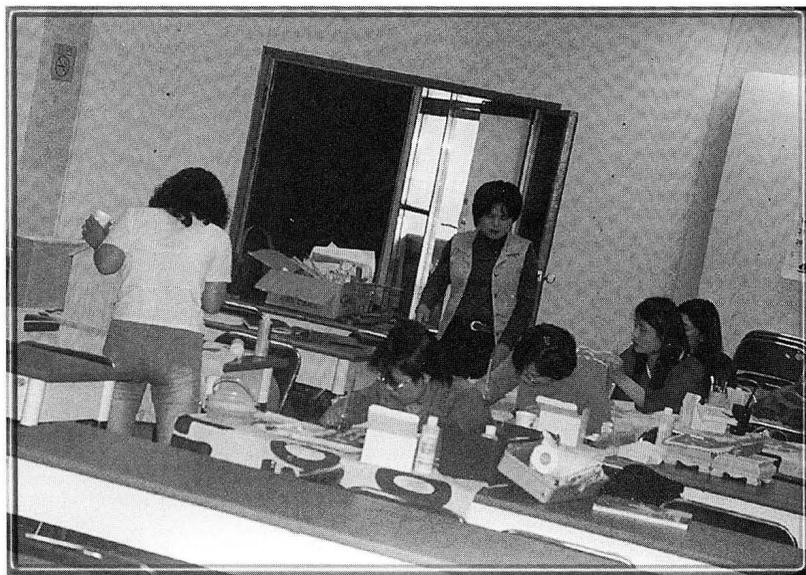
지역 현장 선진 생활 문화 강연회(2000.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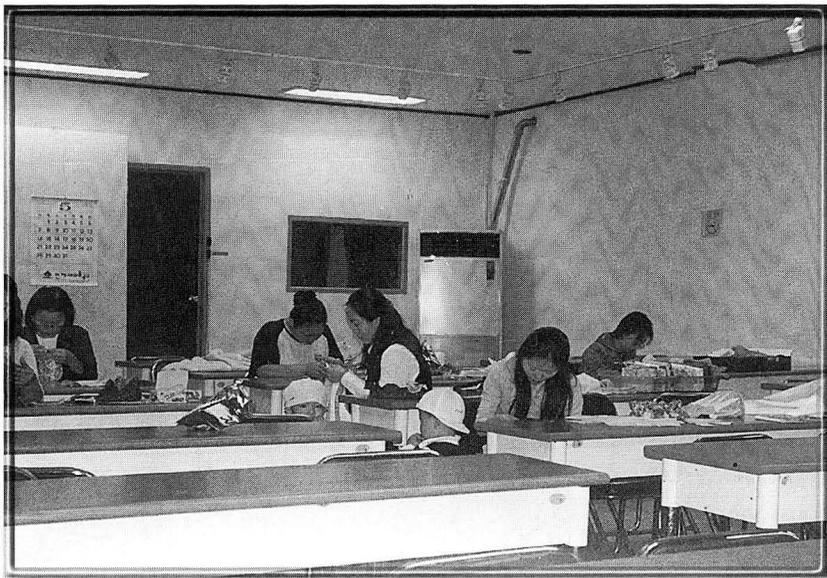
인제 문화 학교 서예 강좌(2000. 1. 1~12. 30)



인제 문화 학교 풍물 강좌(2000. 1. 1~12. 30)



인제 문화 학교 스텐실 강좌(2000. 4. 1~6. 30)



인제 문화 학교 퀼트 강좌(2000. 4. 1~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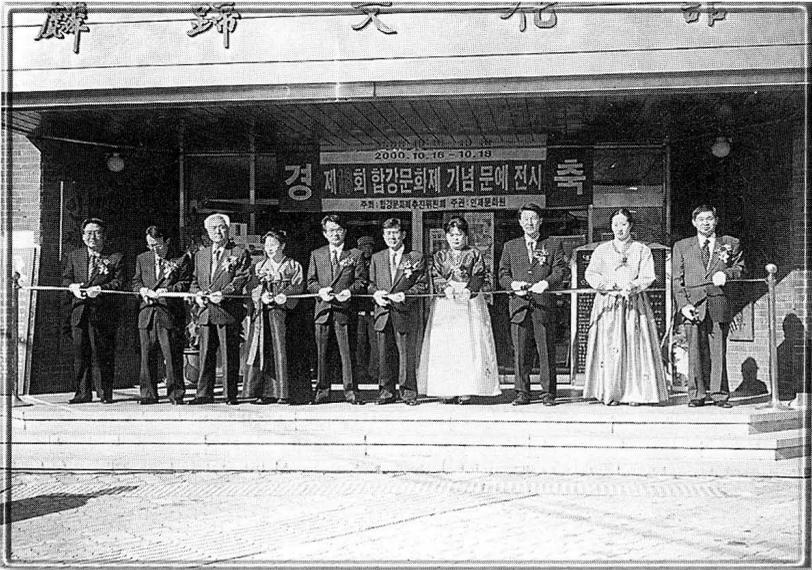
인제 문화 학교 전통 의례 강좌(2000. 4. 1~6. 30)



인제 문화 학교 플룻 강좌(2000. 7. 1~12. 30)



인제 문화 학교 바이올린 강좌(2000. 7. 1~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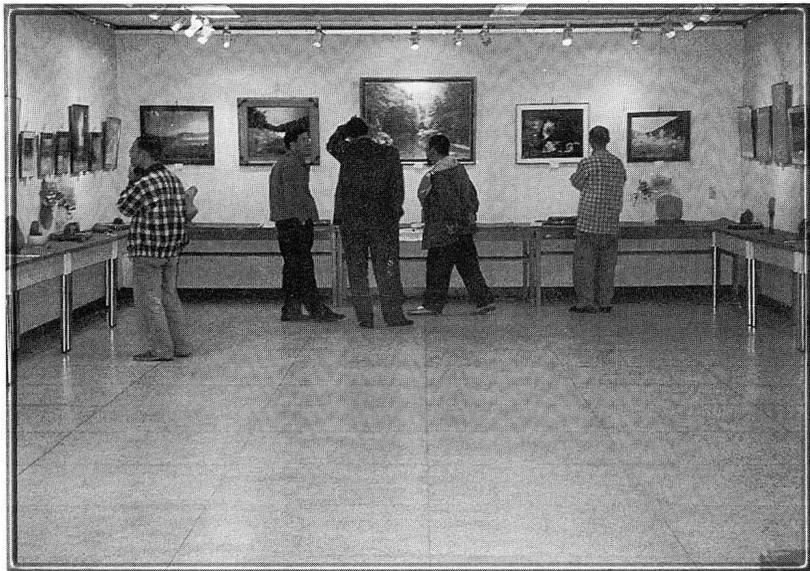
제18회 합강문화제 문예 전시 오픈식 (2000.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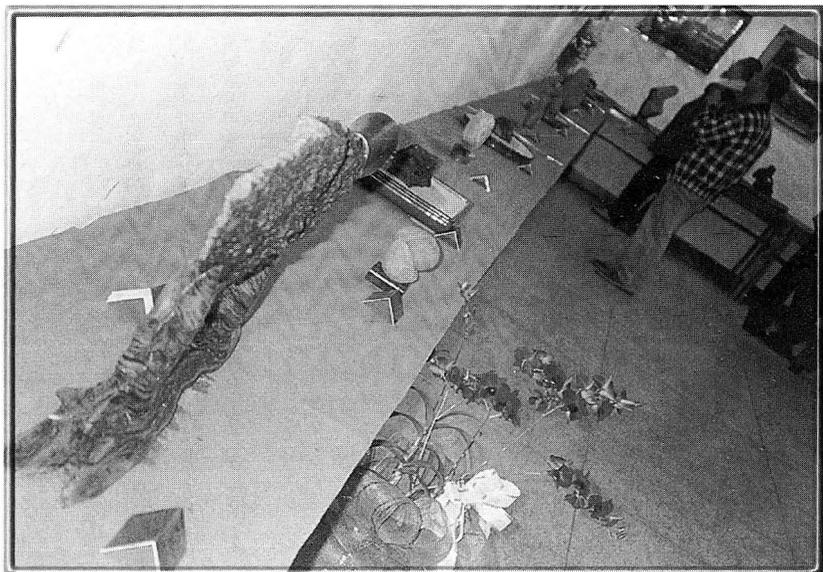
제18회 합강문화제 인제 미술인 회원전 (2000. 10. 16~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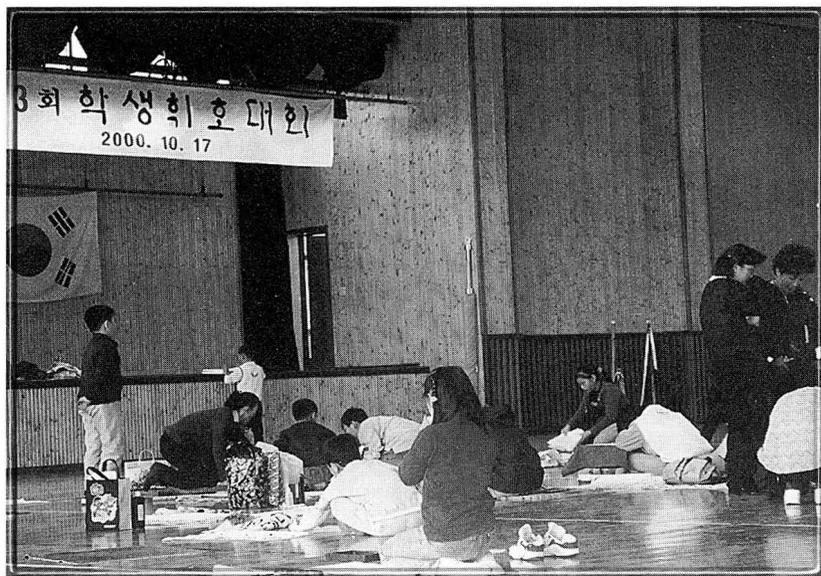
제18회 합강문화제 공예품전 (2000. 10. 16~10. 18)



제18회 합강문화제 사진전 (2000. 10. 16~10. 18)



제18회 합강문화제 수석전 (2000. 10. 16~10. 18)



제18회 합강문화제 학생 회호 대회 (2000. 10. 17)



제18회 합강문화제 우리꽃, 분재 전시(2000. 10. 16~10. 18)



제18회 합강문화제 스텐실 전시(2000. 10. 16~10. 18)



제18회 합강문화제 꽃꽂이 회원전 (2000. 10. 16~10. 18)



제18회 합강문화제 퀼트 전시회 (2000. 10. 16~10. 18)



제18회 합강문화제 백일장(2000. 10. 17)



제18회 합강문화제 사생 실기 대회(2000. 10. 17)

목 차

- 발간사 ■ 방 효 정/3
2000 문화사업화보 ■ 문 화 원/5

향 토 사

- 망대세우기의 전승형태와 민속문화적 성격 ■ 윤 형 준, 권 태 훈/27
麟蹄를 本貫으로 하는 姓氏 考察 ■ 최 병 헌/42
운학(雲鶴)선생 이야기 ■ 최 병 헌/58
麟蹄郡의 沿革 考察 ■ 최 병 헌/76
우리 고장 지명 유래 일부를 찾아서... ■ 사무국장 이 만 철/84

기 고 문

- 문화의 중흥은 ■ 정 광 벽/103
문화와 예산 ■ 정 광 벽/107
백두산 기행 ■ 정 원 채/110
절기 ■ 문화원 제공/130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웁시다 ■ 고 상 순/135
우리 함께 웃어요 ■ 문화원 제공/151
민속 상식 ■ 문화원 제공/169
속담(俗談)풀이 ■ 문화원 제공/181
도전 민속퀴즈 ■ 문화원 제공/215
재활용품을 예술로 빚어내는 묘미 ■ 219
자투리 정보 ■ 문화원 제공/221

향토문예

시

- 산골의 겨울 ■ 한 용 운/229
늦은 밤거리 풍경 ■ 한 용 운/230
아내의 봄 ■ 한 용 운/231
농심-IMF그늘 ■ 한 용 운/232
맑음 ■ 김 규 중/233
처음과 끝 그리고 ■ 김 규 중/234
개미 ■ 김 규 중/235
여름비 ■ 김 성 환/236

거리시화전

- 백담천 ■ 강 재 연/239
근황 ■ 구 상/240
깨끼 ■ 고 중 영/242
징검다리 ■ 권 준 호/243
구름의 그림자 ■ 기 정 순/244
바람되어 가겠습니다 ■ 길 건 영/245
광관리 ■ 김 금 분/246
10월 ■ 김 생 수/247
그곳에 가야 합니다 ■ 김 신 향/248
통일을 부르는 눈물 ■ 김 윤 호/249
물안개 피는 날 ■ 김 은 숙/250
전이(轉移) ■ 김 학 철/251
흔들리며 피는 꽃 ■ 도 종 환/252

변두리에 내리는 비	■ 문 경/253
고향생각	■ 민 영/254
그네	■ 박 기 동/255
백운리	■ 박 남 권/256
사랑의 침묵	■ 박 노 해/257
가을 경춘선	■ 박 성 호/258
강릉에는	■ 박 영 희/259
홍시	■ 박 유 석/260
하늘	■ 박 종 숙/261
다시 만나서 기쁜 것은	■ 박 종 화/262
하늘은	■ 배 동 욱/263
그림	■ 배 명 식/264
풀들이	■ 석 화/265
그리움	■ 성 희 직/266
부량사 수국꽃을 무량하며	■ 송 세 희/267
가을 여행	■ 송 현 정/268
力學·1	■ 신 세 훈/270
새	■ 원 태 경/271
뉘시 배에서	■ 유 영 애/272
사람	■ 유 태 수/273
동강은 흐른다	■ 윤 수 아/274
눈길	■ 윤 용 선/275
가을	■ 이 복 실/276
加里山을 보며	■ 이 무 상/277
컵라면	■ 이 영 춘/278
가을 장미	■ 이 윤 정/279
춘천(春川)	■ 이 은 무/280
꿈꾸는 蜜語	■ 이 지 영/281

- 지우려 합니다 ■ 이 호 근/282
- 봄비 오는 4월에 ■ 정 공 채/283
- 쑥을 캐며·1 ■ 정 글/284
- 나이테 ■ 조 규 영/285
- 2000년 9월 ■ 주 정 연/286
- 가을비 ■ 차 영 주/287
- 초롱꽃 ■ 채 정 은/288
- 삼 ■ 최 병 두/289
- 산골 아이 ■ 최 복 형/290
- 압록강 ■ 최 종 남/291
- 눈물을 보면 눈물이 난다 ■ 허 림/292

수필

- 이 풍진 세상을 살자면 ■ 한 용 운/293
- 자존심과 술꾼 이야기 ■ 한 용 운/297
- 청산을 지적에 느끼며 ■ 문 부 자/301
- 지필 지교를 나누며 ■ 문 부 자/303
- 선생님 ■ 정 균/305
- 생활 속에서 ■ 최 영 희/307
- 만해시인학교 ■ 김 신 향/308

- 설악산 안내도 ■ 316
- 인제8경 ■ 317
- 먹거리·살거리 ■ 318
- 인제문화원 임직원 ■ 322
- 인제문화원 회원 현황 ■ 323



향 토 사

1. 망대세우기의 전승형태와 민속문화적성격
2. 麟蹄를 本貫으로 하는 姓氏 考察
3. 운학(雲鶴)선생 이야기
4. 麟蹄郡의沿革 考察
5. 우리 고장 지명 유래 일부를 찾아서...

망대세우기의 전승형태와 민속문화적 성격

윤형준 · 권태훈

1. 머리말

망대세우기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 1리에서 일제시대(1940년대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던 민속놀이로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승이 단절되었다. 다행히 「제 18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2000. 9. 29~30, 횡성 종합운동장)」를 계기로 전병하(남, 71)옹과 용석주(남, 73)옹의 고증을 통하여 재현할 수 있었다.

망대세우기는 정월 신년제(新年祭) 기간에 마을의 풍농과 안녕 등을 바라면서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연행되었던 대동놀이이다. 따라서 공동체 성원 전체의 합의와 노력으로 이 놀이는 연행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망대로 쓰일 소나무를 베어오고, 망대에 달 호롱(등)을 만들고, 망대 아래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공동체의 신명을 느끼는 망대세우기가 정월에 연행되었던 점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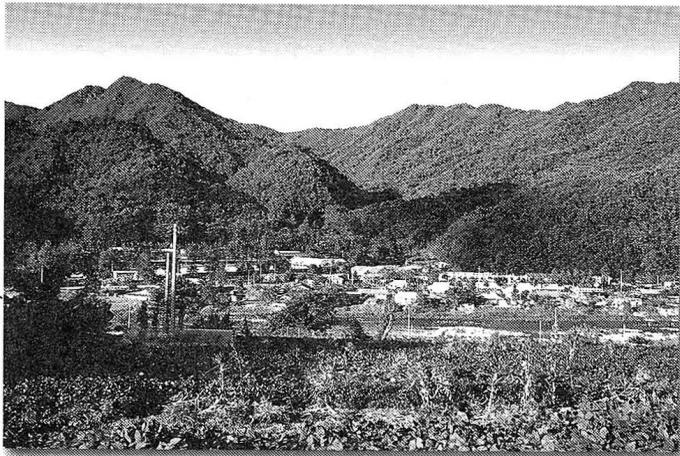
정월은 농촌의 생업력에서 본다면 농한기(農閑期)이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자 새로운 생장의 계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망대세우기가 연행된 점은 우리 고장에서는 이 기다리는 시기를 휴식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한 기원과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준비하는 시기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그 인식의 산물이 바로 망대세우기라고 할 수 있다. 망대세우기의 이러한 특징적인 점은

놀이 과정 중에 농경축원의례적 성격과 대동놀이적 성격, 그리고 생업관행적 성격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마을개관

망대세우기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 1리 아룡가지, 둔덕동, 도채동 3개 자연마을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전승되던 민속놀이이다. 방동마을은 고려 시대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 춘주군의 속현(屬縣)으로 있었으며 조선 태종 13년 계사년(癸巳年:1413) 지방제도 개혁시 춘천군으로 개칭되면서 춘천군의 속현으로 있었다. 1914년 춘천군이 도호부로 승격될 당시에는 현(縣) 소재지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따라 방동(芳東)과 동리(東里)를 병합하여 방동리(芳東里)라고 하였다.

방동은 기린면사무소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2개의 행정리 방동1, 2리로 구획되어 있다. 전체면적의 92%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랭지 채소와 약초작목이 농가의 주



방동 1리 마을 전경

소득원이 되고 있다.

망대세우기의 전승지역인 방동 1리에는 총 128가구가 거주하며 남자 202명, 여자 185명, 총 387명이 있다. 농가는 95호이며 경지면적은 밭 96ha, 논 34.9ha 총 130.9ha이다.

3. 전승유래

망대세우기가 언제부터 연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유래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망대의 형태가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는 살대, 솟대 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솟대의 유래가 삼한 시대의 소도(蘇塗)에서 기원했다는 점으로 보아 망대 세우기도 그 유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망대세우기가 정월대보름에 전승되던 농경축원의례인 지신밟기와 함께 이루어져 마을의 축제와 놀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통농경사회에서 다양하게 행해진 정초 농경의례의 한 형태로 보인다.

또한 호롱(등)을 달고 마을과 각 가정의 평안을 빈다는 측면에서는 민간에 풍년기원제의 형태로 전승되던 불교의 연등회(燃燈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에 따르면 신라시대에는 정월 보름에 간등(看燈)한 사실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인 행사로 연등회를 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의례로서 행해진 연등회가 폐지된 조선시대에도 정월을 “등절(燈節)이라 하여 등을 밝히면서 밤을 세웠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4월 조에는 연등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등간(燈竿)을 자녀의 수대로 세우고 남보다 크고 높은 것을 자랑으로 알았다. 그리고 등간 위에서는 꿩 깃을 끼우고 울긋불긋한 천을 매달거나 둥근 모양의 것을 달기도 하였다.(중략) 등(燈)에는 가족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쓰거나 써서 붙이는 것이 통례였다.”

이 기록은 비록 4월달의 기록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연등행사가 정

월 보름에서 2월 보름, 4월 8일로 이행되었음을 감안할 때,¹⁾ 이러한 기록과 망대 세우기의 전승형태 상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행사 및 풍년기원제의 형태로 전승되던 연등회 잔존 형태가 전승되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망대세우기의 전승형태

(1) 정월초 망대의 준비

망대세우기에 필요한 재료는 노네끈(삼베끈), 호롱(등), 망대(소나무)이다. 이 재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대방의 지시에 의해서 준비를 한다. 대방은 두레조직의 도감(都監), 삼척 살대제의 농장(農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로, 한 해 동안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도로보수나 다리축조 등 마을의 실질적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 그 부여된 권위도 대단하여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말은 일에 태만한 사람은 체벌하는 일까지도 하였다. 대방 이외에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을 좌상²⁾으로 모시기는 하였지만, 좌상은 상징적인 의미의 어른이었으며, 실질적인 마을일은 대방이 주관하였다. 재료를 준비할 때, 노네끈은 마을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대보름까지 함께 준비하며, 호롱은 마을 공동 호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집에서 개인이 만든다. 노네끈은 망대를 고정시키는 줄과 호롱을 다는 줄 두 종류를 만들었다. 망대를 고정시키는 줄은 지름 4cm 정도로 만들어 사방에서 망대를 고정시키는데 이용되었고, 호롱을 다는 줄은 지름 5mm 정도로 망대 끝에 늘어뜨린 후 호롱을 다는 데 사용하였다. 호롱을 다는 노네끈은 보통 약 10~20가닥 정도 만들었지만, 참여하는 주민의 수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다.

1)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1991, 嶺南大學校出版部, 68쪽.

2) 좌상을 지칭하여 상좌라고도 불렀다고 한다(전병하, 남,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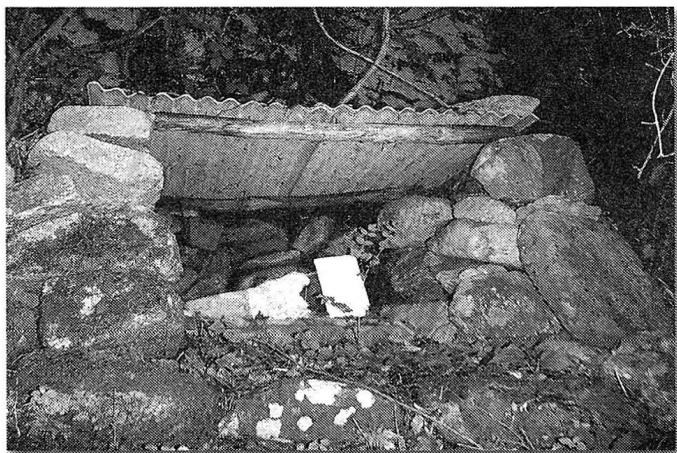
호룡은 싸리나무를 열십자(十) 형태로 엮어서 창호지를 씌워 만든 후 속에 불을 켤 수 있도록 등잔을 넣어 두었다. 호룡의 크기는 마을 공동호룡일 경우는 폭이 약 40cm, 길이가 약 50cm 정도, 개인 호룡일 경우에는 폭이 약 15cm, 길이가 약 20cm 정도 되었다. 호룡의 내부에는 등잔에 기름이나 꿀벌의 밀을 사용하여 불을 밝혔다. 호룡은 한 집에서 하나씩 만드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두 세 개 만드는 집도 있었다.

망대세우기에 필요한 노넉끈, 호룡의 제작과 더불어 농번기에 사용될 쏘신, 다래끼, 종다래끼, 도리깨 등의 농기구 등도 이 기간 동안에 제작하였다. 농기구는 이 때부터 2월 초하루까지 마을회당이나 각자의 집에서 대방이 지시한 만큼 성심껏 제작한 후 마지막날 마을회당에 모아 놓고 대방의 확인을 받았다. 이러한 망대의 준비과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속을 확인하는 계기로가 인식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준비기간은 그 자체가 훌륭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끝나는 망대세우기에 비하면 열흘 이상 걸리는 노넉끈 만들기, 호룡 준비 등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다는 미 깊게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정월 보름날 아침이 되면 대방이 “망대를 베러 가니 모두 나오시오”라고 영(令)을 내리면 마을 장정들은 ‘도채울’ 이나 ‘점미골’ 로 망대를 베러 간다. 망대는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며, 망대로 사용될 나무를 선정하는데 특별한 금기는 없다. 곧게 서고 굽기가 적당한 것으로 즉석에서 선정하여 베었다. 망대는 지름이 약 30-40cm, 높이 약 30m 이상 되는 것으로 장정 서너 명이 목도소리에 맞추어 망대세우는 장소인 마을 회당 앞으로 옮겨왔다. 망대를 가져 온 후 세울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간단하게 나무를 손질하고 망대를 세울 구멍이를 미리 파 놓았다.

(2) 망대세우기와 호룡달기

망대를 세우는 정월보름 저녁 무렵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굿중패가 풍물을 치면 마을주민들은 마을 공터로 모였다. 마을 사람들은 미리 대보름



박대감을 모신 서낭당

에는 망대를 세우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회당 너른마당에 모이게 된다. 한쪽에서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 나무를 가져오던 지, 노네편이나 호롱을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 무렵이면 마을 주민들과 이웃에서 구경은 사람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고, 집집마다 아낙네들은 망대를 세우고 나서 먹을 음식과 술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좌상을 비롯한 대방은 굿중패를 이끌고 남산 기슭에 좌정하고 있는 박대감 서낭신을 모셔오기 위해 서낭당으로 향한다.³⁾

박대감 서낭신은 인제군 기린면 지역에 널리 서낭신으로 좌정해 있는

3) 서낭기를 모셔오는 시기는 망대를 세우기 전 서낭기를 모셔 온 후 망대를 세운다는 견해(용석주, 남, 73)와 망대를 세운 후 다음날인 열엿새날 아침, 지신밟기를 가기 전에 모셔온다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전병하, 남, 71). 두 견해 중 이 번 연출에서는 용석주 옹의 제보를 중심으로 서낭기를 모셔오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왜냐하면 망대세우기의 전 과정에서 망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신체(神體)로 인식되어 제사를 드리거나, 소원을 비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망대 자체가 일반적인 나무에서 신격을 부여받은 신체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서낭기를 모셔와서 망대와 함께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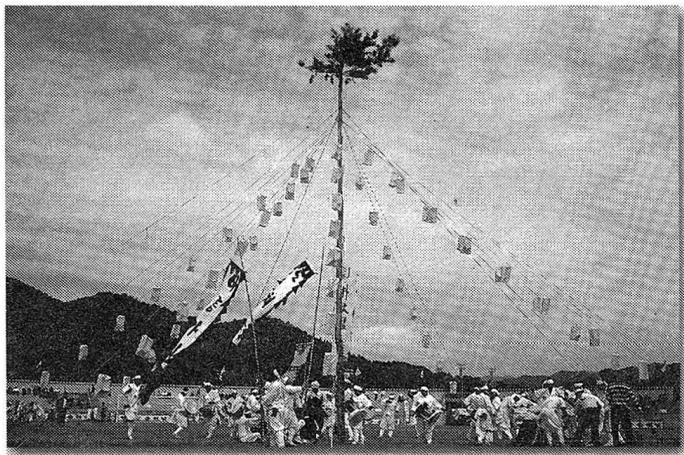


산지당 근경

인물신으로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인물 박원굉(朴元宏)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굉이 이 곳에서 신격화된 것은 고려가 멸망하자 태조 이성계가 관직으로 나오라고 불렀으나 거부하고, 이 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좌상과 대방은 굿중패를 이끌고, 신명나는 서낭굿을 치며 서낭당에 도착하면 굿중패는 서낭굿을 치면서 박대감 서낭님에게 망대를 세우겠음을 고하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놀이가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빈다. 이 때 미리 도착한 마을 주민이 준비해 놓은 매(밥)와 주과포(술, 과일, 포) 등으로 간단한 제사를 올린다.

서낭당은 산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산지당⁴⁾ 형태로 만들어졌다. 돌로 좌우측에 79~80cm 정도의 높이로 담을 쌓아 지붕은 슬레이트로 덮어놓은 형태이다. 뒷벽은 자연 그대로 언덕을 이용한 형태이다. 신체는 내부에 나무를 가로질러 창호지를 걸어 놓았다. 서낭기는 가로 50cm 세로

4) 방동리 마을신앙은 산지당과 서낭신을 모시고 있다. 산지당은 마을에서 0.7km 떨어진 점미골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낭당은 점미골 계곡 입구 마을 뒤쪽에 위치한다. 방동리에서는 정초에 제일을 택일하여 산지당에 먼저 지내고, 박대감 서낭신을 모셨다고 한다. 현재 방동리 마을사람들은 정월과 칠월에 날짜를 고정시켜 제를 지내고 있다.



망대를 세운 모습

250cm 정도의 규격으로 나무를 가로질러 엮고, 중앙에 깃대를 묶었으며, 천을 배접하여⁵⁾으로 만든 것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써어 있었으며, 망대 세우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당의 뒤쪽 절벽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박대감 서낭당에서 0.4km 떨어진 점미골 계곡입구에는 서낭당과 함께 모시는 산지당이 있다. 좌상과 대방은 서낭신이 좌정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서낭기를 모시고 굿중패와 함께 망대를 세운 곳으로 모셔왔다.

서낭당에서 서낭기를 모셔 오면 본격적인 망대세우기가 시작된다. 우선 미리 준비해 놓았던 평장목과 신우대, 수맥이(소나무가지)를 망대 끝에 묶고, 줄을 걸 고리⁶⁾를 박는다. 이후 망대를 고정시킬 노네끈을 나무에 묶고, ‘호롱’을 달 노네끈을 고리에 걸어 둔다.

이렇게 망대 세울 준비가 끝나면 대방이 “자 이제 망대를 세우시오”라고 지시한다. 그러면 마을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망대를 세운다. 망대가

5) 한지를 배접하여 사용하였다는 제보도 있다(용석주, 남, 73).

6) 주로 문고리를 많이 사용하였다.

세워질 무렵 마을 주민들과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망대가 세워지면 마을 청장년들이 굵은 노네끈으로 사방을 고정시켰다.

망대를 세운 후 좌상의 지시로 서낭기를 망대 옆에 함께 세운다. 그 후 좌상은 망대 아래에서 앞으로 2월 초하루까지의 망대세우기 전 과정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약식화된 제사로서 좌상이 망대에 재배 한 후에 잔을 한 잔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리고는 곧 바로 동네의 ‘풍농’ 과 ‘안녕’ 을 비는 동네소지(대동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된다.

망대를 세운 후 좌상은 미리 제작하였던 마을 공동의 호롱을 정성껏 달았다. 마을 공동의 호롱을 달게되면 마을사람들은 각 집의 대주(大主) 이름을 쓴 호롱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인 후 한해 동안의 소원을 빌면서 호롱을 달았다. 호롱을 모두 달아 놓으면 온 동네가 환하여 잔치가 열리는 마을처럼 보였으며, 이러한 풍경은 2월 초하루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호롱을 모두 단 후 마을 주민들은 환한 망대 아래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풍물을 치면서 밤새도록 놀았다고 한다.

(3) 굿중패의 지신밧기

정월 열셋날 아침 일찍부터 굿중패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걸립을 하게 된다. 이 걸립은 집집마다 또는 타동네까지 약 보름간 걸쳐 이루어졌다. 걸립하는 과정을 이 마을 사람들은 ‘지신을 밧는다’고 한다. 굿중패는 지신밧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망대 주위로 와서 풍물을 신나게 친 후 망대와 함께 붙어 있는 서낭기를 모시고, 지신밧기를 하였다.

굿중패는 서낭기를 앞세우고 상수잼이(1), 부수잼이(1), 징(1), 장고(1), 북(1), 범고(7-8), 무등(8), 화랭이(1)로 구성되었다. 화랭이는 일인다역(一人多役)의 잡색꾼으로서 거지, 포수, 색시 등의 흥내를 내었다고 한다. 서낭기를 선두로 지신밧기를 나가면, 우선 좌상 집부터 밧은 후 대방, 그 외 마을 사람 순으로 밧았다. 지신을 밧기 위해 굿중패가 오면 집주인은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였으며, 실을 서낭기에 매달기도 하였다. 또한 비

단, 벼, 콩 등을 내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얻은 물건들 중 옷감류는 서낭당에 갖다 걸었다. 지신밟기가 끝날 즈음이면, “서낭이 온통 울긋불긋하였다”고 한다. 이 지신밟기는 2월 초하루까지 계속되었다.

지신밟기가 끝나면 서낭기를 망대 옆에 잘 모셔 놓은 후 망대 옆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을 치면서 한바탕 논 후 헤어졌다고 한다⁷⁾

이렇게 즐겁게 노는 한편으로 짬짬이 각자 집이나 마을 회당에 모여서 대방이 지시한 도리깨, 삼태기, 짚신 등의 농기구를 만들었다.

(4) 파긋치기⁸⁾

보름간의 지신밟기가 끝나면 2월 초하루 저녁에 모여 망대와 걸립패를 해체하고 그 동안의 놀이판을 정리하게 된다. 이 날은 ‘농민의 날’이라고 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의 잔치 날로 인식되었다. 이는 이 날을 마지막으로 길고 긴 농한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우선 마을 회당과 각자의 집에서 만들었던 농기구들을 지게나 소쿠리에 담아 회당으로 가져와서 각자 분배받은 분량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 받는다. 만약 맡은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대방으로부터 질책을 듣거나, 신체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대방의 확인이 끝나면 이어서 파긋치기를 한다.

파긋치기는 망대를 풀어 넘기는 과정으로서 망대가 넘어가는 쪽은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은 쪽은 흉년이 든다고 하여 파긋치기의 과정은 큰 관심사였다. 망대를 넘어뜨릴 때 우선 망대를 지탱하는 굵은 노네끈을 자르고, 톱으로 밑동을 자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망대가 어느 한 쪽으로 넘어졌다고 한다.⁹⁾ 망대를 넘어뜨린 후 망대 세우기에 사용된 호룽은 많이 상한

7) 이 때 서낭을 망대 옆에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회당에 풍물과 함께 보관 한 후, 다음 날 지신밟기를 시작할 때 다시 모셔와서 지신을 밟았다는 제보도 있다(전병하, 남, 71).

8) 파긋치기는 ‘파고치기’라고도 하며, 좁은 의미로는 망대를 넘어뜨리고, 넘어 지는 방향을 보아 풍흉을 점치는 과정을 말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이월 초하룻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농기구 검사, 마을잔치, 망대넘기기 등)을 말한다.

것은 태우고, 상하지 않은 것은 집으로 가져와 가정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망대로 사용된 소나무는 그 자리에서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망대를 모두 소비한 후 마을의 신년제(新年祭) 행사인 망대 세우기는 끝이 나게 된다.

5. 망대세우기의 민속문화적 성격

(1) 농경축원의례적 성격

망대세우기의 농경축원의례적 성격은 풍농을 기원하는 기풍의례(祈豐儀禮), 한해의 농사를 예감하는 점세의례(占歲儀禮)에서 찾을 수 있다.

망대세우기에서 마을의 풍농과 평안을 비는 기풍의례의 성격은 망대를 세운 후 제사를 지내는 절차, 또 마을 공동의 소지를 올리는 절차, 마을공동의 '호롱'을 다는 절차, 마을의 평안을 위해 박대감 서낭신을 모셔와서 지신을 밟는 절차 등 놀이 곳곳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을의 좌상이 마을의 풍농(豐農)과 평안(平安)을 위해 마을 호롱을 다는 과정은 그 기풍의 마음이 절정에 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망대세우기는 기풍의례의 측면과 더불어 한 해의 농사를 점치는 점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점세의례는 망대세우기의 마지막 과정인 파긋치기에서 망대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풍농을 점치는 과정에 잘 나타난다. 망대가 넘어지는 방향에 있는 마을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는 방향의 마을은 흉년이 든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점세적 성격은 대동놀이를 연구한 여러 선학들의 연구업적에 따르면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송석하(宋錫夏)는 줄당기기에 관해 논하면서 원래 기풍(祈豐)적이던 것에 점풍(占風)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다

9) 망대가 넘어지는 것으로 풍흉을 점친다는 제보(용석주, 남, 73)와 함께 사람이 인위적으로 넘어지는 방향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풍흉을 점친다는 제보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제보도 있었다(전병하, 남, 71).

고 보았고, 손진태(孫晉泰)는 민속상 연사(年事) 풍흉을 점치는 놀이들은 어느 것이나 최초부터 점세행사(占歲行事)로서 기원한 것은 아니고 후세에 사상적 변전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았다.

망대 세우기 연행에 있어서 기풍과 점세의 관계는 망대세우기의 연행과정을 ‘놀이’와 ‘놀이의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기풍은 놀이의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반면 점세는 주로 싸움의 결과에 관계되어 있다. 기풍이 놀이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점세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병하옹(남, 71)의 “넘어지는 방향으로 풍흉을 점칠 수 없다”는 제보를 통하여 점세적 성격은 차츰 변화하고 단순한 놀이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변전하였거나, 최소한 그 변화의 동인을 짐작할 수 있다.

망대세우기의 이러한 기풍과 점세의 성격은 마을 공동체의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측면은 마을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과정과, 마을 전체의 호롱을 다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개인의례의 측면은 개인호롱을 달 때 뚜렷이 나타난다. 개인호롱의 경우 준비나 매다는 것은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원의 내용도 개인의 건강과 평안을 비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대동(大同)놀이적 성격

대동놀이로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의 참여아래 행해지는 놀이로서 놀이의 동참을 통해 ‘모두가 하나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대동놀이로서의 성격은 정월보름 저녁에 망대를 세워놓고, 등을 달고 잔치마당이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특정한 도구, 물건을 매개로 한 놀이보다는 망대에 등을 달고 여흥에 겨워 마을사람들이 모두 동참하여 음주가무를 하였다는 데서 대동놀이로서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굿중패가 주도하는 지신밟기와 망대 주위에서의 마을잔치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온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여 굿중패의 인도로 마을 곳곳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고, 또 망대 주위를 돌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흥에 겨워 노는 장면은 신분과 연령을 뛰어 넘어 차별없이 하나되는 모습을 지향했던 우리 조상들의 이상(理想)을 엿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다.

(3) 생업관행적 성격

우선 새해의 시작부터 2월 초하루까지 망대세우기 기간 내내 마을 주민들은 종다래끼, 짚신, 망태기 등의 농기구를 꾸준히 만든다는 점에서 망대세우기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생업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생업이 농사였던 전통사회에서 농한기 동안에 충분히 농사도구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놀이의 연행과 생업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즐겁게 일 하였던 조상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함으로 작업능률을 높임과 동시에 앞으로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협업이 필요할 때 손발을 맞추는 노력을 줄임으로써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6. 결론

지금까지 우리 군의 기린면 방동마을에서 전승되었던 망대세우기의 전 과정과 놀이과정에 내포된 다양한 성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상을 통하여 망대세우기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망대세우기는 그 전승 형태 면에서 신년제 기간에 이루어지는 세시풍속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통사회에서 대부분의 세시풍속은 정월 한 달의 신년제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신년제 보편적 구성요소는 동제, 지신밟기, 편싸움을 들 수 있다. 이 망대세우기는 이러한 신년제의 맥락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

성을 지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을 모셔오기 위해 동민들이 서낭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망대를 세운 후 동네를 돌면서 지신을 밟고, 또 마을 별로 편을 갈라 망대가 넘어지는 것을 통해 풍흉을 점치는 것 등이다.

반면 보편성 속에서도 이 지역 나름의 생태환경에서 배태된 지역성을 간직하고 있다. 망대로 아주 굽고, 길게 뻗은 황장목을 사용하는 점, 서낭신으로 박대감을 모시는 것 등은 산악지역이라는 생태환경과 ‘역사적 인물의 귀양’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망대세우기는 그 성격 면에서 각 개별 민속 사상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망대세우기에는 동제 등에서 이루어지는 기풍과 점세의 농경축원의례적 성격, 편싸움 등에서 나타나는 대동놀이적 성격, 농번기의 협업관행에서 나타나는 생업관행적 성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생업관행적 성격이다.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대동놀이는 놀이의 연행을 통해 대동을 경험함으로써 농번기에 협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반면, 망대세우기는 실질적인 농사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월 신년제 기간을 휴식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바쁜 농사철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농사도구의 제작을 놀이과정 속에 포함하여,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연행한 점은 아주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렵게 발굴, 재현된 이 민속놀이가 일회성의 재현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출발점으로 새롭게 전승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麟蹄邑誌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翰林大學校博物館, 江原道·麟蹄郡, 『麟蹄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6.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孫晉泰, 『石戰考』, 『民俗學論攷』, 民學社, 1975.

宋錫夏, 『農村娛樂의 助長과 淨化에 대한 私見』,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張正龍, 『삼척 광태 마을 살대祭』, 『悉直文化 6輯』, 삼척문화원, 1995.

韓陽明, 『韓國 大同놀이 研究-편싸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麟蹄를 本貫으로 하는 姓氏 考察



최 병 현

1. 길을 내면서

우리 나라 성씨(姓氏)에 관하여 최근에 조사된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85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 성씨는 274개의 성(姓)에 3435개의 본관(本貫)이 있다고 한다.

성을 최초로 사용한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고구려는 장수왕(長壽王) 이전부터 성을 쓴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신라는 진흥왕(眞興王) 시대, 백제는 근초고왕(近肖古王) 시대부터 성을 써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¹⁾ 그리고 고려 태조 때부터 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태조가 사성(賜姓)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태조는 지금의 강릉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명주(溟洲) 장군 순식(順式)이 귀순하자 왕씨(王氏)의 성을 주고, 발해의 태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하자 또 왕씨의 성을 주었으며, 개국 후에는 목천(木川) 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므로 이를 미워하여 우(牛), 마(馬), 상(象), 돈(豚), 장(獐)과 같은 짐승의 뜻을 가진 글자로 성을 주었다는 설도 있다.²⁾

고려 중기 문종(文宗) 9년(1055)에는 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는 법령까지 내렸다는 것으로 보면 이때부터 성씨가 일반에게 널리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사성(賜姓)을 받았거나

스스로 무슨 성씨라 하여 성을 갖게 된 후로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하여 살면서 그가 사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본관(本貫)을 정하여 지금은 3천 여개 이상으로 갈라져 왔다고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조시대 이후로만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초기에는 엄청나게 그 수가 많았으나 차차 정리감축(減縮) 되었다고 한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보면 이조 초기에는 무려 4296개 성이나 되던 성씨가 있었으나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겪은 후에는 현저(顯著)하게 감소(減少)되어 298개의 성씨만 존치(存置)하였다고 한다.³⁾ 이 외에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265개 성씨로, 조선 영조(英祖)시대에 이의현(李宜顯)이 쓴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개 성씨, 정조(正祖)시대 이덕무(李德懋)가 쓴 양엽기(養葉記)에는 486개의 성씨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필자는 10여 년 전에 이렇게 많은 성씨와 본관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는 어떤 성씨가 있을까 하는데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인제가 비록 험준한 산세로 둘러 쌓인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저족현(猪足縣一名烏斯回), 희제현(稀蹄縣), 인제현 등으로 개명(改名)되어 오면서 현재에 이르렀지만, 이곳도 다른 지방과 역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것으로 보아 분명히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있으리란 확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1985년도에 조사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제 이씨와, 인제 박씨 두 성씨를 찾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 후로도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찾으려는 나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미흡하지만 그간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 나라의 성씨(姓氏)

우리 나라의 성씨로는 앞서도 밝혔듯이 274개 성씨에 3435개의 본관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가. 10대 성씨로는

- ① 김(金)씨 : 8백 78만 5천 여명
- ② 이(李)씨 : 5백 98만 5천 여명
- ③ 박(朴)씨 : 3백 43만 5천 여명
- ④ 최(崔)씨 : 1백 91만 3천 여명
- ⑤ 정(鄭)씨 : 1백 78만 여명
- ⑥ 강(姜)씨 : 95만 8천 여명
- ⑦ 조(趙)씨 : 87만 7천 여명
- ⑧ 윤(尹)씨 : 83만 4천 여명
- ⑨ 장(長)씨 : 81만 여명
- ⑩ 임(林)씨 : 67만 2천 여명이고

나. 성씨별 본관 수 순위로는

- ① 김(金)씨 : 282
- ② 이(李)씨 : 240
- ③ 박(朴)씨 : 127
- ④ 최(崔)씨 : 126
- ⑤ 정(鄭)씨 : 122
- ⑥ 임(林)씨 : 90
- ⑦ 오(吳)씨 : 69
- ⑧ 전(全)씨 : 66
- ⑨ 장(張)씨 : 63 본관으로 나타났고,

다. 단위 본관별 인구 수 순위로는

- ① 김해(金海)김씨 : 3백 76만 7천 여명
- ② 밀양(密陽)박씨 : 2백 70만 5천 여명
- ③ 전주(全州)이씨 : 2백 38만 여명
- ④ 경주(慶州)김씨 : 1백 52만 3천 여명

- ⑤ 경주(慶州)이씨 : 1백 21만 7천 여명
- ⑥ 진주(晋州)강씨 : 94만 1천 여명
- ⑦ 경주(慶州)최씨 : 87만 6천 여명
- ⑧ 광산(光山)김씨 : 75만 여명
- ⑨ 파평(坡平)윤씨 : 64만 6천 여명
- ⑩ 청주(淸酒)한씨 : 59만 7천 여명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동(安東)권씨 55만 8천 여명, 인동(仁同)장씨가 53만 8천 여명에 이르고 있다.

1985년 조사에서 새로 생겨난 성씨는 25개 성씨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귀화(歸化) 또는 국제결혼(國際結婚) 등으로 분석조사 되었으며, 후(候), 제(濟), 두(頭), 환(桓), 영(榮), 교(橋), 저(邸), 부(傅), 학(郝), 습(辻), 호(鎬), 담(譚), 난(欒), 묘(苗), 루(樓), 비(丕), 춘(椿), 흥(興), 초(初), 애(愛), 운(芸), 강전(岡田), 소봉(小奉), 망절(網切), 장곡(長谷)이라는 성씨였다.

성씨별로 인구수는 모두 100여명 미만이었으며, 루, 저 강전, 소봉, 장곡 초씨는 한명 뿐이었다. 강전, 소봉, 장곡, 강절, 교, 습씨는 일본(日本)에서, 비, 애, 난, 묘, 담씨는 중국(中國)에서, 그리고 흥씨는 귀화(歸化)한 월남여성의 성씨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한문발음 그대로 성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본래의 성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성(賜姓)을 받아 새로운 성씨를 갖게 된 성씨는 29개의 성씨만 전해오고 있으며, 본래의 성씨 및 시조(始祖)는 따로 붙임과 같다.

3. 인제를 본관(本貫)으로 하는 성씨 및 세거씨족(世居氏族)

세거씨족이라 함은 뜨내기로 몇몇 가구가 살다가 떠나는 씨족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며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씨족을 일컫는 말

이다. 세거(世居)한 연대(年代)나 집단의 규모를 꼭 짚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지역을 단위로 할 때 그 지역에 살고있는 여타 성씨들 중에서 족세(族勢)가 강한 대성(大姓)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일대에서는 내로다하고 행세하는 성씨라고 보면 된다. 한 고을의 습속(習俗)이나 문화는 그 고을에 거주하는 족세가 강한 대성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족세가 약한 다른 씨족들 보다 수가 많은 강한 집단이 일가를 이루고 누대(累代)를 살아오면서 그들만의 고유한 습성과 문화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민속(民俗)이 각 지방마다 다르고 특색이 있는 것은 바로 한 지역을 대표하는 씨족집단을 중심으로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거씨족은 단순히 한 씨족의 혈연적 통계의미 외에 문화적 의미도 지니게 되므로 각종 문헌에 세거씨족에 관한 기록을 별개의 항목으로 설정했으리라고 믿는다.

인제군의 세거씨족을 문헌상에서 살펴보면,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인제현에는 박, 허, 조(曹), 손씨로, 서화현에는 최, 현, 이곡(谷), 소(邵)씨로 기록되어 있고, 1843년에 간행된 『인제읍지』에는 인제현에 심, 김, 박, 정(鄭)씨, 서화현에는 최, 권, 이씨로 기록되어 있다. 3백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제현에서는 허, 조, 손씨는 타 지역으로 떠났거나 족세가 약해진 반면, 심, 김, 정씨는 타 지역에서 유입되어 강한 집단의 일가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고, 서화현에서는 현, 곡, 소씨가 타 지역으로 떠났거나 절손(絶孫)되는 반면에 권(權)씨는 새로운 성씨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0년에 간행된 『강원도지』에는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이기(移記)했음을 밝히고, 앞에 소개한 성씨를 이기한 후에 청송(靑松)심씨, 삼척(三陟)김씨, 평창(平昌)이씨, 연일(延日)정씨, 밀양(密陽)박씨, 해주(海州)최씨, 선산(先山)길씨를 첨가(添加)하면서

청송심씨 : 청송백(靑松伯) 덕부(德符)의 후손으로 남면관대리와 남북리(인제)에 살고 있다.

삼척김씨 : 목사(牧使) 태국(泰國)의 후손으로 월학리에 살고 있다.

평창이씨 : 한림(翰林) 천기(天驥)의 후손으로 인제 상동리와 남북리에 살고 있다.

밀양박씨 : 규정(糾正) 현(鉉)의 후손으로 인제 상동리와 남북리에 살고 있다.

해주최씨 : 문헌공(文憲公) 충(沖)의 후손으로 덕산리에 살고 있다.

연일정씨 : 문충공(文忠公) 몽주(夢周)의 후손으로 서화면 서흥리에 살고 있다.

선산길씨 : 충절공(忠節公) 재(再)의 후손으로 남면 구만리에 살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와 같이 세거씨족을 살펴보았지만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10개성에 14개의 본관이 있다. 1994년에 회상사에서 간행한 『족보회상사십년사』에 의하면 곡씨(서화), 소씨(서화), 손씨(인제), 조(曹)씨(인제), 현씨(인제, 서화), 허씨(인제), 안씨(인제), 최씨(인제, 서화), 박씨(인제, 기린), 이씨(인제, 서화)가 있다. 이들 성씨 중에서 상존(常存)하는 성씨로는 서화최씨, 인제박씨, 인제이씨 3성뿐이고, 곡(谷)씨는 본관을 달리하는 성씨도 없이 멸손(滅孫) 되었고, 곡(曲)씨(용궁, 연천)가 소수 상존(常存)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성씨들도 본관을 달리하는 성씨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으로 보아 이 성씨들 또한 멸손되지 않았으나 추측할 뿐이다.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3성씨 중에서 인제박씨와, 인제이씨에 관해서는 『인제문화』 제6집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서화최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고려시대에 삼사우사(三司右使)를 지낸 공철(孔哲)을 시조로 하며, 전국적으로 19가구에 8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분포상황〉

(가구/인구)

서 울	인 천	경 기	강 원	충 북	전 남
3/17	- /1	10/39	5/19	1/3	- /1

4. 길을 멈추며

이상과 같이 인재이씨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알아보았다. 어떤 연유에서건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대부분 절손(絶孫)되고 상존(常存)하는 3개 성씨 또한 그 족세(族勢)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 매우 안쓰럽기까지 하다. 아무쪼록 이 남은 3개의 성씨만이라도 자손이 번창(繁昌)하여 영구 세세 인제를 뿌리로 하는 성씨로 남아주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나라의 성씨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자 현존하는 성씨와 본관 미상 성씨, 사관 및 사성일람표, 한국성씨일람표를 따로 부치면서 길을 멈추고자 한다.

-
- 1) 한국인의 족보(1977. 12. 25) 76쪽 참조
 - 2) 한국인의 족보 77쪽 참조
 - 3) 족보회상40년사(1994. 7. 1) 736쪽 참조

○現在常存卅三 姓氏

金、李、朴、崔、鄭、趙、姜、張、韓、尹、吳、林、申、
 安、宋、徐、黃、洪、全、權、柳、高、文、白、梁、孫、
 劉、許、裴、曹、盧、朱、沈、車、南、康、田、任、河、
 邦、禹、丁、羅、池、元、閔、具、嚴、方、成、辛、俞、
 蔡、玄、陳、咸、邊、千、廉、楊、孔、吉、石、呂、魯、
 卞、秋、都、馬、慎、明、蘇、周、薛、魏、卓、延、奇、
 表、宣、桂、王、孟、玉、秦、房、董、琴、印、魯、潘、
 蔣、陸、諸、牟、殷、鞠、龍、余、太、奉、承、片、夫、
 芮、史、慶、庚、睦、昔、程、皮、卜、智、公、景、賈、
 溫、胡、晉、邢、竇、陰、杜、章、弓、韋、甘、簡、葛、
 扈、左、錢、彭、邵、尚、范、僕、唐、夏、莊、施、柴、
 慈、陶、龐、甄、昇、邦、弼、邕、楚、平、苟、昌、毛、
 鍾、堅、葉、吳、冰、夜、路、于、雷、化、萬、馮、燕、
 頓、浪、阿、強、班、墨、段、乃、袁、包、判、梅、倉、
 天、麻、大、喬、芸、姚、彬、國、伊、丕、雲、海、舜、
 雍、連、占、彈、肖、米、奈、艾、宗、箕、順、后、水、
 汝、謝、介、漢、樑、鳳、舍、淳、西、菊、采、萊、邱、
 曲、單、扁、剛、斤、俊、星、凡、道、丘、襄、松、君、
 端、彊、洙、森、敦、真、永、鄭、榮、樂、苗、郝、橋、
 傅、齊、影、諱、桓、候、椿、辻、興、頭、鎬、賴、樓、
 邱、初、南宮、鮮于、皇甫、獨孤、司空、諸葛、東方、
 綱切、岡田、小峯、長谷、西門

計 二七四姓

○本貫未詳 姓氏

鄭氏·聽氏·忠氏·功氏·恭氏·濃氏·狄氏·龔氏
 雙氏·彌氏·玆氏·離氏·弛氏·曦氏·隨氏·思氏
 遲氏·芊氏·位氏·歸氏·祈氏·尉氏·書氏·巨氏
 御氏·吾氏·羽氏·斧氏·部氏·頭氏·圭氏·倪氏
 溪氏·禮氏·弟氏·台氏·才氏·哀氏·在氏·解氏
 入氏·介氏·戴氏·乂氏·真氏·新氏·仁氏·珍氏
 信氏·閔氏·順氏·隱氏·訓氏·原氏·審氏·官氏
 寬氏·漫氏·山氏·間氏·晏氏·泉氏·乾氏·善氏
 縣氏·彥氏·見氏·崇氏·堯氏·俊氏·孝氏·刀氏
 鄒氏·阿氏·沙氏·巴氏·牙氏·香氏·長氏·光氏
 常氏·揚氏·英氏·廷氏·令氏·能氏·乘氏·興氏
 兢氏·侯氏·有氏·黔氏·喬氏·閻氏·汎氏·叔氏
 木氏·六氏·岳氏·一氏·疋氏·突氏·察氏·列氏
 絡氏·索氏·苜氏·赫氏·克氏·德氏·北氏·蓋氏
 雜氏·聶氏·芻氏·磧氏·乜氏·羣氏·喬氏·憑氏
 夏侯氏·赫連氏·仲室氏·少室氏·大室氏·負鼎氏
 明臨氏·再曾氏·古爾氏·乙支氏·似先氏·木島氏
 祖彌氏·黑齒氏·耶律氏·齊楚氏·羽真氏

計 一三七姓

○賜貫 및 賜姓 一覽表

賜姓	英陽南氏	廣州安氏	順興安氏	竹山安氏	安東權氏	鐵原弓氏	慶州喪氏	沔川卜氏	平山中氏	忠州魚氏	江陵王氏	海州王氏	豐壤趙氏	延安車氏	義城洪氏		
始祖	敏	邦傑	子美	邦俊	幸	善	玄慶	智謀	崇謀	重翼	又(의)	儒	五	孝全	儒		
본래의 姓名	金忠	父...李璣	李璣의 十世孫	父...李璣	慶州金氏	"	本名白玉衫	本名卜沙貴	本名三龍山	忠州池氏	江陵金氏	朴氏	本名 비외(巖)	文化柳氏	本名弘述		
賜姓王朝	新羅景德王	新羅景文王	"	"	高麗太祖	"	"	"	"	"	"	"	"	"	"		
備考	唐나라 吏部尚書				高麗開國功臣		"	"	"			高麗開國功臣	高麗開國功臣		高麗開國功臣		
賜姓	一直孫氏	盧氏	延安印氏	德水張氏	鄭氏	車氏	隋城崔氏	光州李氏		醴泉權氏			青海李氏	金海金氏	甘泉文氏	旌善文氏	仁川李氏
始祖	凝	英	侯	舜龍	公	信	永奎	珣白		暹	之蘭	之蘭	忠善	世光	林幹	許謙	
본래의 姓名	荀氏	本名 式篤兒	本名 忽刺牙	" 三哥	" 五十八	" 車忽解	安東金氏	慶州金氏	弓裔의 後孫	昕氏	本名 佟豆蘭	本名 沙也可	慶州金氏	全氏	泰仁許氏		
賜姓王朝	高麗顯宗	" 忠烈王	"	"	"	"	"	" 忠肅王	"	" 忠穆王	朝鮮太祖	朝鮮宣祖	宋朝	"	唐朝		
備考	왕의 諱字와 같아서	盧氏의 一派			鄭氏의 一派	車氏의 一派					女眞系 (朝鮮開國功臣)	後金 (壬辰倭亂時歸化)					

賜貫 및 賜姓 一覽表

23	22	21	20	19	18	17	16	15	位	順
文	高	全	洪	柳	安	宋	黃	權	姓	家
(375.8) 89.0	(384.0) 91.0	(430.1) 103.1	(457.6) 109.5	(509.1) 120.9	(556.4) 131.9	(557.1) 131.9	(564.3) 134.3	(567.8) 136.8	口數	人口
0.9	1	1.1	1.1	1.3	1.4	1.4	1.4	1.4	數比	口比
43	38	66	41	52	35	51	55	11	數實	實本
<p>南平, 甘泉, 旌善, 淳昌, 咸平, 坡平, 丹城, 陽平, 南陽, 朔州, 南原, 慶州, 文平, 尙州, 春州, 尙州, 開寧, 羅州, 全州, 長興, 密陽, 平山, 山淸, 文化, 金海, 光山, 尙州, 安東, 江陵, 平康, 咸州, 春山, 清州, 南海, 平安, 保寧, 綾城, 平澤, 長湖, 河陽, 靈山, 結城</p>	<p>清州, 長興, 開城, 長澤, 楸城, 昌平, 清州, 安東, 尙州, 長城, 春州, 高興, 海州, 洪城, 全州, 慶州, 淳昌, 寧越, 廣州, 江華, 龍潭, 江陵, 高城, 高靈, 仁川, 金海, 固城, 南陽, 咸州, 延安, 碩川, 高津(立邑), 上黨, 宜寧, 忠州, 沃溝, 金化, 光山</p>	<p>咸平, 鶴林, 安城, 開城, 羅州, 順天, 漢陽, 坡平, 平康, 忠州, 清風, 尙州, 咸州</p>	<p>南陽(唐洪憲), 靈山, 南陽(土洪憲), 岳林, 尙州, 懷德, 春州, 順興, 安東, 丹陽, 建城, 長水, 大田, 金海, 江陵, 曲阜, 豐州, 坡平, 羅山, 濟州, 仁同, 忠州, 水原, 開寧, 岳溪(靈山), 懷仁</p>	<p>文化, 春州, 高興, 全州, 靈山, 瑞山, 江陵, 尙州, 春山, 河同, 居昌, 高靈, 慶州, 靈光, 陵高, 昌原, 仁同, 安東, 羅州, 尙州, 延安, 康津, 豆山, 古山, 光山(光山), 南原, 坡平, 清州, 密陽, 白川, 金海, 星州, 沃川, 海州, 大田, 貞州(寶德), 春陽, 咸平, 扶安, 公州, 天安, 羅州, 順興, 尙州, 谷山, 河東, 水原, 尙州, 春水, 漆谷, 富平, 興陽</p>	<p>順興, 竹山, 原州, 乾淨, 康津, 竹山(新), 太原, 平安, 安東, 慶州, 水原, 忠州, 梁山, 定州, 順天, 密陽, 寶城, 全州, 天安, 金海, 清州, 漣陽, 大田, 坡川, 安山, 禮山, 南原, 安城, 海州, 唐津, 平山, 平澤, 坡平, 公山(公州), 泗泉</p>	<p>礪山, 恩津, 禮山, 鎮川, 南陽, 金海, 野城, 延安(1), 懷德, 清州, 洪州, 開城, 德山, 治城(野城), 龍城, 楊州, 瑞山, 連山, 密陽, 尙州, 咸州, 南原, 順興, 新平(1), 鐵原, 新安, 旌安(2), 全州, 羅州, 忠清, 義城, 蔚珍, 尙州(陝川), 新平(2), 羅州, 竹山, 濟州, 馬山, 大田, 見州(楊州), 興陽, 江陰, 安山, 尙州(水原), 南平, 泰安, 復興, 奉仁, 沃溝</p>	<p>昌原, 光水, 平海, 舒州, 德山, 南州, 懷德, 星州, 平康, 壽安, 黃州, 昌寧, 尙州, 長城, 海州, 慶州, 尙州, 杭州, 黃海, 南原, 清州, 全州, 平澤, 永川, 平安, 南陽, 羅州, 寶城, 密陽, 茂朱, 羅州, 天安, 安東, 尙州, 金海, 長興, 廣州, 尙州, 靈山, 水原, 義州, 江陵, 尙州, 順興, 連城, 平山, 平昌, 貞海, 尙州, 忠州, 濟州, 扶安, 東萊, 江華, 三陟</p>	<p>安東, 禮泉, 慶州, 春州, 密陽, 大田, 安城, 全州, 江陵, 光山, 清州</p>	本	貫
28 曹	27 白	26 裴	25 梁	24 孫	23	20	20	20		
(304.8) 73.2	(309.6) 73.9	(323.0) 77.6	(344.0) 81.1	(368.7) 88.0		0.8	0.8	0.8		
0.8	0.8	8.8	0.9	0.9		20	30	46		
<p>昌寧, 春陽, 昌原, 安東, 和順, 仁川, 平昌, 靈岩, 咸平, 江陵, 長興, 春州, 春城(珍島), 清道</p>	<p>水原, 藍浦, 大興, 扶餘, 泰仁, 清道, 株川, 慶州, 密陽, 順興, 順天, 全州, 春州, 忠州, 星州, 平山, 白川, 洪州, 星山, 羅州, 原州, 金海, 廣州, 南原, 稷山, 尙州, 赤城(清道), 南海, 海法, 開慶</p>	<p>慶州, 星州, 建城, 宣城(金海), 星山, 興海, 金海, 大丘, 春山, 昆陽, 尙州(立邑), 密陽, 清州, 羅州, 尙州, 安東, 曲江, 尚州, 春州, 南海, 水原, 平山, 全州, 西山, 錦城, 義城, 春山, 靈山, 開城, 定州, 溫陽, 南原, 慶南, 高陽, 南陽, 昌寧, 海州, 安城, 高靈, 咸興, 和順, 尙州, 侯濟, 아미, 尙州</p>	<p>南原, 濟州, 南陽, 清州, 全州, 忠州(平), 尙州, 慶州, 青松州, 平澤, 扶寧, 忠州, 尙州</p>	<p>密陽, 慶州, 安東(惠), 平海, 清州, 求禮, 比安, 羅州, 春州, 寶城, 建城, 全州, 金海, 海州, 平康, 昌寧, 平安, 南原, 廣州, 平澤, 扶寧, 忠州, 尙州</p>	<p>洪山, 羅州, 咸安, 義城, 昌原, 全州, 南平, 慶州, 清州, 洪川, 濟州, 仁同, 忠州, 水原, 開寧, 岳溪(靈山), 懷仁</p>	<p>泗泉, 梁山, 定州, 順天, 密陽, 寶城, 全州, 天安, 金海, 清州, 漣陽, 大田, 坡川, 安山, 禮山, 南原, 安城, 海州, 唐津, 平山, 平澤, 坡平, 公山(公州), 泗泉</p>	<p>蔚珍, 尙州(陝川), 新平(2), 羅州, 竹山, 濟州, 馬山, 大田, 見州(楊州), 興陽, 江陰, 安山, 尙州(水原), 南平, 泰安, 復興, 奉仁, 沃溝</p>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位 順	
車	郭	成	丁	俞	河	盧	劉	沈	南	許	姓	
(159. 7) 38. 1	(163. 4) 39. 1	(163. 5) 38. 9	(165. 4) 38. 7	(168. 1) 39. 4	(184. 6) 44. 5	(196. 3) 47. 3	(218. 4) 51. 9	(219. 7) 52. 1	(222. 2) 53. 0	(264. 2) 63. 0	口 人 數 家	
0. 4	0. 4	0. 4	0. 4	0. 4	0. 5	0. 5	0. 5	0. 5	0. 5	0. 7	比 成 構	
22	23	12	17	30	12	43	28	16	18	30	數 實 本	
越, 平澤, 南海	延安, 水原, 平山, 龍城, 文化, 慶州, 海州, 新津, 密陽, 晉州, 全州, 迎日, 高靈, 光山, 利川, 天安, 春川, 羅州, 安城, 寧州, 利昌, 鳳山, 陰美	昌寧, 江陵, 全州, 高原, 建城, 靑陽, 慶州, 禮山, 清州, 利川, 羅州, 利昌	羅州, 押海, 靈光, 高原, 鳴谷, 義城, 晉州, 海州, 昌寧, 坡州, 長城, 務安, 靈山, 建城, 鳴谷, 谷城, 朴川	杞溪, 康津, 務安, 昌原, 高靈, 慶州, 仁同, 金山, 晉州, 川寧, 豐山, 河回, 高興, 建城, 城平, 金海, 密陽, 安城, 清州, 晉州, 丹陽, 尚州, 扶安, 江原, 禮山, 長沙(茂美), 海州, 江華, 南原, 公州	泗州(晉陽), 慶州, 全州, 昌寧, 利昌, 密陽, 丹溪, 利川, 利昌, 清州, 江陵, 安陰	交河, 光州, 光山, 豐川, 長湖, 谷山, 瑞興, 安東, 慶州, 海州, 新島, 江華, 安東, 羅州, 昌寧, 延日, 全州, 咸平, 咸陽, 晉州, 利川, 善山, 固城, 南原(會昌), 清州, 利川, 利川, 金海, 利川, 鳴谷, 王明, 忠州, 利川, 水原, 漢陽, 清道, 瑞山, 新平, 建城, 靈光, 龍城, 利川, 靈城(德津)	江陵(利安), 居昌, 白川, 忠州, 江南, 晉州, 豐山, 清州, 安東, 昌寧, 沃川, 公州, 寧越, 順興, 江原, 古阜, 茂朱, 原州, 開城, 坡平, 天安, 江華, 廣州, 金城, 海州, 延白, 南原, 水原	靑松, 三陟, 豐山, 忠州, 靑山, 清州, 新賓, 洪城, 全州, 靑風, 慶州, 南原, 宜寧, 密陽, 富寧(順天), 旌善, 洪城, 全州, 靑風	宜寧, 英陽, 固城, 春川, 南陽, 咸悅, 密陽, 南平, 高靈, 昌寧, 利昌, 南原, 利昌, 慶州, 寶城, 安東, 晉州, 利川	金海, 陽川(孔逸), 河陽, 泰仁, 利川, 楊平, 楊州(會昌), 慶州, 瑞山, 咸昌, 晉州, 密陽, 陽口, 永川, 漢陽, 全州, 光山, 海州, 清州, 義城, 昌寧, 大邱, 安東, 利川, 南原, 金泉, 濟州, 南陽, 金堤, 水原	本 貫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位 順	
嚴	陳	池	辛	閔	田	任	羅	朱	禹	具	姓	
(116. 0) 27. 6	(123. 1) 29. 4	(125. 6) 29. 8	(137. 8) 33. 0	(141. 3) 33. 7	(146. 7) 35. 1	(147. 7) 34. 7	(150. 0) 35. 4	(153. 5) 36. 9	(155. 5) 37. 3	(157. 5) 37. 6	口 人 數 家	
0. 3	0. 3	0. 3	0. 3	0. 3	0. 4	0. 4	0. 4	0. 4	0. 4	0. 4	比 成 構	
8	35	13	9	11	39	24	15	25	13	18	數 實 本	
穿越, 坡州, 利川, 昌州, 高州, 密陽, 羅州, 河陰	羅州, 三陟, 英陽, 羅州, 慶州, 江陵, 利昌, 珍山, 楊山, 新光, 全州, 洪州, 延安, 溫陽, 密陽, 興德, 羅州, 宜寧, 晉州, 羅興, 南海, 咸陽, 清州, 金海, 安東, 臨陵, 洪城, 海州, 扶餘, 平山, 忠州, 竹山, 楊州, 德昌, 福州	忠州, 清州, 靑松, 丹陽, 慶州, 全州, 平山, 晉州, 海州, 廣州, 忠南, 平昌, 忠北	靈山, 寧越, 榮州, 楊山, 扶安, 慶州, 靈光, 金海, 平昌	羅興, 羅州, 利川, 海南, 鳴谷, 利川, 利川, 慶州, 旌善, 昌原	原州, 喬桐	潭陽, 南陽, 延安, 丹陽, 靈光, 大明, 宜寧, 河陰, 天安, 全州, 平澤, 密陽, 咸陽, 南原, 海州, 蔚珍, 定山, 光明, 利川, 泰山(泰仁), 溫陽, 開城, 珍原(長城), 江華, 栗川, 永平, 鏡城, 沃濟, 晉州, 安州, 白川, 兎山, 順天, 忠州, 禮山, 坡平, 牛峰, 原州, 喬桐	豐川, 長興(利安), 羅州, 谷城, 冠山, 晉州, 洪川, 安東, 豐山, 光山, 咸寧(咸平), 靑風, 富川, 坡平, 海南, 春川, 水原, 春川, 順天, 大田, 牙直, 保寧, 懷德, 栗川	羅州, 錦城, 安東, 壽城, 軍威, 全州, 慶州, 安東, 海州, 晉州, 比安, 金海, 長城, 義城, 定山	新安, 綾城, 羅州, 熙川, 慶州, 全州, 晉州, 延安, 咸興, 新興, 清州, 密陽, 海州, 利川, 昌寧, 金海, 南原, 安東, 廣州, 江陵, 海南, 結城, 利川, 公州, 押海	丹陽, 安善, 安東, 漢陽, 慶州, 建城, 南陽, 海州, 靑陽, 昌寧, 剛州(永川), 榮州, 權安	綾城, 昌原, 綾州, 平海, 鳴谷, 昌寧, 利川, 昇州, 公州, 鳴谷, 利川, 新安, 利川, 建城, 全州, 潭陽, 江陵, 濟州	本 貫

62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位順											
廉	魯	卞	咸	康	玄	孔	楊	方	千	蔡	元	姓											
(54.4) 12.8	(54.5) 13.1	(64.1) 15.3	(65.2) 15.7	(69.8) 16.8	(72.1) 17.2	(72.4) 17.2	(81.3) 19.4	(81.4) 19.3	(97.4) 23.2	(97.6) 23.4	(104.5) 24.9	口數 人家											
0.1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比成 構											
16	13	11	12	15	32	8	10	19	30	14	9	數貫本											
廣州(瑞原)龍潭、坡平、寶城、昌寧、廣州、廣州、信川、清州、廣州、廣州、開城、忠州、梅州、廣州	咸州、咸興、忠州、江華、廣州、密陽、廣州、咸興、黃海道、忠州	本 貫																					
76	75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64	63	位順									
表	延	馬	吉	周	宣	薛	蘇	石	慎	都	秋	呂	邊	姓									
24.6 5.8	27.9 6.5	30.9 7.4	31.0 7.4	(33.2) 7.8	33.7 7.8	34.8 8.2	39.7 9.4	(40.4) 9.7	40.8 9.8	(46.5) 11.2	(48.6) 11.6	(49.0) 11.7	(50.4) 12.2	口數 人家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比成 構									
10	13	5	8	16	5	8	2	17	4	14	16	18	13	數貫本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新島、竹山、廣州、廣州、廣州、忠州、全州、梅州、公州、水原	本 貫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77	位順	
片	殷	余	魚	鞠	牟	蔣	南	宮	泰	卓	諸	孟	印	陸	玉	琴	王	潘	房	奇	明	魏	姓
13.3 3.2	13.6 3.3	14.7 3.6	15.3 3.7	15.5 3.7	16.0 3.8	16.1 3.9	16.2 3.9	16.4 4.0	17.0 4.1	17.4 4.1	17.6 4.2	18.3 4.5	18.8 4.5	20.2 4.9	20.4 4.8	20.4 4.8	20.4 4.8	21.5 5.1	22.5 5.4	22.5 5.4	23.4 5.5	24.3 5.7	口數 人家
																							比成 構
11	5	3	4	6	2	單	單	14	5	5	2	6	2	9	6	2	7	9	3	5	8	數貫本	
浙江、廣州、全州、梅州、順天、山州、金泉	廣州、古阜、德山、達城	宜寧、河東、南海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咸興、忠州、咸興、慶興	本 貫								

187	186	185	184	183	182	181	180	179	178	177	176	175	174	173	172	171	170	169	位順													
蒯	連	袁	箕	馮	斤	堅	道	冰	大	弓	麻	墨	葉	鍾	昇	平	邕	獨	孤	姓												
0.4 0.1	0.4 0.1	0.4 0.1	0.4 0.1	0.4 0.1	0.5 0.1	0.5 0.1	0.5 0.1	0.5 0.1	0.5 0.2	3.5 3.1	0.5 0.1	0.6 0.2	0.6 0.2	0.6 0.2	0.6 0.2	0.7 0.2	0.7 0.2	0.7 0.2	0.7 0.2	口數 人家												
單	單	2	單	單	單	4	單	單	2	單	2	2	7	7	2	4	2	5	5	數資本												
靈光	全州(羅州)	比屋·比安	幸州	臨朐	清州	金清 沙浮(水原)· 川寧·羅州·	固城	廣州	金海	密陽·大山(土山祥原)	杆城	水平·烈山(廣寧·遼東)	仁(龍仁)·處	水原·海平(水原)·廣州	通津·靈德	靈岩·河陰·江華·旌義	南原·昌平	嘉興·珍島·引平	忠州·仁川·忠州	玉川·淳昌	羅州·廣州·羅州	南原·廣陵·廣州	本貫									
208	207	206	205	204	203	202	201	200	199	198	197	196	195	194	193	192	191	190	189	188	位順											
弼	姚	君	梅	楚	判	包	喬	伊	倉	海	采	萬	邱	乃	莊	阿	漢	浪	異	永	姓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0.3	0.3	0.3	0.3	0.3	0.3	0.3	0.3	0.4	0.4	0.4	0.4	口數 人家										
2	2	單	單	4	單	2	3	3	3	3	單	6	單	單	2	4	3	單	2	6	數資本											
大興·全州	水原·徽州	南原	忠州	星州·清州	巴陵·江陵	海州	靈德·順天	善山	忠州·太原·銀川(白川)	長城·瑞山	咸陽·靈岩	瑞山	恩津	開城	牙山·長連	香山·益山	楊州·羅州	忠州·淳陽	楊州	通津·龍城	康翎	平海·慶州	本貫									
227	226	225	224	223	222	221	220	219	218	217	216	215	214	213	212	211	210	209	位順													
雲	水	汝	西	宗	慈	夜	洙	淳	俊	凡	米	介	東方	松	鳳	曲	舜	占	姓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口數 人家												
3	4	單	2	3	3	2	2	單	單	單	4	單	2	單	單	單	2	6	數資本													
清州	咸興·長興	金海·江南	高山(雲梯)	安山	香山·忠州	長湍	豆智·臨津(泥波(高項)·豆智)	海州	遼陽·中原	坡平(坡州)	原平(坡州)	建城·密陽	清州	林川	廣州	公州(松林(長湍))	敦寧·德城	羅州	香山·清州	和順	慶州	龍宮(靈泉)	坡州·林川	羅州·靈光	嶺山·槐山	羅州·益原	押海·昌原	德源·全州	定平·谷山	香山	平山	本貫
250	249	248	247	245	244	243	242	241	239	238	237	236	235	234	233	232	231	230	229	228	位順											
謝	端	順	榮	單	芸	後	星	襄	奈	扁	雍	敦	森	剛	舍	肖	彈	頤	燕	雷	姓											
30%	36%	37%	46%	51%	52%	55%	56%	59%	68%	68%	80%	83%	85%	87%	87%	93%	94%	0.1	0.1	0.1	口數 人家											
2	單		單	單	單			單	單	單	單	單	單	3	單	單	單	單	單	單	數資本											
嶺山·香州	嶺山			延安	全州					羅州	熙川	坡平	清州	三嘉	泰安·活川	富平	濟州	海州·晉州	木川	平山	定平·谷山	香桐(江華)	本貫									
<p>備考 樁五入口(家口數)四 家口未滿(家口數)百 省略(家口數) ①且一九七五年人口 調查以後(姓氏)氏 參考事項 金·金海①羅洛國王 直靈②後孫 孫·金海③忠喜④後 孫·安東(新)⑤登平⑥ 安東(舊)⑦淑承⑧ 後孫⑨ 李·原州①中佑②後 孫③ 原州④格桂⑤後 孫⑥ 宋·新平①在進②後 孫③ 新平④自般 ⑤後孫 延安⑥ ⑦後孫 竹山⑧邦俊⑨後孫 竹山⑩元衡⑪後孫 後孫 洪·南陽(唐洪)①天 南陽(洪洪)②先 南陽(洪洪)③先 南陽(洪洪)④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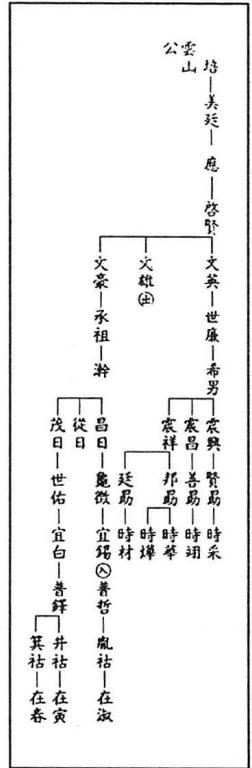
운학(雲鶴)선생 이야기

최 병 헌

1. 길을 내면서

운학선생은 조선 명종(明宗)14년 기미년(己未年 1559) 7월 8일 신시(申時)에 강원도 인제 현고촌(玄高村)에서 아버지 창해와 어머니 신평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운홍(雲鴻)이라 하였다가 뒤에 운학으로 고쳤고, 휘는 사연(思淵), 또는 정원(挺元), 승조(承組)라고도 하고, 자는 윤부(胤夫)라 하였다.

선생은 16세 때부터 운림(雲林)에 뜻을 두어 벼슬은 단념하였고, 선조(宣祖) 8년에 한 우과새(優婆塞)를 만나 책 한 권을 넘겨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오대산 기린대에 들어가 김선자, 채하자, 취굴자, 아예자, 계엽자, 화오자, 벽락자라는 일곱 도인을 만나 선인(仙人)으로 산림 유산(遊山)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선생이 생전에 남긴 종적이 실로 크고 많지만 사후에 아주 민몰(泯沒)될까 염려하여 제자인 조여적(趙汝籍)이 선생의 생전에 있었던 일과 옆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 기록한 것이 『청학집』이란 선유록(仙遊錄)이다. 『청학집』은 본래 분장되



어 있지 않았으나 최창록 교수는 『청학상인 이야기』란 책에서 편의상 16개 단락으로 분장해 놓고 그 첫째 단락인 ‘집필의 동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운학선생의 사적이 소상하게 사실적으로 표현된 데는 기록의 신실성이 돋보이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작품 전체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과 선인들의 유선행적은 이 첫째 단락에서 창해도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작품은 사실성과 허구성이 적절히 조화되는 가운데 문학작품임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 『청학집』은 역사서가 아닌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는 것이 옳다. 말하자면 문학작품 중에서도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집인 것이다. 그렇다면 『청학집』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 운학선생은 과연 실존의 인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필자는 '96년에 『인제군사(麟蹄郡史)』를 발간하면서 〈인물편〉 기타 란에 운학선생에 관한 몇 줄의 글을 실었다. 고증되지 않은 자료이기는 하지만 생몰연대와 가계(家系), 출생지 등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존인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후회와 부질없음을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하며 실존인물임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운학선생의 본관이 용인(龍仁)임을 확인하고, 『용인이씨대동보』를 입수하여 1권 47쪽과 2권 594, 595쪽에서 선생의 가계를 찾아냈다. 그때의 나의 기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고증되지 않은 사료를 인용하였다는 허물을 다소나마 벗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운학선생의 편력을 『청학집』과 『용인이씨대동보』를 중심으로 보다 소상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청학집』과 운학선생의 편력

운학선생은 어려서부터 운림에 뜻이 있고, 또 선친께서도 벼슬길에 나

서지 말라는 당부도 있어 독서에만 전념하였다고 한다. 선생의 나이 열 여섯이 되던 을해(乙亥 1575) 선조 8년 여름 4월에 집 앞 느티나무 정자에 앉아서 주역을 읽는데 홀연히 한 우파새(출가하지 않고 불제자가 된 남자)가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듣고 있다가 한참만에 말하기를 “내가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을 보아 왔으나 당신 같은 사람은 보지 못하였소. 당신은 가위 입도(入道)한 사람이오.” 하면서 책 한 권을 건네주며, 다시 “이것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훌륭한 스승을 만날 것이요.” 하고는 총총히 사라졌다고 한다. 선생의 총명함은 이미 어려서부터 타인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다.

또 임오(壬午 1582) 선조 15년에는 금장강 강가에 나갔다가 의인을 만나 의기투합하여 기탄 없는 대화를 나누고 후일 오대산 기린대로 들어가 일곱 분의 선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일곱 분의 선인들은 모두 세상에서 높은 재주를 가지고, 천시(天時)와 인사(人事)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였으나 때를 만나지 못하여 강호에 종적을 감추고 천하를 유람하며 지냈는데, 이들은 모두 청학상인(靑鶴上人)을 스승으로 섬겼다. 청학상인은 우리 나라 갑산 사람으로 성은 위(魏)요, 이름은 한조(漢祚)이고, 자는 중염(仲炎)이다.

위한조가 청학동에 터를 잡고 살아서 청학상인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운학선생의 도호인 편운자(片雲子)는 바로 청학상인이 지어준 것이다.

운학선생은 이 때부터 일곱 분의 선인들과 함께 청학상인의 문인으로 생활을 함께 하면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통달하게 되었다.

◆ 선생은 예언가였다.

선조 18년 을유에 채하자가 위선생을 찾아가 “근자에 동국에 재변이 많아서 장성이 은하수를 지나려 함에 물이 붉게 물결치니 장차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위선생이 답하기를

“10년안에 왜란이 있으리라.” 하고, 운학선생은

“태세(太歲)가 있는 방위와 월건신(月建神)이 있는 방위는 사람의 힘으

로 거스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왜국이 조선의 동남방에 있으니 반드시 임진년 4월에 기병(起兵)하여 올 것입니다.”

라고 예견하였다.

물론 채하자나 벽락, 계엽, 취굴, 금선자도 재난이 있으리란 예언을 하였지만 선생은 ‘임진년 4월’ 이라고 꼭 짚어 말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가 1592년에서 1598년임을 살펴 볼 때 이들은 적어도 7년 전에 예견한 것이다.

당시의 나라안 사정은 조선초기부터 외침이 빈번하여 비변사를 설치하는가 하면, 울곡 이이(李珣)선생은 10만 양병설(養兵說)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동인과 서인들의 세력다툼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은 쇠잔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선조 23년(1590)에는 왜인들의 실정을 살피기 위하여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成一)을 밀사로 보내지만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서인 황윤길은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라 했고, 동인 김성일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나라안의 사정이 이러함을 볼 때 선인들의 우국충정이야 당연한 것이겠으나 『청학집』을 낸 연대가 확실치 않으니 이 또 한 실제 예견한 것인지, 아니면 임진란이 있었던 훨씬 뒤에 짜 맞추는 기록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외에도 선생께서는 인조반정을 예언하였다.

임자년에 매창과 송서와 운흥이 함께 한양을 지나다가 입조(入朝)하는 관원들을 보고 말하기를

“조선이 장차 개혁으로 망하는 변란이 있겠다. 살(肉)이 뛰어가고 시체가 다니는 것이 어찌 그리 많은가?” 하였다.

다음에 능양군(陵陽君)을 보고 하는 말이

“다행이 이 사람이 있어서 동국사람의 옷깃이 외로 되지 않겠다.” 하니, 송서가 말하기를

“능양군은 반드시 반정할 것이고 정인용 등 첫째 번 사람들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인조반정은 1623년 3월 12일 밤에 일어났다. 반정을 주도한 인물은 능양군 이었다. 능양군은 광해군의 배다른 조카이자 1615년 신경희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죄목으로 죽은 능창군의 친형이다. 능양군이 반정을 도모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광해군에 의한 능창군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조(宣祖)의 선위 교지를 받지 못하고 인목대비의 교지로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등극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왕위를 위협하는 임해군과 영창대군, 능창군,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소북파와 서인, 남인 세력들을 차례로 제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1618년 인목대비마저 폐위시켜 서궁에 유폐시키자 그 동안 광해군에게 불만을 품고 역모를 도모하던 세력들이 이 사건을 명분으로 정변을 일으킨 것이 인조반정이다. 그리고 보면 선생께서는 이미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반정을 예견하였다는 결론이다. 이것이 사실 이라면 얼마나 예리한 통찰력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선생은 벼슬을 사양하였다.

선생의 선친께서도 동인이다, 서인이다 편을 갈라 정권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벌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을 하지 말라고 이미 권유하였고, 선생 역시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극구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편운자가 가권(家眷)을 이천 구봉동으로 옮기고 도로 평양을 지나다가 체찰사 유성룡이 군량미를 수집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이르기를

“나 또한 이 나라의 신민이니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하고 마필(馬匹)을 얻어 양미 칠곡(七斛)을 상납하니, 성룡이 사재감참봉이란 직함으로 사령장을 보내왔다.

그 후 편운자가 안악으로부터 용강을 지날 때 이원익과 이빈 둘이 왜병과 싸우다가 군사가 패하고 말이 쓰러져 거의 포로가 될 지경에 이르러 이들을 보았다. 원익은 이 나라 대신이라 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물

을 뽑어대니 왜병이 놀라서 스스로 물러갔다. ……원익이 이 일을 은밀히 조정에 아뢰어 단천(端川)군수를 제수하고 사령장을 대성에게 시키어 전하게 하였다. …… 그 후에 다시 선생에게 함경관찰사의 벼슬을 주어서 청정(淸正)을 제어코자 하였다.

마침 위선생이 좌석에 같이 앉았다가 웃으며 하는 말이

“속세 밖의 기러기가 조 밭에 내려앉으려 하는가?” 하였다.

‘속세 밖의 기러기가 조 밭에 내려앉고자 하는가’ 라는 위선생의 말은

“이미 속세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사람이 다시 속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말을 비유로써 한 말이다.

운학선생은 이 말을 실로 부끄럽게 여기고, 사령장을 전해 준 한 동리 사람인 오대성과 왕래는커녕 소식조차 끊고 말았다.

양반이 되려면 반드시 벼슬이 있어야 하고, 벼슬을 하려면 과거에 급제를 하여야 하나 천민으로서는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이 꿈도 못 꿀 일이라 권세가문에 다리를 놓아 돈을 주고 작은 벼슬 하나 얻어서 양반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돈주고 산 양반’ 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굴러 들어오는 벼슬도 마다한 선생을 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작금의 정치 판을 보면서, 실로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바 없지 않다.

이러한 운학선생을 두고, 청학상인은

“해서의 편운은 운중백학의 혼이 태어났다.”

“속세를 떠나 홀로 살며 천승의 귀함을 초개같이 알고 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현진을 좋아하고 한일을 즐기는 것은 편운자와 같은이가 없다.”

라고 치켜세우고, 『청학집』을 집필한 조여적이 국내의 인재들을 등용하여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는

“어진 정승이 있어서 재주를 알고 직분을 맡기는 것은 어느 대인들 없겠나마는, 시험삼아 우리 나라의 현재의 인물을 가지고 말하자면, 김선이나 편운, 취굴을 삼공(三公)으로 삼으면 모두 잘 하여서 하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

◆ 선생은 시인이었다.

청학상인은 임인(壬寅) 선조36년(1602)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하기를

“나는 세상사와 인연을 끊어야겠다.”

하고는 정월 15일 새벽에 일어나 배회하다가 대난산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나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보다 한 해 전인 신축(辛丑) 선조35년(1601)에 위선생은 갑산에 살았다.

어느 날 편운, 채하, 계엽, 아예, 벽락, 화오 및 조현지가 함께 위선생덕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 후 주연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청학상인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을 이루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한 채 죽어간다면 좋지 못한 도리이며 부득이 한 일이니 제군들은 마땅히 속히 나가서 강대국의 명신(命臣)이 되고 이 시기를 잃지 말라.”하면서 계엽, 아예, 화오에게는 ‘도가의 한가로움을 버리고 죽백(竹帛)의 공명을 도모하라’ 하고, 채하에게는 ‘하란산에 들어가 살며 대를 전하라’ 하였으며, 취굴과 벽락은 자기 거취에 따라 좋도록 하고, 김선과 편운은 전도파(傳道派)가 되어 몸을 보전하라고 일러 주었다.

청학상인은 제자들과 이렇게 송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뒷자리는 술을 장만하여 잔치를 벌렸는데 운학선생은 이 자리에서 시 14수를 지었다고 한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幽澗泉搖 拂彼苔磴
上有松風 玲瓏潭石
珊瑚雪淙 水花寒落
山月淨容 藍膏綠液
左右羣峰 曉風燕詩
風颺戾草 綿綠野亭

그윽한 냇물 흘러지며 이끼 낀 돌길을 적시고
위로는 솔바람 불고 못 속의 돌들은 영롱하네
산호 같은 흰눈송이는 물꽃 되어 차갑게 떨어지고
산달의 맑은 모습은 남록색 향유를 발랐는가
좌우 뒹 봉오리에 새벽바람 일고 제비는 노래하네
바람이 풀 위를 지나니 들판의 정자도 푸르르구나

十里斜陽 飛去飛來
一點玄禽 穿花跟煙
縱意高翔 路慣茅竹
村巷何須 王謝高堂

십리 석양 길을 날아가고 날아오는
한 마리 제비는 꽃과 연기 차고 올라
멋대로 높이 날아 띄풀과 대숲 길도 거침없거늘
시골 좁은 동리에 왕사의 높은 집 있어 무엇하리.

〈四仙臺詩〉

投金幘駐白馬
鳳首山光青晚夏
隔水弄簫聲更長
羽扇芝冠何許郎
臨花門語語仙方
獐駕一去寥千載
太白蒼蒼山獨在

금수건을 던지고 백마 멈추니
봉수산 푸른빛이라야 늦여름일세
물 건너 통소소리 여운도 긴데
부채 들고 지관 쓴 이 누구라 시던가
꽃이 있어 말 물으니 신선 간 곳 가리키네
기린 타고 한 번 간 후 천년 세월 아득하고
태백의 창창한 뒤편 홀로 있구나.

〈松子落吟〉

風冷冷雨簫簫松子落
山寂寂月蒼蒼松子落
日正午松關靜松子落
松子落幽人也不眠

바람 냉냉하고 비 소슬한데 솔방울 떨어지네
산은 적적하고 달은 창창한데 솔방울 떨어지네
한 낮이라 솔숲은 고요한데 솔방울 떨어지네
솔방울 떨어지니 숨어사는 이 몸도 잠 못 이루네

〈蘇津浦引〉

八月九月望
霜晨涼颯夕
掛帆海門浪頭白
千里萬里萬萬里
水遠天長
無數點點雲淡淡山
颯然來又去

팔, 구월 한 보름께
서리 내리는 아침 찬바람 부는 저녁
돛단배 바다어귀 물결도 흰데
천리인지 만리인지 만만리 인지
물도 멀고 하늘도 끝이 없어라
수없이 흩어 진 구름과 담담한 산들
표연히 왔다가 다시 떠나니

非漁非商非仙非鬼
東扶桑西登萊
南俱藍北耽羅
一葉扁舟白鴻身世
漢人夷人不分

어선도 상선도 아니고 선귀(仙鬼) 타는 배도 아니거늘
동으로는 부상이오 서로는 등래
남으로는 구람이오 북으로는 탐라
일엽편주에 갈매기 신세 되니
한인인지 오랑캐인지 알 수 없구나.

〈前山春歌〉

風蓬蓬兮細草長
百花照明兮林木香
嚶嚶谷鳥吟兮送羽觴
山壑水如藍兮日載陽
嗚呼一歌兮依石床

바람이 솔솔 불어 잔 풀들이 자라고
백화가 만발하니 나무 또 한 향기롭다
꾀꼬리 울음소리에 술잔을 전하고
산골의 푸른 물은 햇빛 실어 나르네
첫 노래 부르며 석상에 기대네

蘭猗猗兮蓼朮蕃
採葩折菊兮覆盆
黃精冷飯團兮芼可飧
三秀芝九折蒲兮釀我樽
嗚呼二歌兮出山門

난초는 뾰죽한대 산삼과 삼추는 무성하구나
연밥 따고 국화 꺾고 복분도 따고
황정을 찬밥에 비벼 산나물도 먹어보고
삼수지와 구절포로 술도 빚어 들어보세
둘째 노래 부르며 산문을 나서네

松花落兮桂葉抽
步步青楓兮心休休
穿雲一節飛兮鶴爲幃
金雁鳴玉龍語兮
舞蝸室迷清秋
嗚呼三歌兮臨溪流

송화 지고 계수나무 잎 무성한
단풍나무 숲을 걸으니 마음이 한가롭네
구름위로 지팡이 던져 학과 짝을 삼고
기러기 울고 별들이 속삭이는
움집에서 춤을 추니 맑은 가을하늘이 반하네
셋째 노래 부르며 냇가에 다다르네

〈長相思漫〉

燈瞳曠夢依依夜漫漫

등잔 불 가물거리듯 꿈은 아른거리고 밤은

星 罌 罌 月 沈 沈 天 河 漫 漫	지루하기만 하네 별은 깜빡이고 달은 침침하니 은하수가 아 득하구나
山 疊 疊 水 重 重 千 里 路 漫 漫	산은 첩첩하고 물은 겹겹이니 천리 길 멀기도하다
池 塘 菱 葉 清 香 滿 滿 垂 絲 萬 萬	연못의 마른 잎은 맑은 향이 가득하고 드 리운 버들가지 휘늘어졌네
憑 欄 干 淚 欄 干 雨 泡 泡 花 珊 珊	난간에 의지하니 눈물 또한 글썽이고 비는 망울망울 꽃은 망울망울
鳥 關 關 我 思 漫 漫	새들은 지저귀니 이내심사 망연하네

〈竹露適吟〉

夜 色 蒼 蒼 上 庭 樹	밤 빛이 어둑어둑 뜰 앞 나무에 깃드니
虛 窓 爽 氣 來	빈 창문으로 찬바람 불어오네
玲 瓏 雲 表 露	영롱한 구름이 이슬 위에 어리니
暎 月 竹 間 回	달빛이 대나무 발 사이로 돌아오네
竹 風 春 寒 玉	대 바람이 찬 달빛을 절구질하니
團 團 下 綠 苔	수많은 이슬들이 푸른 이끼에 내리고
疎 簾 棋 子 落	성근 발에도 바둑알처럼 떨어진다
虛 窓 燈 火 堆	빈 창에 등불은 쌓여
穆 穆 風 波 濕	조용히 바람결에 젖어들고
冷 冷 玉 軫 催	차가운 별빛 부서져 내려
松 間 驚 鶴 一 聲 哀	솔 사이 놀란 학의 울음소리 슬프구나

〈黃栢行〉

牧 丹 芳 兮 種 貴 里 豪 門	모란꽃은 아름다워 귀한 집 문안에 들고
桑 葉 柔 兮 種 十 里 田 園	뽕잎은 부드러워 십리 길 전원에 심었지만
空 山 邃 壑 一 黃 栢	빈산 깊은 골짜기 한 그루 황백은
等 閑 花 葉 也 自 繁	홀로 서서 꽃과 잎이 스스로 번성하네

既無桃李梨棗實
 枝邊不見人攀援
 又無蒿芽芥薑味
 盤中不作人饗食
 山梅野菊芳隣樹
 飽風油雨光乾坤

복숭아 배 대추 같은 열매 없다고
 가지 하나 돌보는 사람도 없고
 또 쑥이나 개자 생강 같은 맛도 없으니
 사람들의 밥상에도 오르지 못하네 만
 산매화 들국화가 나무와 벗해
 비바람 맞으며 세상을 밝히네

〈洞口雲〉

夕陽映紅暮雲橫碧
 溶溶出山林霞光散綺
 雨氣成紅頰流嶽峯
 金鴨騰翥六合清新
 浮篆天心銀蟾浴池
 涼夜自懷縱橫水潏
 英英半壁細細平林
 人洞洞更深

석양은 붉게 비추고 저문 구름은 벽공에 걸렸다
 산림에서 흘러나온 안개 빛 흩어지고
 빗 기운은 무지개 되어 산마루에 걸렸다.
 기러기 높이 날아오르니 천지가 청신하고
 은하 중천에 뜨니 은두꺼비가 못에서 목욕하네
 서늘한 밤 찬 기운에 물가 거니노라니
 우뚝한 벼랑과 무성한 수풀
 마을로 들어갈수록 골짜기 더욱 깊어지네

이외에도 우리는 운학선생이 윤림 고취와 선풍을 지니고 전국을 수진
 편력하는 것을 『칭학집』의 구석구석에서 대하게 된다.

선생의 유선편력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위선생께서 마지막으
 로 유언처럼 남긴 “출세함이 옳지 않으니 끝내 조선생을 따라 노닐며 전
 도파가 되라.”는 한마디 말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주체선파의 전도파가 되라는 뜻이다. 위선생이 작고한 뒤에
 도 운학선생은 금선자와 더불어 조현지를 따르며 제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수진하는 복지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운학선생의 신력을 보고 외국의 능호라는 스님은 신둔(神遁)이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3. 『청학집』과 『용인이씨대동보』

운학선생의 가계를 살펴봄에 있어 우선 『청학집』을 보면 선생의 편력은 지은이 조여적이 보고 듣고 느낀대로 서술한 것이고 위로 5대조부터 아버지까지는 운학선생이 직접 소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 오세조는 휘는 배(培)이고, 자는 자장(子長)인데 영덕현(永德縣)의 관사에서 태어났으므로 아명을 덕생(德生)이라고 하였다. 비(妣) 김씨는 성품이 단정하고 정결하여 제사를 받들며 정성을 다 했는데 일찍이 제사를 파하고 잠이 들자 꿈에 한 노인이 푸른색 구슬 한 개를 주며 삼키라 하여 삼켰더니 드디어 공이 태어났다. 신정선 윤관은 그를 옥분신매(玉盆新梅)라 했고, 열성공 황치신은 호를 지어 주기를 독송정(獨松亭)이라 했다.”

“우리 취병공은 휘가 미정(美廷)이고 자는 옥여(玉汝)이다. 정통(正統) 갑자(甲子)출생으로 어머니 조씨가 꿈에 인왕산에 올라보니 흰 구름 한 조각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리에 관이 된 꿈을 꾸고 웃으며 깨어나니 태기가 있었다고 했다. 연산시에 봉양군, 안양군의 일로 장연에 귀양갔다. 세사를 사절하고 자호를 취병거사라 했다. 도 취병공이 병조판서였을 때 버드나무가 어깨를 잡아 다니는 꿈을 꾸고 유광겸(柳光謙)의 탄핵으로 파직했다고 했다.”

“우리 경담공은 그의 어머니 창암이 잉태할 때 공중에 금색의 응(應)자가 쓰여져 있는 꿈을 꾸어서 응여(應汝)라 이름하였고, 자라서 진도군수가 되었는데 왜인이 풍랑을 만나 그곳 사람들에게 간히고 죽게 된 것을 풀어주고 위로했다.”

“우리 조부 우윤공은 성화(成化) 갑오(甲午)생이며 만력(萬曆) 병오(丙午)에 돌아가시니 향년이 103세였다. 출생하시던 날에 송좌상 질(軼)이 잣 세 되와 큰 굴 두 개를 보내왔는데 그 때에 창암이 점을 쳐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103살을 살겠고, 벼슬은 이품으로서 대감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다. 우윤공은 해주오씨에게 장가들었는데 오씨의 체격이 뛰어나게 커서 오장부라 하였다. 오부인은 임신하여 홍치

경술(庚戌 1490)에 창해를 낳았는데 굳세고 용맹스러우며 박학하고, 유허하고 거리낌 없고 무불통치했으나 당시에는 가벼히 여겼다.”

대략 위와 같이 소개된 운학선생의 가계보(家系譜)에 대해서 최창록 교수는 『청학선인 이야기』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편운자 운학선생은 아버지 대까지의 4대의 조부손에 대한 출생 및 사적을 꿈과 예언 및 조짐을 적절하게 섞어 사실 이상의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상당부분은 사실에 입각했으나 여러 곳에서 입증되는 허구적 창의성은 사실 이상으로 소설이라는 구실을 해내고 있다.(물론 상당부분이 사실에 입각했으리라는 점은 전제한다.) 그렇다면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용인이씨대동보』와 비교해보기로 하자.

(청학집과 용인이씨대동보 비교표)

區分	5世祖	4世組	3世組	組父	父	本人	
靑鶴集	名,諱	培	美廷	應	-	蒼海	恩淵, 思淵, 承組, 挺元
	生	丁未:	甲子: 1444	-	甲午: 1474	庚戌: 1490	己未: 1559
	沒	-	-	-	丙午: 1606	庚子: 1540	-
	字	子長 德生	玉汝	應汝	-	-	胤夫
	號	玉盆新梅, 獨松亭	翠屏居士	鏡潭	右尹	蒼海 道士	雲鴻, 雲鶴, 片雲
	職	운산군수, 순천부사 영남백, 이조판서	양양원, 병조참판 평안감사	진도군수 고성군수	예안현감	-	-
大同譜	名,諱	培	美廷	應	啓賢	文豪	承祖
	生	丁未: 1427	甲子: 1444	己卯: 1459	甲午: 1474	庚戌: 1490	乙未: 1535
	沒	-	丙戌: 1466	壬子: 1522	戊寅: 1518	辛酉: 1561	甲午: 1594
	字	子長	玉汝	定之	仲禹	士英	胤夫
	號	-	-	鏡潭	-	-	辰雲
	職	운산군수	-	-	-	-	진사사제감참봉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학집』에는 운학선생의 5대 조부는 순천부사로 갔을 때 백성이 송덕비를 세웠는데 비에 새겨진 글이 임금께 전해져 영남백으로 승진하였고, 영남백 재임시에 누가 <국은을 보답코자 백성들이 걱정하며 잠도 못 자고 밥도 달게 못 먹네>라는 시를 지어 널리 전파하니, 이 시가 또 임금께 알려져 바로 이조판서로 승차하였다. 그러나 누가 또

다시 <후전(後殿)에 미친 바람 종일토록 불어오니 한 봄에 붉은 꽃이 남김 없이 떨어지네>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연산의 미움을 사게 되어 운산군수로 쫓겨났다고 했다.

4대조 취병공은 양양원, 병조참판, 평안간사를 지낸 것으로 되어있다.

“취병이 양양원으로 부임 할 때 그곳에 따라 가서 시 한 수를 지었다.”

라고 설명하면서 취병공의 아내가 지었다는 시를 소개하고 있으며,

“취병공의 휘는 미정이며 병조참판이었는데 꿈에 버드나무가 어깨를 잡아 다니는 꿈을 꾸고는 곧 유광겸의 탄핵으로 파직됐다. 임진에는 금마를 타고 모란꽃 앞에서는 꿈을 꾸고는 곧 평안감사가 됐다.”

라고 운학선생이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세조 경담공은

“...장성하여 진도군수를 지낼 때에 왜국 사람의 배가 풍랑을 만나 해안에 정박한 일이 있었다. 토인들이 재물을 빼앗고 토굴에 가두어 죽이고자 하는 것을 경담이 알고 가둔 사람을 찾아내니 모두 열 한 명이나 되었다. 경담이 식량을 주고 선박을 수리하여 돌려보내니 그 사람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하고 사레하며 떠나갔다.”

“우리 경담공은 재주가 있어서 연산이 세자가 되었을 때 공은 동궁의 속관이었다. 세자가 손에 모란꽃을 가진 것을 보고 말하기를 ‘꽃은 여색에 견주고 난초는 군자에 견주니 난초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더니 세자가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공이 관직을 사면하였다. ... 일찍이 고성군수로 있을 때에 김인손이 송이와 산과(山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척척 산중 길은 구렁이 버섯이 나는 곳이고, 깊은 숲 높은 나무에 산과가 열리는데 호랑이와 표범이 산에 있고 승냥이와 이리가 길을 막으니 태수는 이를 어찌 구하리오’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조부 우윤공은

“공이 내자시(內資寺)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꿈에 당숙 무(懋)와 함께 높은 마루에 마주앉았고, 옆에는 미인 둘이서 있으며 노인 한 분은 들 앞에 서서 닭 우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귀에 거슬러었다. 얼마 안되어 예안현감으로 부임하였는데 당숙인 순창 원님 무가 와서

동석하고 옆에는 관기 채련과 연화 두 사람이 자기를 모시고 서 있는 것을 보니 완전히 전 날 꿈속에 보던 것과 같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동보에는 5세조 배(培)만이 운산군수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출생 및 사망 연도를 보면 조부 우윤공은 『청학집』에는 갑오년에 출생하여 병오년에 사망하므로 향년이 103세라고 기록을 하면서, 창암의 103세를 살 것이라는 예언까지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향년 103세라면 병오(丙午 1606)년이 아닌 병자(丙子 1576)년 이라야 옳은 것인바, 병오는 병자의 오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동보에는 또 무인(戊寅)년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또 부친 창해의 사망년도도 『청학집』에는 경자(庚子 1540)년으로, 대동보에는 신유(辛酉 1561)년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며, 운학선생의 출생년도는 기미(己未)와 을미(乙未)년으로, 호는 편운(片雲)과 진운(辰雲)으로 각각 달리 기록되어 있다. 부친 창해도사가 경자년에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이십 여년 뒤인 기미년에 출생하였다는 것이나, 대동보에는 편운선생이 갑오(甲午 1594)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임자(壬子 1612)년에 인조반정을 예언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청학집』에서는 편운선생의 사망년도를 밝히지 않았지만, 위선생이 임인(壬寅 1602)년에 사망한 뒤로 조현지를 따라 더 활동한 기록이 있으니 대동보의 내용을 믿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일이지만 기록상의 오기나 착오, 아니면 구성상의 허구성을 들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서술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대략 이렇게 『청학집』과 대동보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정말로 특별히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은 『청학집』의 내용이 대동보의 내용보다 훨씬 더 미화되어 있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동보가 훨씬 뒤에 작성되어 그 후손들이 일일이 살펴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으나, 앞에서 최창록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청학집』의 내용 상당부분이 사실에 입각했다고 하겠으나 꿈과 예언 및 조짐을 적절하게 섞어 사실 이상의 사실인 것처럼 기술해 놓았다는 점에 쉽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4. 『청학집』은 픽션인가 논픽션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청학집』과 대동보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았지만 『청학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실존했던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픽션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논픽션이라고 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앞에서 꿈과 예언 및 조짐을 섞어 사실 이상의 사실인 것처럼 기술했다는 점을 밝혔지만 더욱이나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운학선생께서 임진왜란을 예견하는 자리에서 두 나라 실정을 염찰하여서 경중을 점치기를 청한 후에 그대로 행한 결과를 돌아와 위선생께 아뢰는 자리에서

“...굴강문이라는 자는 지용(智勇)을 겸비하여 우리 나라에서 당할 사람이 없으니 만약 이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나라는 위태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본포수신(本浦水神)인 풍신(風神)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만일이 사람이 떠나려 하거든 질풍으로 이를 저지하여 돌아가게 하라고 하였으니 다시 더 근심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내용이나, 취굴자의 문하생 진시발의 <산정의 잔치> 이야기가 그렇다.

진시발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이웃이나 동리 친지들에게 폐를 끼쳐 이웃이나 친지들 모두가 괴로워하였는데 그 보답으로 어느 날 봉두산 위에 잔치상을 차려 놓고 동리 분들을 청하여 질편하게 잔치를 베푸는데 술을 권하는 여인들이 모두가 자신들의 부인이라 이상히 여겨 집에 돌아와 아내들에게 연유를 물어본 즉 아내들은 하나같이 모두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한 곳에 가보니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 술을 부어 올렸다고 대답하더라는 내용들이다.

최창록 교수는 『청학집』의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문학작품으로 보기에는 역사적 우국적 안목이 두드러지고, 역사서로 보기에는 위정자에 대한 반항의식이 강한 야사에 가깝고, 철학서로 보기에는 조선중기 이후의 한 시대를 풍미한 선가의 철학이 담긴 수진편력의 저술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마무리에서는 편운자의 가계

가 사실이나 허구이냐에 따라서 판정 나겠는데 허구에 가깝다면 나머지의 역사성과 철학성은 당대에 있었던 사실과 민중의식의 반영이라는 주제를 담은 그 작품성이 높게 평가되어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운학선생의 가계가 사실인 만큼 『청학집』은 논픽션이면서도 픽션을 가미한 인물소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길을 멈추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학집』은 픽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논픽션도 아닌 인물소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꿈과 예언, 그리고 조짐으로 이어지는 상상의 한계는 글의 재미를 더하게 하려고 화장을 시킨 것이고 운학선생의 가계를 줄거리로 꾸며 나간 것에 대하여는 영인이씨 대동보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를 사실로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청학집』은 용인이씨 문중의 후손이 쓴 것이 아니고, 조여적이라는 인물이 운학선생의 문하생으로, 스승의 행적이 멸실 되는 것을 아쉬워하며 옆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놓은 것이라 했다.

위선생이 말하기를

“동국의 풍속은 귀한 것은 숭상하고 천한 것은 억누르는 습속이 심하다. 더욱이 아름다운 것을 부추기고 착한 것을 칭찬함도 다 명가(名家) 귀족에서 나왔으니 산림에 묻힌 이는 다 없어지고 겨우 몇몇 고사(高士)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위선생의 생각대로 조여적 또한 스승의 행적이 멸실 되는 것을 누구보다 아쉬워했을 것이고, 그런 만큼 스승의 가계나 편력에 대해서만은 사실대로 쓰지 않았겠냐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결론을 얻기에 좋은 증거로는 글의 재미를 더하게 하려고 화장을 시킨 부분이 조여적의 순수한 창작이라면, 운학선생이 지었다는 시 14수도 얼마든지 자신의 창작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글을

운학선생의 작품으로 소개한다는 것이 천부당만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의 선조들 이야기를 쓰면서 귀양을 갔다든가 하는 남에게 들어내기를 꺼리는 부분도 스스로 없이 거르지 않고 썼다는 점이다.

어찌하였거나 이제 인제에서 태어난 운학선생은 훌륭한 예언가요. 시인이며, 벼슬을 마다하고 운림 고취하며 주체선도 사상의 맥을 이어간 신돈(神遁)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麟蹄郡의 沿革 考察

최 병 헌

1. 시작하면서

필자(筆者)는 1996년 『麟蹄郡史』 향사편(鄉史編)의 원고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 하나는 인제현(麟蹄縣)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또 하나는 『楊口郡誌』에 보면 현종(顯宗) 4년(1663년)에 양구현이 옥사(獄事)로 인하여 인제현에 영속(領屬)되었다가 몇 해 후에 다시 양구현으로 환원(還元)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麟蹄郡誌』에는 전혀 언급(言及)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촌에 사는 관계로 충분한 자료 확보가 지난 할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 기간을 이미 다 소비하고 편집에 쫓기는 시기에 내가 이 일을 넘겨 받은 관계로 당시의 필자는 원고 정리 과정에서의 현(縣)의 소재지 이전(移轉) 문제는 다루지 않고, 다만 『楊口郡誌』를 인용하여 일시나마 양구가 인제에 영속(領屬)되었다는 내용만 간단히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관계로 누군가는 언제라도 이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늦게나마 소장(所藏)된 자료만 가지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서 본 군 향사(鄉史)의 전반을 고찰(考察)하기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으로 위의 두 내용만을 중점 검토(檢討)하기로 하였다.

2. 麟蹄郡의 沿革 考察

2-1. 縣의 所在地 移轉 問題

1980년 5월 20일에 간행한 『인제군지』 제2장 제1절 연혁편(沿革編)을 보면

이조초엽(李朝初葉)인 1413년에 서화(瑞和) 서흥리(瑞興里)로 부터 인제면(麟蹄面)으로 소재지를 이속(移屬)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1995년 3월 20일 창간된 『강원도사』의 시군별 연혁 인제군편에는

조선(朝鮮) 태종(太宗) 13년(1413)에 현(縣)의 소재지를 인제(麟蹄)로 옮기면서 현감(縣監)을 두었으며, 세종(世宗) 6년(1424)에 서화(瑞和)가 인제현(麟蹄縣)에 이속(移屬)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 내용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려면 먼저 인제군의 건치연혁(建治沿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의 인제군은 군으로 통합되기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조선왕조(朝鮮王朝) 시까지는 인제, 서화, 기린이 별개의 군 또는 현으로 존치(存置)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문헌(文獻)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고려 인종(仁宗) 23년(1145)에 간행된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편에는

……楊溝縣領縣三狝蹄縣高句麗猪足縣景德王改名今麟蹄縣馳道縣本高句麗玉岐縣景德王改名今瑞和縣三領縣(양구현령현삼희제현고구려저족현경덕왕개명금인제현치도현본고구려옥기현경덕옥기현경덕왕개명금서화현삼령현)……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풀이하면 양구현에는 희제현, 치도현, 삼령현이란 세 개의 영현(領縣)이 있는데 희제현은 고구려 때 저족현이었고, 치도현은 고구려 때 옥기현이라 하였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은 저족현은 인제현으로, 치도현은 서화현으

로 했다는 내용이고, 『삼국사기』 잡지(雜誌) 제6, 지리(地理)4, 고구려 백제편에는

……楊口郡一云要隱忽次猪足縣一云烏斯迴玉岐縣一云皆次丁(양구군일운요은홀차저족현일운오사회옥기현일운개차정)……

이라 기록되어 있다. 풀이하면 양구군은 요은홀차라고도 하고, 저족현은 오사회, 옥기현은 개차정이라고도 했다는 내용이다.

또 1481년에 간행되고 1530년에 증보(增補)한 『동국여지승람』에는 이보다 좀 더 소상히 밝히고 있다.

本高句麗猪足縣一云烏斯回新羅改猪蹄爲楊麓郡領縣高麗改今名屬春川後屬淮陽恭讓王元年監務

本朝

太宗十三年例改名爲縣監(屬縣)瑞和縣和一作禾一名瑞城在縣北六十里本高句麗玉岐縣新羅景德王改馳道爲楊麓郡領縣高麗改今名屬春川後淮陽本朝世宗來屬(본고구려저족현일운오사회신라개희제위양록군령현고려개금명속춘천후회양공양왕원년감무 본조 태종십삼년례개명위현감(속현)서화현화일작화일명서성재현북육십리본고구려옥기현신라경덕왕개치도위양록군령현고려개금명속춘천후회양본조세종래속)

즉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이었으나 오사회라고도 했다. 신라 때에는 희제현으로 고쳐 양록군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 때에는 지금의 이름인 인제현으로 고쳐 춘천에 영속(領屬)되었다가 뒤에 다시 회양군에 영속(領屬)되었으며 공양왕(恭讓王) 원년(元年 1389)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太宗) 13년(1413)에는 지방제도를 개혁하면서 현감(縣監)을 두었다.

속현(屬縣)인 서화현은 화(和)를 화(禾)로 쓰기도 하고 일명 서성(瑞城)이라고도 부르는데 현(인제현을 말함)의 북쪽 6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 시대에는 옥기현이었으나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치도현으로 고치고 양록군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가, 고려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춘천에 영속(領屬)되었다가 뒤에 다시 회양군에 영속(領屬)시켰

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나 『동국여지승람』보다 훨씬 뒤에 필사본(筆寫本)으로 간행된 『관동읍지』에는 공교롭게도 <속현>이란 두 글자가 누락되어 있고, 『인제읍지』에는

……太宗十三年癸巳爲縣監名瑞城在縣北六十里(태종 십삼년 계사위헌감명 서성재현북육십리)……

라고 기록하고 있어, 『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비교 검토할 때 <屬縣瑞和縣和一作禾一名(속현서화현화일작화일명)>이 누락되었다.

다시 말하면, 서화가 인제의 속현(屬縣)이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삭제됨으로서, 위의 인용문(引用文)을 원안대로 해석한다면, “태종 13년 계사년(1413)에 현감을 두었고, 현의 이름은 서성이었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在縣北六十里(재현북육십리)> 즉 현의 북쪽 60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은 과연 어느 현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인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태종 13년 그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인제현(오사회 또는 저족현, 희제현)과 서화현(옥기현 또는 개차정, 치도현)이 각각 독립된 현으로 그 연혁(沿革)을 달리하여 오다가 태종조(太宗朝)에 와서야 서화현을 인제현의 속현(屬縣)으로 하여 현감(縣監)을 두었음을 알 수 있고, 또 『朝鮮王朝實錄』을 인용(引用)하면 세종(世宗) 6년(1424. 7. 29)에

……戶曹啓淮陽任內瑞和春川任內伊布舍屬于附近麟蹄縣(호조 계회양임내 서화춘천임내이포합속우부근인제현)……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세종(世宗) 6년에 비로소 회양군에 속해 있던 서화현과 춘천군에 속해 있던 이포소를 부근에 있는 인제현과 통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0년에 간행된 『인제군지』와 1995년에 간행한 『강원도사』에 실려 있는 <태종 13년에 서화면 서흥리에 있던 현의 위치를 인제로 옮기면서 현감을 두었다>는 내용은 어느 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다른 관내에 현청(縣廳)을 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관동읍지』와 『인제읍지』를 토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2-2. 楊口縣의 領屬期間

1984년에 간행된 『양구군지』와 1996년에 간행된 『인제군사』에는 현종4년 계묘년(1663)에는 양구현감의 옥사(獄事)로 인하여 양구가 일시나마 인제현에 영속되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몇 해 후에 다시 양구현으로 환원되었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현종(顯宗) 4년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국역조선왕조실록』(CD-Rom참고) 현종(顯宗) 4년에

- ① 6월 16일 형조판서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강상죄인(綱常罪人)”이 있을 경우 그가 출생한 고을의 호(號)를 강등(降等)시키고 관원(官員)을 파직(罷職)시키는 것이 관례화 되었습시다만 율문(律文)에는 없는 일입니다. 선묘조(宣廟朝) 정미년(丁未年)에 대신에게 의정(議定)토록 하였는데 그때 선문께서 강상죄인도 똑같이 적용해서 시행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令甲으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양구에서 지아비를 죽인 죄인의 경우, 스스로는 포천(抱川)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포천 사람들은 본 읍 태생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장을 올려 변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本曹)에서 청리(聽理)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와서 정소(呈訴)하기를 ‘그녀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은 금화(金化) 태생이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는 것은 밝게 교화(教化)를 못시켰기 때문이니 죄인이 현재 거주하는 고을을 해당시켜야 할 듯 합니다.” 하고, 태화도 허적의 말이 옳다고 하니 상감(上監)이 따랐다.

- ② 7월 19일 양구의 여종인 옥지(玉只)가 자기 지아비를 시해하였는데 삼성(三省)²⁾의 복안(覆案)에 승복하여 사형을 당하였다. 이어 현감 김흥지(金興祉)를 파면하고 그 고을을 혁파(革罷)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율문(律文)에는 없지만 강상죄인이 발생하면 죄인이 출생한 고을의 호를 강등시키거나 혁파하고 관원을 파

직시키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는데, 그 목적이 백성을 밝게 교화하는데 있는 만큼 출생지보다 죄인이 현재 거주하는 고을을 해당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왕이 그대로 행하라 하였으므로, 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종 옥지는 간부(奸夫)와 짜고 자기 지아비와 자식을 죽인 강상죄인이므로 출생지와 관계없이 양구현을 혁파하고, 현감을 파면하였다고 하니, 이런 연유로 하여 인제현에 영속되었음이 확인되었지만 다시 현으로 환원되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강상죄를 물어 강등시켰던 각 주(州), 군(郡), 현(縣)의 호(號) 복원(復元)을 상실했거나 승격시킨 기록을 살펴보면, 연산 2년 5월 15일에

……일시에 병란 때문에 강등된지 지금 30여 년이니 바라옵건데 옛날 칭호로 회복하여 만세토록 높여 받들 땅으로 삼으소서.……

라는 기록이 있고, 중종(中宗) 34년 9월 3일에는

……수원의 명칭을 낮춘 지 이미 10여 년이 되어(병술년에 이 고을 사람 중 자식이 아비를 죽인 자가 있어 부를 낮추어 군으로 하였다.) 물론 이 모두 이제 마땅히 다시 승격시키야 한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영조 8년 1월 16일에 와서는

……평안도(平安道) 안릉현(安陵縣)을 승격시켜 안주목(安州牧)으로 삼았다. 처음에 안릉은 흉역(凶逆)이 발생한 곳이라 하여, 강등시켜 현으로 삼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 10여 년의 기한이 찾기 때문에 옛 이름으로 회복시킨 것이다.……

라 하였으며, 영조(英祖) 14년 1월 11일에는

……전광도(全光道)를 전라도(全羅道)로, 강춘도(江春道)를 강원도(江原道)로 하고, 충원, 금성, 원성, 남원, 이천, 장흥, 담양, 풍천, 풍기, 용인, 진위 등의 고을을 모두 본래의 명칭으로 승격시켜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대개 역적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명칭을 낮추었던 것인데, 이제 이미 10년의 시한을 채웠기 때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영조(英祖) 19년 1월 15일, 영조(英祖) 21년 1월 13일에도 10년을 시한으로 해서 고을의 명칭을 본래의 명칭으

로 승격시킨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구도 10년의 기한이 끝나는 현종(顯宗) 14년 7월 19일에 다시 현으로 환원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종(顯宗) 10년 1월 16일에

……인제, 양구 두 읍의 도감둔전(都監屯田)³⁾을 파하였고……

라는 내용과, 현종(顯宗) 11년 11월 20일자에는,

……양구, 인제, 흥천, 정선 등 7개 읍의 공을 작목 한……

이라는 내용, 또 현종(顯宗) 13년 5월 4일자에는

……양구현에는 서리가 왔으며, 흥천현에는 우박이 내렸는데……

라는 내용이 있어, 혁파했다는 양구가 뒤에도 본래의 현으로 불리워 왔다는 점이다. 허나, 숙종(肅宗) 20년(1694) 9월 15일자 기록에 ‘현령이상은 모두 강등시키고, 현감은 모두 현의 아래에다 반차(班次)⁴⁾를 정하고, 현감은 파직하지 않았으며, 뒷날의 식례(式例)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그 보다 31년 전의 일이지는 하지만, 처음에는 고을을 혁파하고 현감을 파직하였으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또 고을을 혁파하고 관직을 파직하는 것은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묻는 일종의 벌칙인 바, 관직을 강등시키거나 반차(班次)를 정하는 것으로도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만들 수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여기어 곧 바로 양구를 인제군의 속현으로 하여 반차만을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끝을 맺으며

이상과 같이 인제현의 소재지 이전 문제와, 양구가 인제군에 영속되었던 기간을 몇 가지 자료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제현의 소재지 이전 문제는 해석상의 착오임이 분명한 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조초엽인 1413년에 서화 서흥리로부터 인제면으로 소재지를 이속시켰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세종(世宗) 6년

(1424)에 회양군에 속해 있던 서화현과 춘천군에 속해 있던 이포소가 인제로 래속(來屬)되었다.’로 바로잡아야 하고, 양구의 영속기간은 ‘현종(顯宗)4년 계모년(1663)에 양구현은 강상죄인(綱常罪人)이 발생한 곳이라 하여 인제에 영속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나, 혁파(革罷)했다는 고을 이름이 같은 현종조에 몇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반차(班次)만을 정하여 속현으로 하였다가 현종 14년에 10여 년의 기한이 찾기 때문에 옛 이름인 양구현으로 회복시켰다.’로 정리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 믿으며 끝을 맺는다.

〈참고자료〉

삼국사기 1145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관동읍지 1843

인제읍지 1843

인제군지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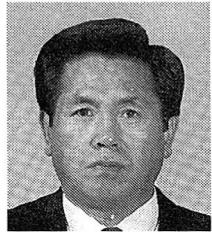
양구군지 1984

강원도사 1995

인제군사 1996

-
- 1) 강상죄인(綱常罪人) : 삼강 오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죄인
 - 2) 삼성(三省) : 조선시대에 인륜에 어긋나는 죄인을 취조 할 의정부, 의금부, 대간의 관원이 모여 심문하던 일
 - 3) 도감둔전(都監屯田) : 나라의 중대한 일에 쓰여질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간지를 개간하여 경작하게 하는 전답
 - 4) 반차(班次) : 신분의 등급을 정하는 것

우리 고장 지명 유래 일부를 찾아서...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

1. 머릿말

- 1) 몇해 전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으로 서울에서 레크레이션으로 전문을 갖고 여러 곳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어울마당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인제 종합고등학교를 찾아 교장선생님과 교사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하여 넓은 운동장에서 마이크 확성기를 설치하여 놓고 어울마당 놀이를 여러 가지 이벤트로 시작하여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한 그점이 부끄러움이 앞서게 되었던 일이 있었다. 그것은 진행원이 우리 문화원에서 발간한 지명유래 책자를 들고 그 중에서 골라 학생을 불러놓고 물어서 정답을 알아내는 학생에게 선물을 주는 퀴즈문제였는데 진행원이 몇 학생을 불러놓고 저기 보이는 앞에 우뚝 솟은 산이름이 무어냐고 물었다. 학생은 쉽게 '앞산' 이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진행원이 학교 뒷편에 있는 산을 가르키며 저기 보이는 산 이름이 무어냐고 또 물었다. 역시 학생은 쉽게 '뒷산' 이라고 대답하였다. 물론 얼른 생각하면 학생의 대답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앞에 있으니까 앞산 그리고 뒤에 있으니까 뒷산이겠지! 진행원이 앞산은 비봉산이요 뒤에 있는산은 기룡산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때 저는 앞에 나가 진행

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빌린 다음 학생들에게 잘들어 달라고 하며 가르쳐 주게 되었다. 앞산은 비봉산으로서 그 모양이 봉황새가 나르고 있는 모양과 같다 하여서라고 일러주었고, 뒷산은 기룡산으로서 마치 산세가 용이 일어나는 모양과 같다 하여서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 고장의 가까운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곳과 이름있는 곳은 지명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었다. 그런 후 저는 우리 자신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알게끔 일러주지 못한 것이 큰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지명, 유래, 전설 등 사료집을 많이 발간하고 널리 보급하는 가운데 그네들이 알게끔 교육과 강연도 하고 독서도 시키고 하였어야 하는 말인데 하고 책임성을 가져보게 되었던 계기가 되고 말았다.

- 2) 금년말에도 우리 문화원에서 발간하였던 유적, 지명, 전설등이 한권으로 집필되어 있는 책자가 모두 동이나서 다시 재판에 들어가 지금 발간에 돌입하였다. 물론 널리 보급하고 그 뜻을 많이 알리고자 함이 매우 중요시 되기 때문이다. 한 고을의 마을과 땅에 얽힌 이야기는 그 고을과 마을의 땅에 살던 사람들의 피와 땀이 배인 정신이요 삶의 모습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마을 지명, 전설, 유래 속에는 그 시대의 언어, 풍속, 종교 등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이 녹아있는 생활상이 가장 소박한 형태로 담겨져 있으므로 지명을 「문화적 유산」이니 「지명 문화재」라 부른다.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이기에 마을지명 유래의 조사연구와 보존은 물론 그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고장 주민들의 삶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뒤에 조사하여 편집된 우리 고장의 일부 지명과 유래내용도 앞에 말한 바와같은 뜻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좀더 널리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자 뜻을 두고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또한 지역 향토사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보람된 한 장르가 되길 바란다.

◎ 기룡산(起龍山)

인제읍의 진산으로 그 모습이 용(龍)이 엮드려 있는것 같다 하여 복용산이라 하였는데 군민들은 엮드려있는 용(龍)보다 일어나 있는 용이 좋다고 하여 기룡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이 군청 바로 뒷편 골짜기에서 수복이후 상동리 지역주민들이 해마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산치성을 지냈고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뒷편 산골짜기에서도 합강리 주민들이 산치성을 수복 이후 지냈었으나 70년대 초에 와서 다 없어졌다.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등산로를 만들어 놓고 또한 체력 단련 운동 시설을 만들어 놓아 지역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산책을 즐기며 등산과 함께 산림 목욕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정상 헬기장 부근에는 헨글라이드장을 만들어 모험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가넷고개

인제읍 남북리와 남면 남전2리(자연부락명:가로리加路里) 사이에 있는 고개를 가넷고개라 부른다. 이 가넷고개로 불리게 된것은 고개넘어에 있는 가로리 마을을 예전에는 일명 가네라고 불렀던 것에서 연유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 가넷고개는 수복 후 1958년 군부대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 중앙에다 군축령(軍築嶺)이라는 석비를 세워놓아 그후부터 지금까지 군축령으로 불리어지고 온다.

◎ 가넷다리

가넷고개 넘어 인제읍 남북리와 가로리(가넷)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수복 후 예전에는 목조로 놓은 교량이었으나 1964년 여름에 대 홍수로 가로리쪽 목조 다리 부분이 떠내려가 다시 그해 12월에 목조다리를 수리하여 놓았다. 당시 목조 교량의 길이는 190m였다. 그러나 교량이 부실하여 1972년에 지금의 다리로 새로 놓았는데 길이는 390m, 높이 20m, 넓이 8.5m이다. 그리고 이 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리 쪽 산밑에 초소를 만들고 청원경찰이 주재하면서 주야로 상시 순찰을 돌며 지켜오다가 80년대말 청원경찰이

감축되면서 지키는 일이 없어졌다.

◎ 갯골

일명 포곡동(浦谷洞)이라고도 한다. 포곡동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浦字는 : 개포, 갯가, 물가(浦口, 浦灣, 浦邊). 谷字는 : 골, 골짜기(谷澗, 溪谷)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물가 또는 갯가로 이루어진 골짜기라고 해서 갯골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위치로는 남북리에서 서북(西北)쪽으로 긴 골짜기를 말하며 입구에는 얼음냉골이라는 샘물줄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에도 샘물이 차가워 냉골물(샘터)이라고 불려오고 있으며 인제읍 소재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남면과 원통사람들도 떠다 먹고있다. 또한 갯골 막바지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예전에는 남북리 갯골 팔반(8반)으로 행정 구역상 되어 있었고 남북리 초등학교의 분교로 조그마한 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초 화전정리 정책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어 학교도 폐교 되었다. 수복 후 골짜기의 수림이 좋아 광솔공장이 있어 송진기름을 만들었으며 안막끝에 골짜기에서는 숲을 굽는 숯가마가 많이 있었다. 또한 골짜기 산 정산은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일명 : 광치)의 뒷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말등이라고 부르고 있다.

◎ 경로정(敬老亭)

인제읍 시가지에서 남북리를 지나 아미산인 군축령을 오르다 정상을 못미쳐 좌측으로 약 500m 들어가다 낮은 산줄기 산등에 약 8평의 규모로 지붕은 기와장, 기둥은 6개의 나무기둥으로 바닥은 목조 마루바닥으로 터를 잡아 건립되어 있다. 1958년 5월 18일에 준공된 경로정은 당시 제 3군단장이었던 오덕준 장군이 관내 노인네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그 후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1985년 인제군에서 시멘트 바닥이었던것을 현재의 건물로 증수하였다. 아울러 이 곳은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인제읍 시가지를 넓게 볼 수 있으며 절벽 밑으로는 소양강 상류 물줄기가 굽이 굽이 돌아 흐르고 있어 한층 더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4계절 모두 관

내 사람들은 물론 타지역 사람들도 이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며 절경을 누리
고 있다. 그래서 세인들은 이곳을 가르킬때 경로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 가리산리(加里山里)

인제읍에서 동쪽 방향으로 덕산리(德山里)를 지나 덕적리(德積里)와 경
계를 이루는 가리산 고개 경계를 넘으면서부터 가리산리(加里山里)인데
예전에는 동면(東面) 지역으로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지역 우풍
개라는 곳과 젓바치·굴아우(굴하우)를 병합하여 가리산리라고 하고 郡
內里(麟蹄邑)에 편입시켰다. 한편 가리산리 동북 방향으로는 설악산 국립
공원 내로 해발 1,519인 가리봉이 있으며 이 가리봉 밑에 인접해 있는 곳
이기 때문에 연유하여 가리산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가칠봉(加漆峰)

설악산 국립공원내 남설악 밑자락에 있는 귀둔리 점봉산(1,424m) 밑
으로 인제읍 귀둔리와 기린면 진동리를 경계로 하여 가칠봉(加漆峰)이 있
는데 해발 1,165m이다. 이 가칠봉에는 소나무와 여러 가지 잡목이 자생
하고 있으나 특히 옷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옛부터 加(더할 가) 漆(옷
칠) 峰(산봉우리 봉)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며 가을철이 되어 단풍이 들
게 되면 옷나무는 특별히 대궁은 곳고 잎줄기는 빨갭게 색을 띠고 잎은 짙
은 노란색으로 물들여져 가을의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는데 크게 한 몫을
한다고 한다.

◎ 광치령(廣峙嶺)

인제읍 가아2리 상촌인 작은 텃골에서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2리인 광
치를 경계로 하고 있는 고개를 광치령이라고 하며 이조 중엽서부터 넓고
우뚝 솟은 산을 넘는 고개라하여 廣(넓을 광) 峙(산우뚝할 치) 嶺(재 령)이
라 불러왔다한다.

이 광치령의 예전 구 고갯길은 광치 고사리 골에서 구비구비 비포장 도

로로 좁게 시작되어 령에 오르다 인제읍 가아리 상촌 주유소 뒤편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도로로 확포장하여 정상에는 터널을 뚫어 놓았다. 그러므로 인제와 양구를 이용하는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다.

◎ 검은소

북면 원통리 쪽에서 내려오는 인북천 물과 기린면 쪽에서 내려오는 내린천 물이 합수되는 합강 합수머리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약 500m 지점에 흘러 내려와 깊은 소(沼)를 이루는데 이 깊은 소의 물빛이 검게 보인 다 하여 검은소라고 불러 내려 온다고 한다.

◎ 고사리(古沙里)

본래 동면(東面)지역으로서 고새울, 또는 고사촌(古沙村), 고사동(古沙洞)이라 하였는데 191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합강리(合江里)와 하추동(下楸洞)일부를 병합하여 고사리라 하였다. 그리고 古(옛 고) 沙(모래 사) 里(마을 리)의 “古”자의 뜻은 옛날, 오래다, 예스럽다, 선인의 뜻을 지니고 있고 열십(十) 밑에 입구(口) 한자로 열(十)사람의 입(口)으로 말할만큼 오래된 이야기라는 데서 ‘옛’ 오래되다의 자원(字源)을 지니고 있다. 또한 ‘沙’자의 뜻은 모래 물가, 바닷가, 고을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고 물수(彳)에 적을 소(少)를 합친자로 물(氵)속에 가라앉은 가는 모래(沙)의 자원(字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뜻으로 “예스러운 고을”이라 하여 고사리하고 부르게 된 연유로 볼 수 있다.

◎ 귀둔리(貴屯里)

본래 춘천부(春川府) 기린현(麒麟縣)이 있었던 곳으로 귀둔, 또는 삼길탄, 이탄(耳呑), 이둔(耳屯)이라 하였는데 1415년 기린현의 소재지를 지금의 芳東으로 옮기면서 麟蹄郡 東面으로 편입되고,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피래군량밭, 양지말, 용숫골, 오작골, 황골, 곰배골과 기린면 북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귀둔(貴屯)리라 하여 인제면(인제읍)에 편입되었다.

行政里는 2개리이다. 그런데 예전에 耳(귀 이) 呑(삼길 탄)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귀 이(耳)의 字源으로는 사람의 귀의 모양을 본뜬자로 양쪽에 있다는데 있고 삼길 탄(呑)의 字源으로는 삼킨다. 먹는다. 또한 갖는다는 소유적인 뜻으로 춘천부 기린현이 한귀에 속해있는 곳으로 연유해 이탄(耳呑)이라고 한 것 같고 또한 耳(귀 이) 屯(진칠 둔)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귀 이(耳)의 字源은 앞에서 서두한 바와같이 사람귀의 모양을 본뜬자로 양쪽을 가르키는 가운데 한끝의 음이 야기할 수 있고 屯(진칠 둔)의 字源으로는 잡초처럼 여러 병사가 모여 진을 치다의 뜻, 그리고 모이다의 뜻으로 춘천부 기린현이 한귀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현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연유해 이둔(耳屯)이라고 한 것 같으며 貴(귀할 귀) 屯(진칠 둔)이라고 한 것은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피래, 군량밭, 양지말, 용숫골, 오작골, 황골, 곰배골과 기린면 북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하며 귀한 곳을 인제군 인제면에 편입시켰다 하여 귀둔(貴屯)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 가아리(加兒里)

자연명으로 전해오는 구전에는 지형이 개미를 닮았다고 하여 개미나라고 불려져왔다고 한다. 개미가 방언으로 개아미로 불리우고 여기에 리(마을 리)를 덧붙여서 개아미리가 되고 이를 빠르게 발음하면 개미리가 되며 느리게 발음하면 가아미리가 된다. 이 개미리와 가아미리가 개면이 또는 가면이로 불리게 되었다고 본다.

이후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숫골, 다소골, 진두루, 반쟁이, 갈밭구미, 텃골, 솔정지를 병합하여 가아리(加兒里)가 되었다.

가아리(加兒里)를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먼저 加자는 力(힘 력) 部-부수자이다. 力이 붙은 자는 힘, 일하다, 힘쓰다, 부지런하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물건을 들어 올릴때 뭉치는 근육의 모양을 나타낸 상형자이다. 또한 口(입 구) 部-부수자이다. 입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로 어떤 물체의 작은속 공간임을 나타냄. 입구, 인구구, 어귀구, 말할구, 구멍구, 실마리

구라고도 하며 口자 붙은 한자는 말하다, 소리, 숨쉬다 등 사람의 입과 관계있는 뜻을 나타낸다. 또한 입구(口)의 넓은 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도 담겨져 있다. 그리고 두번째로 兒자는 臼(절구 구)部-부수자이다. 丩는 절구를 나타내고 그 안의 점들은 곡식알을 본뜻 별이름 구, 땅이름 구라고도 함. 또한 儿(어진사람 인)部-어진사람계자이며 단독으로는 쓰지않고 대개 발로 쓰인다. 儿 이 붙은 자는 사람의 인격, 지위, 어리다 등의 뜻을 가진다. 사람이 두다리를 굽혀서 겸손을 나타내는 모양을 본뜬 상형자이다. 그러므로 加兒里란 힘이 있고 어진 사람들이 밭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 검발리(劍發里)

금바리라고도 부르며 옛날에 사금(砂金)을 바리로 실어냈다고 하여 금바리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그런데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에는 검발리(劍發里)로도 되어 있는데 그 연유는 알수가 없고 한문의 뜻을 살펴보면은 劍자의 字義는 칼, 검법, 찌르다, 죽이다이고 發자의 字義는 일어나다, 발사하다, 쏘다, 생기다, 들추다, 파내다, 떠나다로 되어있다. 이 뜻으로 미루어 볼때 칼같은 무도를 만들었던 곳이거나 연마한 장소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곳을 들어오는 입구인 사구미(살구미)에서 예전에 사금을 많이 채취하였던 지명으로 보아 금바리라는 지명이 옳은 것 같고 검발리는 금바리의 방언인 것 같다.

◎ 검은석(거무석)

일명 거무석 또는 거무세기로 부르기도 한다. 위치로는 인제읍에서 기린면을 가는 중간쯤에 있으며 하추리 남쪽으로 입구가 된다. 마을 주위에 있는 돌의 빛깔이 검은색이며 특히 앞냇가 물 속에 있는 돌들의 색깔이 검은색을 띄고 있다. 이에 연유하여 이곳을 검은석계 라고 하며 거무석, 거무세기는 검은색의 변화된 말이다.

◎ 군량동(軍糧洞)

인제읍에서 가리산 고개를 넘어 귀둔리로 가는 쇠물안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 된다. 이 앞에는 약 7만 여평이 되는 넓은 밭이 있는데 왜정때 의병들이 이곳에서 군량미로 사용하는 곡식을 생산하였으며 또한 창고도 지어놓고 보관해 가면서 군량미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군량동이라는 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군량동이라는 지명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지명으로 역시 무리를 지은 군사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연유하여 지명이 붙었을 것이다.

◎ 건이고개(建伊峰)

인제군과 홍천군의 경계가 되며 인제군의 어론리와 홍천군 두촌면 건남리 사이를 이루는 고개이다. 예전 이조시대에 이곳 주위 아래에 건이원(建伊院)이라는 원집이 있었기 때문에 연유하여 건이고개, 건이현, 건이치, 건이촌이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고개 밑에 골짜기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집들이 몇 채 있었는데 이 마을을 건이촌, 건이골이라고 불렀으며 대체적으로 고개가 낮아서 걸어서 넘어 다니기가 편리하였다고 하여 「놀이 좋기는 합강정이요. 넘기가 좋기는 거니고개」라는 노래가사가 인제뗏목소리 가사에 있다. 지금 이 건이고개 정상 인제쪽으로는 쉼터가 있고 이 쉼터에는 장승을 비롯한 목각 공예품이 많이 있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렀다가 구경을 하며 쉬었다간다.

◎ 구만동

소양댐이 생기기 전 남면 관대리와 남면 부평리를 잇는 강위에 삼팔교라는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으며 이 다리를 건너 부평리쪽 검문소를 지나 우측인 북서쪽 방향에 구만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당시에는 여러 가호가 살고 있었으며 모래밭이 많았고 큰 미루나무도 많이 있었다. 또한 음양리 북쪽에 있는 구만동은 소양강굽이 안쪽이 된다. 구만동 그리고 구미동이라는 지명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으며 대개 이 지명들

은 강물 또는 냇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곳을 명명하여 부른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지금은 소양댐의 상류 물이 찰때는 물 속에 있고 물이 빠지면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다.

◎ 갑둔리(甲屯里)

한문자로는 갑옷 갑(甲) 진철 둔(屯)자로서 「갑옷을 입고 진을 치다」라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이곳에 무리를 지은 병영이 주둔한 사실에 연유하여 갑둔(甲屯)이란 지명이 붙게 되었다는 뜻을 지닌 가운데 한국지명총람 인제편에는 본래 남면지역으로 임지왜란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하여 갑둔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치리(所峙里)와 김부동(金富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갑둔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2개리라고 되어 있다.

1987년도 당시 갑둔초등학교 이태두 선생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다. 갑둔이라 하면 원갑둔, 서낭거리를 포함하여 수거재 서쪽 일대를 말한다. 갑둔은 홍천, 인제간 국도에서 10km, 옛날 역이 있던 부평에서 16km, 인제(현)에서 30km 떨어져 있고 해발 500~700m의 산간 고지로 교통이 불편한 편이긴 하나 땅이 기름지고 산채류가 풍부하여 일제때만 하더라도 약 300여호 이상 거주했었다고 한다.

갑둔의 옛이름은 알 수 없으나 한자로 ‘갑(甲)’ 자는 ‘갑옷’ 또는 으뜸의 뜻이 있으며 ‘둔(屯)’ 자는 ‘둔전’의 뜻이다. 둔전이란 옛날에 군사들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던 땅이다. 따라서 갑옷은 군사와 관련이 있고 으뜸 또는 제일의 뜻으로 볼 때 그 옛날 많은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하고 훈련하면서 군량을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이 지역의 지명 유래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지역은 고대 국가인 고구려와 신라의 지역으로 자주 분쟁이 있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고구려 또는 신라의 군사들에 의해 생겨난 지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부리라는 이름에 대한 유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작고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장기간 군사가 주둔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둘째, 통일 신라 말기에 신라에서는 왕권 다툼이 잦고 부패하자 왕위 계승에서 실패한 많은 왕족과 그를 따르던 귀족들이 서울(경주)을 떠나 각기 여러 곳으로 흩어졌으며 이들은 한 고을을 차지하고 지방호족이 되어 중앙 정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규합하고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던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신라의 왕손인 김부(金富)라는 사람이 신라의 어지러운 사회를 등지고 현 김부리에 들어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김부리를 근거지로 인근 고을에 세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왕의 칭호를 받았을지 모른다.

셋째, 경순왕(金傳)이 나라를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침으로써 신라 천년의 사직이 싸워보지도 않고 없어지게 되자 이를 반대하던 세력이 있었다. 이때 태자는 한을 머금고 삼베옷을 입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 하며 둘째 왕자는 해인으로 가버렸다 한다. 그러나 문헌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왕자나 왕손이 한 무리를 이끌고 김부리에 들어와 이곳을 근거로 군사를 양성하고 세력을 다져가며 고려에 항거했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마의 태자가 문헌상으로는 금강산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그 행방이 실제로는 위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잃은 나라를 다시 찾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마의 태자를 왕으로 모시면서 김부리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근거로는 김부리에 대왕각이 세 곳에 있었는데 그 중 상단지골에 있던 대왕각에는 경순대왕 일자지신(敬順大王一子之神)이라는 위패와 많은 호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근우씨 증언)

다섯째, 경순왕은 40세에 고려에 항복하고 고려 태자보다 상위직인 정승의 직위를 받고 경주를 식읍으로 받았으며 태조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하여 43년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한다. 이때 권력과 재력이 있으

면 많은 처첩도 있었을 것이며, 그 결과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불만이 많은 자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선대의 왕손임을 내세워 행세 하였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위 다섯가지 가정 중 그 어느것 하나도 문헌상에 나타나 있는 않지만 여하튼 신라 왕손의 일부 무리가 이 지역에 들어와 김부라는 사람을 최고 통치자로 옹립하여 군사를 양성하고 중앙통치를 배제하며 김부리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넓혀 양구 지역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이 갑둔 곳곳에서 불에 녹은 돌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 옛날에 석를 녹여 병기나 농기구를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확실한 것은 이곳에 이미 1000여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김부탐의 명문에서 알 수 있고 그 후로도 이 곳의 지형적 여건은 유배자나 도피 은신자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이는 여러 곳에 발견되는 옛 무덤의 묘비에 ‘대부’의 직급이 적힌 비문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옥터골

옥터란 옛날에 죄인을 가두어 두었던 감옥이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지형적으로 마을에서 격리되어 있고 감시가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감옥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통치자가 권력시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를 추종하는 강력한 집단 세계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조의 왕정 세자에 의한 죄인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관성으로부터 교통이나 통신이 매우 불편한 오지이므로 행정적 제재 감시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일반 유배자라면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옥터골에 있었을 감옥은 갑둔리와 김부리에 웅거했던 통치자와 그 집단이 그 체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옥이 설치되었던 곳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명 유래로 볼 때 옥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 항병골(降兵谷)

항병골은 김부리 남방에 있는데 항병이란 군사들이 싸움에서 싸움의 뜻을 버리고 항복한다는 뜻이다. 어떤 세력간에 있었던 싸움이며 어느편이 항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부 통치 체제와 관련된 것은 분명하다.

물론 고구려와 신라간의 접경지 내였던 이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첩첩산중인 이 지역이 큰 싸움터였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전쟁이 있어도 소규모의 전쟁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김부 통치 체제에 의한 싸움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믿어진다.

◎ 수거너머(手車)

서낭거리와 김부리 사이에 큰 고개가 있다. 오늘날은 자동차 길이 잘 닦여 있는데 옛날에도 이곳으로 통하는 고갯길이 있었던 모양이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김부 대왕이 이 고개를 넘어 다녔는데 수레를 타고 넘다가 산이 하도 험하고 칙닝쿨이 많아 수레를 내버려 두고 걸어서 넘었던 모양이다.

수레 두대를 만들어 고개 양쪽에 두고 고개만 걸어서 넘어가 평지에서는 수레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수레를 남겨 두었던 고개 양쪽을 모두 '수거넘어' 라고 부른다. 이 권력자는 칙닝쿨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다 하여 부하들에게 칙닝쿨을 모두 없애라고 하였단다. 그리하여 오늘날도 갑둔리와 김부리 일대에는 칙닝쿨이 매우 드물고 있어도 무성하지 못하다.

◎ 맹개골

맹개골이란 만가란 말의 변한 말로 이 뜻은 우리나라 구전 민요의 하나라서 상여를 메고 갈 때나 죽은 사람을 매장 할 때 혹은 다지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의 하나이다.

이러한 지명의 유래는 고려 초기에 이 곳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맹개골 부근에 묻었는데 이 곳에서 만가가 자주 불렸을 것이다. 지금도 이 곳에 상여를 보관하는 화채간이 있고 이 부근에 여러기의 고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만가골이란 말이 변해서 맹개골이 된 듯하다.

또 하나의 가정은 이 지역에서 맹 장군이 신라의 재건을 꿈꾸며 군사를 훈련시켰다는 전설이 있다. 따라서 맹장군이나 맹장군의 자손들이 살던 집이 있었던 곳이므로 맹가(孟家)골로 불려졌고 이 말이 후세에 변해서 맹개골로 되었을지도 모른다.

◎ 서낭거리

서낭이란 옛날 사람들이 큰나무에 신이 있다고 모셔 위하고 길을 지나 가다가도 예를 표하고 지나가며 일년에 한 두 번씩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동네에 흉한 일이 생기면 이곳에 와서 빌기도 하던 곳이다. 이 서낭은 지금의 갑둔초등학교 자리 운동장에서 서쪽가에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매우 큰 엄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밑동의 크기가 열두 사람이 둘러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나무의 가지로 만든 두주를 이홍운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름이 1.2미터나 된다.

서낭 부근에는 일반적인 집이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부지에서 도기 파편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성황당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낼라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릇들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며 이것들의 깨어진 조각들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낭거리의 중심이 되는 길이 서낭 옆으로 나 있었다고 하는데 대개의 서낭은 길가나 고개마루에 있었다.

◎ 단지골(斷趾谷)

단지골은 김부리 북쪽에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단지라는 뜻은 옛날에 죄인에게 형벌을 주는 방법의 하나인데 발 뒤꿈치를 자르는 벌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김부 통치 체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던 곳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단죄(斷罪=벌을 줌)란 말이 변화된 가능성도 있다.

◎ 옥새바위

김부리 단지골에 가면 옥새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큰바위에 넘적한 바위가 올려져 있는데 옛날에 왕이 이곳에다 옥새를 감추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 맹창골

맹창골 역시 김부의 충실한 신하였던 맹장군과 관련되어 붙여진 지명으로 보인다. 즉 맹장군이 살던 집이 있던 곳일 것이다. 김부 왕궁이 있었다면 지형적으로 보아 왕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김부리 중심의 양지바른 곳에서 가까운 500미터 정도의 거리에 맹창골이 있다.

◎ 십이 선녀탕

옛날 하늘나라 옥황상제께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정하여 깨끗한 물은 담아 놓을 소(탕)를 만들기 위하여 12명의 선녀를 지상세계에 내려 보냈습니다. 12선녀들은 지상의 모든 곳을 돌아보고 동해의 먼 나라 조선국의 용례(현 용대리)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곳에 소(탕)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용 선녀를 비롯한 12선녀는 12년만에 모든 소를 완성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고된 일로 지친 4선녀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8선녀는 4선녀가 파놓은 소(탕)에 각각 묻어 주고 하늘에 올라가 물을 뿌리니 용탕, 독탕, 복숭아탕을 비롯한 8탕의 8폭포가 구슬같은 푸른물을 연속으로 흘리며 연주선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12탕 중 8탕만 존재) <참고문:용대로에서>

◎ 도적폭포

옛날 미시령에는 길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떼가 있었는데 령을 넘어 우시장에서 소를 팔고 돌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폭포밑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미시령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을 지나야 했

는데 한 번 올라간 사람은 그 후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도적떼를 물리칠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었는데 폭포 아래 200미터 물 속에 살고 있는 이무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의 도적떼를 모두 잡아 폭포 속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도 이무기가 폭포 밑 깊은所に 살고 있으면서 미시령을 넘은 사람들을 감시하며 용이 되어 승천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 청련제(일명 : 청용제)

유유히 흐르는 백담계곡을 휘감으면 아득히 높은 곳에 청용제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옛날 계곡에는 장가들지 못한 젊은이들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화장터가 자리하고 있어 젊은 혼귀들이 계곡에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곡을 피해 높은 산에 길을 만들어 다니곤 하였는데 하루는 팔봉이라는 젊은이가 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계곡에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후로도 젊은이들이 고개를 넘으면 혼귀들이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 계곡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종종있게 되어 이곳을 지나던 노스님께서 정성껏 제사 지내니 젊은 혼귀들이 모두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청련제라고 불렀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당시 '물러갔던 혼귀들이 푸른 용이 되어 승천했다' 하여 청용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문:용대로에서>



기 고 문

1. 문화의 증흥은
2. 문화와 예산
3. 백두산 기행
4. 절기
5.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웁시다.
6. 우리 함께 웃어요.
7. 민속 상식
8. 속담풀이
9. 도전 민속퀴즈
10. 재활용품을 예술로
 빛어내는 묘미
11. 자투리 정보

문화의 중흥은



정 광 벽

백주 대낮에 서늘이 퍼린 가운데 400 억이 없어졌다. 문화원 800 군데를 지원할 자금이다. 한빛은행 사건도 깃털은 있고, 몸통은 없다. 작금 동방신용금고 사건 그 참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400억이 없어졌다. 이 난장판에 100만원 먹고 목 잘리고 퇴직금 못 타고 유치장 신세인 하급공무원들은 전직대통령의 천문학적인 자금의 미회수로 지금 지탄 받으면서 청와대에 모여서 국가를 걱정한다는 것이 우습고 한심한 나라이다. 우리의 자화상은 지금 몇시를 가리키고,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데 팔자 좋은 소리라 할지 몰라도 이것도 문화이다. 무슨 문화 정치문화이며 인간관계 구축의 한 제도인지 모른다.

이익의 성호사설을 또 인용해야겠다.

“人情國”가에 우리나라는 본디부터 인정의 나라라고 일컫는다. 크거나 작거나 뇌물을 연유해서 되지 않는 일이 없음을 이른 것이다. 무릇 물품을 공급하는 데에도 뇌물이 아니면 되지 않으므로 인정이라 이른다.

까닭에 ‘진상하는 물품은 꼬챙이에 꿰고 인정쓰는 물건은 바리(馱)에 가득하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사사로 쓰는 뇌물이 공적으로 바치는 것보다 도리어 많음을 이른 것이다. 민생(民生)의 고달픔과 국정의 어지러움은 항상 이것이 폐단으로 된다. 귀인도 천인도 착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이런 것을 모르는 자가 없건만은 이런 짓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는 자가 없으니 어찌 괴이

한 일이 아닌가. 옛적 한나라 영제(靈帝)때에 궁중에다 여러 창고를 만들고 사사 재물을 저축하기를 좋아하였다. 매양군국(郡國)에서 공물을 바치면, 먼저 중서(中書)에 바치도록 하고, 명목을 도행비(導行費)라 했는데, 드리는 물품을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중관(中官) 여강(呂強)이 간하기를 “공물을 바치는 관부에 문득 도행하는 재물이 있어 (調)가 많으니 백성이 곤란하고, 허비됨은 많은데 바치는 것은 적습니다. 간사한 아전이 이(利)를 탐내서 백성이 그 폐란을 받습니다.”라고 서주(書奏)하였으나 영제는 살피지 않다가, 얼마 가지 않아 천하가 시끄러워지고, 황건적(黃巾賊)이 일어나서 한나라는 드디어 망하게 되었다. 앞 수레가 넘어지는 것이 가히 경계가 될만한데도 오늘날에 인도한다는 인정은 나날이 심해진다. 그러하건만 고관대리(高官大吏)로 있는 자들은 익숙해져서 심상하게 여기니, 그 참관에게도 미치지 못함이 있다” 여기에서 인정이란 표현은 뇌물이 되었던, 와이로든, 향응이든 저자 이익이 살았든(1681~1763)에도 심했던 모양이다. 이에 내 심정과 대동소이 한 두장을 펼치는데 백주에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강도라 한다. 맹자가 이른바 “사람을 성문 밖에서 밟고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공공연하게 백성의 재물을 약탈함이 강도보다도 심함이 있는 바, 곧 만장(萬章)이 이른바 “백성에게 받은 것이 병기로써 사람을 막는 것 같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강도를 보면 “반드시 잡아 죽여야 한다”하면서 탐장(貪贓)한 것은 보아도 예사로 보아 넘기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음은 무엇 때문인가, 그 심리를 미루어 볼 때 진실로 필부가 재물이 없으면 반드시 팔을 걷어 붙이고 남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를 당하는 자는 몇몇 사람에게 불과하다. 탐착한 관리가 수령으로 되면 해독이 한 고을에 퍼지고, 방백으로 되면 해독이 한 방년에 퍼진다. 이러므로 주자(朱子)가 그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 내면서 말하기를 “큰 글자를 얼굴에다 새겨서 귀양 보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심지어는 경상(卿相)으로 된 자가 재물을 탐내어서 다함이 없으면 나라

를 좀먹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명(明)나라 곽도(藿韜)는 말하기를 “탐장한 관리가 서울에 들어와서 대신에게 은(銀) 1천냥을 뇌물로 먹였으며, 외지에 있을 때에 백성의 돈 수만 냥을 벗겨 내었고, 무신이 대신에게 은 1만냥을 증뢰했다면 외직에 있었을 때 군사의 고혈(膏血) 수만냥을 벗겼을 것이다. 사사로 백 곱절되는 재물을 탈취해서 오직 한 곱절만으로 써 이를 취한다. 미끼를 대신에게 먹여서 명성과 명예를 사고 후원(後援)으로 맺는데, 이로 인해서 승진(陞進)하고 또한 고찰(考察)을 늦추어서 반드시 안전을 보장 받는다 하였는데, 이것은 뼈에 사무치는 말이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에 보양(保養)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방탕한 심정으로 여색을 즐기다가, 정력과 혈기가 고갈하게 되면 4백 4가지 병이 번갈아 나타나고, 잇달아 침범하게 된다. 가느다란 숨결로 병상에 눕게 되면 비록 손가락을 깨물면서 후회하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탐장을 다스리는 법을 늦추어서 백성에게 살 곳을 잃게 한 자는 반드시 후일에 좋은 일이 없다.

결국 초기에 신숙주(申叔舟)의 아들, 고천군정(高川君澣)은 노비에 대한 일로써 죄를 받아 죽었고, 근세에는 송평(宋枰)이란 자가 조지서 별제(造紙畧 別提)가 되어서는 자문지(咨文紙) 한장으로 기첩(妓妾)의 전모(氈帽)를 만들다가 형을 받음과 함께 자손도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다. 또 강류(姜榴)와 채형(蔡衡)은 아울러 근시명관(近侍名官)으로서 권세 있는 재상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 재상이 대관(臺官)을 부추겨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써 논계(論啓)하였다. 그 뇌물을 주었다는 자가 죽음을 당할 때까지 두 사람의 원통함을 말했으나 3년동안 수금(囚禁) 되었고, 여러 차례 형을 받았는데, 선조(先朝)때 법금(法禁)의 엄중함이 이와 같았다. 지금 세상에는 한번 수재(守宰)로 되면, 갑자기 집이 윤택해지고 전장(田庄)이 풍성해진다. 혹 어사(御史)가 탐장한 것을 고박하기도 하나 온갖 방법으로 신설(伸雪)하여 아침에 탄핵하는 소장이 들어왔는데, 저물녘에는 관개(冠蓋)를 웅위하고 나온다.

대체 나의 이목으로 보고 기억한 바로는 한 사람도 장리라는 지목을 받은 자를 보지 못했다. 온 세상에 넘쳐 난자가 모두 공수(龔遂), 황패(黃霸) 같이 청렴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인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도 믿지 않는다. 먹이 사슬의 맨 끝에 있는 문화예술계의 쟁이들이 무슨 힘으로 이 문화를 끊을 것인가?

문화계도 한수 더 떠서 서예전에 화랑루인 돈 받고 당선시키고, 미술대전이 어떤 학교, 자기 제자 돈 먹고 출품작 미리 선정하여 당선시키는데, 잡지사의 등단이나 문학생이 의심받는 이유로, 편을 갈라 싸우는 작태도 개인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개인은 당연히 망한다. 뜻이 있어 뜻을 물려주는 책임있는 문화를 우리는 갈망한다.

사교육비가 12조원이라는데 국, 영, 수 과외비의 10분의 1이라도 문화에 쓰이면 교육은 더욱 나아질 것이다. 대학생의 독서량이 1년에 2권인 나라에서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그저 울고 짜고 웃기고 만나고 헤어지는 연속극, 음담패설 주색잡기의 오락, PC방의 게임과 통신과 D.D.R로 모두가 병들어 간다.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진다. 멈추면 썩는다. 더 이상 악취가 없는 신선하고 싱싱한 문화를 2000년대에 기대한다.

문화와 예산

정 광 벽

합강제행사의 일원으로 박인환문인 세미나에 가보니 어떤 군의원이 예산을 늘린다니 박수를 우뢰와 같이 치며 환호하는 것을 보았다. 도서관의 주부독서회의 한시강연 겸 들려서 예술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연을 한 기억이 있다.

예술이 정신의 기준이며 기강인데 어찌 누가 점수와 등수를 매긴단 말인가? 우리의 환경(環境)과 어울려 政治, 經濟의 總合的 結晶體인데 詩를 지어 잘되었는지 보아 달랄 때 나는 당황한다. 거울에 비친 그대로의 자신의 얼굴이지 바꿀 수 없는 情神世界를 판단하라는 말이다.

지금 時代에 맞지않고 冊을 좋아하는 사람의 道인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貧者士常에 이런 말이 있어 문화와 예술을 취미로 하든 本業으로 하든 名心할 문구가 있어 옮겨본다. “가난한 것은 선비의 떳떳함이다. 선비란 작위가 없다는 호칭이니 선비가 어찌 가난하지 않겠는가.

대개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한다. 선비도 농사꾼이 아니니 여름 밭고랑의 고달픔을 본디 견디어 내지 못할바이다. 하물며 농사는 두어 곱절의 이익에 불과한데, 진실로 제 전지가 없으면 남의 땅을 갈아야 하니 의식이 항상 모자라서, 특히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선비로서 재물이 있게 되는 것이 세 가지이다. 혹 선조가 가업을 세워서 후손에게 물려준 것이고, 혹은 재물을 요리해서 이익을 취한 것이며, 혹은 정당치 못하게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것이다.

혼인과 상사(喪事)에 소비하는 일이 있으면 줄어짐은 있어도 보태어지는 것은 없다. 모리(牟利) 하는 것은 유독 마음을 그릇되게 할 뿐 아니라 또 글을 읽으며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두 갈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이 들어가면 저쪽은 나오게 된다. 글을 읽지 않을 수 없는 즉, 이(利)는 반드시 전심하는 자에게 돌아간다. 반드시 맨바닥 위에 던져 있다가 나와 같이 가기를 기다리진 않는다.

이러므로 유백룡(劉伯龍)이 만년에 10분의 1로 이익을 경영하려 하다가 귀신의 비웃음을 받았다. 대저의 아닌 물건 같은 것은 다만 내 마음에 부끄러워 하는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하면 해환(害患)이 반드시 따르는데 소위 간부(姦富)라는 것이다. 그런즉 선비가 어찌 가난하지 않겠는가, 가난한 즉 오직 봉두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처첩마저 나무람을 더해 온다. 오직 딴 사람이 천케 여길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더럽고 자잘하여진다. 까닭에 가난하면 반드시 본심을 잃는데, 이것은 상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깊으면 걱정이 알아지고 얕이 심원하면 근심이 떠버린다. 예사로 알고 버린다면 어느 곳엔들 이르지 못하랴.

옛적에 자유(子由)는 해진 벼을 입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증자(曾子)는 굶었으나 신발을 끌면서 상성(商聲)으로 노래한 것은 그 상도를 지킬 뿐이었다.” 이상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문구를 인용했다.

필자 자신이 농사꾼의 자식이기에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 대학시절 어려우면 ‘농사 지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학교를 다녔다.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 지어본 사람만이 오뉴월 콩밭에서 김메는 고통을 알고 체념과 인내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선비에게 직업이 없다는 말을 명심할 일이다. 사람이 안하던 일은 못하는 것이다. 명퇴나 조퇴한 분들이 다시 시작한 일에서 대개 고전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문화도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며, 하고 싶어서 자기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자존과 체면이 없는 문화는 아니 돈이 그리우면 장사를 해서 벌면 된다. 행사마다 모임마다 돈타령인데 문화부예산이 GNP의 2%가 넘어서도 역시 모자란다.

주체성과 자존심을 가지고 싫으면 중이 절간을 떠나면 된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면 죽기보다 싫은 것이 인간의 심성이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신이 난다. 필자 역시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인제지역 어느 매체에서 원고료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행사 후의 예산 타령은 있는 그대로 십시일반으로 해결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지역문화의 창달을 기대한다.

白頭山 紀行

정 원 채

우리 민족의 聖山 白頭山은 世界가 羨望하는 神靈스러운 名山이다.

祖國疆土를 품에 안고 永劫게 우리를 守護하며 壯嚴한 偉容으로 天下를 굽어 살피는 白頭大幹의 祖宗山. 이 성산을 한번쯤 올라서 보는 것이 우리 국민 누구나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南北이 가로 막히고 서로가 理念을 달리하는 現實에서 白頭山을 가본다는 것은 꿈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六二五 侵略戰爭에서 冷戰으로 이어진지도 五十年이 어느 가수가 부르던 노랫말처럼 세월이 약이 되었음인가? 냉전은 종식되고 和解무드가 造成되어가면서 公산대국의 中·러와 國交가 이루어져 物貨相通의 交易이 盛行되고 있다. 人間個個人의 自由往來의 길도 트이고 있다. 이와 때를같이 하여 새천년 五月부터 白頭山가는 港路의 길이 열려서 우리 一行 四十名은 다섯 번째로 東春號에 乘船하고 그토록 소망하던 白頭山을 향해 달려갔다. 政府의 꾸준한 外交努力과 力量에 感謝한다. 偶然의 一致라고나 할까? 우리 회원들이 白頭山 관광 길에 오르던 날 北韓의 金正日國防委員長은 五十年이나 굳게 잠가 놓았던 鐵甕城의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自由의 나라 한국의 金大中大統領을 迎接해 맞았다. 가슴이 확트이고 꿈에도 소원이던 統一이 금방 눈앞에 보이는 듯 二重榮光의 感動을 느꼈다.

共海上에 들어선 東春號는 칠흙같은 어둠을 뚫고 一律的인 速度로 달리고 또 달려간다. 海上의 날씨도 우리들을 도우려 함인지 微風도 불지않는 잔잔한 날씨였다.

乘船한지 十七時間만에 東春號는 러시아 땅 자루비노항에 碇泊한다.

우리 一行도 서둘러 下船하여 約 한시간의 通關절차를 끝내고 미리와서 待期中에 있는 버스에 乘車한다. 나는 러시아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비록 우리나라가 작지만은 강한 나라다. 뚝고 들어가야 마는구나. 우리 領土의 地形이 호랑이처럼 되어있음은 世上이 다 아는바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오른쪽 앞발을 中·러 大陸을 향하여 뻗치고 있다. 참으로 意味深藏한 地勢가 이닐수 없다. 호랑이는 소득이 없는 行動은 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누가 아랴? 이런 地勢의 運氣 속에서 살고 있는 民族 中에서, 第二의 廣開土大왕이 또 다시 안나온다고 말이다. 작지만은 강한 나라다 라는 意味를 이룬데 두면서 달리는 車窓으로 러시아 山河를 살피면서 冷戰終熄의 主役이었던 고르바초프 前 소련 대통령에게 無言의 感謝를 드렸다.

이것으로 白頭山을 가게 된 所懷를 끝마치기로하고 다음은 出發에서부터 回程에 이르기까지의 보고, 듣고, 느낀점을 차근차근 생각하며 이 종이위에 쏟아내 보자.

當初 白頭山 觀光의 뜻을 結集시킨 分은 地方行政同友會長 박창빈씨와 同友會員과 一般을 합쳐서 四十名 地域으로는 인제 신남 北面上南 등이다. 말이 쉬워서 관광 이라지만 水陸으로 속초에서 白頭山까지 九四四킬로 二千三百여 리다. 港路開設에 合意을 보고 當事國간에 認定을 한 港路기는 하지만 어두운밤 海上을 共海上으로 간다고는 해도 北韓海峽을 통과 한다는 恐怖心 社會主義大國인 러시아와 中國을 거쳐야하는 遠程이라 冒險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行動의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前의 료보협 공단 理事長 沈永有氏를 가고 올 때까지 인솔 會長으로 選任하고 會長의 命令에 服從키로했다.

遠程길을 마음에 武裝을 단단히 하고 떠났다. 속초항에서 東春號에 乘船한것은 午後 二時 正刻 닷을 내리고 밧줄을 걷어 올리고 筵鐵로 된 昇降 垔를 걷어 배 옆에 붙쳐 세우고 나는 이제는 떠나는구나 했더니 어디선가 작은 動力船 한척이 통통거리고 와서 東春號에 接近하더니 배머리에 가

서는 大洋을 향해 당겨주고 배 뒷편에 가서는 반듯하게 서도록 밀어준다. 이렇게하여 그 큰배가 港口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引渡해준다.

야! 동춘호야 크기만 하고 잔뜩 주어실기만 했지 명칭이로구나 둔자야 하고 웃었다. 「이런 方式은 자루비노 항구에 가셔도 마찬가지로 東春號가 갈길 찾아 方向을 정할때까지는 二十分 걸린다. 二시 二〇분이 되자 뱃고동 소리가 두어번 크게 울리더니 씩씩한 항해가 始作된다. 바다 날씨가 얼마나 고요하고 잔잔한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있는 것같이 보인다. 출렁이는 파도가 있다면 一定한 速度로 달리는 速度에서 일어나는 하얗게 내려다 보이는 泡沫뿐이다. 우리들이 가는 港路를 天地神明도 도와주는구나 싶었다. 共海上이라 그런지 갈매기 한마리 보이질 않는다. 萬頃蒼波에 탄 物體라고는 티끌하나 보이질 않는 太平洋上을 떠가는 東春號가 외로워 보였다.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바다 속 기관실에서 들려오는 動力의 모타 소리도 아련히 들려올 뿐이다. 침실로 들어가 정해진 자리에 앉아 玄老人과 대담으로 시간을 보낸다. 百五十名이 起寢할 수 있는 船室은 綠色시트로 깔려있고 하얀 카바를 씌운 스펀지요 하나와 녹색담요 두장 베개 하나씩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다리를 쭉펴고 드러누워도 통로는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다. 참으로 편안하게 잘 수 있다.

밤 七시경 밖으로 나가 갑판 위로 올라갔다. 칠흙같은 어둠을 뚫고 배는 달리고 있다. 나는 생각에 北韓 땅에서 비쳐오는 불빛이라도 보려니 했었는데 어디가 어딘지 분간 할 수 없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승무원 한사람이 갑판 위로 올라오기에 배는 지금 북한 어디쯤 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계를 들여다 보더니 지금 원산을 막 지나고 있는중 이라고 한다. 이제는 침실로 들어가 내일을 위해 푹 자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상통로 어디를 가도 불그스레한 전등이 비쳐주어 아무런 불편은 없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등마다 무쇠철관을 半쯤 갈라 외부를 철저히 가리고 있어서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보안장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로 들어왔다. 이게 웬일인가!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KO하고 STP하면서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실내를 살펴보니 영어공부 하



- 장백폭포의 낙차 68m 폭포뒤로는 噴火山 솟아있다.
- 이 물은 흘러 松花江을 이루고 많은 지루를 거느리고 있다.

는 분들이 여덟군데나 된다. 어찌면 영어 공부하는 책을 저렇게도 준비를 했을까? 아마도 우리 국민의 오락풍조에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KO와 STP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도 좀 배울까 하다가 來日을 생각해서 취침으로 들어갔다.

새벽 五時 二〇分이 되었다. 밖으로 나가 갑판 위로 올라갔다.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白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솟아오르는 해는 보이지 않아도 솟구쳐오르는 햇빛의 照光은 東녘 하늘이 새빨갳게 물들어 있고 고요한 바다 위도 불그스레 물들어있다. 五時三〇分이 조금 지나자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듯한 수평선 위로 새빨간 해가 축구공보다도 작게 보이는 빨간 덩어리가 하늘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 솟치미는 듯 보였다. 이 宇宙自然의 神秘스러운 光景을 내 어찌 보고만 있으랴 찰칵하고 카메라에 담았다. 순간 어둠이 가시고 좌우로 나직한 산들이 안전에 들어온다. 러시아땅 자루비노 항구다. 六時가 되자 東春號는 부두에 접안한다.

아~! 여기가 러시아의 영토로구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異國의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은 더욱 상쾌했다. 二〇분간의 접안 작업이 진행되는 동

안 나는 갑판난간에 의지하고 좌우 山河를 둘러보았다. 나직한 산은 U자형으로 둘러선것이 사람이 만든 人造山처럼 아름답다. 自然의 오묘한造化에 다시 한번 감복한다.

U자형 안은 배가 數千척이 入港할 수 있는 깊고 넓은 바다 天惠의 항구요 天惠의 軍事要塞다. 山은 나직하지만 구축해 놓은 전쟁때 쓰던 도치카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여기저기 수없이 보인다. 승강기가 내려지자 우리들은 즉시 下船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검사소에 들어가 一列로 줄을 선다.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것으로 보아 五月初 港路開設이 되면서 倉庫를 修理한 것이 分明하구나 했다. 내 차례가 왔다. 손에 든 여권을 제시하니 러시아 女軍복장을 한 아가씨가 생긋 웃어 준다. 여권의 사진보고 내 얼굴 보기를 거둬하더니 확인도장을 찍고 여권을 주면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 소련 女軍아가씨들은 보는 사람마다 아름다웠다. 검수대에 배낭을 올려 놓고 또 한 번 나가니 배낭도 따라나온다.

관광길에 나선 늙은이 배낭 속에 무엇이 있겠는가? 시간만 낭비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관문을 나가자 鐵路가 二重으로 깔려 있고 倉庫를 지을 때 埽地를 높여서 기차의 문 하단 높이와 똑같게 한통로의 길이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다. 창고의 길이도 복도의 길이와 같아서 많은 物動量이 入出港했음을 짐작케하고 建物이 노후된 것으로 보아 五十年은 족히 되는 듯 보였다. 그리고 한때 盛況을 이루다가 長期間의 세월을 비워둔채로 넘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위 환경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 폐허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五〇년대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自由의 나라 한국을 침략하려는 北韓을 돕기 위하여 北으로 소련군이 進駐할 때 天惠의 軍事基地인 자루비노를 요새로 하고 北韓으로부터 報恩의 뇌물을 실어나르던 곳이 分明하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치기까지 한다. 철로를 가로지른 통로를 건너가니 여러대의 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 모두 승차했다. 조금있자니 청바지에 반팔셔츠를 입은 노랑수염의 운전技士가 올라와 운전을 한다.

속초방향으로 한 구비 돌아 산중허리를 끼고 조금 가더니 제일 낮은 고

개를 넘어 달린다. 야! 하고 입이 벌어진다. 一望無際 좌우를 차창을 통해 내다보는 草原은 끝을 바라 볼 수 없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 이따금 아주 작은 피가 들성들성 있는데 딱갈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瑞山에 정주영씨 농장은 저리가라다.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 비옥하고 넓디 넓은 草原을 버려두고 있나 참으로 아깝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하기는 二十一세기 과학문명이 국에 달하도록 발전해 가는 이때 이놈의 버스가 팔자가 사나워 왜 러시아땅 비포장 도로에서 굴러가고 있다. 우리를 인솔, 안내하여 주는 속초 해운 영업과장 석기동씨 말이 이 차들은 한국의 중고차를 사들려 온 것입니다 한다.

사람도 늙으면 숨이 차고 가던 길을 멈추고 쉬어가는 법, 고국에서 청년 시절을 다 보내고 늙어서 외국에까지 팔려 온 늙은기계, 달리던 차가 퍽-소리를 내며 발동이 꺼진다. 기사는 다시 작동을 시작하자 부르릉하고는 퍽-이다.

야- 이거 못가나 싶었다. 어떻게 간신히 발동이 걸린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초원을 三〇킬로쯤가자 길 옆에 四, 五가구의 민가가 보이고 차는 정차한다. 여기서 운전기사가 교대된다. 또 다시 짐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草原 한중심으로 뿔려져있는 비포장 도로로 우리만 달려 갈 뿐이다. 또 三〇키로 달려가자 삼거리가 나오고 러시아 군인의 검문소가 나온다. 검문을 받기 위하여 차는 섰다. 인솔자 石起東氏가 내려가 인원숫자를 적어 준 종이 조각을 들고 차내로 올라 온다. 그저 형식적이다. 용무를 보려고 차에서 내린 우리 一行 한 분이 담배를 한가치 불을 붙여 주었다. 또 한 분은 히스 한 갑을 주니 안 주머니 깊이 넣고 검문실로 가더니 피우던 담배를 전우에게 넘겨준다. 이것을 받아 피우면서 차 옆으로 접근해 오더니 오른손 두 손가락을 담배 피우는 시늉을 하면서 입에 대고는 왼손을 펴서 차창에 들여댄다. 한 갑 주고는 싶는데 차창을 열 곳이 없다. 차는 떠난다. 그런데 이 軍人들의 복장을 보니 五〇년대 우리나라 훈련소에서 입어 본 국산 군복과 비슷했다. 너무도 초라하고 모자 쟁은 힘이 없어 사병의 콧등을 내려 덮고 있다.



- 白頭山天池는 鴨綠江 豆滿江 松花江 三江之根源이다
- 白頭山 높이는 海拔 2,749m
- 天池의 湖面이 海拔 2,189m
- 天池의 面積 - 9.82 平方公里
- 天池의 水深 - 373m
- 天池의 南北의 길이 4.85公里
- 天池의 東西의 길이 3.35公里
- 天池 둘레의 길이 13.1公里
- 天池의 貯수량 - 20 立方米
- 白頭山海拔 2,600以上の 크고 작은 峰을 일곱이나 거느리고 있다
- 白頭山天池長廊 上과 如함

- 나는 天文峰과 八卦廟 中間 위치에 앉아 있다
- 白頭山을 향하여 오르던 길이 盤山路다. <필자 鄭元采>

가없고 불쌍한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의 싸움에 칼을 뽑아 들고 이 길을 통해서 북한을 돕고 얻어다 먹은 것에 반드시 재앙이 뒤따랐음이다. 因果에는 應報가 반드시 있는 법이니까 하고 생각하는 중 차는 Y자식으로 된 삼거리에 도착한다. 알아보니 좌측은 “브리디보스톡”으로 가는 길이고 우측은 中國 국경지역으로 가는 길이다. 약 八킬로쯤 달려가자 大型建物이 나타나고 入境通道 填春口岸이라고 쓴 간판이 보인다. (大境通道=국경으로 통해 들어가는 길이라는 뜻이고, 填春口岸=填春으로 가는 入口라는 뜻이다.)

建物 앞에 車가 멈추자 軍人 한 사람이 나오더니 차렷 자세로 거수경례를 한다. 복장은 검게 보이는 국방색 바지를 날이 바짝 서도록 주름을 잡았고 상의는 반회색에 녹색 빛깔이 같이 보이는 듯하고 모자도 단정하게 군화도 반짝반짝 닦아 신었다. 어디를 가나 통관시간은 한 시간 이상 걸린다. 담배를 피우다가 한가치 그 군인에게 권하니 또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거절한다. 조금 전 러시아군이 하던 행동과는 정 반대다. 건물도 비교적 잘 지은 건물이였다. 나라와 나라간에 처리하는 예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다.

통관절차가 끝나고 버스쪽으로 가려는 순간 근무 직원 한 사람이 다가

오더니 우리가 들고 간 수박 그 큰놈을 압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순순히 응했다. 조금있자니 조선족 청년 한사람이 오더니 병글병글 웃으면서 여기서는 수박이든 참외든 과일은 갖고 입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은 동포끼리 미안합니다 하면서 中國지폐 十圓짜리 한장을 뒷주머니에서 꺼내 주면서 훈춘에가서 사 잡수시오 한다. 눈치를 보니 그냥 뺏을 수는 없고 통관불허라는 미명뿐이지 사실은 먹고 싶어 하는 짓이었다. 버스 外部에는 延邊天馬旅游游車公司라고만 썼지 차에 올라 타고 보니 역시 우리나라 大字의 중고차였다. 여기서부터는 李某라고 하는 靑年 한사람이 觀光案内者로 동승한다. 이 사람이 名所마다 내력을 설명해 준다.

車는 一路 塡春을 향하여 달려간다. 약 三〇분 달려가니 塡春市內가 보인다. 五층 건물로 새로 지은 食堂에다 미리 준비를 시켰다고 한다. 복도에 들어서자 아가씨들이 안내를 한다. 홀에 들어서니, 밥만 안 갔다 냐지 식단준비는 다해 놓았다. 둥근 원반에 차린 음식은 깨끗하고 맛깔스럽다. 그런데 원반 한 복판에 대형쟁반에다 네 종류의 떡을 보기좋게 진설 해 놓았다. 떡맛도 일품이다. 떡을 다 먹자 밥을 갔다 준다. 배추김치가 얼마나 맛이 좋은지 더 청해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서둘러 차를 탔다. 보고싶은 곳을 좀 더 보자는 것이다. 한참 달려간 곳은 圖們이다. 이곳에서 유유히 흐르는 豆滿江과 北韓 마을이 건너다 보인다. 두만강은 강 폭이 六〇메다는 족히 되어 보이는데 이상한 것은 쳐다봐도 내려다봐도 강바닥이 깊은 곳도 얕은 곳도 없이 四차선 고속도로처럼 판하기만하고 크고 작은 바위들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마 진시황제가 萬里長城 쌓을 때 다 주워가진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도문교반쯤 들어가니 한복판쯤 되는 위치에 하얗게 페인트로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선을 딛고 서 있는 군인이 중공군인지 북한군인지 아무말도 없이 두팔을 옆으로 짝 펼치면서 더는 못가게 막는다. 흰선을 中心으로 한양쪽 난간에는 외등이 둥그렇게 서 있다. 아! 여기가 국경이로구나 했다. 돌아나와 圖們에 올라가 보기로 하고 아치형으로 된 도문의 양쪽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보인다. 들어가니 첩로된 계단으로 三층에 올라서니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보인다. 옥상바닥은 두꺼운 판자목으로 마루놓듯 했는데 썩어서 움푹 꺼진 데가 많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 우측으로는 관광용품을 파는 아가씨들이 물건을 팔고 있다. 다가가서 보니 책으로 된 북한 우표가 놓여 있다. 값을 물으니 우리돈으로 삼천원이다. 한권샀다. 또 한편에는 지방분들 같이 보이는 노인들이 대포잔을 들고 앉아 좌담을 한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하자 반갑다고 한다. 조선족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다. 도문의 유래를 좀 알고 싶다고 하니 이 땅의 본래地名은 灰幕洞(회막골)인데 독립군이 주둔하면서 圖們으로 부르게 됐고 도문의 위치는 吉林省의 東部가 되고 間島省에 속하는 도시라고 한다. 또한 분은 아 글썩 옛날 만주땅이라니까요 이제는 쉽게 알겠지요 한다.

조선족이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하자 조선족 60%, 한족이 40%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도문의 루대도 우리 조선족의 힘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中國에서 漢族이라고 하는 종족이 따로 있는가 하고 물으니 原來는 몽고족의 一種인데 이 땅의 토배기를 漢族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中國人은 중국 전역에서 모여든 잡종들을 中國人이라고 한다. 도문루대 위에서 건너다 보이는 북한 마을은 한 폭의 그림처럼 높은 산의 품에 안겨있다. 집들도 많이 보이고 고층 건물도 많이 보인다. 잘 사는 마을같이 보인다.

조선족들의 말에 의하면 높은 집들은 거의가 군사시설로 비어 있고 민가도 빈집이 더 많다고 한다. 그러나 경비는 삼엄하다는 것이다. 답답하기만한 심경으로 건너다 보다가 집합시간이 조금 지났다. 달려가자 10여 명이 지각을 했다.

인솔 회장으로 부터 그 큰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고 있다. 승차가 완료되자 차는 延吉을 향해 달리고 있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山河는 아름답게 보였다. 농촌의 민가가 띄엄띄엄 보이는데 집들이 모두 초라해 보인다. 한 마을에 100호가 산다고 보면 40%는 초가집이다. 흙을 구어 벽돌을 만들어 지은 집들은 빨갭게 보이는데 하나같이 一律의 구조로 지은 점이 특징이다. 집주위는 하나같이 섬울타리에 사립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農土는 비옥하게 보인다. 그런데 논밭을 살펴보니 우

리나라 50년대 경지정리 이전의 田畝 그대로라 농기계라고는 경운기 한 대 볼 수가 없고 再來式農事方法 그대로다.

농촌의 아낙네들의 옷차림은 흙색 치마에 흰저고리 흙고무신이 주종이다. 어떤 아주머니는 해방을 전후하여 우리네 어머니들이 입었던 뽕뻬차림의 아낙네들이 곧잘 많이 보인다. 자루비노를 떠날때 속초해운의 石起東氏가 하는 말이 소련이나 中國이나 우리에게 비하면 文化水準이 30년 뒤떨어졌다고 한다. 가시더라도 너무 멀시하거나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하던 당부가 거짓이 아님을 확인했다. 소학교 학생들이나 아낙네들은 백두산 天地가 그려져 있는 런닝셔츠, 학생들은 長白山 높이를 기록한 손수건 등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며 사라고 졸라댄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앞서 한가지씩 사주는데 이때 40세가량의 中靑年 한 사람이 이 光景을 보고는 몽둥이로 막 패는 것이다. 학생들과 아낙네는 혼비백산 들고 도망을 치는 것을 보고 왜 저럴까 의아했다.

가도가도 끝이 없이 보이는 광활 農土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통일이 되어 국교가 자유화 된다면 한 번 와서 살아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보았다. 이 땅 모두는 廣開土大王께서 점유했던 우리의 領土가 아니었던가 왜서 무엇때문에 中國에 빼앗기고 말았는가? 弱小民族의 恨을 되씹으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개토대왕의 영혼이 만약 있다면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랴 생각에 잠기기도 해보았다.

언젠가는 失地恢複의 賢人이 出顯할 날이 오고야 말것이다. 이 땅을 지켜가고 있는 朝鮮族同胞가 고맙고 저 먼 훗날 失地恢複에 초석이 되어주기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 廣闊한 땅에 돌을 볼 수가 없다는 점이 이상하게 여겨진다. 가도가도 돌 한 등거리 볼 수가 없다. 산도 그악해하게 암벽이 보이는 곳은 없고 곱고 아름답게만 보인다. 비포장 도로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延邊을 찾아갔다. 깜짝 놀라리만큼 延邊市內는 아스팔트가 완전히 되어 있다. 車를 연변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시키고 내려서 주위를 살펴보니 깨끗하게 정돈 된 학교의 환경정화에 감복했다. 中學校

앞에 세워진 民族詩人 尹東株의 詩碑가 아주 잘 단장된 채로 서 있다.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시비 앞에 서서 시인의 애국혼에 고개를 숙였다. 下校하는 한 학생에게 물었다. 詩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학생은 거침없이 연변 자치주의 조선족이나 우리 학생들의 민족혼을 일깨워 주는 支柱입니다. 학생들 중 공부에 태만하여 학점이 떨어지거나 불량한 행동으로 지적을 받은 학생들을 선생님은 여기 운동주 선생님의 시비 앞에 꿇어 앉히고 民族魂을 재충전 시키는 기압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한다.

市內를 살펴보니 골목마다 장이 서서 인근에서 시장 보러 온 장군들이 법석댄다. 참으로 別有天地다. 延邊은 市民의 70%가 朝鮮族이라 中國政府가 自治州로 承認하여 그래서 조선족 自治州라는 현판도 걸려있다. 연길을 위시한 五個 中學校를 融合하여 연변중학교로 統合을 시킨 교육의 전당이다. 독립투사들이 늘 마셨다는 龍井도 市內四巨里에 龍이 우물을 감싸고 있는 조형물까지 만들어 놓았다. 꿈을 많이 키우는 곰 사육장으로 안내를 받고 갔다. 수백 마리의 곰을 사육하고 있다. 사무실로 안내를 받고 들어가니 사무실이 아니라 응담으로 만든 各種약제를 전문 판매하는 呼客의 呼이다. 쓸개를 탔다는 소주 한 잔씩을 권하고는 어여쁜 아가씨가 앞에 나와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응담제약에 대한 설명을 유창하게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말은 귀 뒤로 넘기고 사무실 주위를 살펴보니 江澤民主席이 시찰을 왔다가 記念으로 揮毫를 써주고 갔는데 내용은 이렇다. 순 한문 글씨로 延邊自治州 國內最高 摸範化都市 붓 끝을 출출 흘려 半草書로 잘 썼다. 末尾에 三月七日에 왔다는 日字가 보인다. 이 글씨를 첩판에 조각하고는 누런 金물로 도금까지 해서 벽에다 걸어 놓은 것이 異彩로웠다. 안 살 바에는 나가야 한다.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펴보니 분수대가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놓았다 카메라에 담았다. 주위에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종일 달려와도 비포장 도로였는데 유독 연변 시내만 아스팔트가 다 되었느냐고 하니 조선족자치주민의 단합된 힘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中國 국토의 道路의 포장률은 全國의 20%라고 한다. 나는 여기서 거침없이 공산주의하다. 中國은 망했습니다.



도문교(건너다 보이는 마을이 북한)

하루 속히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시민에게 自由를 달라고 강택민주석에게 진정서를 내시요 하면서 생각해도 여기가 어디인데 내가 조심없이 짓거리고 있구나 두려웠다. 그분은 빙그레 웃으면서 시장경제로 가든 사회주의로 가든 그분(강택민)의 뜻대로 할 일이지 진정은 못합니다. 당장 심판대에 오른다는 것. 延邊을 떠나 延吉로 차는 달렸다. 드넓은 田畠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저렇게 좋은 沃土를 두고 왜들 못살까? 내 옆에 앉았던 玄承萬氏는 그 原因은 共產主義하다가 저 꼴이 됐어, 하루종일을 돌아보아도 묘 한장 보이지를 않더니 연변을 떠나 조금 가니 차에서 우측 비탈밭에 묘가五기 정도 보이고 우리들과 같이 비석도 세우고 하얀 갓도 씌워졌다. 연길가서 그곳 주민에게 물으니 보이는 묘들은 조선족의 묘라고 한다. 차는 연길을 향하여 곧장 달리는데 그곳 안내원 이씨가 저기 건너다 보이는 산이 一松亭입니다. 진짜 一松亭은 늙어 늙어 枯死되고 없습니다. 그자리에 우리 조선족들이 힘을 모아 一松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놓고 있습니다. 저 一松亭은 보고만 가셔야 되겠나. 달리는 車中에서나마 카메라를 조정하고 찰칵 찍었더니 잘 나왔다. 또 한참을 달려 평야 길을 버리고 산 옆을 끼고 돌면서 내려보니 두만강 보다는 작지만 꽤 큰 강이 넓은 들판 복판을

가로질러 一松亭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때 안내원 李氏는 저기보이는 강이 해란강입니다. 빼놓을세라 카메라를 차창에 바짝대고 샷타를 눌렀다. 역시 잘 나왔다. 저녁 七시경에야 우리는 延吉에 到着하여 延吉客創이라는 높은 건물로 들어갔다. 食堂으로 들어가는 入口에는 어여쁜 아가씨들 七名이나 관광 용품을 팔면서 호객을 한다. 이 집은 식당과 여관(호텔)을 같이 하고 있다.

식사가 끝난 후 客室로 안내 받아가면서 관광용품을 파는 제일 예뻐보이는 아가씨에게 연결도 자치주라고 하는데 시내도 깨끗하고 길포장도 다 되어 도시 기분이 난다고 하면서 인구는 얼마나 되고 우리 조선족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전 인구 50만에 50%가 조선족이라고 한다. 연변고등학교 나왔겠네 하니 그렇습니다 성은 무엇이뇨 하니 단종대왕의 애환이 서린 영월 엄씨입니다한다. 그러자 石起東氏가 뒤에서 보더니 옥돌로 만든 넥타이를 들면서 이런것을 기념으로 하나 사 가세요 사 달라는말로 들린다. 하나 들고 영월 엄씨라는 아가씨에게 얼마냐고 묻자 우리돈 삼천원이라고 한다.五千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거스름돈은 그만두라고 하자 고마워서 어쩔줄 몰라한다. 옥돌 넥타이는 石起東氏에게 선물하면서 저를 보살펴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가워하면서 명함을 준다. 나는 엄양에게 명함을 한 장 주면서 혹시 필요하거든 연락하라고 하고는 客室로 올라가 旅裝을 풀었다. 여관은 비교적 깨끗하고 한 방에 침대 두개씩 놓여 있다. 호텔이라 갖출 것은 다 갖추어져 있다. 玄承萬氏와 同宿했다. 침대에 누워 있자니 잠은 쉽게 들지 않고 一松亭과 해란강을 살펴 본 감회와 마음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듯하고 獨立鬪士들의 말굽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선구자의 노래를 마음 속으로 되뇌이면서 우리국민은 누구나 독립 투사들의 忠魂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에 잠겨보았다.

아침 일찍 기상하여 식당으로 一층 복도를 걷는데 역시 관광용품 가게도 기회를 놓칠세라 단 한 집이 불을 켜고 호객을 한다 가보니 書藝家가 필요로 하는 각종 筆具가 陳列 되어 있다. 살펴보니 宇宙의 天體를 내면에 동그랗게 만들어 불힌 사이로 쌍용이 용트름하고 있는 낙관이 보인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냥 갈수가 없다. 우리 돈 二만원에 샀다. 아가씨를

보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한 마리라도 더 잡아먹는다고 해서 아가씨도 먼저 일어나 불을 밝히고 있으니 이렇게 팔 수 있지 않은가. 아가씨는 펜을 들어 내가 말한 속담을 적으면서 진리입니다 한다.

식사를 하고 거리로 나가 延吉市內를 두루 살펴 보니 50만이 사는 都市답게 高層建물이 즐비하고 시내는 깨끗했다. 車는 우리 麟蹄市內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량의 四分의 一정도인데 한국에서 들여 간 중고車 프라이드가 주종을 이룬다. 깜짝 놀라게도 포니2가 보인다. 딱 한대가 눈에 띄었는데 깨끗하게 보인다.

우리도 시간을 재촉하면서 버스에 승차했다. 목적지 白頭山을 향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두산이란 말도 간판도 들고 볼 수가 없다. 그저 長白山이다. 왜서일까 궁금했다. 市內를 벗어나 차는 광활한 延吉平野를 달린다. 다시 보아도 기름진 沃土가 탐이난다. 그런데 띄엄띄엄 보이는 농촌의 民族들은 어디를 가나 왜 저렇게 초라할까 초가집에 섬울타리 사립문이다. 내가 열살 때 살던 우리집이 생각났다. 똑같으니까.

어쩌면 조선족들이 고국에 살 때의 方式을 그대로 옮겨 놓은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一九四二년경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 고생하는 우리 이웃과 동창생들도 농사 잘 되는 北間島로 간다면서 여러 집들이 이사를 가는 것을 본 기억이 새로워진다. 차는 자꾸만 달려가 산림이 우거진 산골로 접어든다. 길은 二차선 넓이의 길인데 길이 너무도 울퉁불퉁하여 사람을 들었다 놓는다. 길이 좀 심하게 험한 곳은 보토작업을 하려고 흙을 한차석 실어다 띄엄띄엄 부어 놓고 작업인부를 동원시킨 것 같은데 몇 명 안된다. 그런데 이들은 흙덤이에 삼을 꽂아 놓고는 길 옆 풀밭에 누워 놀고만 있는 것이다. 감독도 없다. 안내원 李氏에게 물어보았다. 대답은 이렇다.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저렇게 놀다가 저녁때 집으로 갈 때 한덤이만 펴고 가도 출역인부 기록에 등재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본질 같다고 들린다.

공산주의는 저절로 망하고 만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놓은 이 길에서 드디어 사고는 나고 만다. 신남 계시는 분으로 생각되는데 맨 뒷편에 앉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차가 들었다 놓는데 이를 요령껏 대처하지 못하고 그

만 허리를 다쳐 굴신을 못하고 임시로 가설 당가를 만들어 통로 좌우의자를 의지하고 누어놓았으나 불편하기는 피차가 일반이다. 영업부장 石起東氏는 택시를 급하게 구하여 버스 뒤를 따라오게 했다. 버스는 울창한 밀림을 뚫고 달린다. 좌우에 솟아선 나무는 자작나무 40%, 그 외는 하늘을 찌를 듯한 쪽쪽 곧은 삼비 나무가 주종을 이룬다.

소나무는 한 그루도 볼 수가 없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간에 가다가 점심 식사를 했는데 三층 건물에 집은 크게 지어졌다. 들어가 차림을 보니 대단치 않았는데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놓을 때까지 한 가지씩 가져온다. 이런 방식이 돈 남기는 비법이 아닌가고 묻자 젊은 여자는 얼굴이 빨개진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물었다. 손으로 큰 길 건너편 소학교를 가리키면서 저 뒤로 가라고 한다. 저 뒤 어디야 가르켜 줘 하니 따라 오란다. 小學校 뒤로 가더니 저기 까맣게 보이는 곳을 가리키며 저 건물이란다. 가보니 기가 막힌다. 들어가는 문도 없거니와 들어가보니 험하니 칸도 없는데다 바닥에 아주 좁고 짧게 네모난 구멍이 일곱군데 뚫어져 있다. 정신차리고 정 조준을 해야지 잘못하면 오발이 될 정도다. 간신히 앉아 불일을 보는데 우리 一行도 아닌 男子가 들어와 옆에 앉는다. 조금 있자니 女子가 들어와 거침없이 그 옆에 앉는다. 기절할 지경이다. 처음 겪는 일이다. 아무리 男子라지만 부끄러운 심정에 대사가 안 된다. 눈을 꼭 감고 그들이 나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런 진풍경을 겪는 순간 생활수준이 30년 뒤떨어졌다는 李氏의 말이 맞구나 생각했다.

식당으로 돌아오자 식당 앞에서 백두산 天地가 그려진 런닝셔츠를 펴 놓고 하나 팔아 달라고 애걸한다. 아주머니도 조선족이요 묻자 예 전라도 목포가 고향이라고 한다. 三천원에 한 장을 사주면서 아주머니 성씨는? 하니 나주박씨라고 한다. 아저씨는 하고 성을 묻기에 정씨라고 하니, 아이고 우리 시어머님은 하동정씨라고 하면서 반긴다. 아주머니 나와 본이 같습니다. 편지 주세요. 초청할테니, 그런데 중국의 人口가 十二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청년들이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들이 더 많이 보입니까? 하니 모두 北京으로, 홍콩으로 다 몰려가고 농촌은 비고 있다는 것. 그런

데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산아제한은 한다면 약을 줍니까? 기구를 줍니까? 그저 법만 엄해서 애기를 낳다가는 배급도 줄어들고 별을 받게 되니 출생신고를 못하고 기르는 아이들이 한 집에 보통 二, 三명씩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人口수를 정확히 모른다는 원인이 이런데서 기인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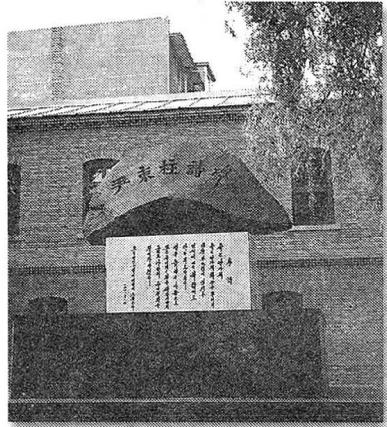
버스는 다시 白頭山을 향해 달려간다. 산비나무, 자작나무 밀림 속으로 버스는 달린다. 저녁 七시경이 되어서 차가 멈추고 내리라고 한다. 내려서 보니 백산대후라는 호텔이다. 미리 준비 했다는 食事は 뷔페食이다. 대형 쟁반하나와 손잡이가 아주 짧은 사기수저, 젓가락은 전보래처럼 길었다. 쟁반에 밥을 뜨고는 부식을 담으며 돌아가는데 열두 가지나 되는 부식이 국물이 흠성하다. 필요한 것 몇가지를 담고 식탁에 가 앉으니 밥이 아니라 죽이 되고 만다. 모두들 아무소리 없이 먹는데 나는 화가 치밀어 종업원을 보고 이것을 뷔페라고 주느냐 배워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하라고 호되게 몰아쳤다. 아가씨들은 벽에 등을 딱 붙이고 눈은 내려뜨고 죽은 듯이 서있고 남자조리사란 놈도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이다.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안내 받아 들어가니 실내는 호텔답게 갖춰졌고 또 깨끗했다.

하루 종일 들었다 났다 하는 비포장 도로에 지쳤음인지 침대에 들자 잠이 들었다. 아침식사를 끝내고 白頭山을 향해 버스를 탔다. 여기서 허리를 다친 아주머니는 부군과 함께 자루노항으로 후송시켰다. 白頭山 밑에까지 와서 저렇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는 두 내외분의 처지에 가슴이 아팠다.

우리들 나이로 볼때 白頭山 등정은 시작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一生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이 길이 왜 이리도 멀고 험준한가!

약 十五분간 달리자 임시로 만들어 냈지 싶은 광장에 정차한다. 내려서 보니 현대차 겐로퍼 일곱대가 앞에 파란 숫자로 1번에서 7번까지 붙여 놓았다. 석기동씨가 나를 보고 몸도 불편하신데 1번을 타세요 앞에 가는 차를 타야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한다. 먼저 가기는 했으나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내가 건강한 분들을 능가할 능력이 없다. 90度 각도로 된 곧추선 길을 좀 오르자니 숨이 차고 무릎 통증이 기승을 부리니 갈 수가 없다. 주저

앞아 심호흡을 하면서 쳐다보니 모두는 정상에 서 있다. 아직도 70미터는 된다. 그러자 심영유씨가 저기보이는 옆길로 돌면 좀 쉬울 것 같으니 그리로 올라오시오 옆길로 비스듬이 돌면서 오르니 숨도 들차고 다리도 덜 아팠다. 쳐다보니 곧은 길이 보이는데 약 20미터는 되어보인다. 내 여기까지 와서 정상



을 못 오르고 가다니 악을 쓰고 두 손마져 땅에 부치고 축생처럼 네발로 기어오르기 시작 한 것이 이제는 다 올라왔오 하는 현승만씨 말씀에 눈을 뜨니 것처럼 동경하던 정상과 天池가 眼中에 들어 온다.

千辛萬苦가 아닌가 나의 白頭山 등정은 모두가 보고 못 올라온다고들 했는데 精神力 하나로 등정에 성공했오 한다. 숨을 돌리고 安定을 얻은 다음 그제야 아~ 白頭山 그토록 한 번 올라서 보기를 願했던 白頭山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 했다. 海拔 二七四九 미터나 솟구친 莊嚴한 姿態 못이 아니라 바다로 착각되는 天池 그 偉容에 내려보는 心境은 무섭기까지 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변한다는 氣像은 雲霧는 고사하고 바람 한 점 없는 淸明한 날씨였다. 건너다 보이는 白頭峰, 玉柱峰, 白雲峰 등 기타 많은 산기슭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雪山을 이루고 있고 녹아내리면서 얼어붙은 氷丘(얼음언덕)는 湖水面에 몸통을 내밀고 산처럼 서 있다. 六月炎天三伏 더위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가 서 있던 곳은 天文峰 부근이다.

옛날 정감록에 보면 鄭鑑, 李沁, 李淵 이 세 분의 先覺者는 白頭山에 올라 술밭같이 대좌하고 앉아 天下事를 예언했던 그 장소가 어디일까? 마음과 눈은 그 곳을 찾아 헤매이기도 했다.

좀 있자니 모두는 下山을 시작한다. 살살히 살펴보지 못한 恨을 남기고 나도 下山을 하는데 오나가나 나는 뒤에서 따라다니는 몰이꾼이다. 내려오면 地勢를 살펴보니 頂上을 中心으로 한 下向 200미터까지는 풀 한 포

기 볼 수 없는 裸山이요. 風雨霜雪에 얼마나 다지고 찌들어 붙었는지 작대기 끝이 안 들어갈 정도다. 흘러내리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下向左側으로 멀리 보이는 우람한 石山, 大山이 폭발 할 때 생겨난 噴火山으로 붉은 빛 검은 빛이 혼재된 石山壯觀을 이루고 서 있다. 이 산기슭이 유명한 長白瀑布다. 白頭山에서 五킬로 정도란다. 무엇인가 아쉬운 심경으로 겔로퍼가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얼른 보기에 좋은 돌 하나를 주워서 챙겼다. 표적을 남겨야 보람이 있지 않나. 차편으로 白頭山관문인 正門앞에서 내려 모두가 장백폭포를 향하여 붉게 철로 가설된 구름다리를 건너 山으로 오른다. 나는 망설였다. 이 아픈 무릎을 절룩거리며 따라가자니 엄두가 안 난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작대기에 의지하고 기어올랐다. 눈앞에 백 계단도 더 되어 보이는 철로 된 붉은 계단이 보인다. 큰일이로구나 하면서 향교대성전 계단 오를 때 禮節로 계단 오르듯 한칸 한칸씩 올라가는 꼴이 안타까웠던지 계단 밑에 보초를 서고 있던 중공군 양어깨에 조그만 은별이 세 개씩 붙은 군인이 층계로 뛰어 올라오더니 나를 옆에 끼고 얼른 산 위까지 올려놔준다. 고맙다고 손을 들어 인사를 하자 씩 웃으면서 계단을 내려간다.

인간 사는 곳이면 인정은 어디든 있구나 六二五때 九萬이라는 희생자를 내면서 北을 뚫던 저 중공군 무엇인가 어두운 기분도 들었다. 이 계단을 올라 山마루에 올라서니 川字 같기도 하고 天上의 仙女가 명주 세 필을 빨아 세 줄로 걸어 놓았다던 長白폭포가 한 눈에 들어온다.

야~ 하고 환성이 저절로 나온다. 깊은 못에 내려 쪼다시피하는 물소리는 天地를 진동한다. 구경을 끝내고 내려와 유황 온천에 목욕을 했다.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겨우 들어갔다. 나같은 류마티스 환자에게 절호의 기회다. 오는 途中에 中食을 끝내고 一路 자루비노항을 향해 달렸다. 차가 잠깐 멈추는데서 차창으로 그 지역을 살펴보니 주유소 앞이다. 漢文으로 注油所라고 쓰기는 했어도 사람도 없고 메다기만 빼죽 두 개가 서 있고 그 옆에는 보초막 같은 집에 야간 주유소라고 벽에 써놓았다. 텅텅이 화물차가 한 대 오더니 이상하게도 기름을 누군가 나와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

고 운전기사 자신이 주입기를 벗기더니 기름을 주입하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가 버린다.

초등五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내다보고 말없이 서 있기만 한다. 아! 이것이 공산주의식이구나! 하면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스럽게 보였다. 차는 填春을 지나 中國국경에 도착 통관절차를 거치는데 이틀을 같이 따라다니던 李氏(案内員)는 거기서 내리고 만다. 나를 보더니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았습니다 잘 가세요 한다. 나는 이틀동안 같이 행동하는 중에서도 李氏가 고맙기도 하고 밋기도 했다. 왜요 하면서 앞에 다가선다. 여기는 연변자치주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요. 저~ 건너다 보이는 산이 일송정이고 저기 보이는 강이 해란강입니다. 할 적엔 고맙더니 곰의 쓸개요, 호골환이요, 우황청심환이요 하는 매약상집은 빠짐없이 찾아들어 황금같은 시간만 소비하니 우리가 구경왔지 약 사러 오지는 않았어요 하니, 그게 다 한국 관광지를 돌면서 배워 온 기술입니다 라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통관을 끝내고 미리 와 대기중인 러시아 버스에 모두는 승차하여 자루비노항을 향해 달렸다.

途中 러시아 운전기사에게 담배(한마음) 한 갑과 눈깔사탕 한 움큼을 주니 그렇게 반길 수 없었다. '상큐 세세' 한다. 듣자니 미국말 중국말을 섞어서 하는구나 무엇인가 나름대로 느낌의 인사를 느끼면서 알아 듣는다. 러시아 말로는 못 알아 들을 것이다 고 예측한 갑오식기 인사다. 이 자그만한 담배 한 갑이 고마운 인연이 되어 금방 돌려 받는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四十名中에 작대기 짚고 절룩거리는 사람도 나 하나뿐이다. 이것을 그 운전기사는 유심히 보았는가 검정색 신사복에 가방을 든 러시아인과 운전기사는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그 신사는 나를 힐끔 본다.

나는 배를 타려고 역시 맨 뒤에서 不自由스러운 걸음으로 東春號 계단을 한 칸씩 치닫는 나를 뒤에서 따라오던 그 러시아 신사는 내 팔을 자기 팔에 걸어 잡으면서 부추겨 올려준다. 얼마나 고마운가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했다. 웃으면서 손을 내저으며 피우던 담배를 보여준다. 내가 그 운전기사에게 피우라고 준 한마음 담배다.

아~ 운전기사가 나를 부추겨 주라고 했구나! 한마음 담배 한 갑이 한마음되어 서로 인간의 정을 나누었구나 생각하면서 나는 객실로 들어가고 그 신사는 일등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순간의 정은 끝났다. 출항 준비가 끝난 東春號는 고동소리를 두어 번 내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한 잠에 날이 밝도록 폭 잤다. 오시 三十分이 되자 설악산이 아련히 보인다고 한다. 나가보니 속초 山河가 눈에 들어온다. 얼마 안가 배는 속초항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한다.

우리도 즉시 下船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는데 그 어디보다도 철저했다. 남의 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中國이나 러시아는 아편을 자유로 심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아편을 안 가져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철저히 검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간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여 四박 五일간의 白頭山 관광은 끝이났다. 다시 생각해도 좀 더 자세히 살피고 매약상들 호객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농촌이라도 자세히 살피며 보는 것이 더욱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제는 나로서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알찬 관광을 하고 싶다.

절기(節氣)

문화원 제공

우리 나라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분이 뚜렷하여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각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날짜가 정확하게 표시된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씨를 뿌리고 수확해야 하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각 계절이나 달에 맞추어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일 년을 24절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24절기는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달의 기온과 농사일까지도 알게 해 주는 옛날의 농사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입춘

24절기 중의 첫번째 절기로, 양력으로는 2월 4일경입니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고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여러가지 민속 행사가 열립니다. 그 중에 입춘첩을 써 붙이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은 대문이나 기둥, 대들보, 천장 등에 ‘입춘대길’과 같이 좋은 뜻의 글귀를 써 붙여 그 해에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풍속입니다.

또 오곡의 씨앗을 술에 볶아서 가장 먼저 술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은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2) 우수, 경칩

우수는 양력으로 2월 19일이며 경칩은 3월 6일경입니다. 이맘때면 봄 기운이 돌고 풀과 나무의 싹이 틈니다.

그리고 우수는 기러기가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고 경칩은 겨울잠에 빠졌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칩날에 보리싹이 자란 것을 보고 그 해 농사를 점쳤습니다.

3) 춘분

양력 3월 21일경이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이며 이 날 이후로 점점 낮이 길어지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이 때에 논, 밭을 처음으로 가는 초경(애벌갈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와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쉬우므로 어부들은 이 날에는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고 배를 탈 때에는 먼 길 가는 배는 타지 않았습니니다.

4) 청명, 곡우

청명은 양력으로 4월 5일경, 곡우는 4월 20일경이 됩니다.

대부분이 농가에서는 청명 무렵부터 봄일을 시작하고 논밭둑을 손질하는 가래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곡우 무렵에는 벼씨를 담가 못자판을 만드는데, 특히 곡우 무렵은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깊은 산으로 곡우물을 먹으러 갑니다. 자작나무, 박달 나무 등에 상처를 내 거기에서 나오는 곡우물을 마시면 몸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5) 입하

양력으로 5월 6일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무렵은 곡우에 마련한 못자리판의 모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는 시기이며 농가는 더욱 바빠집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접어드는 시기이므로 병충해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잡

초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는 해충과 잡초를 없애는 일을 많이 합니다.

6) 소만, 망종

소만은 양력으로 5월 21일 경, 망종은 6월 6일경이 됩니다.

이 무렵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모내기를 하고 여러가지 밭농사의 김매기 등 일 년 중에 가장 바쁜 때입니다. 특히 햇보리를 베어내야 그 논에 모내기를 할 수 있었던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는 ‘밭등에 오줌싼다’고 할 만큼 바쁜 때입니다. 또 이 무렵에 가뭄에 대비하여 물 준비를 충분히 해 놓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7) 하지

양력으로 6월 21일경에 있는 절기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때입니다. 남쪽의 농가는 이 때쯤이면 거의 모내기를 끝냈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햇감자를 캐어 썰 먹거나 갈아서 감자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하지가 지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이때가 벼농사에서 물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8) 소서, 대서

소서는 양력으로 7월 7일경이며, 대서는 7월 23일경에 있습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고 장마철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서는 대개 중복과 겹치는데 여름 중에 가장 무더운 때이기도 합니다. 참외, 수박 등 여름 과일 중에 이 무렵에 나는 과일이 가장 달고 맛 있습니다.

9) 입추

입추는 양력으로 8월 8일경에 있습니다. 입추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든다는 뜻으로, 낮에는 무덥지만 밤에는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

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김장용 무, 배추를 심어 겨울 김장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김매기도 끝나 가고 농사일이 한가해지기 시작하여 농부들은 잠시 일손을 놓고 쉴 수도 있습니다.

10) 처서, 백로

처서는 양력으로 8월 23일경이며 백로는 9월 9일경이 됩니다.

처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다는 뜻으로, 처서가 지나면 따갑던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의 풀을 깎아 벌초를 합니다. 그리고 백로에는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며 추수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이기 때문에 결혼한 부인들은 이 때에 친정에 갑니다.

11) 추분

양력으로 9월 23일경에 있는 절기이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점점 낮보다 밤이 길어지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논밭의 곡식을 거두고 하얗게 솜을 피운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려야 하며, 깻잎이나 고구마순도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농가는 매우 분주합니다.

12) 한로, 상강

한로는 양력으로 10월 8일경이며, 상강은 10월 23일경에 있습니다.

한로는 찬 이슬이라는 뜻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는 농가에서는 이 무렵이면 부지런히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린다는 뜻의 상강이 되면, 농가에서는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겨우살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13) 입동

양력으로 11월 8일경이며 농가에서는 이 때를 기준으로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입동이 되면 시장에는 무, 배추가 가득 쌓이고, 마을 앞 냇가에는 김장거리를 씻는 여자들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이날 날씨가 추우면 그 사람들은 바람이 거칠게 분다고 믿었습니다.

14) 소설, 대설

소설은 양력으로 11월 22일경이며 대설은 12월 7일경에 있습니다.

소설 무렵부터 살얼음이 열고 땅이 얼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 듭니다.

그리고 대설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인데 이날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난다고 믿었습니다.

15) 동지

양력으로 12월 22일경에 있는 절기로서 24절기 중에서 민속적인 행사와 놀이가 가장 많이 행해집니다. 이날에는 특히 팔죽을 쑤어 먹고 장독이나 헛간 등 집안의 여러 곳에 팔죽을 담아놓았는데, 옛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집안에 있는 악귀를 쫓아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날씨가 좋으면 다음해에 병이 많이 생기고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16) 소한, 대한

소한은 양력으로 1월 5일경에 있으며 마지막 절기인 대한은 1월 20일경에 있습니다. 이름으로 보면 대한이 소한보다 추운 것 같지만 이것은 중국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날씨로 볼 때 소한이 훨씬 춥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한이 소한집에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느니 소한에 얼었던 얼음 대한에 녹는다'는 속담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웁시다

고 상 순(시인, 아동문학가)

아빠 엄마가 가르치는 흑백논리

은근과 끈기로 반만년을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많은 문화유산과 민족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현대 그 못지않게 좋지 못한 국민성 또한 꽤 많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가셨다.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파당조성을 좋아하는 국민성이라 할 수 있겠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대운, 소운 하여간 나누어 질 수 있는데까지 나누어 파당을 조성하는 풍토는 심지어 서너명만 모여도 따로이 새로운 파당을 조성하기에 바빴으니 그야말로 편가르기 명수들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세분된 편나누기는 아마도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일 게다. 그 폐가 얼마나 컸고 무서웠던가를 우리 조상들께서는 몸소 체험하셨고 우리들 또한 유산처럼 그 폐를 물려받았건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또한 편나누기 작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하면 종단말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우린 어려서부터 편나누기를 은연중에 훈련시켜왔다.

“아가야,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제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아이는 참으로 영리하게도

“둘 다 좋아요.”라고 대답한다.

요즈음은 엄빠라고 한다던가(엄마의 엄자와 아빠의 빠자를 넣은 새로운 합성어) 어른들의 어이없는 질문에 일격을 가한 셈이다. 우문현답이라고 나 할까? 정말이지 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못한 어른들은 그 대답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아니, 이녀석아! 둘 중에 누가 더 좋으냐 말이다?”하고 다그친다.

사면초가에 처한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안타까워한다.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두분 모두가 만족하고, 두분 모두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누가 더 좋다고 대답해야 할까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아이는 마침내 속으로 참으로 진한 울음을 터뜨리고 있건만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를 보고 어른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다.

어른들은 또 가끔씩 이런 따위의 어리석은 말놀이를 즐긴다.

“자네 장모하고 자네 어머니께서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자넨 누굴 먼저 건지겠나?” 그야말로 바보들의 대행진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우린 아이가 어렸을 때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간에 이미 눈치작전과 편가르기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파당 조성의 준비를 철저히 시키고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그 한심한 훈련을 중지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편가르기의 천성을 마치 우성 유전인자처럼 대를 이어 물려 받은 이들에게 훈련까지 시켜서야 되겠는가?

“둘다 좋아요”라는 대답에 만족하는 어른들이 되어야겠다.

나·너 그리고 우리 모두.

가족 질서 이대로 좋은가!

바야흐로 내리 효도의 시대가 도래했나 보다. 위치와 자리가 싹 바뀌고 말았다. 아이가 1호석, 아내가 2호석, 3호석이 남편, 그리고 할머님, 할아버님은 특등석에서 1호석으로 물러앉았다가 다시 2호, 3호석을 거쳐 4호

석에 이른 것이다.

누가 결정해 준 자리인가?

누가 누구 맘대로 이토록 무질서하게도 자리를 뒤바뀌게 했던 말인가!

하기야 결혼 상대자로 장남이 싫다던 시절도 지나고 이젠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님 스스로가 며느리 밑에서의 시집살이가 싫어서 결혼과 동시에 아들의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기에 이르렀으니 말해 무엇하리.

불씨와 장농과 곳간의 열쇠를 인계인수 받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집안 살림살이 일체의 권한을 이양받던 성스러운 바톤타치의 모습은 정녕 자취를 감추어 버렸단 말인가?

이젠 출가하는 딸에게 부모가 내리던 위대한 교훈.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병어리 3년을 꺾속말로 일러주던 시절도 지났다고 한다.

그 말 대신 엄마들은 시집가는 딸에게 아빠들 몰래 일러주는 한마디가 바로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고분고분하게 대하면 버릇이 된단다 하는 말이라고 한다. 정말이지 어이없는 말을 꺾속말로 전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딸을 보고 대견해하는 엄마, 그야말로 그 딸에 그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과연 며느리의 시집살이 시대는 거하고 시어머님의 시집살이 시대라도 래했단 말인가! 어찌하여 우리들의 가족질서가 이토록 엉망진창이 되고 어찌하여 역할분담과 임무수행이 이토록 뒤죽박죽이 되었단 말인가!

세상의 공처가 아빠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절대종신 지도자의 자리에서 미련없이 물러나 모든 권력을 아내에게 이양하고 마치 아내의 말아들인양 행세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하늘이 주신 천부적인 책임과 의무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박탈당하고, 기분내키는 대로만 살아갈 것인가!

오! 동방예의지국의 아픔이여!

바보 아빠들의 행진이여!

아이들의 천국

한 아파트에 사는 K씨의 덕에선 1년에 한 번씩 딱 벌어진 잔치를 베푼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그 덕 딸아이의 생일날이 바로 그 덕의 진짚날이다. 그 덕은 할아버님,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집이다.

허나 단 한번도 어른들을 위한 행사는 없는 듯 싶었다. (사실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이웃이 모를 만큼 조용했었으니까.)

헌데 아이의 생일날은 과장해서 우리 7동 아파트 주민이 다 알만큼 떠들썩하고 시쳇말로 뽐적지근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는 시간부터 꽤 늦은 시간까지 전축에, 녹음기에, 마이크, 비디오 카메라까지 동원된 행사는 그야말로 축제 무드 일변도였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그 날만은 아예 그들에게 방을 양보하고 나서선 해가 저물도록 아파트 앞 어린이 놀이터를 서성이셔야 했고, 준비를 하는 어머니외엔 아빠도 그 날만은 미안하지만 자리를 비워주어야만 했다. 생일잔치 잘 차리는 것도 흥이더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만 꼭 그렇게 해야만 생일다운 생일인지 궁금할 뿐이다.

문득 커가는 아이들에 비해 어른들은 너무 너무 작아만지는 듯 싶은 생각이 든다.

어찌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리를 잃어버려야 했으며 누가 그 자리를 빼앗아 아이들에게 돌려주었던 말인가!

어른들은 작아지고 있다. 직장에서 작아지고, 사회에서 작아지고, 가정에서 작아지고 …….

상대성의 원리로나 설명할 수 있을까?

경로사상 양양이란 말이 무색키만 하다. 버스를 타고 한번쯤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자.

경로석에 앉아 대우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

언젠가 「노약자석」이란 노련하고 약삭빠른 사람들의 자리라며 한숨을 짓던 직장 동료의 독설이 문득 생각난다.

다시 모계중심 사회로

“엄마에게 물어 봐야 해요. 엄마가 알아요.”

엄마, 엄마, 엄마.

아빠보다는 엄마와의 접촉 시간이 많고 대체로 아이들에 관한 일은 엄마가 해결하기에, 또 아빠보다는 아무래도 엄마쪽이 더 쉽고 친근감이 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아빠의 결정이 따라야 하는 문제까지도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엄마의 허락으로 매사를 결정한다.

엄마 권한의 만능시대랄까?

엄마들 역시 어찌다 학교에서 아이의 엄마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물으면 엄마들은 한번 더 생각해 본다거나 아빠랑 의논해 본다는 대답보다는 아예 YES나 NO로 즉석에서 결정을 내린다.

엄마의 전결 결재권을 한눈에 보는 듯 하다. 아이와 엄마들의 말인 즉 아빠는 그런것 몰라요. 아빠에겐 물어 보나마나예요이다.

아빠의 위치, 아빠의 존재, 아빠의 위엄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사뭇 의심스럽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 무성의,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아빠들 또한 한번쯤 생각해 볼 여지도 있으리라.

그러나 매사를 혼자 결정해 버리는 엄마들 또한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한번쯤 아빠의 의견을 물어 아이들에게 아빠의 위치, 아빠의 존재, 아빠의 권위와 아빠의 위엄을 배우게 해줌은 어떠하실지?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아버지이다.

가장이란 신성불가침한 권한은 그 누구라도 결코 침해해서도 아니되며, 빼앗을 수도, 빼앗길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고유한 것이며 하늘이 내리신 천부적인 권한임을 알아야 하리라.

가장에게 의무나 책임만 부여하고 권한을 송두리째 탈취해 가면 어찌란 말인가.

아버지가 설 땅은 정녕 어디쯤이란 말인가!

부모, 교사는 기술좋은 연금술사

부모나 교사는 기술좋은 연금술사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연금술사가 각기 다른 특성의 쇠붙이를 노련한 솜씨로 매만져 보다 질 좋은 금속으로 만들어내듯 부모나 교사 역시 연금술사의 정신과 정성, 그리고 땀과 눈물을 섞어 보다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간 연금술사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연금술사의 노력, 그 정열, 그 끈기가 최선이 아니고서는 보다 수준높은 최고 순도의 금속을 만들어 낼 수 없듯 부모나 교사 또한 온 힘과 온 정열을 다하지 않고는 훌륭한 자녀, 훌륭한 제자를 길러낼 수 없을 것이다.

뿌린만큼 거둔다는 진리가 있지 않던가!

논밭에 심어진 곡식들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주인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큰다고 한다. 교사도 부모도 연금술사와 같은 노력 부지런한 농부와 같은 자세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그들은 노력한 것 만큼의 결실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땀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도 없음을 우린 잘 알고 있다. 게으른 연금술사에게 맡겨진 금속은 연금술사의 게으른만큼 질 낮은 금속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게으른 부모나 교사에게 맡겨진 아이는 교사의 게으름만큼 부족한 인간으로 자랄 것이다.

우린 모두 한번 더 쇠붙이를 강하게 두들기는 정열, 한번 더 제자를 위해 마음을 쓰는 교사와 부모가 되어야겠다.

중이 제머리 못 깎듯 금속은 스스로 보다 질 좋은 금속으로 변할 수 없으며, 학생 또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훌륭한 인물로 탈바꿈하기 어려울것이니 교사는 인내심 강한 연금술사가 되어야 후에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때 생각나는 교사, 기억에 남는 교사로 남을 수 있으며 제자다운 제자를 길러낼 수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을 기약하는 기억에 남는 부모 그리고 스승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지어다.

도매금 교육

우린 도매금을 좋아한다. 도매금이라면 두말 않고 거두어 들인다. 그러나 교육엔 왕도가 없다는 말과 함께 교육에 도매금이란 있을 수 없다. 교육에 도매금을 기대하는 위정자나 교육자가 있다면 이는 필시 우리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첩경을 걷고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한때 우리 교육의 도매금시대를 경험했다. 도매금을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은 마침내 졸업장과 학위와 자격증을 도매금으로 넘겼고, 도매금으로 사들인 졸업장을 가진 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소매상을 차렸고, 부끄럽게도 그것을 가지고 버젓이 치부를 획책했다.

누워서 침뱉는 것을 과연 우린 얼마동안 계속했는가!

그로인해 한때 우리의 대학은 고매한 인격양성기관의 상징인 상아탑이란 이름을 버리고 우골충이란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전란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함과 아울러 대학들은 우골충이란 부끄러운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지만 역시 얼마가지 않아 우린 다시 교육의 바겐세일, 반액대매출, 원가판매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다.

그처럼 부끄러운 전철을 밟고 오늘에 이르렀건만 어찌하여 다시 일류학교와 학점과 간판과 점수만능시대를 만들어 내고 있단 말인가.

민족의 수난만큼이나 파란 만장했던 과거를 가진 우리 교육.

더 이상 우리의 역사책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양식있는 이들은 이렇게 하늘에 빌었건만 입학부정이란 새로운 도매점 시대가 도래하다니 우린 과연 누굴 탓하여 누굴 원망해야 옳단말인가.

하늘이여.

굽어살피소서.

그리고 양심을 저당잡힌 이 땅의 사람들을 크게 벌하여 주소서.

다시는 그런 망동 못하도록 혼줄을 내주옵소서.

확고한 교육 정책 수립을

교육은 방향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오늘에 있다. 내일은 방향이 있을 뿐이다. 더듬이가 있는 곤충을 잡아 이를 제거해 보자. 제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친들 그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우리의 교육 또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면 혁신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슬한 배려와 노력은 실제 교육 현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공연한 노력과 시간과 경비의 소모에 그치고 말 것이다. 방향을 정하고 걷는 속도와 그냥 무턱대고 발길 닿는대로 걷는 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무런 계획없이 집을 나서 보아라. 당신은 금방 방향이란 게, 목표란 게, 목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체험케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방향을 정하자.

그리고 난 다음 걷든 뛰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맡겨두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한다는 말처럼 정해진 방향으로 결심질하지 말고 걷도록 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요, 교육자의 의무요, 책임이자 사명이 아니겠는가.

행여 달리다 지쳐 쓰러지는 아이, 포기하는 아이를 치료해주고, 부축해주고, 용기와 격려로 다시 달리게 하는 것이 또한 교사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기는 아이는 걷도록, 걷는 아이는 뛰도록, 뛰는 아이는 더 빨리 뛰도록, 가는 말에 채찍질하기란 속담처럼 사랑의 채찍을 들고 그들과 함께 뛰자. 달리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 달려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보다는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끈기있게 그 계획을 실천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침에 제정된 법이 저녁에 다시 고쳐지는 우를 거듭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교육의 방향을 정해놓고 오로지 그 방향으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야만이 우리의 교육 발전이 있을 것이다.

실패도 경험해야

권불십년이고 화무는 십일홍이라지 않던가!

누구에게나 승리만을, 누구에게나 성공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일생을 살아가노라면 그 누구라도 한번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실패와 좌절의 질곡에 처하면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헤어나려 애써보지도 않고 생각보다 큰 상처를 입은채 재기할 의욕과 용기조차 잃어버리는 예가 허다하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아이의 경우는 다르다. 보다 강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이며, 저돌적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 실패의 쓰라림을 맛본 사람만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며, 성공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던 에디슨의 말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은가! 시행착오란 보다 나은 결과를 확실하게 약속해주는 극약처방이랄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지 않던가? 한번의 실수 때문에 고민하고 그 때문에 더이상 부딪칠 용기를 잃어 버리거나 미리 좌절해 버리는 약한 아이는 결코 후에 큰일을 해낼 수 없으며 큰 인물이 될 수 없으리라. ‘칠전팔기’란 말이 있지 않은가. 오투기처럼 쓰러지기 무섭게 다시 일어서는 자, 그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성공만큼 중요한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치 못하리라. 거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린 너무도 많은 풍파를 접하게 될진데 한 번의 실패로 마치 인생 그 자체를 망쳐버린 것으로 계산하려는 아이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는 굳은 의지는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니 실패도 한번쯤은 경험케 해야 하리라.

~다워야 한다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한다. 사과는 사과답고 강아지는 강

아지다워야 할 것이다.

옛부터 우리 조상님네들은 장맛을 보면 그집 살림살이를 짐작할 수 있다고했다.

무슨 말이겠는가!

장맛은 그집 내력이고, 그집 가문이고, 그집 아녀자들의 숨씨이고 정성이며 그집의 얼굴이란 뜻이리라. 한국인은 고추장을 먹지않고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한다. 우린 고추장으로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한국인다운 한국인으로 성장했다.

제아무리 식생활개선을 외쳐도 고추장을 우리 식탁에서 추방하거나 제외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토록 중요한 것이 고추장이요, 결코 우리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또한 고추장이건만 우리의 어머니들 중에는 고추장을 담글 줄 모르는 이 얼마나 많던가!

사회참여도 좋고 직장생활도 좋고 봉사활동과 여가선용도 좋지만 행여 그것이 장 담글 줄 모르는 어머니로 만들게 했다면 이는 애시당초 잘못된 출발이리라.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며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겨울양식인 김장철이 되면 김장거리보다는 김장을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은 또 얼마나 많던가! 서양음식을 만들지 못함을 부끄러 말지어다. 장담글줄 모름을, 김장할줄 모름을 정녕 부끄러해야 할 지어다.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한올 한올 뜨개질에 열심인 주부를 보고 있노라면 그집 식구들은 진짜 추위를 모르고 한겨울을 지낼 것만 같아 부러운 생각이든다. 각테일 기술, 양초공예, 바가지공예 보다 먼저 뜨개질을 배워 당신의 따사로운 마음으로 식구들의 마음을 덥혀줄 생각에 어찌 그렇게도 인색하단 말인가. 시중에서 20,000원하는 털스웨터를 털실 5,000원어치로 거뜬히 만들어낼 수 있다던 어느 알뜰주부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기엔 아무래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사랑하는 자기반 어린이들에게 털장갑을 떠서 나누어준 어느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문득 생각난다.

‘그반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스승의 은혜

같은 말이면서도 선생님보다는 스승님이란 말이 좀더 위엄이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은은한 향기가 묻어나는 것같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것 같다.

그야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란 말로나 설명됨직하다.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는 스승이란 이름이 한단계 위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어쨌거나 선생님보다는 스승이란 말이 듣기 좋아 보이건만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길 어색해하는지, 꺼려하는지, 인색해 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거의가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다.

어찌 부르던 간에 우린 모두 코흘리개 철부지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중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선생님을 대하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분들께선 백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름자를 바로 쓰게 해주신데서 시작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때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시며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신가를 어찌 서툰말과 글로 그 은혜 다 표현 할 수 있으랴!

정말이지 스승의 그 은혜 하늘만 같고 바다만 같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우린 마치 올챙이가 개구리적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듯 그토록 크고 높고 넓은 그분들의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 잊고 살아가니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고마운 분들의 은혜 잊지말자고 스승의 날을 정하고 해마다 그날을 맞이하건만 과연 우리의 아들, 딸들은 얼마만큼 스승의 은혜를 기리고 있으며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가!

그 옛날엔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다고 앓던가!

어디 그뿐인가!

학문은 스승을 존경하는 중에 진보한다 했는데 어찌하여 스승을 규탄하고, 교문 밖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삭발이라는 엄청난 일이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 자행되어질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스승답지 못한 스승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게 아니냐고 반문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못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닐 수 없듯 스승이 설령 어떤 면에서 좀 부족했다해서, 또 실수가 좀 있었다고 해서 결코 스승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승은 어찌되었든 간에 스승이요, 제자는 누가 뭐래도 제자이다.

스승과 제자의 엄연한 위치는 결코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며 양보하거나 양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제자가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어떤 스승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면 억측이라할까? 그 아버지에 그 아들, 그 스승에 그 제자란 말이나 그 제자에 그 스승이란 말은 일맥상통라는 뜻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얼마만큼 스승을 존경하는가?

옛말에 학문은 스승을 존경하는 중에 진보한다고 했다.

우리의 조상님네들은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다고 한다.

헌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극히 일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주지 못했고 우리의 제자들은 우리의 스승을 존경하려 들지 않았다. 스승의 죄냐?, 제자들의 잘못이냐? 따위는 따지지 말기로 하자.

아무튼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되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사뭇 서먹서먹 해지기 시작했고 냉기가 감돌았고 불신이 싹텃고 나아가서는 학생을 사이에 두고 금품 수수관계까지 있게 되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불신 그것도 부족한지 불신은 스승과 학부모 사이

까지도 번져 실로 야릇한 관계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자식을 사이에 두고 맺어진 인연인데 어찌 계산이 따를 수 있으며, 어찌 불신이란게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어색해질 이유가 있겠는가!

그 옛날 서당방의 오순도순하며 다정다감했던 정경이 그림기만 하다.

서로 훈장님을 모시려 애썼고 훈장님을 대접하는 일을 즐겁고,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던 그 시절이 말이다.

불신시대.

누가 먼저 그 시대가 오도록 선구자 역할을 했던말인가!

스승인가? 제자인가? 아니면 학부모였었던가?

그 모두가 아니라면 이사회가 만들어낸 자연발생적인 피조물이었던가?

하루빨리 회복해야 하리라, 하루 빨리 되찾아야 하리라.

스승과 제자와 학부모의 차갑고 어색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듯 싶은 야릇한 관계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하리라. 오직 신뢰와 사랑과 친밀이 새롭게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리라.

진정 믿음만이 존재하는 뜨거운 사이가 되도록 모두 모두가 함께 애써야 하리라.

선생이나 시킬까

언젠가 어느 학부모에게 얼핏 들은 말이다.

“애는 아무래도 선생이나 시킬까봐요.”

선생이나 시킬까?

“애야! 도대체 넌 무엇이 되려기에 그렇게 알뜰히 놀기만 하느냐?”

라는 말끝에 하는 말이었다.

“그래, 선생이나 시켜야지 뭐.”

하고 응수하는 학부모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난 정말이지 기가 막혔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죽어라고 공부를 안하는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선생이란 말인가?
선생은 모두가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되는 거란 말인가!

미안하지만 그 반대다. 죽어라고 공부만을 하던 애들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그집 아이들이 선생이란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선생? 오다 가다 길바닥에서 주운게 교사 자격증이 아니다. 어찌 선생이란 존재를 그렇게 밖에 생각해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학문은 스승을 존경하는 중에 진보한다”는 말이 무색키만 하다.

결핍하면 “어느 선생이 그러더냐?”

선생이 될 안다고, 사회물정엔 아예 아이들인걸…….

그렇다. 선생은 사회물정엔 어둡다. 정년퇴직한 교장선생님의 퇴직금은 내것이나 마찬가지로 일부 학교올타리 밖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세상물정에 어두움을 결코 부끄러이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선생은 아이들처럼 아직 세태에 물들지 않았고 때문지 않았으며, 남을 속일줄 모르며 권모술수와는 아예 담을 쌓았기 때문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있기 때문이다.

선생이 바깥 물정에 밝으면 오히려 정상이 아닐 것이며 결코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선생님들이시여!

힘내십시오. 그리고 세상물정에 어두움을 자랑으로 삼으소서.

돈 · 돈 · 돈

언제부터 돈이면 만사 OK라는 엉터리 등식과 사고방식이 우리네 생활 깊숙히 만연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돈이면 최고다」라는 황금만능의

생각들은 정녕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돈 · 돈 · 돈

돈 때문에 돈 사람이 있어 돈을 돈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어느 익살꾼의 녀살이 어찌면 그럴듯 하기도 하다.

돈 때문에 돈 사람이 우리시대에 어디 한 두사람 뿐이래야 아니라고 할 것 아니겠는가!

한참 거슬러 올라가보면 김중배와 심순애의 어설픈 사랑놀이도 돈때문 이요 그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심청이와 뱃사람이 목숨까지 사고 팔았던 일 또한 돈때문이 아니었던가! 기왕 내친 김에 좀더 예를 들자면 배니스의 상인도 돈에 얽힌 이야기가 줄거리요, 죄와 벌의 전당포 노인 살인사건 또 한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요, 오나시스와 재크린의 웬지 덜 어울리는것 만 같은 사랑도 돈때문일런지도 모르지 않은가?

하기야 멀리 갈 것이 뭐 있겠는가?

200억의 유산을 놓고 형제 아우가 철천지 원수사이가 되었다던 수년전 서울 어느 모퉁이에서 일어난 송사사건하며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죽임을 당한 일이 어 디 한 두건이던가 말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모두가 돌아버리더 라도 결코 돌아서는 안될 기필코 돌아서는 안될 사람들이 돌아버렸기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연쇄충돌 사고가 일어나듯 물 흐르듯 유유히 흐 르던 사회질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 다는 얘기다. 누구는 돌아도 좋고 누구는 돌아서 안된다 라는 논리를 전개 하자는 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성직자, 교직자, 법조계 종사자를 비롯해서 각급의회 의원 들 이런 분들은 세상 모두가 돌아버린다해도 돌아서는 안될 또 결코 돌지 않을 분들로 생각해 왔는데(어떤 의미에서든 정의와 사랑의 실천자로 보아야 할 직종의 사람들이기에) 지금의 우리 모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다는 옛말처럼 누구보다도 먼저 남에게 뒤질세라 서둘러 그분들이 돌아

버리는 데 아쉬움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보다도 더 돌아서는 안될 결코 안될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이요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기성세대의 돌개바람의 와중으로 하나 둘 휩쓸리고 있다는 현실은 정말이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어디 그 뿐인가,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돈병, 한 번 전염되면 그 어떤 묘약과 비방으로도 결코 완치가 불가능 한 그 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내일의 주인을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얼마만큼 냉담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각자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는지,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을 잡고 꼭 한 번쯤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꽤 많은 아이들이 벌써 그 병을 앓고 있다면 어떻게들 생각하실런지도 궁금하다. 더러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돈병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주실런지도 궁금하다.

결코 안될 일이다. 미리 말해두거니와 우리가 돌면 그들도 따라 돌게 되어 있다는 걸 왜 모른단 말인가!

바담풍을 연발하며 안타까워하던 어느 훈장님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당장 우리 모두 모두는 하나로 맘을 모아야 할때이다.

우리 함께 웃어요

문화원 제공

아홉인가 열인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건조한 사막에서 낙타 열 마리를 몰고서 오아시스를 향해 가고 있었다. 몇 마일을 걸은 그는 낙타 한 마리를 타고 가다가 나머지 낙타를 세어 봤다. 아홉 마리만 세고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그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잃은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오던 길로 걸어서 되돌아갔다. 아무리 찾아봐도 낙타가 있는 낚새가 보이지 않자 아주 잃어버렸구나 하고 생각한 그는 찾기를 단념하고 낙담하여 낙타들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그런데 기쁘게도 거기에 열 마리가 다 있는 것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낙타를 잡아타고 얼마쯤 가다가 다시 세어 볼 생각이 났다. 아홉 마리였다. 그는 당황하여 낙타에서 내려 또 다시 찾기 시작했다. 잃은 낙타는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낙타 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세어 보니 놀랍게도 열 마리 모두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 탓이라고 투덜대며 맨 뒤에 있는 낙타등에 올라타고서 세 번째로 낙타를 세어 보았다. 이번에도 한 마리가 없어진 까닭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낙타등에서 뛰어내려 악마에게 욕을 퍼부으며 한번 더 세어보았다. 열 마리가 모두 다 있었다.

“좋아, 이 고약한 악마야. 낙타를 타고 가면서 한마리를 잃느니 차라리 걸어 가면서 모두 다 가지겠다.” 하고 투덜거렸다.

누가 더 똑똑한가?

클라에와 피아는 어린 중이었다. 하루는 클라에의 어머니가 찾아와 용돈으로 5바트(1바트는 약 40원)를 주고 갔다. 클라에는 어디다 그 돈을 숨길까 하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그 돈을 땅에 묻기로 작정했다. 나중에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5바트를 묻지 않았음” 이라고 쓴 팻말을 세웠다.

그래 놓고, 그는 안심하고 놀러 나갔다. 그런데, 피아가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팻말을 보고 놀랐다. 그는 땅을 파고 돈을 가졌다. 그리고는, 자기도 글자를 쓸 줄 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클라에가 쓴 글씨를 지우고, “피아는 그 돈을 가지지 않았음” 이라고 써 놓았다.

한참 놀고 난 클라에는 자기 돈이 걱정되었다. 얼른 돈을 묻은 지점으로 가서 땅을 파 보니 돈이 없었다. 그는 몹시 걱정이 되어 울면서 주지에게 달려갔더니, 주지는 그에게 땅에 돈을 묻고 나서 무슨 표시를 해 두었느냐고 물었다. 클라에는 5바트를 땅에 묻지 않았다고 쓴 팻말을 세워 놓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치우고, “피아는 그 돈을 가지지 않았음” 이라고 쓴 새 팻말을 세워 놓았다고 말했다. 주지는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는 누가 돈을 가졌는가를 즉시 알아챘다. 그는 피아를 불러 돈을 클라에에게 돌려주라고 하면서 말했다.

“넌 그냥 도둑이 아니라, 바보 같은 도둑이다.”

편지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먼 곳에 가 있게 되었다. 하루는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그의 마을로 가져갈 만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다. 실망한 그는 자기가 직접 편지를 가져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을에 도착하여 자기 집으로 간 그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말했다.

“집에 아주 돌아온게 아니다. 다만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직접 전해 주려고 온 것뿐이야.”

여물 먹은 임금님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는 밤이 되면 평민으로 변장하고 자기의 왕국 안을 둘러보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임금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하는지 몸소 살펴볼 수 있었다. 임금님은 암행을 나설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시종 한 사람만을 데리고 다녔다.

암행을 나간 어느 날의 일이었다. 어디선지 처음 맡아 보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임금님은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알아보라고 시종을 보냈다.

시종은 돌아와서, 그것은 근처에 있는 오두막에서 한 아주머니가 버려놓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여물 냄새라고 고하였다. 임금님은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먹어 보았다. 그러나 이 냄새는 생전 처음 맡아 보는 것이며 입안에 군침이 돌게 했다. 임금님은 그 여물을 먹고 싶어 견딜 수 없었으므로 시종더러 가서 여물을 좀 얻어오라고 했다.

시종은 놀라서, 임금님이 그토록 잡숫고 싶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나 돼지들에게 먹이는 여물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임금님은 막무가내였다. 할 수 없이 시종은 여물을 가져왔고 임금님은 그걸 아주 맛있게 잡수셨다. 그리고 시종에게 엄히 일렀다.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된다. 잊지 말아라. 만약 입을 병긋하는 날에는 네 모가지가 날아갈 줄 알아라.”

시종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다. 그의 배가 부풀어 올라서 먹을 수도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었다. 기를 쓰고 그 일을 모두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아, 아무도 안듣는 데에 가서 말해 버리면 한결 나을 텐데.”

강에 가서 말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낚시꾼이 들을 염려가 있었다. 묘지애다 대고 말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묘파는 이들이 들을까 두려웠다. 괴로운 며칠을 더 보내고 난 뒤에 그는 드디어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무 밑동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나무를 보았다.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한 시종은 구멍 속으로 머리를 밀어넣고 속삭였다.

“임금님이 여물을 잡수셨다! 우리 임금님이 여물을 잡수셨다!”

기분이 후련해진 시종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다시 전처럼 먹을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었다. 여러 달이 지났다. 대궐의 큰 잔칫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궐에선 이미 준비가 시작되었다. 복치는 이들이 대궐의 낡은 큰 북을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했으므로 북 만드는 사람들에게 새 북을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북 만드는 이들은 새 북을 만들 알맞은 목재를 찾느라고 숲 속으로 갔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들은 전에 시종이 자기 비밀은 털어 놓은 바로 그 큰 구멍을 가진 나무를 골랐다. 나무는 베어지고 아름다운 새 북이 만들어졌다. 임금님도 몸소 그 북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커다란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새 북은 알맞은 자리에 설치되었다. 식이 끝날 무렵 복치는 이들이 북을 쳤다. 그런데, ‘둥둥’ 하는 북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여물을 잡수셨다. 우리 임금님이 여물을 잡수셨다!” 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게 아닌가!

임금님은 제정신이 아닐 만큼 화가 나서 그 북을 당장 강물 속에 던져 버리고 다시는 절대로 꺼내오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임금님은 시종을 불러서 심문했다.

“어떻게 그 북이 내 비밀을 알게 되었느냐? 너는 그 일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간이다. 바른 대로 말해!”

임금님이 호통을 쳤다. 시종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목잘린 자기 몸뚱

이가 눈 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나무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사실을 고백했다. 시종은 용서를 받긴 했지만 임금님을 수행할 수 없다는 명이 내렸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십중 팔구 또다른 비밀을 갖게 될 것이므로.

소가 쥐보다 크니까

참으로 보배 같은 인물이며 모든 일을 규칙대로 행하는, 보기드물게 청렴결백한 관리가 있었다. 그는 한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주민들은 감사의 표시로 그의 위대한 미덕에 알맞은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결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감히 그 관리에게 직접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의 부인에게 가서 그 남편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물을 하시고 싶으시다니 할 수 없군요. 제 생각엔 자그마한 미술품 같은 게 좋을 것 같군요.” 그의 부인이 말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띠이신지 여쭙봐도 될까요?” 주민 대표들이 합창이나 하듯 말했다.

“쥐띠인데요. 왜 그러시죠?”

“그분께 은으로 실물 크기의 쥐를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관리의 부인은 남편이 알면 화를 낼까 봐 남편에게겐 알리지도 않고 그 선물을 받아 두었다.

몇 해 지나 관리네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관리의 부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은으로 만든 쥐를 잘게 부수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는 그 은쥐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 그 부인은 남편에게서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의 고함이 터져나오리란 생각에 덜덜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그는 한숨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쫓쫓, 그들보고 내가 소피라고 하지 그랬소. 그 편이 더 관리의 이름에 걸맞지 않소.”

두 친구

옛날 옛날에 두 친구가 살았다. 둘은 아주 친한 사이면서도 가끔씩 서로를 골탕먹이기도 잘했다.

어느 날 그들은 각각 돼지 잡는 함정을 하나씩 파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다 언제 구렁이를 팔 것인지는 서로에게 비밀로 했다. 어느 맑은 날 한 친구가 구렁이를 파기로 했다. 그는 한 덩불 뒤에다 파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친구가 덩불 너머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친구는 그가 안 보이게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숨은 곳에서 어떻게 친구를 끌려 줄까하고 궁리를 하였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근처에서 커다란 타로토란 잎사귀 하나를 따가지고 거기다 커다란 둥근 구멍 하나와, 몇 개의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구렁이 위에다 덮어씌웠다. 친구는 아직 깊이깊이 파내려가고 있었다.

드디어 지친 그는 좀 쉬려고 일손을 놓고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구렁이를 덮은 잎사귀에 뚫린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만이 보였다. 밤이 되어 달과 별이 하늘에 돌아나온 줄 안 그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밖에 있던 친구는 살짝 잎사귀를 치웠다. 잠자던 친구가 눈을 떠보니 밝은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친구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 이제 그가 친구를 끌려 줘야 할 차례였다. 그는 궁리를 했다.

다음날은 다른 친구가 구렁이를 파려고 다른 덩불을 찾아 나섰다. 그의 친구는 재빨리 뒤를 밟았다. 작은 평지를 발견한 친구는 그 자리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파고 또 파고 지쳐서 더 계속할 수 없을 때까지 팠다. 그러나 잠깐 쉬 후에 또 다시 파기 시작했다. 곧 그는 구렁이 속으로 사라져 안 보이게 되었다. 그를 따라온 친구는 뱀 한 마리를 찾아내 끈에 묶어 가지

고 구멍이 안으로 내려보냈다.

정신없이 땅만 파던 친구는 깜짝 놀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구멍이 밖으로 나갈지 몰라 허둥대다가 나갈 방도를 생각해 냈다. 구멍의 양옆을 파서 구멍을 메우기 시작했다. 밖에 있는 친구는 여전히 뱀을 대롱대롱 들고 있고, 안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도 힘들게 판 구멍이를 미친듯이 메우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기어나올 수 있을 만한 높이까지 올라왔다. 물론 친구는 그때쯤엔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그는 뱀을 묶은 줄을 보고 자기가 친구에게 당한 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다 재미삼아 장난으로 한 것이므로 두 친구는 서로 자기가 한 짓을 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장난질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의 낭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두 개의 돼지잡는 함정은 커녕 한 개도 파지 못하고 만 것이다.

손가락 놀음

과거시험을 보러 갈 예정인 세 사람이 점장에게 갔다. 점장은 그들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셋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손가락 한 개를 세워 보았다. 시험 결과가 발표난 후에 셋 중에서 한 사람만 합격되었다. 점장이 제대로 알아맞혔다 하여 유명해졌다.

점장이 밑에서 점치는 수업을 닦고 있던 젊은 제자가 점장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아무말도 않는 것이 내 유일한 비결이다.”

그 대답을 들은 제자는 더욱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점장이가 설명을 계속했다.

“자, 내가 손가락을 한 개 세웠다. 그건 셋 중 하나만 붙는다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예언은 정확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한 손가락은 하나만 떨어진다는 뜻도 되니까. 만약 셋이 모두 붙었다

해도, 한 손가락은 셋이 모두 하나같이 시험에 붙는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라 해도 역시 들어맞는다.”

해오라기가 물소 등에 앉는 까닭

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오라기는 긴 다리를 가진 흰 새다. 이 새는 가축의 등, 특히 물소의 등에 내려앉는 버릇이 있다.

여러분은 물소가 그 큰 뿔로 왜 해오라기를 쫓아버리지 않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동물에 대해 연구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 해오라기는 물소의 등에 머물러 물소를 찌르는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한다. 또한, 물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놀라서 그 속에서 뛰어나오는 개구리나 벌레를 잡아먹기도 한다. 물소는 벌레로부터 화를 면하고, 해오라기는 먹을 것을 얻게 된다니, 짝이 되어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오라기가 물소의 등에 내려앉는 이유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한 옛날 이야기가 있어 소개할까 한다.

옛날, 세계가 아직 젊었을 때, 물소와 해오라기는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서로 심한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었으나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물소가 말했다.

“이럴 바에는 무언가 경기를 해서 결판을 내는 게 어때? 우리 둘이 강에 가서 물을 마시기로 하지. 어느 쪽이 더 많이 마시는가 내기를 하자구. 그 결과, 이긴 쪽이 진 쪽을 부하로 하는거야.”

“어느 쪽이 더 많이 마셨는지 어떻게 알지?” 하고, 해오라기가 물었다.

“강물의 수면을 얇게 만든 쪽이 많이 먹은 것이 되는 거야.” 물소가 대답했다. 해오라기는 이 말을 듣고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는 그렇게 큰 배를 가졌으니 경기에 이길 확률이 많겠지. 하지만 나도 기꺼이 자네와 물 마시기 내기를 하겠네.”

“그럼, 지금 당장 강가로 가지.” 하고, 물소가 말했다.

“너무 덤빌 것 없지 않아. 아직 심판도 없는데 말이야. 내일까지 기다려 보자구. 자네는 네 발 짐승한테 심판을 봐 달라고 하거나. 나는 새들을 초청해 볼 테니.” 하고, 해오라기가 제안했다.

물소와 헤어지고 나서, 해오라기는 대숲으로 날아가 냇가의 큰 나무에 숨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있다가 해오라기는 들판에 있는 새들한테로 날아가, 내일 경기의 심판을 보러 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새들과 짐승들이 강가로 모여들었다. 물소는 들판에 있는 네 발 짐승을 모으고, 해오라기는 새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심판들은 강가에 길게 줄지어서서,

“물 마시기 경기를 시작하라.” 고 했다.

“너부터 마셔라, 해오라기야.” 물소가 말했다.

“아냐, 너부터 마셔.” 해오라기가 대꾸했다.

“내가 강물을 다 마셔 버리면 내가 마실 것이 없어져 버리지 않니. 그럼 경쟁이 되지 않지 않아.” 하고 물소가 말했다.

“그렇게 미리 큰소리치지 마.” 하고 말하면서, 해오라기는 심판 쪽을 향해 물어보았다.

“심판원 여러분, 어느 쪽이 먼저 마시는게 좋겠습니까? 이 경기를 제안한 건 물소입니다만은.”

“그렇다면 물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소.” 하고, 심판들은 명령했다.

그리하여, 물소는 물에다 입을 박고 마시기 시작했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셨다. 새들과 짐승들은 물소가 물 마시기를 영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길 정도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물소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강물은 불어나기만 했다. 해오라기말고는 아무도 지금이 밀물 때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해오라기는 그 전날 강을 잘 관찰해 두었던 것이다.

조수가 밀려올 때는 강어귀로부터 바닷물이 흘러들어와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물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마침내 물소는 경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 있던 곳에서 헤엄칠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을 본 심판들은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러자, 지쳐 버린 물소는 물에서 기어나오며 말했다.

“해오라기한테 마시게 해. 마실 수 있다면 말야.”

“깃털을 좀 다듬고나서 곧 마시기 시작하겠어.”하고, 해오라기가 말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을 소비하면서 깃털을 다듬고 있었다. 사실은 조수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이 바다 쪽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을 본 해오라기는 물가로 가서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양껏 마셔 보겠소.” 해오라기는 냇물에다 부리를 박고 마시는 척했다.

그러자, 곧 수량이 줄기 시작하는 것이 심판들의 눈에 뚜렷이 보였다. 조수의 드나듦을 알 까닭이 없는 그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본 물소는 안절부절 못했다. 조수가 다 빠져나가자 강물은 아주 얇아져버렸다.

해오라기는 부리를 쳐들고 이렇기 말했다.

“그럼, 심판원 여러분! 판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오라기가 이겼다!” 하고, 짐승들이 외쳤다.

“물소가 졌다!” 하고, 새들이 외쳤다.

“물소는 해오라기의 부하가 될 것!” 짐승과 새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이런 이유로 해오라기는 물소의 등에 앉아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래서 부하가 된 물소의 등 위에 타고 있을 때의 해오라기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반쯤 감고 있다. 그것은 그 옛날 물 마시기 경기에 이겼을 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부투아라는 말

옛날에 부자 상인이 있었다. 날로 장사가 번창하여 먼 데까지 여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튼튼하고 기운센 말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여러 곳의 말 시장을 돌아봤으나 한 마리도 마음에 드는 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좋은 말을 갖고 싶다면 부투아를 구해야 할 거요. 부투아 같으면 여느 말이 칠 일 걸릴 곳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도요.”

이 말을 들은 상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투아라는 말을 손에 넣으려고 결심했다. 그는 바로 그 근방에서 가장 큰 말 시장에 갔다. 이 상인이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을 한 사기꾼이 보고서 속여넘기기 좋은 상대라는 걸 알아챘다. 이 사기꾼은 호박을 팔고 있었는데, 부자 상인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상인이 다가오자 사기꾼은 이렇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무얼 찾고 계십니까? 아까부터 꽤나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계신데, 뭘 좀 도와 드릴까요?” 이 정중한 말투에 마음이 움직인 상인이 말했다.

“나는 부투아라는 말을 찾고 있소.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소?”

“나리, 때맞춰 잘 오셨습니다. 부투아라는 말은 그리 쉽게 구할 수는 없지요. 더구나, 우연히 찾았다 하더라도 엄청난 값 때문에 손을 들고 말 겁니다. 실은 내게 부투아말의 알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사십시오. 그러면, 곧 알을 까서 멋지고 튼튼한 말새끼가 될 겁니다요.”

“그 알은 한 개에 얼마요?”

“겨우 천 타카입지요.” 부자 상인은 이내 천 타카를 치르고 노란 큰 호박을 하나 샀다.

사기꾼은 받은 은화를 세면서 상인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 알은 어깨에 메고 가십시오. 만일 땅바닥에 내려놓거나 하면 말새끼가 도망가 버릴 테니말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리.” 부자 상인은 호박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졌다. 그래도 상인은 계속 걸어갔다. 발을 그 이상 땔 수 없게 되자 호박을 어깨로부터 내려 반얀나무 밑에 놓고, 자신은 나무줄기에 기대 앉아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좀 쉬려고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여우 한 마리가 걸을 지나갔다. 여우는 호박을 발견하고는 저게 뭘까 궁금하여 세계 ‘탁’ 하고 쳤다. 호박은 짹 빠개져 버렸다. 놀란 여우는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그때 획-하는 소리, 낙엽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 바람에 상인이 눈을 떴다. 보니까, 어떤 동물이 달려가고 있었다. 상인은 깜짝 놀라 그 뒤를 뒤쫓아갔다. 깨어진 알에서 말새끼가 나와도망가는 걸로 여겼던 것이다. 상인은, ‘알에서 깨자마자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면, 크면 얼마나 잘 뛸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여우는 여우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에게 쫓겨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마른 풀 더미 속으로 뛰어들어가 숨었다. 상인은 지팡이로 마른 풀 더미를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마른 풀 더미 속에는 마침 호랑이도 한 마리 숨어 있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상인이 내리친 지팡이가 그 호랑이를 딱 때려버린 것이다. 호랑이는 마른 풀 더미에서 뛰어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상인은 다시금 놀랐다.

“아니, 일 분도 못 되는 동안에 어떻게 그 말새끼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담?” 상인은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알을 참 잘 샀구나 하고 크게 만족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진 것중에서도 제일가는 보물이 될 것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자! 이젠 이놈을 쫓아가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침내 호랑이도 지쳐서 달리는 속도가 떨어졌다. 상인은 호랑이를 기어이 따라잡아 그 위에 걸터앉았다.

그리고는, 호랑이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듯이 말했다.

“이젠 이 이상 수선 떨지 말아라. 참 착한 녀석이지.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호랑이는 상인을 등에 태운 채 계속달렸다.

이윽고 날이 새어 아침이 되었다. 금빛 찬란한 해가 떠올라 동쪽 하늘은 새빨갭게 이글거렸다. 그 밝은 햇살 속에 도대체 무엇이 보였겠는가. 자기가 바로 호랑이를 타고 있지 않은가! 상인은 너무나 놀라 사색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호랑이는 계속 달렸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상인은 뛰어서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았다. 호랑이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가고 말았다. 얼마쯤 매달려 있던 상인은 나무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쳤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로부터 그 부자 상인은 누군가가 ‘부투아’라는 말을 입에 내기만 하면 화를 벌컥 내곤 했다. 그것은 살아 있는 동안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던 것이다.

‘장수’ 복숭아

언젠가, 중국의 황제가 안남(현재의 베트남)의 임금님께 ‘장수(오래 산다는 뜻)’라는 이름의 별나게 커다란 복숭아를 몇 개 선물했다. 이 선물은 어전 회의가 한참 열리고 있었을 때 보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대신들은 너나할것 없이 이 멋진 과일에 대해 앞다투어 찬탄을 터트렸다. 대신들 중에는 트랑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복숭아 앞으로 썩 다가서더니, 그 중 한 개를 집어 들고 입으로 가져가 맛있게 베어먹는 것이었다.

“고약한 놈 같으니. 이 자를 잡아 목을 베렸다!”

임금님은 화가 나 하얗게 가지고 명령했다. 트랑퀸은 땀땀 뭉인 신세가 되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금님은 화가 치밀어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짐에게 선물한 이 고귀한 과일을 짐보다 먼저 입에 대다니, 불측한 놈 같으니라구! 네 죄는 죽어 마땅한 것. 이 자리가 어디라고 운단말인가. 비겁하게도 죽는 게 두렵단 말이지?”

“아닙니다, 폐하.” 하고, 트랑퀸은 소리내어 흐느끼기까지 하며 말했다.

“신이 울고 있는 것은, 다름아니고 폐하의 옥체를 염려한 까닭이옵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머잖아 폐하의 생명이 위태하옵기에…….”

“망측한 것 같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짐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누가 그러더냐?”

“예, 폐하. 그건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이 복숭아가 ‘장수 복숭아’ 라니까 신도 하나 먹어 보고 싶었습니다. 신도 될 수 있으면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아직 사분의 일도 다 먹지 않았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죽음의 신이 신의 목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이로 보면, 만일 폐하께서 이 복숭아를 혼자서 다 잡수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실 것 같으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사옵기에….”

“이 간사한 악당아!” 트랑퀸의 재치에 진 임금님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좋다, 이놈을 풀어 주어라!”

신경이 어찌나 긴지

말린 사바르는 이가 아파 괴로워했다. 그는 시장에서 파는 온갖 약을 다 써 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다. 하루나 이틀도 되기 전에 다시 아파지는 것이었다. 여러 번 민간 요법 치료도 받아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툭툭거렸다.

“요즈음은 살림 꾸려가기도 어려운 판에 약까지도 예전처럼 듣질 않으니, 원 참.”

“그러지 말고 치과 의사한테 가봐.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고 은퇴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글쎄요. 난 치과 의사에게 갈 용기가 정말 없어요. 그는 이를 빼 버리거나 침을 놓거나 잇몸을 푹푹 쭈셔 댈지도 모르잖아요. 만일 치과 의사가 잘못 자르면 더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나를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고요.” 하고 말린 사바르는 대답했다. 하루는 이가 너무 지독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죽더라도 치과 의사에게 가 보이는 수 밖에 없겠다.” 하고는, 말린 사바르는 손으로 아픈 턱을 감싸고 병원으로 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이를 좀 봐 주세요.”

“예, 그러지요, 손님, 그렇지만 잠시만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대답했다.

말린 사바르는 벤치에 앉아 꼭 참고 있었다. 옆방에서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비명이 들리자 무서워서 몸서리를 쳤다. 어떻게 병원에서 빠져나갈까 하고 골똥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오라고 하였다. 말린 사바르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고 몸은 두려움으로 덜덜 떨렸다. 그는 치과에 온 것을 아주 후회했다.

“거기 앉으세요.”하고 치과 의사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는 치과 기구를 준비했다. 빛에 반짝이는 그 치료기구를 바라보니, 말린 사바르는 더욱 더 떨렸다. 이윽고, 치과의사는 손에 치료기구를 들고 그에게 다가와서는,

“입을크게 벌려요.”하는 것이었다.

“제발 이를 뽑지는 마세요. 부탁이에요.” 말린 사바르는 떨리는 소리로 애원했다.

“그럼, 난 어떡하란 말이오?”

달을 구해 낸 사람

한 인정 많은 사람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물에 비친 달을 보았다.

“아니, 저런! 달이 우물에 빠졌잖아.”하고 안됐다는 듯이 증얼거리며, 서둘러 기다란 줄이 묶여있는 갈고리를 가져왔다. 그는 재빨리 갈고리를 우물 깊숙이 던져 넣고 줄을 팍 쥐고 있었다. 갈고리는 물을 철썩 치고서 우물바닥에 가라앉아 돌맹이에 단단히 걸렸다. 그것을 달에 걸린 모양이라고 생각한 그는 줄을 끌어올렸는데 어찌나 세계 잡아당겼던지 줄은 끊어지고 자신은 뒤로 벌렁 나자빠져 기절해 버렸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하늘 높이 빛나고 있는 달이었다. 그는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흐뭇하게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등은 다쳤지만 달은 구해 났습니다.”

신기한 식물

한 떠돌이가 마을에 나타났는데 옷이 다 헤어져 벌거벗다시피 한 꼴이었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너무 배가 고파 배를 채울 궁리를 하다가 한 피가 떠올랐다. 그는 사람들 귀에다 속삭였다.

“난 거의 죽게 된 사람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신기한 식물을 알고 있소. 내 기꺼이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지.”

한 부자가 그 말을 듣고 부리나케 그를 찾아와 자기 집에 데려다가 굉장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가 식사를 마치자 마자, 주인은 그 놀라운 식물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재촉했다.

“나를 따라오시죠.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 하고, 손님이 말했다. 두 사람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함께 밖으로 나갔다.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이르자, 그 사기꾼은 발걸음을 멈추고 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신기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뭐라구? 그 신기한 식물이 쌀이라구? 농담이시겠지?”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 집에서 먹은 쌀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은 죽었을 것이요.” 하고 그 악당은 도망쳐 버렸다.

선생님보다 한 수 위

어떤 학교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게으름뱅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 선생님이 게으름뱅이라는 평판이 어찌나 널리 퍼졌던지 그 밑에서 배우려는 학생이 하나도 남지않고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녀석이 가르침을 받겠다고 찾아왔다. 이 예기치 않던 일에 성가신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선생님이 말했다.

“좋다. 그렇게 열심히 내게서 배우고 싶다니 가서 책상을 가져오너라.”

“뭐 하시려고요, 선생님?” 하고 녀석이 물었다.

“구장나무(후추나무과에 속하는 나무) 잎을 좀 올려놓으려고 그런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자님께 나뭇잎을 바치는 의식을 올리는거지.” 선생님이 대답했다. 이 생도 지망생은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저, 제가 두 손을 마루바닥에 짚고 네 발로 엎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 등에다 봉헌물인 구장나무잎을 올려 놓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시간도 안 걸리고 힘도 안 들잖아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별떡 일어나 이 어린 천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녀석의 엎드려 말했다.

“아니, 애야! 왜 날 찾아왔니? 내게서 뭘 배우겠다고.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나보다 한 수 위구나.”

그건 정말이 아냐

옛날에 이야기 듣기를 썩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 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 한 가지만 해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언제나 “하하, 그건 정말이 아냐!” 하곤 했으므로,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싫어했다. 하루는 똑똑하기로 이름난 키춤씨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가 부탁했다.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건 정말이 아냐’ 하는 말을 안 한다고 약속을 해야만 해주겠소.”

“좋아요. 약속하지요.”

“만일 당신이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당신네 광에서 쌀가마니를 가져가

겠소. 알겠죠?” 키춤씨가 고집스럽게 말하자, 그 사람은

“좋아요, 좋아. 어서 이야기나 하세요.”하고 독촉했다. 그래서 키춤씨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한 영주가 가마를 타고 판 지방으로 여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산허리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소리개가 나타나, 가마 근방에서 원을 그리며 ‘ 짹짹, 짹짹!’ 하고 울며 날고 있었대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진 영주는 가마에서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았지요. 그때 소리개는 그의 옷에다 좋지 않은 것을 떨어뜨렸다지 뭐요. 그런데도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고 시중드는 이에게 조용히 말하여 새 옷을 가져오게 해서 갈아입고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개는 여전히 그 가마 위를 날아다니며 ‘ 짹짹, 짹짹!’ 소리내고 있었답니다. 영주는 다시 머리를 내밀어 보려고 했다는군요. 이번에는 그 소리개가 칼을 더럽혔지만, 그는 역시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 새 칼을 가져오게.’ 하고 명령해서 새 칼을 차고는 그대로 갈길을 재촉했대요. 얼마 안 가서 그 소리개가 또 다시 나타나 ‘ 짹짹, 짹짹!’ 울며 가마 위에서 맴돌고 있었답니다. 그는 또다시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머리 위에다 내갈겼지 뭐니까? 영주는 여전히 성내지 않고, ‘ 내 새 머리를 가져오게.’ 하고 명령했대요. 시중드는 이가 머리를 가져오니까, 그는 자기 칼로 스스로 머리를 베어버리고 새 머리를 달고 즐거이 여행을 계속했대요.”

“그건 참말이 아니야!”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외쳐 버렸다.

“ 좋소, 좋소, 난 쌀가마니를 가져가리다. 참 고맙소.”하고, 키춤씨는 약속대로 실행했다.

민속 상식

문화원 제공

1) 열두 띠에 관한 이야기

우리 선조들은 세상의 모든 일은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합쳐져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상대를 택하는 것은 물론 혼례날이나 이삿날을 정할 때도 음양 오행이 조화를 이룬 날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 본 다음에 정했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길일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음양 오행이 가장 조화를 잘 이루는 날을 가려 뽑는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십간 십이지라는 주기를 정하여 좋고 나쁜 일을 가렸습니다. 십간은 10일을 뜻하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양의 기운을 나타내며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십이지는 일년이 열두달이라는 의미에서 나온것으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로 표현되는데 음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십간과 십이지를 갑자-을축-병인... 하는 식으로 차례대로 연결하여 한 바퀴 돌면 60년이 되며, 이렇게 한 바퀴 다 도는 것을 1갑자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61살이 되는 생일날에 회갑 잔치를 여는 것은 다시 한번 1갑자를 돌만큼 오래 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십이지는 또 각각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를 뜻합니다. 내가 무슨 띠인지 또는 무슨 생인지 부모님께 한번 여쭙 보세요.

2) 금줄을 치는 이유는?

귀신이나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 매는 줄을 금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줄은 귀신이나 악귀에게 이 곳은 신성한 곳이니 당장 물러가라는 호통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금줄은 특별히 왼쪽으로 끈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의 새끼줄에 의미가 있는 물건을 끼워 걸었으며 아기를 낳으면 보통 세 이레 동안 걸어 두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숯덩이와 빨간 고추를 군데 군데 끼운 금줄을 대문에 걸었고 여자 아이일 경우에는 작은 솔가지와 숯덩이를 낀 금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에 아기를 낳은 표시의 금줄이 쳐져 있으면 그 집의 식구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삼칠일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삼신할머니가 노하여 아기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금줄은 간장을 새로 담그면 간장 맛이 좋고 상하지 않게 해 달라는 의미로도 쳤고, 집을 지을 땅이나 집에서 고사를 지낼 때에도 대문이나 담장, 울타리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것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동네 전체를 위한 제사, 즉 동제를 지낼 때에는 온 마을을 에둘러 금줄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줄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였으며, 개인과 마을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려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3) 숨쉬는 옹기-그릇

옹기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털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질그릇은 진흙만으로 초벌구이를 하여 구웠기 때문에 윤기가 없고 겉이 오돌토돌합니다. 그러나 오지그릇은 질그릇에 다시 오징물(오징어젓물)을 입혀 구운 그릇이기 때문에 윤이 나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 후기부터 질그릇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옹기는 오지그릇을 나타내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옹기는 값이 싸고 튼튼하여 옛날부터 생활 곳곳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정착 생활을 시작한 선조들이 곡식을 보관할 목적으로 옹기를 처음 만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간장이나 젓갈처럼 소금에 절여 삭힌 식품을 즐겨 먹었던 우리 선조

들은 식품을 잘 익히기 위해 오징어를 살짝 입히거나 반죽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옹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옹기를 ‘숨쉬는 항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치며 그릇 만드는 기술은 더욱 발달하여 청자·분청사기·백자 등 다양한 그릇이 만들어졌지만 조선 시대 후기까지만 해도 일상 생활에서는 여전히 옹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4) 전국의 향토 음식

우리 나라는 물이 맑고 공기가 좋아 전국 곳곳에 유익한 식품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러나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서로 오고 가기가 힘들어 그 지역 특산물에 따른 음식이 널리 퍼지지 못하고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지역 사람들이 즐겨 먹던 고유한 음식을 향토음식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음식은 궁중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 모양이 매우 화려하고 경기도의 음식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매우 소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에는 구절판, 갈비찜이 있고, 경기도의 향토 음식으로는 조랭이떡국이 유명합니다. 강원도 음식은 울챙이묵이 별미로 손꼽히고 충청도의 향토 음식으로는 특히 어리굴젓과 콩국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향토음식으로는 전주비빔밥, 홍어회가 별미이고 경상도 지방 사람들은 추어탕을 즐겨 먹었으며 제주도 사람들은 고사리국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 평안도 사람들은 차진 기장가루로 만든 노티를 많이 만들어 먹었고 황해도에서는 보리, 수수, 기장 등을 섞어 지은 잡곡전을 먹었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은 가자미와 소금, 된장, 조밥, 고추가루를 섞어 담근 가자미 식혜를 향토 음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5) 생활의 지혜 - 온돌과 난방

방구들이라고도 하는 온돌은 우리 나라만의 고유한 난방 방법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이상적인 난방 방법이기도 합니다. 온돌은 방바닥이 골로루 덮혀지고 습기가 차지않아 살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불이 날 염려도 없는 다른 민족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난방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민족이 언제부터 온돌을 설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사람들의 집에 대하여 써 놓은 중국 책에 “고구려 사람들은 구들을 놓아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아 고구려 시대 전부터 이미 온돌을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백제 사람들이 온돌을 이미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백제 사람들이 온돌을 놓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온돌은 추운 북방 지역 사람들이 처음 발명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던 것이 고려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며 점점 남쪽으로 전해졌고, 조선 시대 중엽 이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에 온돌을 놓았습니다.

온돌을 놓을 때 쓰는 돌을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구들장은 부엌 아궁이에서 가까울수록 두껍고 윗목으로 갈수록 얇습니다. 그래서 아래목은 천천히 달궈지지만 따뜻한 기운이 오래 가고 윗목으로 갈수록 금방 따뜻해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리고 온돌을 놓은지 4·5년이 지나면 안에 재가 쌓여 막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온돌을 청소해 주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6) 안성 맞춤의 유래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그 일에 딱 들어맞게 되었을 때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낫쇠로 만든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낫쇠는 구리에다 주석이나 아연, 니켈을 섞어 만드는데 낫쇠로 만든 그릇을 낫그릇 또는 유기라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도 낫쇠의 하나라고 하니까 낫쇠의 역사는 무척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낫그릇 만드는 기술은 7세기경의 신라 시대부터 부쩍 발달했습니다.

이때 낫그릇 제조 기술이 중국 당나라를 거쳐 신라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조선 시대에는 거의 모든 생활 도구를 낫쇠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낫그릇 만드는 방법으로는 경기도 안성 지방에서 만들었던 주물 제작법, 평안북도 정주, 남청 지방에서 만들었던 방짜 제작법, 전라남도 순천 지방에서 만들었던 반방짜 제작법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성 지방의 낫그릇은 낫쇠를 일일이 두드려 만드는 방짜 그릇보다 모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릇을 사는 사람의 주문에 딱 맞게 만들어 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에 기분 좋게 딱 들어맞는 것을 안성맞춤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7) 나무 시집 보내기란?

나무가 시집을 간다구요?

설마 나무들이 서로 사랑해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했을라구요. 하지만 사실이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나무시집 보내기 풍속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같은 과일을 맺는 나무를 오색 천으로 이어 주는 ‘나무 시집 보내기’ 풍속에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농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무 시집 보내기는 주로 설날과 정월대보름, 단오에 했는데, 집 주위에 있는 감나무·대추나무·배나무·사과나무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나무를 시집 보낼 때에는 먼저 시집 보낼 신부 나무와 신랑 나무의 나뭇가지 사이에 큼지막한 돌을 끼운 다음 나뭇가지 끝에 오색 천을 맵니다. 그리고 오색천으로 두 나무를 연결해 주기만 하면 혼례식 끝!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를 시집 보내면 보다 많은 과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과실수는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과일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무를 시집 보내면서 돌을 끼울 때 자연스럽게 생긴 상처가 나무의 양의 기운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여 과일이 더 많이 열린다는군요.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는 돌을 끼우지 않고 나뭇가지에 상처만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8) 서낭당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서낭당은 마을을 지켜 주는 서낭신을 모시는 곳으로, 주로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원추형으로 돌무더기를 쌓아 놓거나 작은 작은 집을 지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서낭당 옆에는 보통 신목이라고 불리는 나무나 장승을 세워 신성한 곳임을 표시했지요.

사람들은 서낭당을 지날 때는 돌·나무·오색천 등을 놓고 지나갔고, 돌을 세 개 얹으며 침을 세 번 뱉으면 재수가 좋아진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낭당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치우면 큰 벌을 받는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서낭당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차 전쟁이 났을 때에 대비하여 돌을 쌓아 놓은 것이라고도 한답니다. 하지만 서낭당은 마을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지어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서낭당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전쟁이 나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는 서낭제를 올렸다고 하니까요.

9) 솟대와 장승의 의미

솟대와 장승은 가정과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 역할뿐만 아니라 마을간의 경계를 표시하고 마을까지의 거리를 알려 주는 이정표 역할도 했습니다.

솟대는 장대 위의 세 갈래로 갈라진 나뭇가지 위에 한 마리에서 세 마리의 새를 올려놓은 것이 대부분으로, 마을에서는 매년 솟대제를 올리며 마을의 평화를 빌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마을을 잘 지켜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승은 나무기둥이나 돌기둥의 위쪽에 사람이나 귀신 또는 보살의 얼굴 형태를 그려 넣고, 밑에는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지하대장군과 같은 글씨를 써 넣은 것을 말합니다.

장승은 하나만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녀 한쌍을 세우는데, 사용된 재료에 따라 목장승·석장승·복합장승으로 나누어집니다. 목장승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석장승은 돌로 만든 것이며, 복합장승은 돌을 쌓

고 그 위에 목장승을 세운 것입니다. 또 관을 쓰고 텃니와 수염이 나 있는 인면형 장승, 왕방울눈과 주먹코에 송곳니가 드러난 귀면괴수형 장승, 미륵보살의 모습을 새긴 미륵형 장승이 있습니다.

10) 들돌들기 풍습이 궁금해요

들돌은 힘이 센 사람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가진 둥그런 모양의 돌덩어리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농사일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며 일손을 돕는 품앗이가 생겨났고, 부잣집에서는 머슴을 두어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추수가 끝나고 머슴에게 사경(머슴이 한 해 동안 일하여 준 댓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줄 때 얼마나 주어야 할지 애매했어요. 그렇다고 머슴들에게 똑같이 사경을 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이 들돌들기 풍습입니다. 들돌을 드는 힘에 따라 머슴들에게 사경을 다르게 매겨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도 힘이 세어 들돌을 붙끈 들면 어른만큼의 품삯을 주었대요.

들돌들기 풍습은 대부분 정월 대보름날 행해졌으나 지방에 따라 유두절이나 칠석에 들기도 하고 추석에 들기도 했지요. 그리고 명절에는 들돌에 술을 붓고 마을의 태평과 풍년을 빌기도 하고, 여자들은 들돌에 금줄을 치고 정화수를 떠 놓고 아들 낳기를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11) 칠석에 얽힌 전설

아주 오랜 옛날, 옥황상제에게는 길쌈을 잘하는 직녀라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직녀는 매우 부지런하고 길쌈을 잘하여 옥황상제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윽고 직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옥황상제는 은하수 건너편에서 소를 치던 목동 견우와 혼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견우와 직녀는 결혼하자 신혼의 단꿈에 빠져 맑은 일에 소홀해졌습니다. 견우는 소

를 잘 돌보지 않았고 직녀가 베를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드물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도록 하고 일 년에 한 번 칠석날만 같이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어 견우와 직녀가 칠석날에도 만나지 못하여 애를 태우자 이르 보다 못한 지상의 까막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머리를 이어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견우와 직녀는 매년 칠석날이면 까막까치가 놓아 준 오작교를 건너 만났습니다.

이 날 오는 비는 ‘칠석우’라 하여 견우와 직녀가 너무 기뻐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헤어짐이 아쉬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전합니다.

음력으로 7월 7일의 칠석날, 각 가정에서는 예로부터 밀전병과 햇과일을 차려 먹었으며 부인들은 정화수를 떠 놓고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 날 처녀들은 별을 바라보며 바느질 솜씨가 좋게 해 달라고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12) 한식에 얽힌 전설

한식날에는 예로부터 찬밥을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의 왕자 문공은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자 개자추 등의 신하와 더불어 나라를 빠져나와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고된 방랑 생활 속에 어느 날, 배고픔에 지친 문공이 앓아 눕자 개자추는 자기의 넓적다리살을 베어 문공에게 구워 먹여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 후 진나라에 돌아와 왕위에 오른 문공은 지난 날 개자추에게 입은 은덕을 생각하여 그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자추는 공을 시키하는 간신의 모함을 받고 어머니와 함께 면산으로 숨어 버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공은 면산으로 찾아가 개자추에게 벼슬을 받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치고 협박을 해도 개자추가 나오지 않자 문공은 산에 불을 지르면 개자추가 연기에 견디지 못하고 나올 것이라고 생

각하고 불을 지르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면산이 활활 타올라도 개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불이 꺼진 후 올라가 보니 개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불에 타 죽은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는 뜻으로 이 날만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은 옛날 불을 귀하게 여기던 시절, 매년 봄에 묵은 불씨를 버리고 새 불씨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건조한 봄철에 산소를 돌보고 음식을 지어 먹다 산불을 낼까 봐 예방하기 위해 비롯된 풍습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13) 선달 그믐날 잠들면 큰일나요!

선달 그믐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맞기 하루 전날인 이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와 놀이를 즐기며 새해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날이 되면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며 묵은 귀신을 쫓았고, 남에게 빈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던 바느질이 있으면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 해에 벌여 놓은 일을 깨끗이 마무리해야 새해에 복을 많이 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 밤에 행해지는 해지킴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풍습이 있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 놓고 밤을 새며 새해에 처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풍습으로, 만약 해지킴을 못하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세고 게으름뱅이 소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날 밤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썹에 하얀 밀가루칠을 해 놓고 끓여 주기도 했으며, 어린아이들도 눈썹이 세고 게으른 소가 될까 봐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밤을 새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선달 그믐날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며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14) 진설법이란?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조상을 공경하고 숭상하여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습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기일에 집안과 몸을 깨끗이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모심은 물론 특히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례를 지냅니다. 이렇게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과일은 어떤 순서로 놓고, 고기는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 놓은 규칙을 진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때 신위는 북쪽에 모시므로, 제사를 지내는 제주의 오른편이 동쪽, 왼편이 서쪽이 됩니다.

대표적인 진설법으로는 흥동백서·어동육서·좌포우혜·조율이시가 있습니다. 흥동백서는 붉은색의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색이 나는 과일은 서쪽에 놓도록 정한 것입니다. 어동육서는 생선은 동쪽에 놓고, 고기는 서쪽에 놓도록 정한 것이며, 좌포우혜는 오징어나 북어포 등 포 종류의 음식은 왼쪽에 놓고 식혜 종류는 오른쪽에 놓도록 정한 것입니다. 또 대추·밤·감·배의 순서대로 차례상에 놓도록 정한 것을 조율이시라고 합니다.

15) 부럼깨기와 더위팔기 풍속

농경 생활을 했던 우리 민족은 달을 기준으로 시간을 재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세시 풍속에서 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특히 새해에 처음 맞는 정월대보름은 설날이나 추석 못지않게 중요한 명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대보름날에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를 즐겼는데, 그중에 부럼깨기와 더위팔기 풍속이 있습니다.

땅콩이나 호두·잣·밤 등과 같이 껍질이 딱딱한 열매를 부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월대보름에 부럼을 까먹으면 이가 튼튼해지고 몸에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피부가 부럼처럼 단단해지면 부스럼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부럼에는 피부를 기름지게 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름날 아침에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 사람이 대

답하면 ‘내 더위 사 가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더위팔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답한 사람이 그 해 여름 내가 탈 더위를 모두 가져가서 여름을 수월하게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으면 부른 사람이 오히려 대답하지 않은 사람의 더위를 가져오게 된다는군요. 그래서 대보름날 아침에는 여기저기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16) 연을 만들어 보자.

연은 바람을 이용하여 공중에 날리는 것으로, 종이에 가는 댓가지를 붙인 다음 실을 꿰어 만듭니다. 연을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유신 장군이 연에 허수아비를 달아 띄웠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 날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섬과 육지의 소식을 전하는데 연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때 연은 놀이의 도구뿐 아니라 통신의 수단으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날리기 풍속이 널리 퍼진 것은 영조 임금 때로서, 이 때에는 특히 정월대보름이 되면 연의 바탕 종이에 생년월일과 ‘송액영복’이라는 글을 써서 해질 무렵에 연실을 끊어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나쁜 액을 날려 보내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의 종류에는 방패연·가오리연·봉황연·까치연 등이 있고, 높이 띄우기·재주 부리기·모양 보기·연실 끊기 등의 여러 가지 놀이 방법이 있습니다.

17) 절식이 뭐예요?

절식은 설이나 대보름과 같은 특별한 명절이나 절일을 맞아 그 날의 의미를 기리면서 만들어 먹는 전통 음식을 말합니다. 절일은 대부분 음력 정월부터 설달 사이에 달마다 있는데, 이 때 제사나 민속놀이 등의 행사와 함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절식을 보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절식에 대해 알아 볼까요?

새해 첫날인 설날에는 떡국을 먹었고,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에는 부럼을 까먹고 오곡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또 2월 초하룻날인 중화절에는 큰 송편을 만들어 노비들에게 먹였는데, 이것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삼짇날에는 진달래 꽃잎으로 만든 화전과 화채를 먹었고, 4월 8일 초파일에는 부처님이 탄생한 것을 기리기 위해 고기나 생선 음식을 피하고 미나리나물처럼 식물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5월 5일 단오에는 수리취 절편을 먹었고, 6월 15일 유두절에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재앙을 씻은 다음 햇밀로 만든 밀전병을 먹었으며 무더운 7월에는 삼계탕이나 개고기를 먹었고, 8월 한가위에는 햅쌀로 만든 송편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중양절에는 국화로 빚은 국화주를 마셨고, 10월에는 추수가 끝났으므로 추수 감사의 뜻으로 시루떡을 쪄 먹었으며, 11월의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고 12월의 납향일에는 참새구이나 산토끼 고기를 먹으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속담(俗談) 풀이

문화원 제공

속담이란 우리 조상들로 부터 오랫동안 그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과 철학이 담겨진 알아듣기 쉽고 풍속적인 위트(재치)가 있는 말이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유익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극히 일부만이 활용되고 있을 뿐 그것마저 차츰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이를 더 소멸 되기전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정선 수록하였다.

㉠

1. 가게(商店) 기둥에立春이다.
 - 베풀 물건이나 차림새 따위가 격에 맞지 않는다.
2. 가난의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 가난한 백성의 구제는 나라의 큰 힘으로 어렵거늘 개인의 힘으로는 더욱 어렵다.
3. 가난한 집 신주 굶듯 한다.
 - 끼니 굶는 것이 창피하여 남에게 말도 못하고 잘 견디는 모양.

4.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한다.
 -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온다.

5.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

6. 가르친 사위
 - 남이 시키는대로 밖에 못하는 사람.

7. 가마솔 밑이 노구솔 밑을 겹다한다.
 - 제 흉을 모르고 남의 흉을 본다.

8. 까마귀가 메밀을 마다한다.
 - 평소에 즐겨하던 것을 뜻밖에 싫다한다.

9.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없이 한일이 다른일과 공교롭게 때가 같아 꼭 무슨관계가 있는 것처럼 혐의를 받음.

10. 가을에는 부지깥이도 덤빈다.
 - 바쁠때는 모든 것이 쓰인다는 것으로 추수때의 바쁨을 말함.

11. 가재는 게 편이다.
 - 형상이 비슷하여 그 편을 든다.

12. 가지 많은 나무바람 잘날 없다.
 - 자식 많이 둔 사람 마음 편한날 없다.

13. 까치 뱃바닥 같다.

- 하얗고 깨끗하다. 주로 깨끗한 체 하는 사람을 비웃을 때 쓰임.

14. 간에 붙고 쓸개에 붙는다.

- 자신의 주관 없이 이편도 들고 저편도 들어주는 사람을 비유.

15. 감기 고뿔도 남 안준다.

- 감기까지도 남에게 주지않을 만큼 인색하다.

16. 감나무 밑에 누워도 샷샷 미사리를 대어라.

- 의당 자기에게 올 일이라도 그것이 틀림없이 오도록 중지하여라.

17.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 흥시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

- 노력은 않고 그냥 이익을 얻으려 요행을 바란다.

18. 감장 강아지로 돼지 만든다.

- 이치에 가까운 일을 유혹하려 하다가 되지 않는다.

19. 값도 모르고 싸다한다.

- 일의 내용이나 관계나 그 형편이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논란한다.

20. 값싼 갈치자반

- 값도 싸지만 그만큼 품질도 좋지 않다.

21. 강물도 쓰면 준다.

- 많다고 마구 쓰지말고 아껴써라.

22.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같은 값이면 빛깔이 좋은 것을 고른다.

23. 개 미워서 낙지 산다.

-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한다.

24. 개꼬리 삼년에 상모 못 된다.

- 성품이 나쁘면 아무리 타일러도 좋은 사람 못 된다.

25.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

- 사람이 너무 좋으면 사람대접을 못받고 사나운 사람을 두려워 한다.

26.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 가난하거나 천했던 옛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난듯이 뽐낸다.

27. 개구멍에 망건치기

- 남이 빼앗을까 겁을 내어 막고있다가 그것마저 잃는다.

28.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평소에 흔한 것이 소용이 있어서 찾으니 구하기 어렵다.

29. 개똥밭에도 이슬은 내린다.

- 아무리 지금은 어려워도 행운을 만날때가 있다.

30. 개미켓바퀴 돌듯 한다.

-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건성건성 해치운다.

31. 개밥에 도토리

· 한층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 외로운 사람.

32. 개보름 쇠듯 한다.

· 명절때 제대로 세지 못하고 그냥 지내버린다.

33. 개살구의 신맛도 맛들일 탓이다.

· 어려운 것도 이기고 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34. 개천에서 용난다.

· 보잘 것 없는 집안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왔다.

35. 깻목에도 씨가 있다.

· 없을 듯한 곳에도 혹 있을 수 있다.

36. 거미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7. 거적에 돌저기

· 좋기는 하나 격에 맞지 않음.

38. 꼬리가 길면 밟힌다.

· 나쁜일을 오래하면 끝내는 들키고 만다.

39. 고슴도치 외 따지듯 한다.

· 빛을 많이 진 것을 말함.

40. 고양이 앞에 쥐 걸음이다.

· 무서운 사람 앞에서 쩔쩔맨다.

41. 고추는 작아도 맵다.
· 몸둥이는 작아도 성질이 매몰차다.
42. 꼭지에 부은물이 발 뒤꿈치에 내린다.
· 위가 맑아야 아래가 맑은 듯이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이 잘한다.
43. 곧은 나무 쉬 꺾인다.
· 똑똑하고 촉망받은 사람이 쉬 죽는다.
44. 거지 발싸게
· 몹시 풀답지 못한 사람이나 더러운 물건을 이름.
45. 건너다보니 절터
· 자기 것을 하고자 하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다. 또는 뻔하다.
46. 걷기도 전에 뛰려한다.
· 쉽고 작은 일조차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렵고 큰 일을 하려하는 무모함을 경계하는 말.
47.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다.
· 해야할 말이면 시원하게 해 버려야 한다.
48.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세력있는 힘있는 사람끼리의 싸움으로 약한사람이 해를 입는다.
49. 공것이라면 양젓물도 먹는다.
· 공짜 좋아하는 암체를 나무라는 말.

50. 공든탑이 무너지라.

- 공들여 이룩한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그 결과가 헛되지 않는다.

㉠

51. 나간 놈의 뭇은 있어도 잠자는 놈의 뭇은 없다.

- 게으른 사람의 뭇은 없다는 경계의 말.

52. 나그네 보내고 점심한다.

- 때를 놓쳐 효과를 바로 내지 못함.

53. 난 거지에 들부자.

- 실속은 부자이나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는 사람.

54. 나무에 오르라 해놓고 혼든다.

- 남을 위협하거나 불행한 처지에 빠뜨림.

55.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제가 먼저 물 속에 들어가야 한다.

- 남을 해롭게 하려면 제가 먼저 해를 당한다.

56. 남의 팔매에 밤 주워먹기.

- 힘 안들이고 남의 덕에 횡재를 함.

57. 내 밥 먹은 개가 발 뒤축을 문다.

- 은혜입은 사람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반한다.
인정의 각박함을 개탄하는 말.

58.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 한다.
· 남의 사정을 조금도 생각치 않음. 극도의 이기주의를 타한 말.
59. 네 병이야 낫든지 말든지 내 약 값이나 내라.
· 상대의 형편은 고려치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60. 노루가 제 방귀에 놀란다.
· 겁이 많음.
61. 노루 잠자듯 한다.
·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깬다.
62.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 먹는다.
· 눈치가 있으면 어디가서도 궁색하지 않다.
63. 늙으면 아해 된다.
· 사람이 늙으면 모든 행동이 어린애처럼 어리석어진다.
64. 늙은 소 콩 밭으로 간다.
· 오랜 경험으로 자기에겐 유리한 것을 알아 차린다.

㊦

65. 다리 아래에서 원님을 꾸짖는다.
· 본인이 있는 앞에서는 감히 자기의 의견이나 불평을 말하지 못하고 본인이 없는데서 큰소리 친다.

66. 단단한 땅에 물이 끈다.

- 마음이 굳고 절약해야 재물이 모인다.

67. 달리는 말에 채를 친다.

- 형편이 펴고 힘이 좋을 때라도 더욱 마음을 죄이라는 말.

68. 달걀지고 성밑으로 못가겠다.

- 너무 신경과민이다.

69. 대신 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줄 모른다.

- 주인의 권세를 믿고 하인들이 권세를 부린다는 비유.

70.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없다.

- 자신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71. 떡으로 치는 놈 떡으로 치고 매로 치는 놈 매로 친다.

- 상대방 행동에 따라 이쪽에서도 그만큼 대응한다.

72.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모인다.

-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나 이룰 수 있다.

73. 도끼가 제 자루 못 찍는다.

- 제 허물을 제가 알아서 고치기는 어렵다.

74. 도둑의 때는 벗어도 화냥의 때는 못 벗는다.

- 도둑은 개과천선 고치면 흠이 없지만 정조는 한 번 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다.

75. 돈만 있으면 귀신도 사귄다.
·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76. 동헌에서 칭찬하듯 한다.
· 아침으로 헛 칭찬을 함.
77.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 장래성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른 데가 있다.
78. 똑배기 간에 장맛이 좋다.
· 겉모양 보다 내용이 좋다.
79.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 사람은 운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80. 뒤에 불 나무는 그루를 돋우어라.
· 뒷일을 생각하거든 미리부터 준비하라.
81. 드나드는 개라야 꿩을 문다.
· 부지런한 사람이라야 일을 이룰 수 있다.
82. 든 거지 난 부자.
· 속은 가난한데 겉은 부자로 보인다.
83. 들으면 병이고 안들으면 약이다.
· 걱정되는 일은 차라리 아니듣는 것이 낫다.
84. 들어 디딘 발이다.

· 이미 손을 대어 시작한 일 돌이킬 수 없다.

85. 등잔 밑이 어둡다.

·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을 잘 모른다.

86. 등치고 간 내먹는다.

· 면전에서 위하는 척 하면서 해를 끼친다.

87. 등치고 배 문지른다.

· 은연중에 사람을 위협하고 겉으로 달래는 척 한다.

㊦

88. 마음이 있어야 꿈도 꾸지.

·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89. 마파람에 계는 감추듯 한다.

· 음식을 빨리 먹어 치우는데 비유.

90. 말 많은 집의 장맛이 쓰다.

· 가정에 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된다.

91.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

· 말을 수다하게 많이 하면 그 안에 실속이 없다.

92. 말 한 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이라도 잘 해결이 된다.

93. 말뚱도 모르고 馬醫 노릇한다.
·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음을 조롱하는 말.
94. 머리카락 뒤에서 숨박꼭질 한다.
· 얇은 피로 남을 속이려 한다.
95. 먹기는 파발이 먹고 뛰기는 역마가 된다.
· 애쓴 사람을 제쳐놓고 애쓰지 않은 사람이 이익을 본다.
96. 먹지 않는 씨아에서 소리만 난다.
· 일은 하는 체 하고 놀면서 떠벌리기만 한다.
97. 명주 옷은 사촌까지 덥다.
· 가까운 사람이 잘되면 그 은덕이 자기에게도 미친다.
98.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언동에 모가 나면 남의 미움을 산다.
99. 무자식이 상팔자다.
·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걱정이 많다.
100.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그만이다.
101.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 먹고 살기 위해 못할 일까지 해야한다.
102. 문패는 거꾸로 붙이고 환장이만 나무란다.

· 자기가 잘못하여 놓고 남을 나무란다.

103. 물 본 기러기 꽃 본 나비

· 바라던 바를 이루어 득의만만함.

104. 물이 깊어야 고기가 논다.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따른다.

105. 미꾸라지 용됐다.

· 가난하고 보잘 것 없던 사람이 잘 되었음을 비꼬는 말.

106. 미치광이 풋나물 캐듯한다.

· 일을 아주 소홀히 한다.

107. 밭다고 차버리면 떡고리에 자빠진다.

· 미운사람을 배척하니 도리어 그자에게 다행한 일이 되어 더 분하게 되었다.

㉞

108. 바람부는 날 가루 팔리간다.

· 하필이면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일을 시작한다.

109.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지.

· 선행조건이 해결되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110. 반 풍수 집안 망친다.

· 서투른 재주를 함부로 피우다가 일을 망친다.

111. 밥 빌어다가 죽 쑤어 먹을 놈.

· 성품이 게으른 데다가 소견마저 없는 사람을 두고 이름.

112. 배보다 배꼽이 크다.

· 딸린 것이 주된 것 보다 크거나 많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113. 배부른 흥정

· 급히 서둘지 않고 천천히 배짱을 튀겨가며 물건을 흥정함.

114. 백문이 불여일견

· 간접적으로 여러번 들은 것은 한번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다.

115. 별거벗은 환도차기

· 격에 맞지 않은 행동이나 복장을 함.

116.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이치를 따져 해결하기 앞서 폭력을 먼저 쓴다.

117. 변죽을 치면 복판이 올린다.

· 내용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

118. 병자년 까마귀 빈 뒷간 들여다 보듯 한다.

· 무엇을 구하는 자가 행여나 하고 구차스럽게 여기저기 기웃거림.

119. 보리밭에 가 송농 찾겠다.

· 지나치게 몹시 성급하게 군다.

120. 보채는 아이 밥 한 술 더 준다.

- 가만히 있지 말고 서둘러야 더 많이 얻어진다.

121. 볶은콩에 싹이 날까?

- 가망이 없는 것.

122.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 쉽고 좋은 기회나 형편도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123.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 내외간의 싸움은 곧 풀린다는 뜻.

124.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

- 큰 부자하나 나자면 수많은 사람을 못살게 하여야 함으로 동네 몇이 망하듯 큰일을 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른다.

125. 북어 뜯고 손가락 뺀다.

- 허위와 과장을 한다.

126. 분에 심어놓으면 못된 풀도 화초가 된다.

- 못난 사람도 지위를 얻게 되면 잘나 보인다.

127.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욱 궁지에 몰아 넣거나 성난 사람을 더욱 성나게 한다.

128. 불 없는 화로, 딸 없는 사위

- 사물에 핵심이 없다.

129.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비는데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0. 빛 좋은 개살구

-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음을 이르는 말.

⊙

131. 사나운 개 콧등성한날이 없다.

- 성품이 사나우면 늘 해를 본다.

132.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분다.

- 마땅히 해야 할 때 아니하다가 시기가 지난 뒤에 함.

133. 사돈댁과 변소는 멀어야 한다.

- 말이 나돌기 쉬운 사돈집이나 냄새가 나는 뒷간은 멀수록 좋다.

134.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 사람은 좋은 일을 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

135. 사발농사.

- 남의 집에 가서 끼니 때까지 미적거리면서 공밥을 얻어먹는 일. 즉 심한 얹채짓을 이룸.

136. 싸전에 가서 밥달라 한다.

- 참을성 없이 성질이 급한 사람을 일컫음.

137. 사정이 사촌보다 낫다.

- 사정을 잘 하면 웬만한 것은 통할 수가 있다.

138. 사족을 못 쓴다.

- 무엇에 반하거나 혹하여 어쩔줄을 모른다.

139. 사족성한 병신

- 아무일도 하지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140.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남의 잘됨을 시기함.

141. 사흘 굶어도 독질 아니할 놈 없다.

- 아무리 착한 사람도 빈곤하게 되면 마음이 변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비유의 말.

142. 산 밖에 난 범이요, 물 밖에 난 고기다.

- 의지할 곳을 잃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에 이름.

143. 산신 제물에 메뚜기 뛰어들듯 한다.

- 당치도 않는 일에 참견을 한다.

144. 산 입에 거미줄 치랴.

- 살아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먹을 것은 있다.

145. 쌀독에서 인심 난다.

- 부유하여야 남을 도울 생각이 난다.

146.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 살림을 알뜰히 잘 하려면 눈으로 잘 보아 처리해야 한다.

147. 살찐놈 따라 부으라.

- 실속없이 남이 하는대로 따라서는 안된다.

148. 삼십육계 줄행량이 제일이다.

- 어려울 때는 그저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149. 사정승 사귀지 말고 내한몸을 조심하라.

- 상부에 아첨하지 말고 제자신을 보살피라.

150. 상좌가 많으면 가마솔을 깨뜨린다.

-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잘되기는 커녕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

151. 상주보고 제삿날 다툰다.

-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틀린 주장을 고집한다.

152. 상추밭에 똥싼 개 같다.

- 한번 나쁜짓을 해서 들킨 사람은 그런일이 있을 때마다 의심을 받는다.

153. 새벽달 보려고 초저녁부터 기다린다.

- 일을 너무 일찍 서두른다.

154. 새침떼기 골로 빠진다.

- 얽전한 체 하는 사람일수록 한번 길을 잘못 들면 걸잡을 수 없게 된다.

155. 생마 잡아 길들이기.

· 버릇없이 제멋대로 자란 사람을 교양하여 고쳐주기란 어려운 일이다.

156. 생초목에 불 붙는다.

· 갑자기 화를 당하였을 때의 분통한 정상을 비유하는 말.

157. 서울 소식은 시골가서 들어라.

·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먼 곳의 사람이 더 잘 아는 수가 있다.

158. 석수장이 눈 깜짝이부터 배운다.

· 어떤 일의 실속보다 형식부터 배운다.

159. 선 떡부스러기 같다.

·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실속없는 무리를 가리키는 말.

160. 성균관 개구리.

· 늘 글을 읽는 사람을 농으로 이르는 말.

161.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한다.

· 아무 관심없이 보는듯 마는듯 한다.

162. 소경 기름값 내기.

· 아무 필요가 없는데 남과 같이 내게 한다.

163.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켜다.

· 죄 지은 놈이 벌을 받는다.

164. 소년 고생은 사서라도 하랬다.

· 젊었을 때의 고생은 많이 하는 것이 훗날에 크게 도움이 된다.

165.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 세상의 평판은 실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166. 쉬 더운 방이 쉬 식는다.
· 무슨일을 너무 서둘러 하는 사람은 끝맺음이 시원치 않다.
167. 손톱 밑에 가시드는 줄을 알아도 염통에 쉬 스는 줄을 모른다.
· 눈 앞에 조그만 이해관계는 밝으면서 치명적인 큰 피해를 가져올 숨겨진 사실은 모른다.
168. 송곳도 끝부터 들어간다.
· 일이란 순서가 있는 것이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169.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 되지 못한 것이 벗어나는 짓을 한다.
170. 송장치고 살인낸다.
· 설불리 관계하였다가 큰코 다친다.
171. 송충이가 갈 입을 먹으면 죽는다.
· 제 분수를 모르고 다른 생각을 하면 실패를 당한다.
172. 술에 개 누었다.
· 여러날 밥을 짓지 않았다. 극도의 가난을 이룸.
173. 쇠가 쇠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다.
· 형제나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해치려한다.

174. 쇠뿔도 당김에 빠졌다.
· 무슨일이든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해치워야 한다.

175. 수박 겉 핥기다.
· 일이나 물건의 속뜻은 모르고 겉만 건드린다.

176.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 배가 불러야 체면도 지킬 수 있다.

177. 술 덤병 물 덤병한다.
·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함부로 덤병거림.

178. 수국이 검정을 나무란다.
· 제 흠이 더 큰사람이 흠이 적은 사람 흠을 본다.

179. 시골 고사리
· 어리석고 뭘 모르면서 고집이 센 시골사람.

180. 시거든 뚝지나 말지.
· 아주 못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

181. 시지도 않아서 군동내 부터낸다.
· 같잖은 것이 미리부터 노숙한체 한다.

182. 씨도둑은 못한다.
· 지내 온 내력은 아무도 없애지 못한다는 뜻.

183. 시어머니 미워서 개의 옆구리 찬다.

· 자기가 당한 화를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184. 씨아가 안 먹으면 소리만 난다.

· 소용없는 사람이 떠들기만 한다.

185. 시작이 반이다.

· 무슨일이나 시작만 하면 그 뒷 일은 어렵지 않다.

186. 시장한 사람보고 요기시키라 한다.

·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동정을 바란다.

187. 시집가기 전에 포대기 장만한다.

· 준비가 너무도 빠르다 성급하다.

188. 식칼이 제자루 못 깎는다.

· 재가 제일하기 어렵다.

189.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

· 재미있는 일에 정신이 팔려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190. 실뱀 한 마리가 큰 강물을 흐린다.

· 한 사람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191. 실 없는 말이 송사건다.

· 무심히 한 말 때문에 큰 탈이 생긴다.

192.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다.

· 여러해 애써 한 일이 아주 효력이 없게 됨.

193. 싱겁기가 고드름 짱아치 같다.

- 매우 싱겁고 멋적다.

◎

194.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식말뚝 보고 절 한다.

- 하나가 마음에 들면 그 주위 다른 것까지도 좋아보인다.

195. 아는 것도 물어가라.

- 무엇이든지 침착하고 조심하라는 뜻.

196. 아니되면 조상탓.

- 제 잘못이나 허물을 남에게 전가함.

197.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친한 사람에게 도리어 해를 입는다.

198. 아는 것이 병이다.

-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걱정이 많다.

199.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

- 사실과 원인이 없으면 그런일이 있을 수 없다.

200.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 뜻 밖의 행운이나 횡재를 만남.

201. 아들네 집에서 밥먹고 딸네집에서 물 마신다.

· 딸의 살림을 아끼는 부모를 두고 하는 말.

202.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 아무리 급해도 사리에 어긋나는 일은 행하지 못한다.

203.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

· 물건 값이 싸야 손이 많다.

204. 안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 운수 사나운 사람은 무슨일을 해도 실패한다.

205. 앉아주고 서서 받는다.

· 금품을 주어지면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6. 앓은뱅이 용쓴다.

· 노력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애를 쓴다.

207. 앓으니 죽지-

· 이왕에 조그만 곤란을 당한 바에 큰 걱정을 겪어버리는게 낫다.

208.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여자가 지나치게 나서서 간섭하면 집안일이 잘 되지 않는다.

209. 약방에 감초

· 어떤 일에도 빠짐없이 끼인다.

210. 약빠른 고양이 앞을 못본다.

· 지나치게 약게 굴면 손해를 본다.

211.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 세상일이 늘 반복된다.

212.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 모든 일을 용의주도 하게 조심하여야 한다.

213.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할지 모르겠다.

- 시키는 일이 여러 갈래일 때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몰라 난처하다.

214. 너질병이 지랄병 된다.

- 작은 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큰 병통이 된다.

215.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 억지로라도 제 힘으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216. 억지 춘양이-

- 순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

217. 엉덩이에 뿔이 났다.

- 어린 사람이 옳은 가르침을 듣지 않고 비뿔어지게 나감.

218. 얻은 떡이 두배 반이다.

- 부수임으로 얻은 것이 주목적보다 많다.

219. 얼르고 뺨 친다.

- 잘해주는 척 하면서 해를 입힌다.

220. 얼음판에 넘어진 소 눈 같다.

· 눈동자에 진기가 없거나 말뚱말뚱 두리번거리는 큰 눈.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겹친다.

221. 여름불도 쬐고나면 섭섭하다.

· 쓸데없는 듯한 것이라도 없어지면 섭섭하다.

222. 여자 셋이 모이면 나무젓시가 없어진다.

· 여자가 모이면 말이 많고 떠들썩하다는 비유.

223. 여자는 제 고을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

· 여자는 세상일을 모르고 집안에서 살림이나 알뜰히해야 행복하다.

224.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225.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 같다.

226. 영리한 고양이 밤눈 못 본다.

· 똑똑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하찮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27. 오는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 남이 잘해주면 이쪽에서도 그만큼 댓가를 보내게 된다.

228.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 되지도 않은 일은 애당초 뜻하지도 말라는 뜻.

229. 오이는 씨가 있어도 도둑은 씨가 없다.

- 도둑은 유전이 아니다.
230. 오이 덩굴에 가지 열릴까.
- 근본은 속일 수가 없다.
231. 옥에도 티가 있다.
-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점은 있기 마련.
232. 우물 안 개구리
- 넓은 세상을 모르는 견문이 좁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233. 우물가에서 승냥 찾겠다.
- 성미가 매우 급하게 날뛰다.
234.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 무슨 일이든지 한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235.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
-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우선 좋은 편을 취한다.
236. 울며 겨자먹기.
- 하기 싫은 일이지는 하지만 사정이 부득이하여 억지로 하게 됨.
237. 울타리 밖을 모른다.
-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다.
238. 웃는 낮에 침 뱉으랴.
- 공손하게 간절히 청해 오는 이에게 듣기 싫은 말이나 욕이 나올 수 없다.

239.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윗 사람의 행동이 깨끗해야 아랫사람도 그를 본받아 행동이 바르다.

240.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 남에게 악한 일을 하면 그 죄를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

241.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처지에 도리어 해를 끼친다.

242.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늘다.

- 말을 보태어져서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

243. 이불 속에서 활개친다.

- 밖으로는 활동을 못하면서 괜히 호언장담 한다.

244. 이웃집 무당 영하지 않다.

- 집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하게 생각되지 않고 가까운 것은 신통하지 않다.

245. 익은 밥 먹고 쓴소리 한다.

- 쓸데없는 말을 싱겁게 한다.

246.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

- 얼굴이 예쁜 여자는 홀러 소박을 당해도 고우면 소박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얼굴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

247. 임도 보고 뽕도 탄다.

- 한꺼번에 두가지 일을 이룬다.

248. 입이 서울이다.

- 먹는 것이 제일이다.

249. 입이 빠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 정직한 말을 해라.

250. 잉어국 먹고 용트림 한다.

- 작은일을 큰일인체 하고 남에게 거짓 태도를 보이거나 행동을 한다.

㉞

251. 자는 범 코침주기.

- 괜히 건드려서 위험을 산다.

252. 자다가 얻은 병이다.

-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 곤경에 빠졌다.

253.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솔뚜껑보고 놀란다.

- 어떤것에 놀란 사람이 그와 비슷한것만 보아도 겁을 먹는다.

254. 자식둔 곳은 범도 돌아본다.

-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짐승도 같다.

255. 적게 먹고 가는 똥 눈다.

- 지나친 욕심을 내지말고 분수에 알맞게 살아야 편하다.

256. 작은 고추가 맵다.

· 체신은 비록 작아도 당차게 일을 처리해 나감을 비유.

257. 잘되면 제탓 못되면 조상탓.

· 일의 실패한 책임을 남에게 지우려든다.

258. 재는 넘을수록 험하고 내는 건널수록 깊다.

· 일이 되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259. 재주가 메주다.

· 재주가 아주 없음을 비꼬는 말.

260. 저 먹자니 싫고 남주자니 아깝다.

· 욕심 많은 사람의 심리를 비유.

261. 적삼벗고 은가락지 낀다.

· 격에 맞지 않는 것을 한다.

262. 점잖은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

· 믿고 있던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한다는 뜻.

263. 제 얼굴에 침 뱉기.

· 스스로 자기를 모욕한다.

264. 제 도끼에 발등 찍힌다.

· 자기가 한 일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

265. 제 버릇 개줄까?

· 잘못 들여진 습관은 고칠 수가 없고 언젠가는 그 버릇이 나온다.

266. 좁쌀 한 섬 두고 흉년들기를 기다린다.
· 변변치 못한 것으로 큰 효과를 보려고 한다.
267. 족제비도 낫짜이 있다.
· 아무리 작고 못났어도 체면은 있다.
268. 존대하고 뽀 맞지 않는다.
· 남에게 공손하면 욕이 돌아오지 않는다.
269. 종로에서 뽀맞고 한강에서 눈흘긴다.
· 관계없는 제 삼자에게 화풀이를 한다.
270. 종이도 네 귀를 잡아야 바른다.
· 힘을 합해야 일하기가 쉽다.
271. 죄는 지은대로 가고 덕은 닦은대로 간다.
·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덕은 닦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272.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 분한 일이 있을때 법은 나중문제요 당장에 주먹으로 친다.
273. 종이 고기맛을 보면 절에 빈대가 안 남는다.
· 좋은 일을 한번 보면 미쳐 날뛰다.
274. 쥐 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 늘 나쁜 일만 있는것은 아니다.
275. 쥐면 뽀줄을 모른다.

·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른다. 몹시 인색하다.

276. 지령이도 밟히면 꿈틀한다.

·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너무 무시하면 반발한다.

277. 지성이면 감천이다.

·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정성껏 하면 좋은 결과를 맺는다.

278. 地神에 붙이고 성주에 붙인다.

· 가뜩이나 적은 것을 이곳저곳에 뜯기고 남은 것이 없다.

㊸

279. 참을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 큰 재앙도 면할 수 있다.

280. 채반이 용수되게 우긴다.

· 사리에 맞지않은 의견을 접한다.

281. 처 삼촌 묘에 벌초하듯 한다.

· 성의 없이 대충대충 처리하는 것을 비유.

282. 천리마 꼬리에 쉬파리 따라가듯 한다.

· 하는 일 없이 남의 덕 겨문해 싸여다닌다.

283. 첫 술에 배부르랴.

·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할 수 없다.

284. 초년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 초년에 고생을 한 사람이라야 세상살이에 밝고 뒷끝이 좋다.

285. 초록은 동색이다.

· 서로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

286. 친구따라 강남간다.

· 벗을 중히 여기고 그 의견을 따라 처신한다.

287. 칠 팔월 수수잎 같다.

· 성질이 연약하여 번복하기 쉬운 사람을 이르는 말.

288. 침 먹은 지네같다.

· 당연히 할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

289. 콩 밭에 가서 두부 찾겠다.

· 성질이 몹시 조급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290. 콩 튀듯 팔 튀듯 한다.

· 몹시 성이나서 펄펄 뛰는 것을 비유한 말.

291.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 작은 일도 등한히 하다가는 큰 화를 입는다.

㉔

292. 탕약에 감초 빠질까.

- 어떤 일에도 빠짐없이 끼인다는 뜻.

293. 태산을 넘으면 평지본다.

- 고생 끝에 낙이 온다.

294. 터진 방아공이에 보리알 끼듯.

- 요긴하지 않는 방해물이 참여한다.

295.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 남이 모르는 허물이 걱정되어 겁을 먹고 떴다.

296. 티끌모아 태산.

- 작은 것도 거듭 쌓이면 큰 것이 된다.

㉕

297. 파리만 날린다.

- 영업이 번성하거나 바쁘지 않고 아주 한가롭다.

㉖

298.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

- 그자리에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공교롭게 그사람이 나타난다.

도전 민속 퀴즈

문화원 제공

1.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삼베옷을 입는 이유는?

- ① 옷감이 질기기 때문이다.
- ② 옷감이 가볍기 때문이다.
- ③ 옷감이 거칠기 때문이다.

답 ③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상을 당한 불효자임을 나타내는 뜻으로 일부러 바느질을 곱게 하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삼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2. 옛날 평민들은 양말 대신 무엇을 신었을까?

- ① 짚이나 띠로 만든 발싸개를 신었다.
- ② 버선을 신었다.
- ③ 면 양말을 신었다.

답 ①

옛날 사람들은 여름에는 대개 맨발에 짚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짚이나 띠로 엮은 발싸개로 신과 발등을 덮어 추위를 견뎠습니다.

3. 옛날 사람들이 부엌에 모셨던 신은?

- ① 터주신
- ② 조왕신

③ 성주신

답 ②

옛날에는 불씨를 신성시하여 이사를 갈 때에는 꼭 불씨를 가져갔습니다. 조왕신은 바로 불과 물을 다스려 집안을 보살펴 주는 신입니다.

4. 아이가 오줌을 싸면 왜 키를 씌웠을까?

- ① 오줌 싸는 버릇을 걸러 내라는 뜻이다.
- ②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줘 창피를 주기 위해서 씌웠다.
- ③ 부모가 화가 나서.

답 ①

키는 곡식을 까불러서 쪽정이를 걸러 내는 도구입니다. 아이가 오줌을 싸을 때 키를 씌우는 것은 오줌싸는 나쁜 버릇을 걸러 내라는 뜻입니다.

5. 석유가 없던 시절에는 석유 대신 무엇으로 불을 밝혔을까?

- ① 가스
- ② 고래기름
- ③ 수은

답 ②

석유가 들어오기 전에는 고래의 살에서 짜낸 기름이나,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 가지나 옹이를 말린 관솔볼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6. 옛날엔 어떤 비료를 써서 농사를 지었을까?

- ① 농약
- ② 제초제
- ③ 거름

답 ③

옛날에는 풀, 짚, 낙엽 등을 쌓아 썩혀서 만든 거름을 주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나 돼지 등 짐승은 물론 사람의 오줌이나 똥도 중요한 거름이었습니다.

7. 품앗이란?

- ① 농사일을 서로 거들어 주는 것
- ② 논을 김을 매는 일
- ③ 곡식을 추수하는 일

답 ①

한가할 때 남의 일을 거들어 주고, 바쁠 때 자기가 도와 주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것을 품앗이라고 합니다.

8. 멍석말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 ① 멍석을 짠다는 뜻.
- ② 멍석을 펴고 논다는 뜻
- ③ 죄를 지은 사람을 멍석에 말아 혼을 낸다는 뜻

답 ③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마을의 규범을 어겼을 때 멍석에 말아서 몽둥이로 때리며 벌을 주는 것을 멍석말이 한다고 합니다.

9. 옛날에 가축을 기를 때 가장 많이 쓰이던 사료는?

- ① 종합영양제 · 질병예방제
- ② 수수 · 보리 · 옥수수
- ③ 벣짚 · 배추잎 · 콩깍지

답 ③

옛날에는 집에서 먹고 남은 푸성귀 찌꺼기며 아카시아잎, 고구마줄기, 풀, 콩깍지 등을 말려 사료로 사용했습니다.

10. 심마니들이 '심봤다' 하고 외칠 때는?

- ① 산삼을 찾았을 때
- ② 인삼을 캐었을 때
- ③ 호랑이를 봤을 때

답 ①

산삼을 캐는 심마니들은 산삼을 발견하면 큰소리로 “심봤다!”하고 세 번 외쳐서 다른 심마니들에게 알립니다.

11. 엽전에 구멍을 뚫은 이유는?

- ①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 ② 가볍게 하기 위해서
- ③ 끈에 꿰기 위해서

답 ③

여러 개의 엽전을 꿰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엽전 꾸러미라는 말이 생겼겠지요?

재활용품을 예술로 빚어내는 모미

● 들어봅시다.



무늬사랑회 김 중 희 회장

스텐실로 지역문화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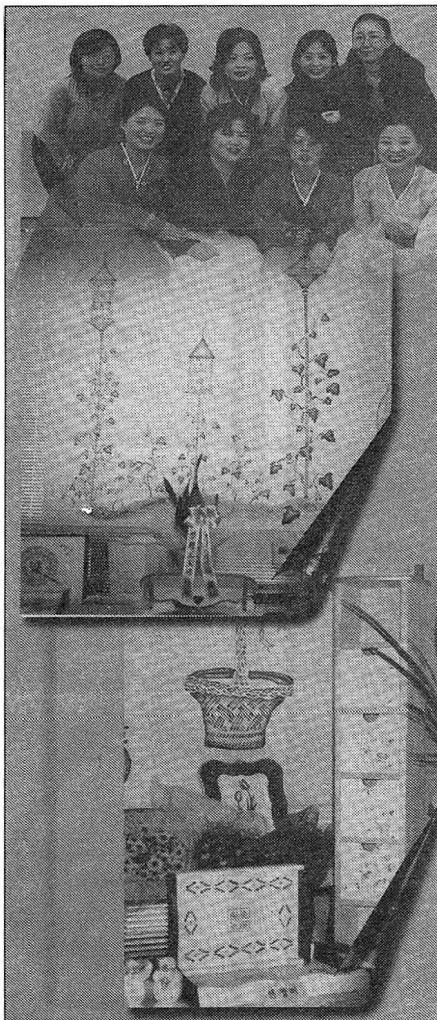
“집안의 낡은 가구를 몽땅 새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볼도 없는 선물을 만들 수 있어요. 멋진 방들을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천 한장만 있으면 우리집만의 홈패션을 완성할 수 있어요.”

김중희회장의 스텐실 예찬이다. 그녀는 93년도부터 스텐실을 배웠으며 한국 포크아트협회 사범 자격증도 갖춘 전문가이다.

또 수직공예, 꽃꽂이, 한글서예 등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군인인 남편을 따라 인제에 산지 5년.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곳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인제를 떠나서 살수 없다는 인제인이다.

경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했고, 현재 상동리에서 지역의 하나밖에 없는 미술화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학부모들과의 교유상담도 나누고 있다.

또 인제미술인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문화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또 스텐실회원들과의 우정도 키우며 지역의 한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해 애쓰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지역의 주부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지식을 함께 나누며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가을에서 겨울로 건너가는 스산한 길목. 표정없는 썰렁한 집안을 예쁘게 단장하여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연출하고 싶은 것이 여성들의 바람이다.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집안을 꾸밀 수는 없을까. 큰돈들이지 않고 아끼자기한 소품을 만들어 물감을 푹푹 찍어 앙증스런 문양으로 멋을 내는 스텐실 매니아들의 모임이 있어 여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재제한없이 다양한 응용 회원 30명 매주 작품 활동

4년전 인재문화원 문화교실에서 스텐실강좌를 들던 회원들이 모여 무늬사랑회(회장 : 김종희)를 조직하여 취미생활도하며 집안도 알뜰살뜰 보살필 수 있는 동아리로 자리 잡고 있다.

스텐실은 나무나 천, 유리, 금속 또는 토분이나 벽면 등 그림을 그려 넣는 바다 소재에 거의 제한없이 응용이 가능하며 특히 재활용품 어디에나 찍기만 하면 새것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에 자신이 없어도 기초 테크닉과 만들기를 꼼꼼히 하면 웬만한 소품은 거뜰히 만들 수 있다. 회원수는 20~30명 정도이며 매주 목요일 문화사랑방에서 10시~오후 2시까지 모여 작품을 만든다. 주부회원들이 가장 많으며 혼수를 손수 마련하기 위해 배우는 알뜰한 아가씨들도 있으며 직장인들도 배우고 있다. 회원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소품도 만들고 버릴려고 두었던 물건을 다시 색칠하고 문양을 넣어 근사한 새 물건으로 변할 때 뿌듯한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또 “밋밋한 아이들 옷에 무늬를 넣으면 색

다른 멋이 있다며 스텐실을 알고 부터는 살림하는 재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1년에 한번 합강문화제 동안 전시회도 열고 있다. 전시회를 통해서 스텐실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문화발전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며 회원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시회를 찾은 외지의 한 인사는 “대도시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며 작품의 질도 우수하고 주부들의 여가선용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모임이 시골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시실이 부족하여 늘 한켠으로 밀려나야하고 회원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관계기관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아쉬울때가 많다고 한다.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아리간의 공평하고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있다. 오는 11월말경에는 소년소녀가장돕기 바자회행사에 동참하며 수익금전액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기탁할 예정이다.

자투리 정보

문화원 제공

◎ 비누가 없던 시절에는 빨래를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주로 잿물이나 오줌을 이용하여 빨래를 했습니다. 잿물은 쪼이나 콩깍지를 태운 재를 이용하여 만들며, 잿물로 빨면 옷감이 상하게 되는 명주는 오줌으로 빨았습니다. 쌀뜨물·녹두물 등도 훌륭한 세제가 되었습니다.

◎ 쪽과 상투의 의미는?

옛날 남자들은 보통 15~20세 사이에 길게 땅아 늘였던 머리를 정수리로 모아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어엿한 어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옛 여인들의 화장품은?

옛날의 여인들은 얼굴을 희게 하기 위해 썩을 달인 물이나 수세미즙으로 만든 미안수를 바르고 오이꼭지를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꿀 찌꺼기를 얼굴에 발랐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떼어내는, 요즘으로 말하면 팩과 같은 미안법도 있었다니 놀랍죠.

이 밖에도 분·연지·머릿기름 등도 있었습니다.

◎ 옷감을 물들이던 재료는?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식물 염료를 이용하여 옷감을 물들이었습니다. 물감을 만드는 대표적인 식물로는 치자 열매·쪽잎·울금·황벽·황련과 염료 중에서 가장 일찍부터 사용되어 온 잇꽃(홍화)을 들 수 있습니다.

◎ 문관과 무관의 차이점은?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문과에 합격한 사람은 문관이 되고, 무과에 합격한 사람은 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과거에 합격했다라도 문관이 무관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학문을 숭상하던 당시의 인습 때문입니다.

◎ 복조리가 뭐예요?

복조리는 그 해의 행복을 쌀알과 같이 일어 들이려는 소박한 희망이 담겨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에는 반드시 1년 동안 쓸 만큼의 복조리를 사서 방이나 대청 한 귀퉁이에 걸어 놓고 썼습니다.

◎ 치약이 없던 시절에는 무엇으로 양치를 했을까?

옛날에는 물론 치약이 없었습니다. 이 때에는 고운 소금이나 굵은 소금, 또는 고운 모래를 손가락에 문혀 이를 문질러 닦았습니다. 이를 닦은 다음에는 물론 입안을 헹궜지요.

◎ 집의 넓이를 재던 '칸'은?

칸은 건물의 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옛날 가옥은 집주인의 벼슬이나 신분에 따라 집을 지을 수 있는 칸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벼슬이 높아도 99칸 이상의 집은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담뱃대 길이는 곧 신분?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담뱃대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양반 계층의 담뱃대는 아주 길어서 앉아서 담배를 피울 때는 담뱃대를 땅에 닿게 하고 피워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짧은 담뱃대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얼음을 만들었을까?

냉장고가 없던 옛날 한여름에도 우리 조상들은 얼음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군요. 그 비결인즉 겨울에 얼음을 두텁게 열려 잘라서 빙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꺼내 먹는 것이었죠. 빙고는 나라에서 관리했으며 벼슬이 높은 관리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기도 했대요. 경주 석빙고가 유명하며, 서울에는 동빙고와 서빙고에 얼음을 저장했습니다.

◎심청이가 받은 공양미 삼백석은 몇가마?

섬은 곡식을 갈무리하는데 쓰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가마니가 나오기 전까지 곡식의 양을 셈하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두 가마를 한 섬으로 계산했으니까 정답은 600가마겠죠?

◎왼새끼와 오른새끼의 차이점은?

두 가닥의 벼짚을 양손바닥으로 비벼서 새끼를 꼰 때 오른손을 바깥으로, 왼손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꼬면 왼새끼가 됩니다. 보통은 오른새끼를 사용했지만 신성한 곳이나 아기를 낳았을 때 치는 금줄은 반드시 왼새끼를 사용했습니다. 왼새끼에는 악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모시란?

모싯대의 껍질을 벗겨 실을 만들고, 그 실로 천을 짜서 만든 모시옷은 통풍이 잘 되어 여름철에 입으면 매우 시원합니다. 실을 얼마나 가늘게 하여 옷을

짜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모시옷이 있으며, 세모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늘고 얇은 모시로 짠 옷입니다. 특히 한산 지방의 세모시가 유명합니다.

◎ 신분에 따라 타는 가마도 달랐어요.

연, 가교 - 왕

덩 - 왕비 · 공주나 옹주

평교자 - 종1품 이상의 관리

사인교 - 판서

초헌 - 종2품 이상의 관리

남녀 - 3품 관리

장보교 - 벼슬이 낮은 관리

◎ 옛날에는 환자를 어떻게 진맥했을까?

옛날에는 남녀의 구별이 엄격하여 귀부인이 아파도 직접 손목을 잡고 진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명주실을 귀부인의 손목에 감고 의원은 명주실의 반대쪽 끝을 잡은채 방문 밖에서 진맥을 했습니다.

◎ 사물놀이란?

패고리 · 징 · 장구 · 북 네 가지 농악기로 연주하도록 만든 음악 또는 이 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사물놀이는 가락이 흥겨워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 처용무에 얽힌 사연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병을 내리는 역신이 처용의 부인을 탐내어 사람으로 변하여 몰래 부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때 밖에서 돌아 온 처용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물러나자 역신은 그의 인품에 감동하여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어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당신의 모습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때 처용이 춘춤을 처용무라고 하며, 처용이 부른 노래를 처용가라고 합니다.

◎ 탈놀이의 유래

탈놀이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본래의 얼굴과는 다른 인물이나 신으로 분장하여 연출하는 연극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탈을 만들어 온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 탈놀이의 역사도 무척 오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대사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 추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농경생활을 하며 모여 살게 되면서 마을이나 고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즐기는 놀이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대사가 있고 줄거리가 있는 탈놀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양반 계층에게 억눌려 있던 서민 계층이 자신들의 한과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탈놀이를 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민화 속에 담긴 상징

민화는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민화에 그려진 자연 현상이나 동물·산신·풍습·인물 등은 그린 사람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화에 그려진 해·구름·달·바위 등 자연 현상이나 물체는 불로장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룡·백호·주작·현무·기린·봉황 등은 나쁜 귀신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산신이나 사자·닭·개 등은 수호신을 상징하며, 신선이나 도연명·이태백 등의 그림은 부귀영화와 아들을 많이 낳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단군이나 용왕도는 우리 민족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상징이며, 임경업 장군이나 관운장을 그린 그림은 부부간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이 밖에도 민화는 다양한 상징을 통해 사람들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 토 문 예

◆ 시 편

1. 산골의 겨울
2. 늦은 밤거리 풍경
3. 아내의 봄
4. 농심-IMF그늘
5. 맑음
6. 처음과 끝 그리고
7. 개미
8. 여름비

◆ 거리시화전

◆ 수필

1. 이 풍진 세상을 살자면
2. 자존심과 술꾼 이야기
3. 청산을 지척에 느끼며
4. 지필 지교를 나누며
5. 선생님
6. 생활 속에서
7. 만해시인학교

산골의 겨울

한 용 운

세월에 갇힌
빈 하늘 자락만 어루 만지며
찬 바람에도
별별 떨고 서 있는
해 그림자

하얀 소복 손 끝에
차가운 냉기를 감아쥐고
서럽게 목 놓아 우는
나뭇 가지들

해가 가고
또 달이 가는
설한의 밤이 지났어도
그해 봄 해동일 때까지
눈 속에 묻혀 있는
먼 산골은 죽은 듯
하얀 눈 속에 누워 있었다.

늦은 밤거리 풍경

한 용 운

은행나무 잎들 나뒹구는
늦은 저녁
한산한 거리에
하루 지친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간다

길 건너 찻집에서
흘러간 노랫가락이 들려 오지만
창문 안에는
눈 꺼풀 감기는 줄음이 깜박거리고

갯 빛 어둠
홀로 서성일 때

소음속 소음이 잠드는
작은 골목길

아직 교태를 휘젓는
바람 가랭이 사이에서
주정뱅이만 휘청 거린다.

아내의 봄

한 용 운

셋노란 민들레 꽃잎 속에는
하늘빛이 파랗게 숨 쉬고
봄바람에 눈 뜨는
엷은 햇살 속에서도
항시 웃고 있는
그 얼굴

따뜻한 체온 같이 느끼는
삶의 하루 힘 겨워도
어제같이 또 하루를 기다린다고 해도
아직 남아 있는
봄날의 여심이여

설한의 긴 겨울 속에
깊이 감추었던
내 고백 한줄
눈 감아도 아른 거리는
그림자 같은 그리운 당신이었오.

농심 - IMF 그늘 -

한 용 은

말 못할 사연
응얼진 한을 품고
떠나가 버린 농심

뭉은 텃밭에 바람이 주저 앉아
빈 물레만 돌리는
돌 냇물소리

무심한 그리움의 한 옆구리가
저러오는 아픔도 잊은 듯
날마다 소란스럽게 지저귀는
까마귀 울음소리

그해 봄 여름이 다 지나도록
허전한 시간 위에서 헤메도는
빈 집 그 고요
산 처럼 길길이 쌓이는 그 두께가
갈수록 깊어만 가는데

땡벌에 한풀꺾인 가을 빛은
어느새 시들어 버린 땡대밭에 앉아
한숨만 하얗게 뻗고 있었다.

맑 음

김 규 중

파아란 하늘 흰 구름 흐르는 소리
해당화 뿌리 내리는 소리
솔나무 송화가루 날리는 소리
버들치 물 먹는 소리
제비 한 쌍 새끼 키우는 소리
송아지 푸른 들 뛰는 소리
봉선화 씨 터뜨리는 소리
우리 강아지 집 지키는 소리
아내 접시 깨는 소리
저녁놀 영그는 소리
팔분의 육박자 소리……

처음과 끝 그리고

김 규 중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힘찬 기적에 놀란 기차는
눈을 비비며
자리를 털고 일어 난다
머물려 몸부림 치기도
떠남의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지만

길들여진
씨커스단의 코끼리인냥
기적에 맞추어
손싸래 질을 하며 떠난다.
하지만
없어지는 꽃감을 안타까워 하면서
어김없이 그 자리에 돌아온다
그리고.

개미

김 규 중

지난 겨울 털어내고
먹이 찾아 나선 개미

따가운 햇살을 피하여
머무른 자리
그 자리는
개미귀신집이 였네
바알발
기어오르려는 개미

개미야 개미야
뭐하니

여름비

용대초등학교 4학년 김성환
(용대3리 김창욱씨 자녀)

여름비는 성난 비
장마질 땀 모든 걸
쓸어가지요.

여름비는 좋은 비
뜨끈뜨끈 땅 속을
적셔주지요.

여름비는 변덕쟁이
병주고 약주니까요.



제4회
거리시화전
작품

2000년 11월

백담천

강재연

백담천 서린 정기
깊은 음으로 노래하고

오월의 버들꽃
눈송이로 날리던 날

여울진 맑은 물에
노니는 열목어들

석양에 먹이 찾아
꼬리치고 뛰어 오르는

그 모습 보기 좋아
오늘도
넷가에 섰네.

근황

구 상

내 마음의 눈에 끼어 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이제사 나는 천지 조화에
비로소 눈을 뜬다

그저 무심히 보아오던
만물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

또한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게 아니라
나 역시 공으로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예전이나 매 한가지지만

눈멀었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한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비와 기적 아닌 것이
온 누리, 온 세상
하나도 없다.

깨끼

고 중 영

구름산 어깨 짊고 오신 초사흘 달님은
지난달 보름께 꺼정도 만삭이더니
어느 영산회 정음(正音)듣고
산고(産苦) 치룬 뒷 탈
씻은 듯이 다듬었음이노

고식책(姑息策)도 모르시는 우리 달님
살구 색깔 어여쁘신 손톱 팔호 태반을
하늘 춤춤 별각기 편종소리로
가득히 채워 드리면
이달 보름께 지나 또 산고 들겠네

징검다리

권 준 호

더 이상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안개 속에서도 길이 보인다
안개 속 여정 뒤에
다시 모두 무엇이 된다
무엇이 된 그 목숨 무거워
뚝 떨어지면 세상이라는 돌덩이 위
안개 속에 들리는 세찬 물소리
또 하나의 징검돌을 건넌을 뿐이다.

구름의 그림자

기 정 순

봄 물에 젖은
구름 한 자락
산 허리에
제 그림자를 부려 놓는다
고갯마루 지나
무지개빛 너른 바다
너도 가고
나 또한 가야하는 길
어디인가
저무는 해를 보며
그림자
한 그루의 나무 되어
바람에 흔들린다

바람되어 가겠습니다

길 건 영

떠나야 할 길이기에 조용히 가겠습니다
숲 속을 지나는 달빛같이
눈물이 날 것같아 뒤돌아보지 않으며 가겠습니다
곳곳에 묻어두었던 정이 피어나더라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는

그리워질 것이라고
보고 싶어질 것이라고
몸태질이 일렁이어도
들어내지 않겠습니다

남몰래 흠친 푸른하늘 마음에 담고
바람되어 있는 듯 없이 가겠습니다.

광판리

김 금 분

뚝방길 따라
달 하나 지나가고
첫사랑 남아있다

들풀, 들꽃, 들소녀
팔봉강 맑은 물로 자랐다

뒷산 나무 굽어다
저녁 연기 오르던 마을
새벽까지 따스한 구들에서
온화하던 가난의 웃음

지금은 나누어 주는
나의 재산은
그때 그곳의 미움함 뿐이다.

10월

김 생 수

나뭇가지에
어여뻐 물들은 자취 하나가
팔~랑
세월의 실체를 드러내자

열반으로 통하는 길 하나
눈부시게 펼쳐진다

환히 열린 그 길을
너도 나도
팔~랑 팔~랑
기꺼이 나부껴가는 순응의 몸짓들

떠나는 길 환호하는 빈 가지에
가을은 금빛살로 풀어지고
눈부신 말쑥들이 햇살 속에
곰곰이 곰곰이 반짝인다.

그곳에 가야 합니다

김 신 향

살다가

바깥바람이 그리워 목이 마른 어느 날
강 건너 소리가 머리맡에서 자리 펼 때
그 곳은 천상의 어머니가 들림한 길로

세상에 燈이 잠들고

아침이 먼 꿈 속으로 꺼져가면서
뒤섞였던 것이 모여 하나의 삶으로 길어져
서쪽 해만 비추는 별빛

꽃 한송이 따서 가슴 위에 눕히고

산길 앞세운 숨관 묻으며
몽친 기억이 용서되는 하늘 사이로
아름다운 영원을 여는 사람

수정같이 맑은 냇 한점 슬픔이어도

자유로운 새가 되어 날아
에덴의 섬 그 곳에 가야합니다.

통일을 부르는 눈물

- 8.15 이산가족상봉을 보며

김 윤 호

오십여년 만에
부둥켜안은 혈육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랴

한강도 울고
대동강도 울고
뜨거운 눈물이
불타는 용광로 되어
미움의 철조망을 녹이고 있다

칠천만 동포여
통일을 부르는
저 피 맺힌 눈물을 보아라
누가 그들을 갈라놓았는가

목놓아 우는 몸부림이
한 바탕 해방춤 될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리라.

물안개 피는 날

김 은 숙

행여나
있었는가 생각조차
두렵더니

먼
시간의 흐름 속
당신은 추가 되어

산다는
이렇게 산다는
하루가 열리고

물안개 피는 숨소리
회억의 언덕에는

싸늘하게 가버린
너와 나의 젊은 초상

켜켜로 시린 생채기
봄은 거기 있는데.

전이(轉移)

김 학 철

꽃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로 오라
꽃은 내 안에서 피어나고
향기는 온 몸에 감돌아 감미로운데
그대가 던지고 가는 말 한마디
꽃으로 피어 내 안에 자라는데
평화롭게 숨쉬는 메아리 되어
내 안에 맴도는데
꽃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로 오라.

흔들리며 피는 꽃

도 종 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났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변두리에 내리는 비

문 경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데요 그대가 가는 거데요

생각도 나의 소유가 아니군요
잠시 열어주는 당신일 뿐

그리하여 나는 변두리서 살고
그대는 나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것이데요
남대천으로 모여가는 빗줄기가 다 모이네요

아, 지루한 장마 비여.

고향생각

민 영

여기서 북쪽으로 천리를 가면
검은 강물 한 줄기 소리 없이 흐르고
우뚱우뚱 거친 산 솟아 있는 곳
그 산밑이 내 고향 마을이라네.

참슬 같던 젊은이들 총 맞아 죽고
꽃다운 흙어미들 지쳐 잠든 곳
불에 탄 집터마다 쑥대풀 서걱이고
도깨비불 밤이면 펄럭인다네.

젓더미에 흩어진 뼈 벌레 되어 우나니
예 살던 살붙이들 어디로 갔나?
내가 자라 길 떠난 뿌리의 고살
이 세상 일 마치거든 돌아가려네.

그네

박 기 동

내가 올라타고
내 몸의 무게로 나를 밀어 올리면
이리 저리 흔들리다가

밀려오는 파도 한 자락도 바다이듯이
박차고 흔들리며 날아오르면 하늘이듯이

일순 나는 지옥으로부터 천당으로

바다 깊이 들어가 곧추 서있는 물고기를 만났다
하늘 높이 올라가 앉지 않고 날기만 하는 독수리를 만났다

내 몸으로 나를 밀어 올려
이리 저리 흔들리다가
땅에 내려서서도 일렁이는
그네를 다시 잡다.

백운리

박 남 권

백운리 겨울 들어서면
새떼 새떼들
해마다의 가을 덮은 물빛 우수를 물고와
마음 위에 흐르는 보리밭을 날개로 덮는다

날개 하나 퍼득일 공간
결눈 한 번 꺾벽일 순간 이 도시엔 없어
이 도시 떠나 백운리
보리밭 그 푸른 바람이 되는 우수
백운리를 부르는 파도소리
새들의 날개소리
날개 위엔 언제나 은빛 별들이 쏟아져
구름의 물비늘을 일으키고
구름의 물비늘을 일으키고
하늘은 잠을 못자게 한다.

사랑의 침묵

박 노 해

너에게도 세월이 지나갔구나
꽃들은 어둠 속에 소리 없이 지고

내 사랑하는 것들은 말이 없고
내 사랑하는 여자도 말이 없고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을 하다가 쓰러져
흰 눈 쓴 겨울 사내로 말이 없고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듯
진실로 사랑하는 가슴은
너무 많은 말과 너무 많은 사연과
너무 많은 눈물이 있어
사랑은 말없이 흘러가는 것

그래도 꼭 한마디 품고 가야 할 말이 있어
나 이렇게 새벽 강가에서
사랑의 침묵을 듣고 있을 뿐

가을 경춘선

박 성 호

세월이 멈춰졌으면
한번쯤은
멈춰진 세월 속
風景처럼
머무는 나무이고 싶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흐르는 강물이
어리석은 사랑처럼
깊어지고,
무심코 지나온 언덕의
終着驛에서
내가
노을진 사랑으로 내려
내 숲이 되는 것을 보았다.

강릉에는

박 영 희

하늘을 사모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애무하는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에 일렁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 사로잡힌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을 찾아나선, 또 하나의 당신이 있습니다.

홍시

박 유 석

노을을
피 마시고

노을을
피 마시고

노을이 된
홍시

하늘

박종숙

비워두자
다가가서 안길 수 있는 자리만큼
채울 수 있게

사랑하자
잡목사이로 어지럽게 깔렸던
목신은 떠나고
서창에 비치는 노을
뜨겁게 물들 수 있게

빛이 되자
사라지지 않을 꿈
차마 잊을까 두려워
영혼을 사르는 별이 되자

다시 만나서 기쁜 것은

박종화

그래, 다시 만나서 기쁜 것은
그때 당신이 깊게 심어논
바보처럼 따뜻한 사랑의 그 눈빛
내내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돌아서는 당신의 뒷모습이
당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태산이 무너져 내려도
천둥 비바람
그 누가 뭐라해도
끄떡 않을 당신의 당당한
큰 사랑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늘은

배 동 욱

하늘이 가네
구름 그냥 놔두고
떠나고 있네
바람에 밀려
구름이 간다지만
이 가을 오늘은
하늘이 대신 가네
바람은 바람대로
낙엽만 날리네

그림

배 명 식

내 눈 속에
티가 들어와
눈물 쏟는
순간에도

그대의
날마다 다가오는
자태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대는 눈뜨나 감으나
나의
그림입니다.

풀들이

석 화

풀들이
별다른 이름을 더 가지지 않은
풀들이
아침이슬 한방울에도
어깨도 휘청거리는 풀들이
여리고 작은 손들을 서로 잡고
저기 하늘과 맞닿은 곳까지
파랗게 달려가는
풀들이
토끼와 염소와 송아지를 키우는
풀들이
쭈라기와 백악기
그 거대한 몸집의 공룡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한
풀들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풀들.

그리움

성 희 직

겨울강변
미루나무 꼭대기
이미 오랜 전에 온기 잃은
빈 까치집 하나

뽕뽕 언 강물 위로
바람은 떼를 지어 몰려 다니고
밤마다
미루나무는
좋았던 시절 되새김질하며
발가벗은 알몸으로
뺨속까지 시린 그리움에 떨고 있는데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돌아올까
반가운 까치 소리.

부량사 수국꽃을 무량하며

송 세 희

얼마나 실눈썹 여미었기에
보름 오르는 눈빛인가.
푸른사리
시리게 핀 건
쪽빛 탕일 게다.

水佛아, 水佛아
하늘입술이 고운 건
백마흔 어린 탕일 게다.

달빛 木琴 켜는 밤이면
‘부량사’ 좌불경소리에
꽃문이 열린다.

사람도 티끌도 꽃잎처럼 바람되고,
단청도 바람된다는.

‘부량사 수국꽃아.’

가을 여행

송 현 정

내가 가을을 지나쳐 갈 때
쑥부쟁이와 벼집 몇 단이
논두렁과 밭두렁까지 따라와 주었다.

속 비우고 찾아 나선 숲이나 들 끝에
내 눈 귀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
가을은 들끓고 있었지만
파주군 마장리에서나
장흥의 예뻛골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떡갈나무 잔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는 놀릴 수 없는 수레바퀴의 삶이며
바람이 할퀴고 간 풍차의 날개에서도
내 몸 속 계절병은 도져 있었고
가랑잎 보다 더 마른 몸으로 날리던 내가
말라버린 개울에서 침병대거나
내 뒷머리에서
그리움의 종기로 곱아 있었다.

돌아와 마주앉은 아침 식탁에서
아이들의 힘찬 젓가락질로
가을 대궁을 집어내고
수돗물조차 가을을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밀취둔 설거지를 끝내면
벽마다 탈 바가지를 걸어 놓아야지
뒤란에는 통장작도 준비해 두어야지
가을 여행의 기관차와 수레 바퀴에다
이것들을 매달아 주어야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 자궁 속에 자리 틀고 있는 가을을
바람 자는 들녘으로 출산하려면
나는 또 떠날 채비를 서둘러야 겠다.

力學 · 1

신 세 훈

깊은 잠 속에서
영혼의 아이는 깨어 울고
추운 울음은
여름꽃 나뭇가지에 매달린다.
봄철로 돌아가는
나뭇잎의 예감,
여름내내 숨어살던
눈송이가 떨어진다.

새

원 태 경

슬픔은 눈으로 모여
가슴으로 간다
눈물은 눈물 그 자체로
너무 외로워
두 줄로 함께 흐르는 뜨거운 강물이다
눈물 속에는 새가 산다
고래보다 큰 새가 울고 있다
입술에는 초록의 영혼을 물고

낙시 배에서

유 영 애

안개 낀
소리산 어깨 위로
한줄기 햇빛 내리고
세태에 출렁이는 물결
거칠어 간다

오랜 기다림
작은 만족
등대 지나 우럭 낚시터에서
시간 낚고
마음의 묵은 때
토해내는 사람들

아득한 수평선 너머
황혼이 물들어 올때면
바다에 흩어진 노을 모아
만선의 고깃배 들어온다

웅장한 일출만큼이나
가슴 벅찬 일몰의 빛깔을
성실한 삶 마무리하는 그 뿌듯함
그래서 더 서러운 황혼.

사람

유 태 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차암 마음에 듭니다
어여쁜 모습이
그러나 하는 맵시
마음에 들 듯
마음에 드는 사람은 참 마음에 듭니다.

동강은 흐른다

윤 수 아

새벽잠에서 깨어난 비오리
풀꽃잎새에 매달린 이슬을
쫓고 있다

생명을 움푹우는
5원의 동강

파랑새 바위를 지나
자갈여울 타고 흐르던 물살
섬새에 소용돌이 친다

누가 동강을 가두려 하는가

물그림자 타고 번지는 햇살
아라리가락에
동강은 흐른다.

눈길

윤 용 선

눈길을 간다
차거운 솔바람
푸득푸득 일으키며
고향을 간다
아득한 별판 숲으로
어린새 한 마리
찌룩찌룩 울다가
소리도 형체도
모두 고즈넉한 하늘
아득히 파묻히고
기다리는 마음이
바랜 옷자락 펄럭이며
길을 간다
누구라 고운 가슴마다
그리움의 불을 당기고
가다가 얼핏 눈물날
뜨거운 길을 간다.

가을

이 복 실

빨강 무지개색
노랑 단풍잎
화장끼 없는 소박한 미소
수줍어 고개숙인 잎 파랑이 위에
가을 낮빛 뜨거운 포옹을 한다

한여름 숨이차 떠날 수 없던 여인
계절의 뒤뜰에 서서 후회말고
가슴 열고 산책 나온
남성의 품에 안겨
설레이는 마음 풀어 놓고

당신이 범할 수 없는
첫입술
선분홍색 허리 휘어감어
낙엽 하늘하늘 내려앉은 소로길로
발가벗은 가을 바람 잔설을 불러
임이 되어 오세요.

加里山을 보며

이 무 상

맑은 날이면 보이는
구름 끝 산
암내 난 짐승의 음부같은
야릇한 바위가 우뚝 솟았다.

加里산이라 했다
삶은 계란의 지혜로
얻은
명당의 자손이
漢의 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의 산
한사군 때 한의 속현이었던
춘천 낙락(樂浪)에
어느 귀인(貴人)쯤 되었을 한총(漢塚)이
한총(漢塚)이 되고 또
신성한 묘역이 되어
아들 못 낳는 아낙
장가 못간 총각이
다투어 벌초한다는
예사롭지 않은 전설의 산
맑은 날이면 보이는
구름 끝 산.

컵라면

이 영 춘

오글오글한
머리들이 모여 있다
혹은 웃는 듯도 하고
혹은 우는 듯도 한
그 얼굴들은
마치 내 동생이
직공 생활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마치던
마산 어느 공단의 여공들 얼굴 같아서
감히 나는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목 줄기가 라면처럼 배배 꼬여진다

마치 내 동생의
피와 살이
내 건강한 폐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가을 장미

이 윤 정

귀뚜라미가 서러움을 풀어놓는 계절에서야
전신부종을 풀고 나온 널 보고 있으면
난 기도보다 간절한 침묵으로
너를 맞이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 뒷면을 돌아가보면
왜 아픔이 함께 숨쉬고 있는 걸까?
너는 오기랴 사이로 날카로운 가시를
내비치는구나

오래 침묵해 온 너의 눈빛은
입보다 더 간절한 말을 하고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너의 타는 눈빛 앞에서 돌멩이들은
빛을 잃고 저만큼 물러나 앉고
가을 풀들은 낮게 엎드린다.

춘천(春川)

이 은 무

안개의
깊은
자궁 속에서
잠이 드는
아이

안개의
가랑이 사이로
태어나는
아이

녀석의
이름은 春川이오
어느
시인의
아들詩이었소

꿈꾸는 密語

이 지 영

붉은 사과
녹즙에 섞이고 싶어
죽음과 입맞춘다
단칼에 중심이 열리고
흰 속살에 박혀있던
씨방 속 까만 씨앗들이 단꿈에서 깬다

성숙의 열매가 영글어 온
밑어의 기억들을 그는 알고 있다
폭풍우 휘몰아 치고
사십도의 햇살이 잎을 태워
수많은 손길을 거쳐온 자옥들

숨가쁘게 살아온 세월
너의 존재는 無다
죽음으로 완성될 뿐
우리는 죽어가는 시간 안에 있다
죽어갈 시간 속에서 산다

지치도록 꿈을 꾸건 無心이야
차갑게 메스를 든 폭력자 앞에
斷罪를 기다리는 붉은 사과

지우려 합니다

이 호 근

이제는 어제의 괴로움을 지우려합니다
뜻모를 욕망이
내 앞에 다가선 향그러운 인연들을
내 영혼이 부서지는 아픔의 조각으로
한줌의 물거품 속에
떠 있지 않을까 두렵기에
침묵으로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그대에게 뉘일길이 없는 작은 자존심 하나로
사랑이 그리움으로 가는 길목에
내가 서 있기에
밀려드는 저 강물의 평온에
가슴 깊이 소용돌이치는 욕망을
노을의 창가에 앉아 미소짓듯이
그대 향한 그리움 하나
침묵의 강물에 띄워보내며
이제는
어제의 그리움을 지우려 합니다.

봄비 오는 4월에

정 공 채

오늘밤 봄비가 4월을 적신다
나직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릴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밤 봄비가 마음을 적신다

오늘밤 귀가하면 나도 젖으리
봄비가 오는 4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大地도 젖어서 꽃을 피우는 봄밤에
한번쯤 두사람도 가만히 젖읍시다

봄비 오는 4월에…… 감사합니다.

쭈을 캐며 · 1

정 글

쭈 캐러가요
봄날 쇠똥 냄새 맡으며
풀잎 사이를 비집고 돌아나는
고향을 캐러가요
날 가슴에 묻고 꺼내지 못하는
그대 마음을 캐러가요
오갈데 없는 내 정이 출렁대며
細雨에 힘 얻어 훌쩍 큰
풀잎들 젖히고 그대 가슴처럼 탕탕한
쭈들을 꺾어요
먼 산 참꽃들 보다
오히려 그대를 사랑이라 부르며
쭈을 캐요. 봄을 뽑아요.

나이테

조 규 영

지나면 잊을까봐
꼭꼭 챙겨 그려놨다

볼펜도 지우개
그런거는 없어도

나무는 자기 나이를
몸 속에다 적었다.

2000년 9월

주 정 연

한겨울 단칸방에
새우잠 자던 여늬 식솔들
옷목에 얼어죽고 아랫목에 타죽는다더니
북녘인민 굶어 탈이요
남녘졸부들 먹어서 뒤탈입네

손톱 밑에 비접는 저 옛날,
콩보리 밥사발 들고 이 집 또 저 집
이웃집 점심상 기웃대던 동네 과수덕
곰삭은 황서리젓갈에 군침이 돌아
뒤니 뒤니 해도
밥은 문달아 먹는 맛이라고,

더운 이 밥에 기름진 고기국도
이녘 부엌간엔 시들거니
흰저고리 무색치마에 코고무신 나뭇나뭇
사립문 밀고 오시게 어여,
꽃나물 감자밥이면 어쩔라든가
맨발에 빈 손이면 또 어쩔라든가
흰나비 너울너울 토담넘듯이
그리운 인정풍정 안고 이고 되오시게 어여,

가을비

차 영 주

빗소리로 휩쓸려가는
깊어가는 사랑의 고도
가을의 열병에 비가 내린다.
이름없는 들풀에도
눈물 얼룩진 생명의 색깔에도
그렇게 춤을 춤다

기다린 목마름의 삶 속에
후드득 문을 열기 시작한다
집 모퉁이에서 비와 나의 사랑
오랜 시간을 더불어 지낸다

돌담 기어오르던 여름의 화려한 꽃들도
꽃입술 꼭 다문채 텅 빈 바람 속으로
붉은 눈물 흘뿌리나
시나브로 젖어든 나의 옷자락
슬프지 않을 만큼 머무른 지난 세월
잊혀진 물레 속에 영상처럼 흘러들어온다

멀리 그대가 보일 만큼
가을비 내리운다.

초롱꽃

채 정 은

아침 햇살이 싸-악, 그림자가 비껴간다

아하,

일어서면 길은 저만치 가네

손짓하니 두 손을 들어 반기는 나무들의 성찬,

돌아보면

어느 새 등 뒤로 다가오는데

서정이 일어서는 목도의 바다 위에

작은 숲이 있어 잔잔한 미소를 머금네

그곳에 너의 싱긋한 미소 있어

두근대는 가슴

아- 동쪽 맑은 시내 갈대 숲

햇빛들이 두런대는 그곳에 꽃이 피네.

삶

최 병 두

구름이 일면 비가 오더라
비가 오면 물이 불고
물이 넘으면 강이 넘치고
강이 넘치면 독이 무너지고
독이 무너지자 모두가 잠기더라

잠기는 것들의 키를 재고
강둑을 쌓고
강물을 줄이고
비를 그치게 하는
견훤 구름의 하이얀 침묵

누가 부리던 구름이더냐
구름 가고 다시 안 오면 날이 가물어

날이 가물면 땅이 마르고
목마른 들판에 물길은 줄어
메마른 강둑에 불타는 발길
타는 발길에 몸도 마음도 모두 불태우더니

타는 발걸음 적서

산골 아이

최 복 형

산골 아이
네 마음이
곱고 아름다운 것은,

산새와 노래하고
다람쥐와 경주하며
살기 때문이야.

산골 아이
네 마음이
맑고 푸른 것은,

옹달샘 먹고
푸른 산 숨결 먹고
살기 때문이야.

너, 머릿빛 눈동자 산골 아이는.

압록강

최 종 남

교과서에서만 들었던
수풍뎀 찾아간 날
날이 흐렸다.

다리도 동강나고
마음도 끊어진 채
압록강은 말이 없는데

라고소 우리촌 반점에서
통소주 몇 잔 들이킨 가슴
후끈거려 배타고 가까이 다가가
여보쇼, 불러보아도
강 건너 삭주 사람 본척만척
눈시울만 젖어오는데

돌아서는 마음 안타까워
안경을 벗었다 썼다
이윽고 비가 내렸다.

눈물을 보면 눈물이 난다

허 림

X-Ray 사진 속에 담겨있는 가슴은 앙상한 뼈의 구조물이다 까만 어둠이다 사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내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확인서이다 의사의 말대로 나는 살아있고 아파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그 속에 숨을 불어넣는다

눈물을 보면 가슴이 보인다
참을 수 없어 가벼워지는 슬픔
안으로만 감싸 안으려는 가슴을 열고 있다

X-Ray가 감지하지 못한 길 끝 문간에 매달린 전등이 어둠안에서 자라고 죽순처럼 돌아나 푸른빛을 비칠 때 민들레 꽃씨처럼 홀가분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주어진다면.
눈물을 보면 눈물이 난다.

이 풍진 세상을 살자면



한 응 운

사람이 운명적으로 어찌다가 이 풍진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한 평생을 자기의 분수만큼 그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에 그에 비례해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 여겨진다.

오늘의 이 시대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존엄성은 오로지 그 사고(思考)하는 생각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찍이 독일의 그 유명한 “하이네”같은 시인은 말하기를 ‘나의 이 작은 몸 하나 그 자체는 곧 기쁨이요, 노래이며, 또한 검(劍)이다. 그리고 불꽃이다.’ 라고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하겠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성공과 실패와 몰락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으로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밖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내가 이처럼 살아 있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경탄이라 할 것이다. 지금 내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를 놓고 그 앞에서 헐벗고, 또 굶주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의지에 의한 실천력 부족 때문에 자기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고가 있어야 한다.

또 한마디로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정의 우월감, 그로 인한 그 어떤 특권 의식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시대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한 것이다.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천애의 고아라고 한 말이 기억되듯이 자기의 인간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창조, 재창조하면서 살아 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깨닫고 느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든지 아니면 의식하지 않든지간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닌 상태, 그 이상으로 부끄러운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든지간에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일은 하지 아니함만 못하고,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말은 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옳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한 평생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위로는 가히 하늘을 높이 섬길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또한 아래로는 가히 한 가정을 귀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재화와 근심 걱정거리와 그 자신을 망치고 일가(一家)를 뒤엎는 죄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비밀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하고 결과에 나타날 잘못을 살피게 될 때 좋은 결과를 얻고,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바로 잡으며, 그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잘못하는 일은 의리를 범하는 잘못이 여섯 가지요, 약속을 범하는 잘못이 네 가지요, 그리고 몸가짐을 잘못하는 것이 다섯 가지나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의리를 범하는 잘못은 온갖 더러운 말과 언행으로 놀이를 즐기는 것이

그 한도가 없는 것이고, 이웃과의 평소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쉽게 원한을 품고 싸우고, 소송하는 것이고, 셋째는 평소의 행실이 인간의 법도에 많이 어긋나는 것이고, 넷째는 항상 평소 사용하고 있는 말이 참되고 미덥지 못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사회를 경영함이 매우 심한 것이고, 여섯째는 사시우상과 이단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잘못된 첫째, 옳은 일을 서로 권장치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잘못을 서로 바로 잡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예의바른 풍습을 서로 교류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어려운 일을 서로 구제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몸가짐을 닦지 않는 잘못된 첫째, 좋은 사람을 사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떠돌아 다니고 놀며 배움을 게을리 하는 것이고, 셋째는 행동에 예의가 없는 것이고, 넷째는 일에 임하여 참가하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재물 쓰는 정도가 절도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남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자기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것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된다.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옷을 입고, 음식을 섭취하는데 필요한 재물은 다 덧없는 망상과 헛된 꽃과도 같은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옷이란 것은 비단옷이라고 하더라도 입으면 결국 헤어지고 음식은 또 먹게되면 쉬 식고, 재물은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면 마침내는 그 자손대에서 허비하거나 탕진하여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진 재물을 오직 어려운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이웃에게 다소라도 나누어주는 것은 그들의 생활과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고맙게 느끼는 부분이 베푸는 자의 후대에 가서라도 복으로 나타난다는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람은 자고로 검소하고 근검하는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힘쓰고, 참되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덕성을 기르고, 인간다운 행실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아홉 가지 생각을 하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물을 볼 때에는 밝은 것을, 들을 때는 총명한 것을, 항상 얼굴은 온화한 것을, 태도는 공손한 것을, 말은 늘 참된 것을, 의문은 물을 것을, 그리고 답을 얻을 것을, 분(憤)할 때는 어려운 일을, 얻을 때는 옳은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을 참으로 보람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남자는 여색을, 여자는 남색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해야 하고, 장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 어떤 다툼이라도 싸움을 삼가고, 늙었을 때에는 재물을 잘 지키고 보존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일찍이 옛 어른들이 일러 오기를 “勤儉恒養 忠恕養德 道德爲綱 九思三戒”라 하지 않던가?

꽃밭을 가꾸고 화초를 아름답게 잘 키우려면 그 화단에 즐비하게 나는 잡초를 모조리 솥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잡초들을 아낌없이 노력을 들여 뽑아 버려야 좋은 꽃과 열매를 얻는 법이다.

나는 오늘에 이르는 세월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양도, 빛도 없이 하나의 보잘것 없는 티끌같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오면서도 뭐인가 버린다고 하는 것을 손해 본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그에 대하여 이로움을 얻는다는 철학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자위해 보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른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 자기 몸을 잘 보존하고, 평생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일에 정진하고, 재능과 재질에 알맞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고, 어떠한 일든지 질투나 시기를 내지 말고, 또한 작은 일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 풍진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자존심과 술꾼 이야기

한 용 운

자기 몸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을 가리켜 자존심이라 한다. 사람의 자존심은 명예가 그 첫째요, 그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것 같다.

남자의 자존심은 어디까지나 양 볼 사이에 있는 코에 있다고 예전부터 일컬어 오지 않던가? 실은 그보다도 더 큰 남자의 자존심은 사람의 양다리 사이에 뭔가 큼직하게 달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 달려있는 물건이 크냐 적으냐(?)도 문제지만 기능대로 남자의 구실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야기 할 때 자존심을 들먹거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술꾼들의 자존심은 어떤 것일까?

이는 술 마시는 꾀들의 각양 각색의 취향과 습관, 그리고 인간성 등에 의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

소위 “홍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들이 술만 마시면 얼굴 색이 유난히 홍시처럼 붉어지는 사람을 일컬어 온 것이 아니겠는가? 심지어 얼굴은 물론 온몸 전체가 붉어지는 위인을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위인 가운데는 이른바 고작 또는 고낙이라는 코끝이 붉다 못해 한껏 붉어진 딸기코를 일컫는데, 알코올 중독증자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백작”이라는 술꾼도 있다고 한다. 이런 위인 역시 술만 마시면 무조건적 얼굴색이 백지처럼 창백해지는 형이다. 술을 마시고 또 마실수록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하얗게 변하는 분류인데, 아마 몸이 안 좋아

서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무작”이라는 위인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술을 제아무리 마셔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술이 강하면 두주불사형일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술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놈의 원수 같은 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세상을 하직할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공작”이라는 술꾼도 있다. 술이란 것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번은 사고, 한 번은 상대로 하여금 얻어 마시게 하면서 살아야 옳다.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도 좋고, 분위기도 자기 중심이어서 기분내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술값을 내야 하겠지만, 전혀 남의 형편을 고려하지도 않고 유독 남의 술만 공짜로 얻어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공작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끝으로 “왕작”이라는 술꾼이야기도 있는 것이다. 이는 부담 없이 흥금을 털어놓고 어우러져서 마음 내키는대로 마시는 술꾼들을 왕작이라고 한다. 기분 나는대로 상대와 번갈아 오가면서 술자리도 바꾸며 마시는 술로, 술값은 제가 먼저 내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1차, 2차로는 안되고, 3차, 4차를 거치고, 그리고도 무엇이 부족한지 마지막으로 딱 한잔으로 입가심을 하겠다는 주당파이기도 하다.

이런 취객이 되면은 어김없이 이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한밤중 취객을 상대로 하여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아리랑치기배와 꽃뱀족들이라 하겠다.

이 아리랑치기배는 한밤 중 시내의 으스스한 골목이거나 포장마차 주변, 인적이 드문 공원 주변, 정류장 부근 등에서 취객을 기다리다가 그런 취객이 나타나면은 취객의 양 옆구리를 끼고는

“형님!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셨습니까?”

“.....”

“이쁜 영계가 기다리는 호텔로 모실까요?”

“.....”

밤 늦은 시간에 간혹 지나가는 행인이 나타날 것 같으면 같은 취객의 일행처럼 술 취한 시늉을 하면서 제법 기분 좋게 부르는 것이 아리랑의 한 곡조인 것이다.

컴컴한 골목으로 끌고 가서는 어김없이 주머니 안의 돈과 시계, 반지 등을 순식간에 강탈해 가는 것이다. 또 이들 취객 앞에 짙은 화장을 한 직업 여성들이 나타나서는 갖은 교태와 애교로 취객 옆에 붙어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이런 꽃뱀 앞에 어느 취객인들 넘어가지 않는 술꾼이 있겠는가?

남자 취객은 더러는 꼭 개와 같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주당들 사이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 정겨울 수도 있고, 한스러울 수도 있고 애환이 담긴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술꾼들 사이에서 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일도(一盜)란 것이다. 이는 몰래 술을 훔쳐 먹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요즈음도 직장 내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 중인데도 동료나 직장 상사의 눈을 몰래 피해 슬금슬금 직장 밖으로 빠져 나가서 킬킬한 목을 축이는 부류가 있는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나서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갈 무렵이면 미안한 기색도 없이 불그스름한 얼굴을 해가지고 애써 은단이거나 껌을 씹으며 나타났다가는 금새 어디론가 사라지는 암체 술꾼 말이다.

또 이기(二妓)란 술법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가씨가 있는 술집이거나 호젓한 방석집에서 반나에 가까운 아가씨의 서비스를 받으며, 호쾌한 노랫가락이며, 젓가락 장단에다 지저분한 Y담, X담으로 질퍽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삼과(三寡)란 것이 있는데, 10대 및 20대의 여성과 같이 술 마시는 술맛은 별로 흥미롭지 못하지만 30대의 여성은 바야흐로 황금기의 여성으로 그 취흥이 께창고 40대의 여성은 우아하고, 마치 꽃이 찬란하게 핀 성숙된 여인으로 나이도 지긋하여 모성애적 완숙의 경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의 술과 풍류는 가히 압권이라 하겠다. 요즈음은 고급 요정이나 그럴듯한 술집에 가봐도 그전같이 가무와 풍류를 겸비한

기생이 어디 있겠는가?

시(詩)와 창(唱), 그리고 거문고와 장구에 맞춘 멋과 기예, 또 지조를 두루 갖춘 명기들을 상기해 봄직도 하다고 하겠다.

옛 문헌에도 지조를 갖춘 기녀들을 일컬어 해어화(解語花)라 하여, 말이 서로 통하는 꽃 중의 꽃이라 부르며, 매우 존중해 왔었던 것이다.

그 유명한 기생들 중에 황진이, 계월향, 논개, 홍장, 춘절, 이매장, 애장, 김섬, 연홍 같은 기녀들은 한결같이 천한 기적에 올라 있으면서도 시와 창에 능했고,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스스로 목숨을 초개같이 불살라 버리지 아니 했던가?

외롭고 기나긴 밤 입을 향한 정한 마음을 한켜씩 뜯어내는 천연한 여심, 여심이여!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이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얼은님 오시는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찌리라

오죽하면 평안감사로 부임해가던 백호 임제가 황진이 무덤을 찾아가 눈물을 뿌리는 안타까움을 하소연 했으리요.

정초우거진 골에 지난다 누웠난다
홍안은 어디가고 백골만 누웠는가
잔 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청산을 지척에 느끼며



문 부 자

자연의 품에서 청산을 지척에 느끼며 바람과 구름과 또한 풀과 나무들의 소리를 공감한다. 그런 자연이 주는 한없는 베품과 삶의 지혜를 가슴으로 키우며 순일한 삶을 살아간다.

시골 생활의 무료함과 도시의 발전하는 삶의 대열에 방관자적 소외감으로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지만 시골에서의 흥가분한 삶이 소유로 부터 자유로워지며 몸과 마음이 안으로 맑아진다. 이래서 도시 사람들이 하나 둘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골 생활을 외로움을 무릅쓰고 감행하나 보다.

철따라 옷을 바꿔 입는 바라다 보이는 산과 앞강이 내 집 정원이듯 마음으로 소유한들 누가 탓하며 맑은 하늘 큰 가슴으로 품은 들 걸릴 것이 무엇이겠는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이웃이 그만 그만하고 도시에서의 과소비로 생활기준이 모호해지는 눈 어지러움도 없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그 또한 자유스럽다. 좋은 건 사람뿐이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매미나 파리, 모기 조차 도시에 비유할 수 없이 그 크기가 커 쳐다보고 한참 웃기도 했다. 자연으로부터 무상으로 혜택받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나 동물이나 동질감을 느껴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여름 서울에서 휴가차 내려 온 딸네 식구가 보기에 도 불쌍해 보이는 털 빠진 강이지를 동반해 왔다. 애완견 코난은 아파트 생활이 적응이 안돼 감기와 소화불량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피부병까지 겹쳤고 가축병원 응급실까지 이용할 정도로 보살피는 딸네를 힘들게 했다.

동물병원은 의료보험 적용도 안돼 그 비용이 만만치않아 누구에게 선뜻

내 줄 수도 없다며 강아지 소지품과 집까지 싸들고 와 나를 당혹하게 했다.

애완견 키우는 일은 위생상 좋지 않을 뿐더러 부지런을 떨어야 하고 번잡스럽기도 하다. 이젠 나이 먹어가며 모든 존재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버리며 편해지고 싶은데 끊임없는 애착과 수고를 요구하는 애완견 기르기를 강요받았으니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딸네가 떠난 후 나는 강아지와의 인연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며 점점 고갈되어 가는 잔정도 생산해 가며 코난에게 정성을 주기로 마음을 바꿨다.

정을 주고 관심을 가지며 들길을 산책하며 사랑을 받는 코난은 영리해서 말귀도 잘 알아 듣는다. 달을 바꿔가며 나날이 목소리에 힘을 더해가고 윤기 있는 털로 제 모양새를 갖추어가는 코난의 모습이 신기하고 놀라워 최상의 환경이 인간 못지않게 동물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에 새삼 실감한다.

요즘 인간의 욕심은 한계를 넘어 보는 즐거움을 위해 개 목욕시키고 털 깎고 옷 입히고 소유하며 길들이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한다. 자유로운 개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니 개들의 생에 인간들이 우를 범하고 있거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개들은 개답게 살기를 원할 것이기에...

하지만 어찌랴! 동생이 없어 외롭다고 아빠가 구해다 준 제 동생을 두고 간다며 울며 떠난 손주 놈이 매일 시외전화로 코난의 문안을 잊지 않고 있는 한 나는 어쩔수 없이 코난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괴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때론 편해지고 싶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줄 것이냐고 항의를 하지만 나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코난은 나에게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므로 댓가 없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친다. 미워해도 곁에 있기를 원하며 가까이 와 기대며 따뜻한 감정의 체온을 전한다.

우리는 어차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모두가 더불어 생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늘이 푸르다. 천고마비 호시절에 코난과 나 또한 더불어 심신이 살찌고 있으니 조화로운 자연에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지필 지교를 나누며

문 부 자

요즈음 좀 갖추고 사는 집에 가보면 집분위기를 살려 붓글씨 한 두점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잘 정리된 거실에 품위있는 서체로 벽면을 장식하고 있으면 집주인의 정서적인 인품이 돋보인듯 하여 서예 취미를 가지고 있는 나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어느 분이 쓴 글씨일까. 얼마나 오랜 세월 지필묵과 함께 했기에 저토록 자유 자재한 필체로 힘을 실어 용필(用筆)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서예를 배우기 위해 붓을 든지 어언 오륙년이 되고 보니 필획의 어려움과 붓놀림의 자유로부터 편해질 수 있는 길이 요원한 일이어서 언젠가는 나도 때가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세월을 붓과 노닐고 있다.

나이 耳順에 접어들며 내 무엇에 그리 마음을 뺏기리오만은 붓글씨를 취미로 하며 마음자리를 낮게 낮게 가라앉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정겨웁게 보이고 뒤늦은 열정도 가지게 됐다.

붓을 들면 많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나를 다스리는 일이 수월해 어떤 목적 의식보다 쓰는 자체로도 적지 않은 즐거움을 가진다.

처음 문화학교가 문을 열며 많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예교실에 입문했는데 긴 세월 먹물과 싸워야 하는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는 무던한 인내심과 결과를 예감하지 않는 지순한 사람들만 남아 서예동호인으로 지필지교(知筆之敎)를 나누며 인생을 논하기도 하니 어찌 글씨 쓰는 재미만 남겠는가.

그로 인한 만남도 소중한 나이는 층층이지만 터놓고 마음을 나누며 인생을 함께 하는 지인으로 남아 마음에 양식을 주고 받는다.

나이들어 가며 여름날 소나기가 퍼붓고 지나간 들판처럼 나에게서 세월이란 시간들이 빠져 나간 자리가 허망하기 이룰데 없다. 그 빈가슴을 무엇으로 메꿀것인가 하여 늘 갈급함을 감출 길 없는 삶의 공간에 자리를 잡게 한 것이 서예와의 만남이다.

언제나 붓을 들면 세월이 멈춰선 곳에서 사색하는 나를 만난다.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近墨者黑)지만 검은 색은 모든 색을 수용, 집약적인 색이기에 墨색이 내포하는 의미는 사뭇 깊고 순수하다.

붓글을 쓸땐 우선 정좌하고 자리에 앉아 진중하게 먹을 갈면 먹과 화선지가 만나 미묘한 침윤(浸潤)이 이루어지고 은은한 묵향을 품어대 마음이 잔잔해진다. 호흡을 조절하고 가슴과 손목이 합일이 되어 한획, 한획 그을땐 세상 근심 걱정 모두 잊고 몰아예 경지에 이르게 돼 삶과 묵향이 우주 일체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다를바 없어 인고의 일점과 희망의 일획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보다. 생각을 모아 바로 보면 그대로 공부요, 삶임을 서예를 배우며 또 한번 생각하게 된다.

어차피 삶이란 즐겁든 괴로웁든 살아가며 흘러 버리고 마는 회한이 있기 마련이 아닌가.

아직은 힘있는 작품 한점 운필하지 못하고 임시로 마음을 붓끝에 담은 열치기이지만 먼 훗날 명필가도 꿈꾸어 보며 인서구로(人書俱老)하여 붓과 함께 하며 노년을 다스리는 삶으로 갈무리 하고 싶다.

선생님

정 균

선생님 건강하신지요?

요즘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 어느 땐 겨울이 다간 끝자락처럼 따뜻하다가도 갑자기 목도리며 두툼한 옷차림에도 몸이 움추러드는 때서운 겨울날씨로 변하곤 합니다. 선생님을 뵈지도 어언 삼 십년이 넘은 것 같으니 바람결에 지난 듯한 세월이 아쉽고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맘먹고 찾아뵈려면 못할 것도 없었겠지만 그냥 그냥 미룬 것이 세 번이나 강산을 변하게 했으니 선생님께선 참으로 무심한 제자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변했다 해도 이따금 선생님 생각을 하면 금새 시공을 초월해 전 어느새 뼈격거리는 의자에 줄줄이 희고 누런 네모난 도시락을 이고 있는 구공탄 난로와 김치국물이 타들어 가는 정겨운 내음 속 교실에 선생님과 마주하고 앉은 까무잡잡한 조그만 중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선생님은 단순히 스승이라기보다는 부모요, 집안 큰형님같은 엄한 존재로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며 보살피주신 인자함으로 제 머릿속 깊게 각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나이 육십을 바라보는 손자를 둔 할아버지임에도 선생님 앞에선 똑바로 설 수밖에 없는 근엄하시며 푸근함이 숨어있는 존경스러운 선생님 앞 중학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교육환경 그릇지 않게 변화했습니다만 요즈음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가치관의 혼돈과 자기중심적 이기심 팽배로 인해 땅에 떨어져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중심에서 학교교육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스승에 대한 패

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사제간의 지식을 팔고 산다는 상업적 의식에서 자신의 인생에 상당한 부분을 부모와 함께 영향을 주는 결코 잊지 못할 은혜로운 분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어야겠습니다.

선생님! 어느새 한해를 접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시대가 다가오면 무엇인가 크게 달라질 것 같고 전혀 다른 세계라도 도래 할 것같이 온 세상이 북세풍을 치며 밀레니엄 해맞이 안해서 남들 다받는 복 우리만 놓치는 것 같이 식구와 함께 새벽 동해안을 찾았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여기 끝마루에서 뒤돌아보니 그 길이 그 길인 것을...

역시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환경과 우연이 대신하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합니다. 선생님 부디 건강하시고 가까운 시일 안에 꼭 찾아 뵙겠습니다.

2000년 12월 강원도 인제에서 정균 올림

생활 속에서

용대2리 최영희(정태현회원 아내)

3,4살 두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가끔 어른들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그 능력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능력 중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개발해서 미래에 그 일을 하며 살아가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는 내 딸들이 남자들과 다르게 자라길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남자처럼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소꿉놀이나 유모차 인형놀이같은 장난감만 사주게 됩니다. 며칠전 첫 애한테 로봇을 사주었는데 다들 ‘여자애가 무슨 로봇장난감이냐’ 라는 반응입니다.

여자애가 옷을 벗으면 창피한 것이고, 남자애들은 벗어도 됩니다. 공차기 놀이를 하면 여자애한테는 응원이나 하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들 알게 모르게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습니다 라는 고정관념을 생활 속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이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안 일도 가끔 남자들 도움이 필요하곤 하는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들이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된 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능력에 차이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즐겁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만해시인학교



김 신 향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잠 설치며 기루었던 님, 백담사

이천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에서 제 4회 만해시인학교와 제 2회 만해축전이 열렸다. 강원일보사와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하고 민족작가회의 강원지회 주관으로 올해도, 민족의 님인 만해시인을 좋아하고 만해 선사의 민족정신의 울림으로 그 얼을 기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300여명 참여한 만큼,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날 밤, 사십 평생 여행 짐 꾸리기는 처음으로 곱게 봉숭아 물들인 손톱을 짧게 다듬어 무색 메니큐어를 칠하고 발톱도 깨끗이 손질하며, 들어갔다 나갔다 내일 있을 백담사 행사에 혼자 마음 설레어 마치 사랑하는 님

을 만나러 가는 양 잠을 설쳤다.

이튿 날, 준비를 마치고 같이 동행해야 할 사람을 기다리며 어린아이처럼 빨리 백담사에 가고 싶은 마음에 휴대폰을 몇 번이나 했다. 그때마다 연휴 절정기라 길이 엄청 막힌다는 거였다. 나는 무한정 지루하게 기다릴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어젯밤 그렇게도 기루었던 님, 백담사로 향했다.

입구에는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가 하면 셔틀버스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선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친분 있는 사람을 그 앞에서 만나 승용차로 절까지 들어갔다. 산세가 굽어 돌아 난간을 종횡으로 막아놓은 나무토막이 운치를 더하고, 철철이 오고 가는 발길 사연, 앞뒤가 띄워 나(?) 만큼이나 맑고 산뜻한 빛을 발했다. 우거진 초목이 하늘을 가려 마치 굴같은 미로의 계곡 길을 그 우거진 숲 만큼이나 초목마음으로 하나되어 오르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고 신선이 따로 없었다. 저만치 강원민족작가회의 이상국 지회장님을 비롯 김창균 사무국장, 박기동 교수님 그 외 여러 시인들의 풍경이 한편의 수필로 읽혀졌다. 반가움에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3박 4일간 있을 행사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을 말없는 가운데 주고받으며, 주지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그 자리를 떴다.

2회째 만해시인학교에 참석했을 때에 만해연구원과 만해교육관 건립 공사중이라 군데군데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완공되어 주변환경이 말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다. 당일 오후 3시, 입교식이 거행되었다. 백담사 큰스님으로 계시는 무산 조오현 스님을 위시하여 득우 주지스님, 고은 대회장님, 신경림 만해시인학교 교장선생님, 민영 축전시인학교 교감선생님, 이문구 민족문화작가회의 이사장님, 조동령 만선회 사무총장님 등 많은 관계자 분, 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서막이 올랐다.

때를 같이해, 백담사 농암장실에서는 걸레 중광스님의 선화전시회가 열리고, 만해 기념관에서는 봉문 정덕교 초대사진전이 함께 풍성하게 전시되고 있었다.

저녁 공양 후, 나한전에서 만해축전 전야제 풍물패 갯마당이 펼쳐졌다. 불꽃이 하늘 높이 빛을 뿌려 별을 수놓은 환상의 밤이었다. 모기, 날벌레가 옷 입은 위로 팔을 깨물고 목을 깨물고 다리를 깨물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해 옮겨 앉으면서 모두들 하나로 호흡을 맞춰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시간이었다. 주지스님이 특별히 배려한 간식으로 찢 옥수수를 먹으며 밤이 깊어 가는지 모른 채, 그 향기로운 정서에 취해 너도나도 뜨겁게 가슴 밝혀들었다.

시마가 끼어 가슴 어디에선가 말을 걸어

명상을 피워 올리는 계곡물소리 따라 눈을 뜬 둘째날 새벽 다섯시.

세안 후 식당으로 향했다. 아침준비가 한창인 보살님들에게 도우미로 온 사람이라며 인사를 건넸다. 혼자 식사당번이 되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밥이 모자르면 더 가져와야 하고, 미역국도 모자르면 더 퍼 날라야 하고 그 외 반찬은 물론 부족한 식판까지 챙겨다 놓아야 하며, 깨끗이 씻기지 않아 밥풀찌꺼기 있는 식판도 다시 설거지해서 갖다 놓아야 하고, 식탁도 청결 유지 차원에서 깨끗이 치워야 했다. 전날 음식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와 낭비라는 보살님 말에 중간 중간 학생들에게 협조문을 구하기도 했다.

“학생들, 적당량의 반찬만 담아 가세요” 또는 “알맞은 양만큼만 반찬을 뜨세요, 도와주세요” 나중엔 몸과 마음이 지쳐 밥맛이 없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아침 일곱시. 허리까지 빼근했다.

다시 산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는 만해교육장으로 갔다. 오전 내내 시창작 강의를 들으면서 즐기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졸음을 쫓는 말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시는 사랑이다, 서정은 애정이다, 시마가 끼어 가슴 어디에선가 말을 걸고 있다. 모든 사물에 애정이 있을 때 마음으로 소리를 볼 수 있다, 깊이

가슴 때리는 말로 공감어 갔다.

점심 생각이 없고 덤기도 해서 한 시인과 교육관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한 교수님이 그때까지 주무시다 방에서 나오셨다. 나는 아침 점심을 다 굶으신 것 같길래 마침 금방 찢 감자가 있어서 드시겠냐며 말을 건넸더니 그런 것 안먹는다는 거였다. 평소 말씀이 없어서 무척 어려워했는데 그렇게 한마디로 거절을 하시니 무안해 마음이 상심되었다. 내향적이라 말도 못하고 혼자 저쪽 나무밑에 가서 울었다.

오후 3시, 만해축전 입재식이 일제히 거행되었다. 신흥사 어린이집 원장 이명우(가수)님의 진행으로 개회선언을 필두로 삼귀의례, 환영사, 대회사, 치사, 축사로 이어져 님의 침묵 연주와 불교 합창이 있었으며 찬불가를 끝으로 식을 마쳤다.

바로 3박 4일 행사 중 가장 하이라이트인 만해시상식이, 그 어느 상보다도 의미 깊은 상인만큼 화려하게 막이 올랐다. 만해 실천상, 만해 평화상, 만해 시문학상, 만해 학술상, 만해 예술상, 만해 포교상 등 여섯분의 수상자들에게는 더없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 만해 축전 전국고교생 백일장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만해 축전상 외 시부문, 시조부문, 산문부문의 대상 등 시상이 있는 다음 고교생들은 그날 그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향했다.

저녁 무렵, 백담의 소리와 춤이라는 주제하에 한국문화제 보호 공연단의 예술공연이 펼쳐졌다. 사물놀이와 부채춤, 장고춤, 대금, 가야금 등에 향연이 밤 산사의 공기만큼이나 시원스럽게 때론 애잔하게 산사 돌레를 에워쌌다. 또한 아미타 무용단의 시심작불 공연도 밤하늘에 연꽃무늬를 그리며 아름답게 올려 퍼졌다.

만해와 하나로 오른 공중 줄타기

예불 목탁 소리에 안개가 천지를 감고 올라가는 셋째날 아침.

피곤을 무릎쓰고 여섯시에 기상했다. 뺏속까지 시린 냉물에 땀내나는 머리를 감고는 곧장 식당으로 갔다. 기관지가 약해서 편도선이 설까봐 미역국을 먼저 뜨끈하게 한그릇 퍼먹고는 주방일을 시작했다. 떡밥 질까봐 주걱으로 밥을 저으며 감자 두부국, 반찬 등을 담고 날으며 그 열기에 무더운 날씨까지 겹쳐, 불쾌지수가 팍팍 오를 정도로 더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하는 기쁜 마음에 더위를 잊곤 했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니 여덟시가 넘어갔다.

얼른 교육관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에 발길을 산방으로 돌렸다. 방으로 들어서자 피곤한지 하품이 늘어지게 났다. 잠깐 눈만 붙였다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만 잠이 들었다. 얼마 후 깨어보니 열시쯤 됐을까, 안도현 시인의 “시인과의 대화” 순서가 다 끝날 시간이 된 것이었다. 부지런히 농암장실로 들어섰지만 시인과의 시간은 이미 끝나버렸다. 잠이 미웠다.

다음 프로그램 순서는 한 문학박사의 작가와의 시간이었다. 학창시절 백번이상 백일장에 나갔지만 한번도 상을 타 본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말이 글을 쓰는 우리들에겐 큰 위안으로 힘이 되었다.

이어서 불교의 개혁정신과 만해의 개혁정신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10분 휴식 후, 시조문학 심포지움이 열렸다. 21세기 현대시조와 새로운 서정이란 테마로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오고 갔다. 곧바로 만해학 심포지움 시간으로 오늘의 강연은 모두 끝을 맺었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다. 나는 얼마나 옥수수가 먹고 싶었는지 연거푸 옥수수를 2통 먹은지라 입맛이 없어 저녁을 포기한 채 혼자 개울가로 갔다. 자갈 위에 손수건을 깔고 앉아 양말을 벗고 물 속에 발을 담그었다. 찬기가 서서히 몸 위로 오르자 잠시 무아경에 이르렀다.

물기 묻은 맨발을 털며 나만의 시탑을 쌓아올렸다.

사실은 백담사 올때부터 몇번이고 마음은 강물에 발을 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그 소원을 풀음이랄까. 아침엔 바깥고 낮엔 뜨겁고 저녁이나 밤이 되어야 발을 담글 수 있는데, 밤엔 나가고 싶어도 딱히 같이 나갈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보다 같이 나가자고 말할 주변머리도 없고, 혼자서 무

쉽고 한편으론, 매일 아침 식사 당번이라서 일찍일찍 취침해야 했다. 참으로 낭만이 죽은 나날이었다.

저녁 공양이 끝나고 줄타기 광대공연이 펼쳐졌다. 한시간 동안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공중모기는 한마디 표현으로 예술이었다. 쉬엄쉬엄 창소리 대사도 읊어가며 갈채를 받는 줄타기는 달빛아래 그 고조를 더해갔다.

덥다는 말조차 하기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무더운 한 여름 밤. 공중 줄타기 모습은 더위를 식히는 재미도 있었지만 한편, 18세 나이로 저렇게 어려운 모기를 한다는 것이 못내 애석하기도 했다. 그렇게 그 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뜨거운 기운이 어찌면 만해 선사의 민족정신과 하나로 공중을 울렸을 것이다.

무대를 옮겨 마지막 밤을 내설악 어둠과 별과 물소리와 함께, 그리운 50년 만남을 앞에 두고 통일기원 불꽃놀이가 힘차게 펼쳐졌다. 시낭송, 장기자랑에 이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촛불 축제가 어우러진 흥겨운 자리였다. 밤바람도 신명나고 풀벌레도 춤을 추고 물소리도 신이 나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한마당 잔치였다.

3박 4일의 만남을 한 송이 접시꽃으로 피워낸 추억

밤새 시계 대신 휴대폰을 켜가며 기계처럼 다섯시에 일어난 마지막 날 푸른 새벽. 무겁게 내리누르는 눈꺼풀을 비비며 식당으로 가자, 오늘 아침 공양 준비는 보살님들이 거의 다 마련해놓은지라 간밤에 같이 잠을 잔 신도와 산책길에 나섰다. 탑 위로 흐르는 구름이 무아정적의 참선으로 천지를 깬다. 저절로 오래 살것 같은 마음에 청량한 공기를 코로 숨쉬며 입으로는 산소를 흠뻑 들이 마셨다. 상큼했다.

첫 입새 길에서 대구에서 오셨다는 50대 아주머니를 만났다. 여동생이 시조 시인이라 오래전부터 백담사에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동생을 따라 왔다는 얘기였다. 흠냄새를 맡으며 세 사람이 백담산장 오르는

길에 한 스님을 만나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산새 소리가 이슬같이 맑아 손가락으로 튕기면 툭 튕겨져 나갈것 만 같이 들려 마치 가야금 소리와도 같음이랄까. 만해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3년동안 말 안하고 살 수 있는 사람, 하고 물으시기에 대답하는 사람은 나뿐으로 정말이지 어떨땐 말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한 예로 어느날, 어머니에게 그 말을 꼭 전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사가 걸리지 않는 한 그날밤 이불 속에서 이 말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끝내 입 떼기가 싫어 그냥 잠든 기억들이 있다. 그 정도로 말이 없어 주위에서 병어리가 아니냐는 소리도 듣고 자랐다.

천천히 식당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때가 아침 6시. 공양 시간에 딱 맞추었다. 엿저녁엔 옥수수만 먹고 저녁을 굶은지라 배가 고파, 식당에 들어가 잣죽을 한 손가락씩 떠먹으며 식당일을 열심히 도왔다. 워낙 책임성 있는 성격이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목숨(?)걸고 씻고 닦고 했다. 살갗이 더위 먹었는지 뜨거운 것이 닿아도 감각을 잃을 정도로 땀 뻘뻘 흘리며 일삼매경에 빠졌다.

또한 내가 주방 일을 하는만큼 행사 치르느라 고생하시는 지회장님,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는 두부 반찬을 특별히 내놓기도 했다. 힘든 만큼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오전 8시. 나의 만해축전 체험기, 라는 프로그램 시간이었다.

아침에 두부 반찬까지 드린 교수님의 시간이라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식당일을 접어두고는 소위 미친것처럼 교육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만해시인학교 학생들에게만 백지를 한장씩 나눠주며 자신의 체험기를 쓰라는 거였다.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도위원들은 참석하는게 아닌가 보다, 하며 슬며시 교육관을 빠져 나왔다. 실망을 안은 채.

딱히 할 일이 없어 건너다 보이는 산방으로 가보았다. 세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다. 소리없이 나무 테이블 위에 수박 껍질 등 음식 먹다남은 찌꺼기를 치웠다. 그릇도 챙기며 분리수거도 하며

한쪽에 누워 있는 친분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기도 했다. 냉장고를 열어 보니 음료수가 한 개 남아 있었다. 마침 어제 음료수가 모자라서 한 사람을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 음료수를 주었다. 서로 흐뭇해했다.

오전 9시. 축전 회향식이 시작되었다.

회향사를 비롯 축전시인학교 수료증 증여, 축전시인학교 백일장 시상식에 이어 사홍서원 (도선스님 백담사 선덕)이 있는 후 폐회가 선언됐다.

이윽고 11시 백담사 출발.

만선회 조동령 사무총장께서 마련하신 강원도의 맛 막국수 공양을 마지막 점심으로 들고는 그 자리에서, 3박 4일 만남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됐던 이천년 만해축전의 그 풍요롭고도 화려한 막이 내려졌다.

다함께 이천일년을 약속하며 그간 추억을 한송이 분홍 접시꽃으로 피워냈다.

꽃은 떨어지는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해는 지는 빛이 곱습니다

노래는 목마친 가락이 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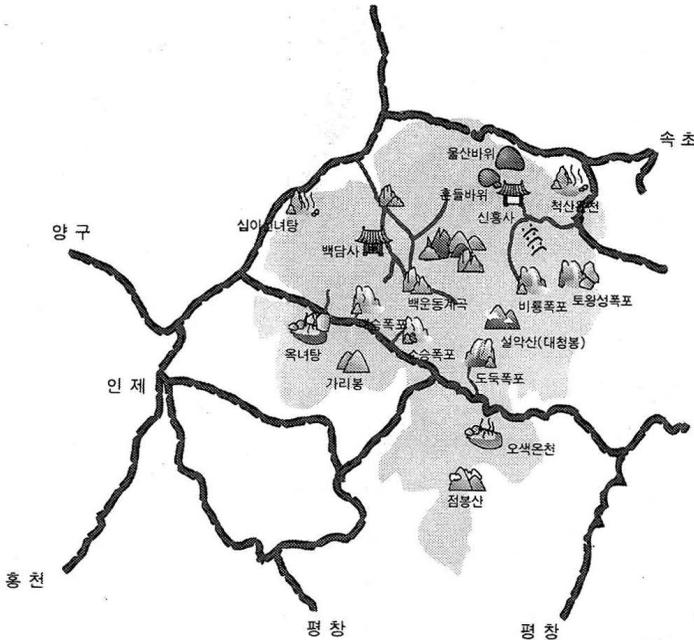
님은 떠날 때의 얼굴이 더욱 어여쁩니다.

걸어나오는 길에, 이렇게 해서 3박 4일의 여정이 끝이 났다는 말을 뱉는 순간 등 뒤로 여름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다.

● 설악산안내도 ●

Guide Map of Inje-gun

계절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파노라마식 절경은 가히 놀랄만하다.
 내설악의 숨은 비경을 구경하고 싶다면 백담사를 지나 수렴동계곡을 거쳐
 오세암에 이르는 등산로를 오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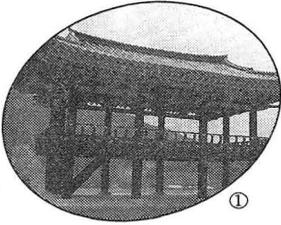


◆ 등산코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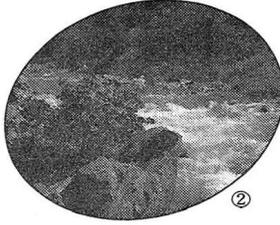
Climbing Courses

- 용대리 → 백담사 → 수렴동대피소 (총 14km 3시간 30분)
- 수렴동 → 오세암 → 마등령 → 비선대 → 신흥사 (총 12km 6시간 10분)
- 수렴동 → 쌍폭 → 봉정암 → 소청봉 → 중청봉 → 대청봉 (총 7km 5시간 10분)
- 백담사 → 흑석동계곡 → 대승령 → 장수대 (총 9.8km 5시간 10분)
- 장수대 → 대승령 → 심이선녀탕 → 남교리 (총 12.8km 7시간 20분)
- 한계령 → 서북능갈림길 → 중청봉 → 대청봉 (총 11km 6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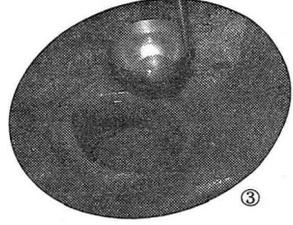
● 인제8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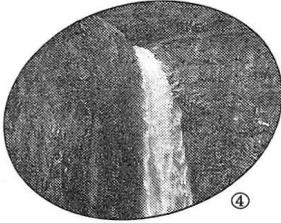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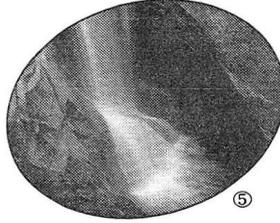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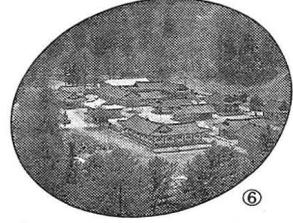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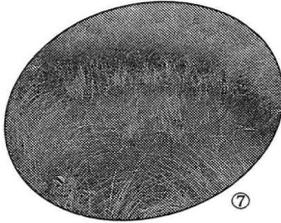
④



⑤



⑥



⑦



⑧

- ① 합강정
- ② 내린천
- ③ 방동약수
- ④ 대승폭포
- ⑤ 십이선녀탕
- ⑥ 백담사
- ⑦ 대암산 용늪
- ⑧ 대청봉

● 인제8경 코스 ●

Inje's Eight Tourist Attraction Courses

- 남교리 → 12선녀탕 → 남교리 → 백담사 → 합강정 → 내린천 → 방동약수 (총 72.7km 8시간 20분)
- 용대리 → 백담사 → 대승폭포 → 장수대 → 내린천 → 방동약수 (총 69.9km 7시간 30분)
- 용대리 → 백담사 → 대청봉 (총 20km 8시간 10분)
- 대청봉 → 한계령 → 방동약수 → 내린천 → 합강정 (총 81.09km 6시간)
- 합강정 → 내린천 → 방동약수 → 한계령 → 대청봉 (총 81.09km 7시간 40분)

● 먹거리 · 살거리 ●

Places for Eating and Shopping

구분	대표 음식	전화번호
삼합식당	한식	033)461-2359
이모식당	한식	033)461-9198
이화가든	한식	033)461-0101
인제갈비	한식	033)461-2593
일미장	한식	033)461-2396
삼진식당	한식	033)462-1202
고려관	한식	033)461-0704
영동식당	한식	033)461-6118
국금가든	한식	033)462-2500
제일회관	한식	033)461-3212
을지회관	한식	033)461-3163
평화식당	한식	033)461-3144
한계식당	한식	033)461-6900
스타월드	경양식	033)461-9330
스카이라운지	경양식	033)462-5551
돌배레스토랑	경양식	033)461-5340
객골유원지	토종닭	033)461-2631
토속마당	낙지, 오리	033)461-4330
한국관	산채정식	033)461-2139
용바위식당	황태정식	033)462-4079
진부령식당	황태정식	033)462-1887
송어의 집	송어회	033)461-3169
일미횃집	송어회	033)462-4178
다정갈비	갈비	033)461-9435
삼호갈비	갈비	033)461-1769
태능갈비	갈비	033)461-3668
한우촌	갈비	033)461-6900
영동갈비	갈비	033)461-6746
군축령 만남의 장	매운탕	033)461-2990
청산반점	중국요리	033)461-5111

토종꿀

구분	전화번호
남면 수산리	033)461-6517
남면 정자리	033)461-6559
북면 한계리	033)461-5845
북면 용대리	033)462-4625
기린면 진동리	033)463-5795
상남면 미산리	033)461-2544

목공예

구분	전화번호
태일목공	033)461-1970
원통공예사	033)461-3175
민예공방	033)461-1323
와촌공예	033)461-8318
전공예연구소	033)461-4141
한일바둑판	033)461-5933
한계공예사	033)461-8602
강원바둑판	033)461-3215
강원공예	033)461-6927
나무랑공예	033)462-7264
인제공예사	033)462-7171
고려공예	033)461-3279
월학공예사	033)462-9434
백담공예	033)461-0377
산경공방	033)462-0633

석공예

구분	전화번호
설악석공예	033)462-0211
대암석공예	033)462-4017
천도석공예	033)462-3292
강원석공예	033)462-9267
설악석공예	033)462-8865

농특산 가공품

구분	주 생산품목	전화번호
인제농협	치커리(볶음, 엑기스, 티백)	033)462-2570
설월농산영농조합	치커리(볶음, 엑기스, 티백), 인진썩류(엑기스, 환, 티백), 칩청, 황기, 산나물, 다루 선물세트	033)461-3996
설악전통식품	치커리(볶음, 엑기스, 티백), 인진썩류, 황태류, 치커리	033)462-3426
내설악전통식품	치커리(볶음, 엑기스, 티백), 인진썩류(엑기스, 환, 티백), 황태류(황태포, 황태채), 냉동찰옥수수	033)462-5906
인제치커리	치커리(볶음, 엑기스, 티백)	033)461-3116
설악치커리	치커리(볶음, 엑기스, 티백)	033)462-3428
인제건강약초	마가루, 황기, 참솔잎가루, 도라지진액, 솔잎환, 인진썩환, 볶음치커리	033)461-5845

구분	주 생산품목	전화번호
에베에셀식품	치커리(볶음, 엑기스, 티백)	033)462-7901
설악토속식품	치커리(볶음, 엑기스, 티백), 인진숙	033)462-6622
내린천종합식품	치커리(볶음, 엑기스, 티백), 인진숙류(엑기스, 환, 티백), 설잎차, 육모초환	033)461-0030
북설악영농조합	황태류(황태포, 황태채), 인진숙류(엑기스, 환, 티백), 도라지환	033)462-5050
장수농수산	붕어엑기스	033)462-0040
명진농장	인진숙류, 산채류, 국수류, 황기, 전통차류(오미자, 당귀 등)	033)461-3763
기린농협	참기름, 들기름, 산나물, 잡곡류, 가루식품류	033)461-5016
인제임협	전통차류(오미자, 당귀 등), 송이	033)461-2023
에텐농산영농조합	썩가루, 한과류	033)462-9911
농본	술순식초	033)461-0865
천혜식품	소스류	033)461-6183

● **머물곳** ● *Places for Lodging*

여관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경동장	461-2181	대성장	461-8167
경진장	461-6691	소원장	461-0621
대도장	461-0555	신일여관	461-6130
동화장	461-2171	상그릴라장	461-8167
고사리여관	461-4586	강원장	461-5924
백약관	462-2328	계림장	461-3607
산성장	461-1651	관동장	461-3043
보경장	461-2526	그린장	462-2606
삼팔여관	461-2539	다솜장	462-7254
스카이라	462-5551	도적산장	462-3355
파라다이스장	462-9898	룩수여관	461-3059
구림장	461-6017	로얄장	461-3363
국제여관	461-6172	목련장	461-9831

구분	전화번호
서호장	461-0202
민예파크	461-9666
부용여관	461-3109
산호장	461-3703
설악여관	461-3020
설악파크	461-1709
신라장	461-0379
킹스톤장	461-1719
용천장	462-1800
태인장	462-3811
다이너스장	462-8668
백담여관	462-6251
그린힐	463-5130
텔리파크	462-6647
경일여관	461-5200
그린장	461-5545
대성여관	461-5666
설악파크	461-6492
영동여관	461-5224
용포여관	462-8914
월선여관	461-5049
궁전여관	462-4216
금강산장	462-2114
금호장	462-4110
대구장여관	462-7332
대도여관	462-4306
대림여관	462-4155
대암여관	462-0436
만경장	462-4135
명성여관	462-4144
목화장	462-1372
문정장	462-4344
문화여관	462-9095

구분	전화번호
미림장	462-4381
서진여관	462-4345
서울여관	462-4031
설악여관	462-4035
신장미여관	462-4094
아세아여관	462-4351
영랑장	462-4231
을지장	462-9939
전주여관	462-4101
프로장	462-9558
한진여관	462-4069
강릉여관	461-6708
원산여관	461-6717
태양여관	461-6725

민박

구분	전화번호
내린천계곡	463-6443
하추리계곡	462-4594
필레계곡	463-1855
고원통계곡	461-0723
장수대	461-4204
백담사	462-6995
미시령계곡	462-5814
십이선녀탕	462-1255
월학리계곡	462-5976
방동계곡	463-5677
진동계곡	463-1029
미산계곡	461-2764
광주동솔밭	462-7159
소양호	461-5925
서흥리계곡	462-6122
구만동계곡	462-6995

인제문화원 임직원



원장 방효정



부원장 최병현



감사 길호섭



감사 김현래



이사 육영숙



이사 김진태



이사 민종식



이사 이상각



이사 안승규



이사 최태운



이사 용수운



이사 최용건



이사 서성호



사무국장 이만철



간사 김연희

인제문화원 회원 현황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한용운	인제읍 상동1리 내설악 APT 102동	461-2623
조해숙	서화면 천도 4/10	462-0337
김신향	북면 원통 2/1 김씨 부띠끄	461-3437
오정진	인제읍 남북 1리	461-2350
한성국	인제읍 남북리 371-8	461-8173
김규중	인제읍 상동 3리 1반	461-2985
이순복	인제읍 상동 4리 낙원 APT 602호	461-1889
손홍기	인제읍 상동 3리 목계장터	462-9627
황민숙	북면 원통 1리 2반 김운홍씨덕	461-8417
박돈구	인제읍 상동 4리 2반	461-2246
이재화	북면 원통리 극동연립 307호	462-3344
이창준	북면 원통리 647번지	461-6859
임동수	북면 원통 4리 3반	461-8001
박현순	북면 원통 3리 4반	461-3133
정 균	북면 원통 4리 5반	462-9999
김정미	인제읍 합강 1리 1반	461-7103
박선임	인제읍 남북리 1/7	461-0580
한순자	인제읍 상동 4리 6반	461-0788
이은복	인제읍 상동 4리 5반	461-2656
최순자	인제읍 덕산리 3반	461-1803
전영진	인제읍 상동 3리 2반	461-2730
허경순	인제읍 상동 4리 7반 낙원 APT 202호	461-2891
박희순	인제읍 상동 4리 5반	461-2954
유금실	인제읍 상동 4리 5반	461-2269
김우진	인제읍 상동 5리 3반	461-6398
송영숙	인제읍 덕산리	461-2956
문부자	서화면 천도 4리 6반	462-4031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순복	인제읍 상동 4리 6반	461-4879
신은희	북면 원통리 설악빌라 B동 101호	462-9178
김혜영	북면 원통리 미진 APT 708호	462-9257
전영옥	인제읍 상동 3리 6반 군인 APT 502호	462-8930
송길숙	인제읍 상동 4리 7반	461-9128
안미영	인제읍 상동 4리 3반	461-2920
김명옥	인제읍 원대리	462-0886
이춘녀	인제읍 상동 4리 7반 낙원 APT 308호	461-0818
최종규	인제읍 남북 2리 6반	461-4997
김혜정	인제읍 상동 5리 5반 극동연립 C동 202호	461-2751
최은희	인제읍 상동리 방림화원	461-4969
이효연	서화면 천도 4리	462-4123
김정례	서화면 천도 2리	462-0077
박광순	서화면 천도 2리 설악빌라	462-9183
함평순	서화면 천도 4리	462-4437
함인자	서화면 천도 2리	462-5106
김향숙	서화면 천도 4리	462-9240
임광준	북면 원통리	461-9984
김향	북면 원통리 고은서예실	462-2435
한상문	인제군청 건축민원	461-2122
임규현	인제군청 건축민원	461-2122
김영옥	북면 원통리	461-5060
방용옥	인제읍 상동 1리 8반 내설악 APT 102동	461-2556
강순자	인제읍 남북 2리 5반 군인관사	461-1853
심계선	북면 원통리	461-3018
최명순	인제읍 상동 4리	461-4370
장선희	인제읍 상동 4리	461-7303
이은경	인제읍 남북리 쌍호 APT	461-6231
소미진	북면 원통리 우진빌라 다동 404호	461-7614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심미향	인제읍 상동 5리 4반	461-1702
어윤희	남면 신남리 대삼 APT 504호	461-1655
정외자	인제읍 상동 2리 6반	461-6435
이영숙	서화면 천도 4리 9반	462-5660
김금희	인제읍 상동리 7반	462-2110
김화자	인제읍 상동 4리 7반 낙월 APT 209호	461-6847
곽희경	남면 신평리 군인 APT 402호	461-6191
김현미	북면 한계 2리 1반	461-4006
강미순	북면 한계 2리 2반	461-9684
박춘희	서화면 서화리 서화 APT B동 307호	462-0130
김종각	인제읍 남북 1리	461-0316
김장현	인제읍 상동 4리	461-9549
차종진	북면 원통 1리	461-2111
김은종	기린면 현리	461-7535
정희은	인제읍 상동 4리	461-2289
이충섭	인제읍 합강 2리	461-5553
이강의	인제읍 상동 5리	462-2879
정을권	기린면 현리	461-3763
김남호	인제읍 합강 2리	461-9488
한순이	인제읍 상동 1리	461-2993
박해운	인제읍 남북 1리	462-0904
박석영	인제읍 남북 2리	461-2296
갈한덕	인제읍 상동 3리	461-2416
신현철	인제읍 덕적리	461-2274
강인석	북면 한계 2리 2반	461-6927
전송규	북면 한계 2리 2반	461-4142
김봉준	서화면 천도리 538-1	462-4017
이운철	인제읍 상동 4리 269-8	461-4050
이정복	북면 한계 2리 2반	461-7750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이 은자	기린면 현1리 2반	461-1230
백창우	서화면 천도 3리	462-0211
황영일	인제읍 귀둔리 산 234	463-0993
황지호	인제읍 귀둔리 산 234	463-0993
남진현	인제읍 가리산리 418번지	463-5325
김두성	인제읍 상동 4리 4반	461-2279
김기호	인제읍 상동 1리 내설악 APT 101	461-2851
김명수	북면 원통리 고려 공예사	461-3279
최태홍	인제읍 덕산리	461-4984
허병도	인제읍 남북 2리 9반	461-8849
김옥준	북면 원통리 영광보일러	461-0440
김종걸	인제읍 덕산리	461-4790
최태석	인제읍 상동 4리 6반	461-4541
최광윤	인제읍 상동 5리	461-2752
김진산	인제읍 덕산리	462-6241
신호산	북면 원통 2리 2반	461-5933
이성복	북면 원통 7리 3반	462-3175
안상규	북면 한계 2리 3반	463-8602
이종혁	서화면 서화리 2반	462-9267
김완수	북면 원통 2리 2반	461-9981
전찬영	북면 원통 7리 2반	461-0319
이원태	인제읍 덕적 1리 1반	462-9434
최천식	서화면 천도 3리	462-1313
정진우	북면 한계 2리 2반	463-2001
김명수	북면 원통 1리 6반	461-3279
전상도	북면 한계 2리 1반	463-8318
김태환	북면 원대 2리	462-0377
박금덕	인제읍 덕적 1리 1반	461-1970
강대영	서화면 천도리 3반	462-3292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이대완	북면 원통 6리 3반	461-8718
김경운	인제읍 상동 3리	461-7854
김광열	인제읍 상동 1리 8반	461-1881
김국련	인제읍 상동 3리 2반	461-4524
김기호	인제읍 상동 1리 내설악 APT 101동	461-2851
갈무만	인제읍 합강 2리 6반	461-2616
김순철	인제읍 상동 2리 7반	461-2930
김장준	인제읍 상동 1리 8반	462-5717
김종호	인제읍 고사리	462-3334
김종희	인제읍 상동 1리 1반	462-0094
김진성	인제읍 상동 4리	
김재완	인제읍 상동 5리	461-5501
박경옥	인제읍 상동 5리	461-4817
박일섭	인제읍 상동 2리 3반	461-2245
박창빈	인제읍 상동 3리 2반	461-2534
백계현	인제읍 상동 1리 8반	461-2375
심영유	인제읍 남북 1리 4반	461-0885
안종우	인제읍 상동 1리 내설악 APT 102동	461-6565
안봉화	인제읍 합강 1리	461-4805
안형석	남면 남전 2리	463-6466
유지녀	인제읍 상동 3리 나래피아노	461-2985
오봉교	인제읍 상동 3반	461-8311
엄문섭	인제읍 상동 3리 3반	461-2339
권원희	인제읍 남북 2리	461-2720
이응식	인제읍 합강 3리 1반	461-0107
이종화	인제읍 상동 3리 2반	461-2439
임대혁	인제읍 상동 4리 7반	461-7157
정광벽	인제읍 상동 3리	461-9596
장현귀	인제읍 상동 4리	461-7209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재홍	인제읍 상동 1리 1반	461-4080
정연근	인제읍 상동 4리 5반	461-2409
최광일	인제읍 상동 3리 3반	461-7064
최영운	인제읍 상동 1리 8반 내 설악 APT 102동	461-2370
하광수	인제읍 남북 2리	461-2039
심재필	인제읍 상동 4리	461-2235
남상묵	인제읍 상동 3리	461-2396

원 고 모 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16집」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소재와 애항심을 담은 옥고를 꾸며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 소재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다. 고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항심을 담은 이야기

라. 경로효친수기 : 효행수기, 사례담

마. 기타 : 옛 사진, 관광사진, 옛 문헌, 사료집, 전설 등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16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접수기간 :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0일까지

3. 접수처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문화원 사무국

TEL (033) 461-6678 FAX (033) 461-0220

편집후기

2000년 한 해가 저문다.

또 다른 새해가 펼쳐질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 고을 인제의 이야기는 빙어축제와 합강문화제 그리고 황태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하여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추억으로 새겨졌다.

새해에도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아름답게 엮어질 것이다.

이 고을을 위하여 땀흘려 일한 많은 분들께 삼가 경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17년여의 세월을 간직한 우리 인제문화원.....

연륜 만큼 더욱 인제다운 문화를 찾고 가꾸며 보존해 나가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나름대로의 정성으로 「인제문화」 제15집을 편집하였다.

부족한 점은 널리 이해를 구하며 새로운 다음해에는 보다 멋진 모습으로 꾸며 보리라 다짐한다.

- 만 철 -

麟蹄文化 第15輯

- 발행인 : 방 효 정
 - 편집인 : 이 만 철
 - 발행처 : 인 제 문 화 원
 - 전 화 : (033) 461-6678
 - 팩 스 : (033) 461-0220
 - 인쇄처 : 태 원 출 판 사
 - 인 쇄 : 2000. 12. 20
 - 발 행 : 2000. 12. 30
-

〈비매품〉

■ 이 책은 국고보조금과 강원문화재단육성 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